

제52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2021년 2월 5일(금요일)

주제: 교육환경 변화와 한국어교육의 미래

주최: 한말연구학회

[제1발표장] <https://zoom.us/j/94430864422?pwd=TDRmMXJZQnI4b1F6YW5kNmhqdzlvdz09>

회의 ID: 944 3086 4422 / 암호: 476415

[제2발표장] <https://us02web.zoom.us/j/85961029731?pwd=U2pQVko0NUNNM2JYdi9JaDU4ejgvQT09>

회의 ID: 859 6102 9731 / 암호: 256306

개회식[제1발표장]		사회 : 윤혜영(한라대)	
10:00 ~ 10:25	회원 입장		
10:25 ~ 10:35	개회사: 김홍범(한말연구학회 회장)		
제1부	<제1 분과> 음운론	<제2 분과> 문법론	
	[제1발표장] 사회 : 김연희(대진대)	[제2발표장] 사회 : 최대회(제주대)	
10:40 ~ 11:10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 발표자: 배영환(제주대) 토론자: 신성철(순천대)	북한 문법 '상토'의 문법범주 연구 발표자: 박효정(연세대) 토론자: 김병건(건국대)	
11:10 ~ 11:40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함흥 지역어를 중심으로- 발표자: 소신애(숭실대) 토론자: 이상신(아주대)	현대 한국어 문법화 연구 발표자: 안신혜(경동대) 토론자: 양세희(우석대)	
점심 : 11:40~12:40			
제2부	특 강	[제1발표장]	사회 : 김홍범(한남대)
12:40 ~ 13:30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와 한국어교육		허용(한국외대)
휴식 : 13:30~13:40			
제3부	<제3 분과> 주제발표	[제1발표장]	사회 : 김용경(경동대)
13:40 ~ 14:20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현재와 미래 발표자: 박석준(배재대)	토론자: 김윤주(한성대)	
14:20 ~ 15:00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의 동향 분석 발표자: 조용준(건국대)	토론자: 김호정(서울대)	
15:00 ~ 15:40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및 쟁점 발표자: 방성원(경희사이버대)	토론자: 김정훈(한양대)	
휴식 : 15:40~15:50			
제4부	<제4 분과> 한국어교육	<제5 분과> 사회언어학	
	[제1발표장] 사회 : 박동근(대진대)	[제2발표장] 사회: 손희연(서울교대)	
15:50 ~ 16:20	한국어 사회표현의 화용적 기능 발표자: 장은경(경희대) 토론자: 전영옥(상명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 방언에 대한 언어태도 발표자: 이정은(성균관대) 토론자: 백승주(전남대)	
16:20 ~ 16:50	형태초점교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정대현(협성대) 토론자: 오재혁(건국대)	장르에 따른 댓글 의사소통 분석 발표자: 신유리(남서울대) 토론자: 공나형(광주교대)	
16:50 ~ 17:20	한국어-아랍어 문법 항목 비교 연구 발표자: 권현숙(경희대) 토론자: 마나르 알사라흐네(국방어학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의 '맞춤법충' 담화 발표자: 유희재(연세대) 토론자: 이대성(국립국어원)	
< 폐회 >			

한 말 연 구 학 회

차 례

【제1부 제1 분과】

배영환(제주대)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	4
신성철(순천대)	토론	17
소신애(숭실대)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	20
이상신(아주대)	토론	41

【제1부 제2 분과】

박효정(연세대)	북한 문법 ‘상토’의 문법 범주 연구	43
김병건(건국대)	토론	57
안신혜(경동대)	현대 한국어 문법화 연구	59
양세희(우석대)	토론	66

【제2부 특강】

허용(한국외대)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와 한국어교육	69
----------	--------------------------	----

【제3부 주제 발표(제3 분과)】

박석준(배재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현재와 미래	96
김윤주(한성대)	토론	106
조용준(건국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의 동향 분석	108
김호정(서울대)	토론	122
방성원(경희사이버대)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및 쟁점	124
김정훈(한양대)	토론	140

【제4부 제4 분과】

장은경(경희대)	한국어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	143
전영옥(상명대)	토론	158
정대현(협성대)	형태초점교수 연구의 현황과 전망	160
오재혁(건국대)	토론	171
권현숙(경희대)	한국어-아랍어 문법 항목 비교 연구	172
마나르 알사라흐네 (국방어학원)	토론	193

【제4부 제5 분과】

이정은(성균관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 방언에 대한 언어태도	196
백승주(전남대)	토론	206
신유리(남서울대)	장르에 따른 댓글 의사소통 분석	207
공나형(광주교대)	토론	221
유희재(연세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의 ‘맞춤법총’ 담화	223
이대성(국립국어원)	토론	239

제1부 <제1 분과>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 -연간 자료를 중심으로-

배영환(제주대학교)

차례

1. 서론
2. 왕실 여성 연간의 현황과 특징
3.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
4. 구개음화 확산에 대한 해석
5. 결론

1. 서론

본고는 왕실 여성의 연간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을 통해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을 고찰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왕실 여성 연간이란 연간의 발신자와 수신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왕이나 왕비, 공주, 상궁 등 왕실 구성원인 편지를 말하는데¹⁾, 본고에서의 왕실 여성 연간은 발신자가 왕비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들 왕실의 비빈은 본래 사대부가에서 태어나서 후일 가례를 통해 왕실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출신지 측면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출신지는 본래 사가였지만 왕실의 일원이 되면서 최상층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적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최상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왕실의 언어는 지역적으로는 중부방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언어학적으로는 당시의 최상층의 언어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언어는 분명 일반 사대부가의 언어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왕실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 변화에서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언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거의 없다.²⁾ 특히 왕실 여성의 언어는 왕실 남성, 즉 왕의 언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언어 변화, 지역에서 시작된 구개음화에 대한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왕실 여성의 언어의 모습의 일단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국어 음운사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구개음화 현상이었다. 구개음화에 대한 연구는 여느 어떠한 음운사적 문제보다도 많이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구개음화는 i, y 앞에서 $c > ㅈ$ 나 $t > ㅊ$ 로 대표되는 음운 현상이다. 이들은 대체로 남부 방언에서 시작되어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말에서 $c > ㅈ$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은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알

1) 이종덕(2005:1) 참조.

2) 왕실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려졌다.³⁾ 다만 지역인 전파 양상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계층적인 전파 양상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왕실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밝힌 논의는 더더욱 드물다.⁴⁾ 특히, 아직까지 왕실 여성에 나타난 구개음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왕실 여성이 남긴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어 변화의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균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점에서 언간은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언간은 발신자가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언어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상층 계층인 조선 시대 왕실 여성 언간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면서 구개음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즉, 지역적으로는 중부방언권이면서 계층적으로 최상층, 그리고 여성의 언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왕실 여성이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다면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왕실 여성 언간의 현황과 특징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왕실 여성 언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⁶⁾

<표-1 왕실 여성의 언간 현황>

구분	건수	비고
장렬왕후	4	
인선왕후	69	
명성왕후	4	
인현왕후	5	
정순왕후	16	
순원왕후	62	
신정왕후	6	
효정왕후	5	궁인 대필
철인왕후	2	궁인 대필
명성황후	139	
순명효황후	10	
계	322	

3)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77:64) 참조.

4) 이러한 논의에는 김주필(2006)과 배영환(202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김주필(2018:126)에서 밝혔듯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의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동질적인 성격의 문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6) 본고에서 이용한 자료는 황문환 외(2013)에 제시된 판독문을 주로 이용하되, 최근에 새로 발굴된 정순왕후언간 등을 추가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현재까지 확인된 왕실 여성 연간은 322건 정도이다. 물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그 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편지는 장렬왕후(1624~1688)의 연간이다.⁷⁾ 장렬왕후는 인조의 계비로 아버지는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이며, 어머니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이다. 장렬왕후에게는 소생이 없었지만, 손녀인 공주들과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까닭에 손녀들, 즉 하가한 공주들에게 보낸 편지가 현재 <숙희신한첩>에 남아 있다. 그런데 장렬왕후의 출생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장렬왕후가 양주 조씨이고 부친의 묘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경기도가 생활권인 것으로 보인다.

인선왕후(1618~1674)는 효종의 비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우의정 계곡 장유(張維)의 딸이며, 어머니는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인선왕후의 연간은 <숙희신한첩>과 <숙명신한첩> 등에 69건이 전한다. 인선왕후는 1618년(광해군 10년) 12월 안산의 촌사⁸⁾(시흥의 장곡동 안골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므로 인선왕후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경기도 방언권의 화자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선왕후는 봉림대군을 따라 약 8년간 중국의 심양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린 시절에 궁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명성왕후(1642년~1683)는 현종의 비로 아버지는 영돈녕부사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이고, 어머니는 덕은부부인 은진 송씨이다. 1642년 서울 중부 장통방(長通坊: 지금의 종로1가 부근)에서 출생하였다. 명성왕후의 한글편지는 <숙명신한첩>에 숙명공주에게 보내는 편지 1건과 명안공주에게 보내는 편지 3건이 남아 있다.⁹⁾

인현왕후(1667~1701)는 숙종의 계비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아버지는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이며, 어머니는 은진송씨(恩津宋氏)로 송준길(宋浚吉)의 딸이다. 인현왕후의 출신지는 서울이다. 인현왕후의 연간은 현재까지 5건이 있는데, 모두 <숙희신한첩>에 전하고 있다. 이들 편지의 수신자는 시고모인 숙희공주이다.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는 영조의 계비로 본관은 경주이다. 1745년(영조 21)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耆)이고, 어머니는 원주 원씨(原州 元氏) 원명직(元命稷)의 딸 원풍부부인(元豐府夫人)이다. 김한구의 가문은 효종대 관찰사를 지낸 김홍욱(金弘郁)의 후손으로 충청도 서산에 세거하였다. 정순왕후는 1745년(영조 21)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서 태어나 1759년(영조 35) 영조의 계비로 입궁할 때까지 서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정순왕후의 연간은 황문환 외(2013)에는 1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최근 추가로 발굴되어,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편지는 정순왕후가 조카인 김노서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졌는데, 기존에 학계에 알려졌던 연간을 포함하면 16건이 있다.

순원왕후(1789~1857)는 순조의 비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이고, 어머니는 청송 심씨로 정랑(正郎) 심건지(沈健之)의 딸이다. 아버지 김조순이 일찍부터 관직에 나가 주로 한양에 거주했으므로 순원왕후의 출생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순원왕후 연간>은 서울대 규장각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순원왕후어필>에 25건과 <순원왕후 봉서>에 33건 등이 전한다. 이 밖에 <순원왕후 연간>은 개인 소장으로 몇 건이 전한다.¹⁰⁾

7) 다만,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비빈 편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연간은 인목대비연간이다. 인목대비는 2건의 연간을 남겼는데, 현재 이 편지의 소재는 불분명하다. 다만, 판독문이 김일근(186-187)에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황문환 외(2013)의 판독문에 따라 논의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 지두환(2001:157) 참조.

9) 이 밖에 명성왕후가 우암 송시열에게 보내는 편지가 1건 더 있지만 현재 개인 소장이라 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김일근(1988:213)에 판독문만 제시되어 있다.

신정왕후(1808~1890)는 순조의 세자이면서 추증왕인 익종(翼宗)의 비이다. 아버지는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이고, 어머니는 송준길(宋浚吉)의 후손인 목사 송시연(宋時淵)의 딸이다. 오늘날 서울의 옥수동 근처의 두포(荳浦) 쌍호정(雙湖亭) 사저에서 태어났다. 신정왕후 연간은 현재 5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2건이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장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봉서 소재 연간으로 알려진 3건은 궁인이 대필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효정왕후(1831~1904)는 헌종(憲宗)의 계비이다. 성은 홍(洪)씨이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 익풍부원군(益豐府院君) 홍재룡(洪在龍)의 딸로 1831년(순조31)에 태어났다. 효정왕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인 홍재룡이 1835년 문과에 급제하여 줄곧 중앙에서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성장지 역시 서울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효정왕후 연간>은 현재까지 5건의 연간이 확인되는데, 이들 편지는 궁인이 대필한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철인왕후(1837~1878)는 철종의 비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영돈녕부사 김문근(金汶根)이며, 어머니는 이용수(李龍秀)의 딸이다. 철인왕후는 순원왕후의 근친으로 일찍부터 중앙에서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편지는 2건인데, 궁인이 대필한 것이다.

명성황후(1851~1895)는 고종의 비로, 경기도 여주에서 부친 민치록(閔致祿)과 모친 한창부부인 이씨 사이에 태어났다. 8세 때 부친이 타계한 뒤,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감고당(感古堂)으로 이주하였다. 감고당은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친정집이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명성황후의 연간은 상당수에 이르는데,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13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순명효황후(1872~1904)는 순종의 비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여은부원군 충문공 민태호(閔台鎬)의 딸이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북부 12방 중의 하나인 양덕방(陽德坊)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순명효황후의 편지는 현재 10건이 전하는데, 스승인 김상덕에게 쓴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의 왕비 가운데 11인의 왕비가 한글편지를 남겼고, 이 가운데 322건 정도가 학계에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많은 양의 자료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연간은 왕비가 직접 쓴 자료라는 점에서 그 당시의 언어 상황을 직간접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자료를 구개음화 환경 별로 나누어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면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들 왕실 여성의 언어가 당시의 최상층의 언어인 왕실 언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왕실의 비빈은 민간에서 태어나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 세자빈으로 간택한 후에 입궐하기 때문에 왕실의 언어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적어도 그 당시의 중앙어 화자인가 하는 점에서도 속단하기 어렵다.¹⁰⁾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의 비들은 대체로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 태어났고, 궁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 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대부분이 10대 초에 궁에 들어가서 올해 동안 왕실 가문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상층의 언어를 대표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이 밖에 국립한글박물관과 석주선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황문환 외(2013)의 판독문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1)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안대현(2017:233)에서도 나타난다.

3.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

국어의 음운 변화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현상 중의 하나가 구개음화일 것이다.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곽충구(2001)에 잘 드러나 있다.¹²⁾ 특히 그 가운데 구개음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구개음화가 동일한 환경에서 일시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환경별로 달리 실현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논의 결과이다. 즉, 어중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그리고 어두와 비어두 등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¹³⁾

한편, 구개음화가 지역별로 달리 실현되었다는 것도 논의되었다. 구개음화는 대체로 남부방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중부방언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방언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신의 시작이 남부방언만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었다.¹⁴⁾ 아울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에는 17세기까지 구개음화가 확산되지 않았으며, 왕실의 경우에는 더욱더 확산의 정도가 늦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언간 322건에 나타난 구개음화와 관련된 용례는 3,639개(미상 71개 포함)로 나타났다. 즉, 구개음화 환경에 놓인 ‘ㄷ, ㅌ+ㅣ, y’와 ‘ㅈ, ㅊ+ㅣ, y’에 포함되는 개수이다. 이들 환경에 놓인 개수를 구개음화형과 과도교정형, 그리고 변화를 겪지 않은 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아울러 이들을 고유어와 한자어 등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표-2 구개음화 환경에 놓인 용례 현황>

구분	변화 유형	전체 (3568)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ㅈ	167	51(25/26)	47(0/47)	69
	ㅌ > ㅊ	94	4(2/2)	44(9/35)	46
과도교정	ㅈ > ㄷ	59	21(3/18)	20(0/20)	18
	ㅊ > ㅌ	6	0	4(3/1)	2
본래 형태	ㄷ	1124	499(383/116)	287(3/284)	338
	ㅌ	204	18(2/16)	103(13/90)	83
	ㅈ	1323	397(115/282)	93(88/5)	833
	ㅊ	592	50(18/32)	10(8/2)	532

위의 표에서와 같이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언간에 나타난 구개음화의 실현율은 16.54%로 나타났다. 전체 과도교정 발생 비율은 3.30%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ㄷ구개음화가 12.9%, ㄷ과도교정이 4.29%, 그리고 ㅌ구개음화가 31.76%, 그리고 이에 대한 과도교정이 1.00%이다. 대상으

12) 곽충구(2001)에서는 구개음화의 발달과 확산과 관련하여 (가) 중세국어 ‘ㅈ’의 음가, (나) 자음체계의 변화와 구개음화 현상, (다) t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영역의 확대, (라) t, k, h구개음화의 사적 발생 순위, (마) 자음체계의 변화와 구개음화를 비롯한 근대국어 단계의 일련의 음운변화, (바) 구개음화 규칙의 진원지와 확산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3) 홍윤표(1985:150)에서는 형태소 경계→비어두의 어휘 형태소 내부→비어두의 문법 형태소의 내부→어두 음절 위치로 전개되었음을 논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문헌 자료에 기반하여 최초 출현형을 통한 것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곽충구(2001) 참조.

15) 김주필(2013:116)에서는 어제류에서 영조대 말까지 구개음화가 20% 미만의 실현율을 보이는 자료가 있는 반면, 어제자성편언해(1746), 어제백행원(1765), 운음(1781~83)에서는 50% 이상의 확산 양상을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

로 삼은 언간 자료가 17세기 중기 이후의 자료부터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분포하여, 대부분 근대국어의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개음화 실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부 인물별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구개음화 확산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표-3 인물별 구개음화 실현 양상>

구분	구개음화 실현율	비고
인선왕후	0.8%	
정순왕후	23.47%	
순원왕후	7.78%	
신정왕후	9.52%	
철인왕후	10%	궁인 대필
명성황후	71.19%	
순명효황후	60.00%	

세부 인물별로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구개음화 실현 양상이 여느 자료에서보다 보수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왕실 여성의 인물별 구개음화 양상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료는 <인선왕후언간>이다. 그 전의 인물인 장렬왕후의 언간에서는 구개음화의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인선왕후언간>에서는 구개음화 실현율이 미미하지만 그 예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의 인물인 명성왕후나 인현왕후에서는 구개음화의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구개음화 현상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정순왕후이다. 정순왕후는 22.81%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개음화의 실현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순원왕후나 신정왕후, 그리고 철인왕후 등에서는 대체로 10% 미만의 실현율을 보여 주어 매우 낮은 구개음화의 양상을 보여 준다. 이후 명성왕후 언간에서는 70%가 넘는 양상을 나타내 구개음화가 매우 일반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왕실 여성 언간 자료에서 구개음화 실현 예가 최초로 나타나는 인물은 인선왕후라고 할 수 있다. <인선왕후언간>에서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4 인선왕후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구분	변화 유형	전체 (452)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ㅌ	2	0	2(0/2)	0
	ㅌ > ㄷ	0	0	0	0
과도교정	ㅌ > ㄷ	0	0	0	0
	ㄷ > ㅌ	0	0	0	0
본래 형태	ㄷ	187	101(84/17)	28(2/26)	58
	ㅌ	41	9(0/9)	27(6/21)	5
	ㅈ	191	105(33/72)	14(0/14)	72
	ㅊ	32	5(1/4)	4(4/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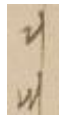
인선왕후 언간에서는 구개음화와 관련이 있는 환경은 452회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구개음화가 나타난 것은 2회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 (1) 가. 일본일만정<인선-56, 숙명신한첩-연간53>
 나. 조곰일만정<인선-60, 숙명신한첩-연간57>

위의 예에서 ‘일본일만정’과 ‘조곰일만정’에서 ‘-르만정’은 어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중세국어의 형태는 ‘-르만덩’이다. 즉 이 어미는 본래 ‘-만덩’이었는데¹⁶⁾, <인선왕후 언간>에서 ‘만정’과 같이 구개음화가 실현된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의 예라면 혹시 오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각 다른 편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형태가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인선왕후 언간>에서는 ‘만정’ 이외에도 다른 구개음화의 예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지내시랴’의 ‘지내-’를 구개음화의 예로 본 것이다.¹⁷⁾ 이러한 양상은 김일근(1986:196)에서 ‘지내시랴’로 판독한 이후, 김동연(1990:7)에서도 구개음화의 예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청주박물관(2011:138), 황문환 외(2013:187)에서도 모두 ‘지내-’로 판독하여 <인선왕후언간>부터 ‘지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예는 원문을 잘못 판독한 것으로 보인다.¹⁸⁾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 죽히 지내시랴 불관호나<숙명-40,1662,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디내>



<디나면>



<지금>

위의 세 이미지에서 ‘디내시랴’ 부분과 ‘디나면’ 부분, ‘지금’ 부분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디내’를 ‘지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숙명신한첩>에 나타나는 인선왕후의 편지 가운데 ‘ㄷ’과 ‘ㅈ’이 초성에 위치할 때 자획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예는 ‘디내시랴’로 판독하고, <인선왕후언간>에서는 ‘만정’만 구개음화의 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⁹⁾

구개음화의 예가 좀 더 확산된 양상을 보이는 인물은 정순왕후이다.²⁰⁾ 정순왕후는 구개음화 실현율이 22.81%로 나타난다. 특히 고유어 어휘 형태소나 한자어, 문법 형태소 등 골고루 나타나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16) 우리들히 모미 주글만덩 모딘 일 꺾티 아니호리이다 ㅎ야늘<월인석보,25:032b>

17) 김동연(1990:7)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

18) 이러한 지적은 안대현(2017:235)에도 있었다.

19) 반면 문법형태소 가운데 구개음화의 예로 많이 거론되는 ‘-디’는 <인선왕후 언간>에서 전체 26회가 나타나지만 한 번도 ‘-지’로 실현되지 않았다.

20) 인현왕후와 정순왕후 사이에 다른 비빈의 언간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언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령 영조의 비인 정성왕후(眞聖王后, 1692~1757)의 언간이 전하면 훨씬 많은 국어사적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정성왕후가 소생이 없었기 때문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5 정순왕후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구분	변화 유형	전체 (218)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ㅌ	22	5(3/2)	4(0/4)	13
	ㅌ > ㄷ	5	1(0/1)	2(1/1)	2
과도 교정	ㅌ > ㄷ	8	2(0/5)	0	3
	ㄷ > ㅌ	2	0	2(2/0)	0
본래 형태	ㄷ	69	35(10/15)	16(1/15)	18
	ㅌ	19	3(1/2)	6(3/3)	10
	ㅌ	73	16(5/11)	10(0/10)	47
	ㄷ	24	2(0/2)	0	22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정순왕후는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앞서의 인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체 구개음화 환경 115회 가운데 구개음화의 예가 27회 확인되어 실현율이 23.4%로 나타난다. 아울러 왕실 여성의 연간 자료 가운데 처음으로 과도교정의 양상도 6.73%로 확인된다. 또,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골고루 확인되는데, 한자어에서 구개음화 실현은 3.49%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전의 명성왕후나 인현왕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원왕후의 경우에는 이전의 인물인 정순왕후에 비해 구개음화 실현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순원왕후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 가운데 가장 다양한 언간을 남겼다. 그에 따라 구개음화와 관련된 음절도 1,663개로 가장 많다.²¹⁾

<표-6 순원왕후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구분	변화 유형	전체 (1630)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ㅌ	49	23(12/11)	4(0/4)	22
	ㅌ > ㄷ	23	2(1/1)	4(3/1)	17
과도 교정	ㅌ > ㄷ	43	16(3/13)	20(0/20)	7
	ㄷ > ㅌ	3	0	2(1/1)	1
본래 형태	ㄷ	723	283(200/83)	238(0/238)	202
	ㅌ	130	4(0/4)	67(4/63)	59
	ㅌ	487	101(52/49)	57(4/53)	329
	ㄷ	172	28(8/20)	4(3/1)	140

위의 표에서 순원왕후의 경우, 구개음화의 전체 실현율은 7.78%로 나타난다. 아울러 과도교정 또한 7.60%로 확인된다. 이전의 정순왕후에서보다 구개음화의 실현 빈도가 오히려 낮아졌음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과도교정의 양상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자어에서 구개음화 실현율이 14.94%로 다소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언간에 나타나는 ‘디내-’나 ‘덕-’과 고빈도 고유어 어휘형태소가 비구개음화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21) 다만, 여기서 일부 한자어 33개는 미상에 해당한다.

명성황후의 경우에는 왕실 여성의 언간 가운데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전체 1,000개의 환경에서²²⁾ 매우 높은 실현율을 보여 준다.

<표-7 명성황후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구분	변화 유형	전체 (979)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ㅈ	72	11(2/9)	33(0/33)	28
	ㅌ > ㅊ	54	1(1/0)	29(1/28)	24
과도 교정	ㅈ > ㄷ	6	1(0/1)	0	5
	ㅊ > ㅌ	1	0	0	1
본래 형태	ㄷ	49	24(23/1)	1(0/1)	24
	ㅌ	2	0	0	2
	ㅈ	486	162(22/140)	4(1/3)	320
	ㅊ	309	13(7/6)	1(1/0)	295

위의 표에서와 같이 명성황후언간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71.19%로 나타나 매우 높은 진행률을 보여 준다. 반면 과도교정 발생 비율은 0.09%로 미미한 수준을 보여 준다. 아울러 한자어 또한 66.67%로 매우 높은 진행률을 보여 주어 이 시기에 구개음화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성황후언간에서는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모습도 여전히 나타나는데, 대체로 한자어의 비중이 높다. 고유어에서는 ‘아덕’이 확인되며, 한자어에서는, 덩스(政事), 무덩(無情), 도덩(都正), 둥덩(衆情), 덩부(政府), 스덩(私情), 담턴(痰喘) 등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한자어에서 과도교정의 예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성황후보다 후대의 인물인 순명효황후의 경우는 구개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7 순명효황후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구분	변화 유형	전체 (140)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ㅈ	22	12(8/4)	5(0/4)	5
	ㅌ > ㅊ	11	0	8(3/5)	3
과도 교정	ㅈ > ㄷ	4	1(0/2)	0	3
	ㅊ > ㅌ	0	0	0	0
본래 형태	ㄷ	21	2(2/0)	0	19
	ㅌ	1	0	0	1
	ㅈ	54	4(2/2)	3(0/3)	47
	ㅊ	27	1(1/0)	1(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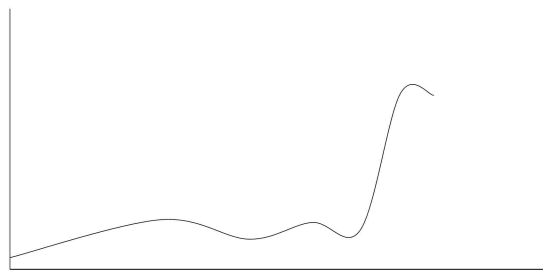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순명효황후의 구개음화 전체 실현율은 60.00%로 나타난다. 이는 이전 시기 인물인

22) 21개의 미상이 있다.

명성황후보다는 약간 실현율이 낮은 모습이다. 또, 과도교정 발생 비율도 4.71%로 나타나 역시 명성황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실현율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즉, 고유어에서는 92.59%의 실현율을 보여 거의 모든 예에서 구개음화의 예를 보여 주지만 한자어에서 실현율이 28.57%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한자어에서 구개음화의 낮은 실현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 구개음화 확산에 대한 해석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본바 그동안 알려진 구개음화의 변화와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이 그동안 알려진 변화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모습을 보였다.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1- 구개음화의 실현율>

위의 변화에서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을 볼 때 대체로 17세기 중반의 인물인 인선왕후에서부터 구개음화가 나타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기의 인물인 정순왕후 대에 구개음화가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세기 후반의 명성황후 대에서는 구개음화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왕실 남성의 구개음화의 모습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왕실 남성의 경우는 정조(1752~1800) 대에 구개음화가 처음 시작되어 흥선대원군 시기에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²³⁾

다만, 왕실 남성과 비교했을 때 시기에 따른 변화 과정에서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인선왕후이다. 인선왕후는 다른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구개음화 실현형이 먼저 나타났다. 그보다 후대의 인물인 명성왕후나 인현왕후에서는 구개음화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인선왕후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구개음화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가 지역 방언의 영향인 구개음화에 일찍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선왕후는 본래 경기도 안산(오늘날 시흥)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잠깐 수원에 할머니와 살았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 특별히 남부 방언과 접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왕실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다. 인선왕후는 어렸을 때부터 세자빈은 아니었다. 물론 14세인 1631년 가례를 거쳐 왕실의 일원이 된 왕후는 4년간 왕실에서 지내다가 사저로 옮겨졌다고 한다.²⁴⁾ 그러다가 봉림대군을 따라 심양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 즉, 다른 비빈과 달리 인선왕후는 왕실에서 왕실 여성이 되어 배워야 할 필수적인 교육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왕실 여성이 된 후에는 여러 가지 교육

23) 배영환(2020)에서는 정조대에 34%, 흥선대원군 시기에 80%의 구개음화 실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24) 지두환(2001:158) 참조.

을 받아야 했는데²⁵⁾,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교육은 글쓰기이다.²⁶⁾ 그러나 인선왕후는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에 이러한 교육 받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왕실의 보수적인 언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셋째, 심양에서의 생활이다. 인선왕후는 오랫동안 왕실에서 벗어나 심양에서 볼모로 지내었다. 인조 15년(1637년) 봉림대군이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볼모로 가게 되자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 약 8년을 심양에서 지내고 인조 23년(1645)에 귀국하였다. 이후 같은 해 9월에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자 세자빈이 되었다. 심양에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구개음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은 순원왕후이다. 순원왕후 언간에서는 이전 시기의 정순왕후나 그 이후의 다른 왕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현율을 보여 준다. 또,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 실현율에 비해서도 구개음화 실현율이 낮다. 가령, 18세기 말에 간행된 인어대방(1790)과 중간노걸대언해(1795)에서 구개음화 실현율이 99.4%와 96.9%로 나타나 중부방언의 경우는 18세기 말에 구개음화가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간 자료의 경우에는 구개음화의 확산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동 시기에 작성된 추사의 언간의 경우, 구개음화 실현율이 85%로 나타나고, 경상도 출신의 김진화의 언간의 경우에는 98%로 실현된다고 한다(윤희선, 2018:49-50).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순원왕후언간>에서 나타나는 낮은 실현율은 왕실이라는 최상층의 언어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순원왕후의 언간에서 구개음화 실현율이 낮게 실현되는 이유 역시 몇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왕실 여성의 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편찬 시기가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19세기 무렵에 편찬된 왕실 여성의 교훈서로 알려진 <곤범>의 경우 동 시기의 다른 문헌 자료보다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7.64% 정도로 나타나는데, 동 시기의 <윤음>에서 보여 주는 88.9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왕실 여성이 왕실 일원이 되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글쓰기 교육 또한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사용된 자료 역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습득하면서 구개음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칙의 적용과 확대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체로 구개음화는 한자어에서부터 시작되어 고유어에 확대되었지만 구개음화가 완성된 것은 오히려 고유어이고, 한자음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까지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는 고유어, 그 가운데에서도 문법형태소에서 먼저 구개음화가 실현되었다는 점은 이전의 논의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계층간에 구개음화의 적용과 확산에서 왕실의 경우에는 한자어보다 고유어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왕실 여성 언간에서 한자어의 경우는 고유어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구개음화의 실현 모습을 보이고, 또 늦은 시기까지 구개음화가 완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구개음화가 처음 확인되는 인선왕후의 경우에는 한자어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고, 구개음화가 확산되는 시기인 정순왕후의 경우에도 한자어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3.49% 정도로 나타났다. 또, 명성황후의 경우, 과도교정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한자어라는 점도 주목된다. 즉, ‘덩스’(政事), ‘무덩’(無情), ‘도덩’(都正), ‘뉘덩’(衆情), ‘덩부’(政府), ‘스덩’(私情), ‘담턴’(痰喘) 등이 그것이다. 이

25) 조선시대 왕실 여성이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던 자료는 『內訓』, 『女四書』 그리고 『후감』, 『곤범』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육수화(2008) 참조.

26) 글쓰기 교육에서 사용된 교재는 구개음화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러한 양상은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한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에 다른 의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한자음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런 만큼 한자어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왕실 여성에 나타나는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논의한 것이다. 즉, 왕실 여성의 언간 322건을 대상으로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을 논의하였다.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왕실 여성 언간은 장렬왕후부터 순명효황후까지 11왕비의 자료가 확인되며, 전체 322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언간에 나타난 구개음화의 실현율은 16.54%로 나타났고, 전체 과도교정 발생 비율은 3.30%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현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낮은 비율이고, 그만큼 구개음화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왕실 여성 언간에서 구개음화가 최초로 나타나는 인물은 인선왕후이다. 17세기 중반에 쓰인 자료에서 고유어 문법형태소에서 2회 나타난다. 다만, 그동안 구개음화의 예로 알려진 '지내-'의 경우는 '디내-'를 잘못 판독한 것이다.

4. 구개음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인물은 정순왕후이다. 정순왕후의 경우, 고유어나 한자어 등에서 골고루 구개음화가 실현되었고, 과도교정의 양상도 나타났다.

5. 순원왕후는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개음화의 전체 실현율이 7.78%로 나타나, 이전 시기의 정순왕후보다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6. 구개음화가 완성된 시기는 명성황후대로 추정된다. 명성황후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71.19%로 나타난다.

7.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왕실에서의 교육으로 보았다. 왕실 여성이 받아야 하는 교육 가운데 글쓰기 교육은 구개음화 실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숙(2010), 나주임씨 언간의 구개음화 교정 현상 연구, 한글 289, 한글학회, 79-106.
곽충구(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37-268.
전파와 어휘 확산, 국어학 61, 국어학회, 3-40.
권인한(2005), 중세한국한자음운집성, 제이앤씨.
김동연(1990), 'ㄷ' 구개음화에 대하여, 한국어학신연구, 한국어학연구회편, 한신문화사, 1-26.
김수애(2019),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순원왕후 편지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41, 한국학중앙연구원, 238-265.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삼정판)-한글서간의 연구와 자료집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김주필(2006),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정신문화연구 29-1, 한국학중앙연구원, 127-157.

- 김주필(2011), 송준길 가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국어학 61, 국어학회, 61-92.
-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95-137.
- 김주필(2018), 근대한국어의 구개음화, 언어학 80, 한국언어학회, 115-150.
- 김한별(2016),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래(2005), 사회방언론, 방언학 1, 한국방언학회, 125-171.
- 박부자(2018), 사회방언자료로서의 언간 연구-세대 간 언어 차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37-67.
- 배영환(2017), 음운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양상 고찰-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0, 한국언어학회, 35-66.
- 배영환(2019), 언간 연구의 국어사적 성과와 전망,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61-96.
- 배영환(2020), 조선시대 왕실 남성의 구개음화 현상 연구, 어문론집 82, 중앙어문학회, 41-73.
- 백두현(2015),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숙희신한첩」을 중심으로- 5, 한국학논집 5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49-403.
- 소신애(2007), 언어 변화 기제로서의 과도 교정-20세기 초 함북 방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83-207.
- 신성철·배영환(2018), <정조의 한글편지>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33-59.
- 안대현(2009), 한국어 중앙어 ㄷ구개음화의 발생 시기, 국어학 54, 국어학회, 109-136.
- 안대현(2017), 인선왕후 언간에 대한 방언사적 검토, 제 14회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안병희(1957/1992), 「중간 『두시언해』에 나타난 ㄷ구개음화에 대하여」, 『일석 이희승선생 송수기념 논총』, 일조각, 안병희(1993)에 재수록.
- 안병희(1992), 「중간 『두시언해』에 나타난 ㄷ구개음화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135-146.
- 육수화(2008), 여훈서를 통해 본 조선왕실의 여성교육, 교육철학 34, 한국교육철학회, 213-243.
- 윤희선(2018), 19세기 언간에서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과 구개음화 확산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문학논총 3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41-66.
- 이기문(1977),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이명규(2000), 중세 및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한국문화사.
- 이종덕(2005), 17세기 왕실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정아(2015), 왕실 언간의 물명과 단위명사 연구, 정신문화연구 38-2, 한국학중앙연구원, 61-93.
- 최어진·박재연(2015), 정순왕후 한글편지의 내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5-39.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사전, 소통.
- 홍윤표(1985), 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43-157.
- 황문환 외(2008), <<근범 해제>>, 역주 근범(역주편), 역락.
- 황문환 외(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역락.

■ 토론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언간 자료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신성철(순천대)

사회언어학적으로 최상위 계층에 놓이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언어 실태를 음운론적으로 접근한 의미 있는 논의이다. 왕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어휘사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궁중어”라는 명칭으로 널리 연구된 바가 있다. 그러나 왕실에서 사용하는 언어 실태 전체를 아우르는 국어학 전반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왕실의 언어에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은 ‘언간 자료’이다. 왕실과 관련된 “왕실 언간”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종덕(2005)부터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왕실 언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대부가 자료와 함께 시대적 특징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였을 뿐, 왕실 언어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국어학 논의는 매우 적으며, 특히 왕실 여성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근래에 ‘순원왕후 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나지만 이는 왕실 여성의 언어로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를 밝히려는 논의에 머물렀다.

이 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왕실 여성의 언어 실태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에 집중한 논의이며, 왕실 여성 한 명의 언어 실태가 아닌 왕실 여성들의 언어 실태를 국어사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또한 왕실이라는 계층과 여성이라는 성별 등이 관련하여 일면,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발표문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의문시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갈음하고자 한다.

1. 사대부가 출신의 여성이 왕실의 일원이 되어 최상층의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대부가 여성 언간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는가?

2. 왕실의 비빈은 사대부가에서 태어나 10대 초에 궁으로 들어가 왕실 가문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다루는 왕실 여성의 언어 실태가 왕실 교육과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언문 교육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3. 왕실 여성 언간을 발신자가 왕비인 경우로 한정하였다고 하였다. 왕실 출생의 여성, 즉 공주와 옹주 등의 편지는 왜 제외하였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야 할 듯하다. 공개된, 또는 널리 알려진 발신자가 ‘공주’나 ‘옹주’인 왕실 언간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궁녀(상궁 등)’ 등이 발신자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히 표현해야 할 듯하다.

4. 서론에서 왕비의 언어가 왕의 언어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관

련된 내용이 4장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 언급이 매우 빈약한 편이다. 왕실 남성의 언어 실태와 대비한다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5. 2장의 <표-1>에 시대별 구분이 쉽도록 '시기'나 '생물연도', 또는 편지 발신 시기를 함께 부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2장의 '정순왕후'에 대한 출신지가 '경기도 여주'와 '서산시'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정리해야 할 듯하다.

이상입니다.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

- 함흥 지역어를 중심으로 -

소신애(송실대)

차례

1. 서론
2. 기존 논의 검토
3.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
4.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
5. 결론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함경남도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20세기 초엽의 함남 방언 자료와 20세기 중엽 이후의 함흥 지역어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과정 및 진행 중인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간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함북 방언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함남 방언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소신애 2020:7-11). 이에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함경도 방언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서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가 단편적으로 언급되거나, 함남의 하위 지역어에 대한 개별 연구에서 모음 체계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함남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에 대하여 보다 정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20세기 초엽의 함남 방언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20세기 중엽 이후의 함흥 지역어 음성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가 겪어 온 통시적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같은 모음 체계의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인 까닭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 방향 또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논의 검토

우선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그러한 모음 체계의 변이 및 변화에 대해 언급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관련된 논의의 쟁점은 단모음 /ɰ/, ɰ/(=/ö, ü/)의 존재 여부이다.¹⁾ 단모음 /ɰ/, 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당시의 함남 방언을 10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도

있고 9모음 체계나 8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는 ‘니, 귀’의 음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小倉進平(1927:11)은 20세기 초의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함경도 방언의 ‘니, 귀’의 실현 양상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함남 북청, 홍원에서는 ‘니’의 ‘원음’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함남 단천에서는 ‘니’가 ‘기’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귀’는 함경도 대부분 지역에서 ‘원음’을 유지하고 있으나 함남 단천에서는 ‘기’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니, 귀’가 음성 전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음’이 어떠한 음을 가리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²⁾

小倉進平(1930/1944:318-322)는 함남 방언의 ‘니(oi)’, ‘귀(ui)’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당시 ‘니(oi)’는 함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ø]로 실현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이한 발음이 존재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³⁾ 북청, 함흥, 홍원에서는 [ø] 외에 [ɛ]로도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원, 신흥, 안변에서는 간혹 [e]로도 실현되었으며, 갑산, 해산에서는 [we]로 실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⁴⁾ ‘귀(ui)’는 대부분의 함남 지역에서 ‘원음’인 [ui]로 실현되었으나, 북청, 함흥에서는 [i]로 실현된 경우가 많았고, 안변 부근의 함남 남부에서는 [u]로도 실현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⁵⁾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할 때,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은 대체로 단모음 /니/(=/ö/)를 포함한 9모음 체계였으며, 일부 하위 지역어는 /니/(=/ö/)가 없는 8모음 체계로 변화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함남 북청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Ramsey(1978:26-28, 58-60)은 당시 제보자들의 모음 체계가 단모음 /니, 귀/(=/ö, ü/)를 포함한 10모음 체계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현장시간(apparent time)(Labov 1994:43-72)의 관점에서, 해당 제보자들의 언어가 20세기 초엽의 북청 지역어를 반영한다고 볼 때, 이는 당시의 북청 지역어가 /니, 귀/를 포함한 10모음 체계였음을 의미한다.⁶⁾

그런데 이는 앞서 살펴본 小倉進平(1930/1944:318-322)의 보고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차이는 자료 조사 및 전사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같은 지역어 내에서도 화자에 따라 ‘니, 귀’의 실현 양상이 달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엽에 이미 ‘니, 귀’와 관련된 모음 체계상의 변이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

李氣銅(1987:18-20)도 비슷한 시기의 북청 지역어의 모음 체계를 10모음 체계로 보고하고 있다.⁸⁾ ‘니, 귀’가 원순성이 매우 강한 단모음 [ö], [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자음이 선

1) 본고에서 ‘모음 체계’는 ‘단모음 체계’를 가리킨다. 단모음 /니, 귀/를 /ö, ü/로 표기하되, 타 논저를 인용하는 경우에 한해 원전의 /ø, y/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이후의 논저를 참고하면 ‘니, 귀’의 원음은 각각 [oi], [ui]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3) 小倉進平(1927:1-34), 小倉進平(1930/1944:297-380)의 토대가 된 함남 방언 자료의 조사 시기는 1917년~1929년이다(小倉進平 1930/1944:297). 각 지점별 피조사자는 보통학교(소학교) 상급생 남녀 약 10명이었다(小倉進平 1944:12).
 4) 小倉進平(1944:26-28)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보인다. 함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니(oi)’가 [ø]로 발음되며, 이것은 독일어의 ö에 가까운 소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함남 일부에서 ‘니(oi)’가 [ɛ], [we]로도 실현된다고 하였다.
 5) 小倉進平(1944) 전체에 걸쳐 단모음 /니/(=/ü/)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6) Ramsey(1978)의 제보자는 조오목례(1894년생) 씨와 전광용(1919년생) 씨이다. 일반적인 언어 습득기를 고려하면, 이들 제보자의 언어는 20세기 초엽의 북청 지역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7) 당시에 단모음 /니/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李克魯(1932:156-159)는 당시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니, 귀’(=/ø, y/)가 포함된 10모음 체계로 본 바 있는데, 리극로(1966)에 제시된 함남 북청 지역어 자료에도 한글 전사된 ‘니, 귀’가 다수 출현한다. 이때 ‘니, 귀’의 정확한 음가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책에서 ‘익이(玉), 직이(粥)’와 같은 음라우트형을 ‘전모음화’의 결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리극로 1966:15), ‘니, 귀’는 전설모음 /ö, 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크다.
 8) 李氣銅(1987)의 제보자는 김인극(1911년생) 씨, 장진기(1918년생) 씨, 이연춘(1915년생) 씨, 김용모(1923년생) 씨, 이학금(1923년생) 씨이다.

행할 경우에 ‘ㄺ, ㄻ’가 대체로 단모음 [ö], [ü]로 실현되며, 선행 자음이 없는 어두 위치에서는 이중모음 [we], [wi]로 실현되기도 한다고 하였다.⁹⁾ 이를 통해 ‘ㄺ, ㄻ’는 같은 지역어 내에서 그 분포 환경에 따라서도 상이한 실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방언연구회(2001:99-100)은 동북 방언의 모음 체계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언급하고 있다. 노년층의 방언은 대체로 10모음 체계이나 /ㄺ/>/ㄻ/, /ㄺ/>/ㅣ/의 비원순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그 밖의 연령층은 /ㄺ, ㄻ/가 없는 불안정한 8모음 체계라고 하였다.

곽충구(2003:67)은 기존 논의에 근거하여 이전 시기의 동북 방언(육진 방언 제외)이 /ㄺ, ㄻ/(= /ö, ü/)를 보유한 10모음 체계였을 것으로 보았다. 80년대 말 실험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북 방언의 모음 체계는 대부분 /ㄺ, ㄻ/를 포함한 10모음 체계였음을 언급하였다.¹⁰⁾

김춘자(2007:12-13)은 함남 삼수 지역어의 모음 체계가 8모음 체계임을 보고하였다. 이 지역어에서 ‘ㄺ, ㄻ’는 각각 [we], [wi]와 같은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이는 함남 방언 내에서도 하위 지역어에 따라 모음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삼수 지역은 지리적으로 함남 북부에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어의 자음 체계 또한 함남 남부 지역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¹¹⁾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조사한 곽충구(2010:54-58)은 함남 단천 지역어 제보자의 모음 체계가 10모음 체계임을 보고하였는데, 일부 모음은 변이를 보여 주고 있음을 언급하였다.¹²⁾ 김수현(2015:56-71) 또한 단천 지역어의 모음 체계가 10모음 체계임을 보고하였는데, ‘ㄺ, ㄻ’를 비롯한 모음의 실현에 있어 상당한 변이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 간행된 논저에서는 대부분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를 8모음 체계로 보고 있다. 정확한 조사 지점이나 조사 시기, 제보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70대 이상 노년층 화자들의 발화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순(1967:55-57, 268)은 함경도 방언(육진 방언 제외)의 모음 체계가 8모음 체계라고 하면서, 단모음 체계 내에 음소로서의 ‘ㄺ, ㄻ’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³⁾ 중부 방언의 ‘ㄺ’에는 ‘ㄲ’가 대응되며, ‘ㄻ’에는 ‘ㄴ’의 반모음과 ‘ㅣ’의 결합이 대응된다고 보았다.

황대화(1986:15-16)도 함남 방언 화자들이 ‘ㄺ’와 ‘ㄻ’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다른 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고 하였다. ‘ㄺ’를 보통 ‘ㄲ’로 발음하되,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환경(예. 고기~괴기)이나 개음절 체언 뒤 ‘ㅣ’가 결합되는 환경(예. 소~쇠)에 한하여 단모음 ‘ㄺ’를 발음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단모음 ‘ㄻ’ 또한 음운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ㄻ’를 보통 이중모음 ‘wi’로 발음하거나 단모음 ‘ㅣ’로 발음한다고 하였다.¹⁴⁾ 역시 움라우트나 ‘ㅣ’ 결합 환경에 한하여 ‘ㄻ’가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김병제(1988:32-36) 또한 동북 방언(육진 방언 제외)에 ‘ㄺ, ㄻ’가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ㄺ’ 대신 ‘ㄲ’ 또는 ‘ㄻ’가 쓰이며, ‘ㄻ’ 또한 w계 상향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음을 언

9) 이기동(1993:22-25)은 선행 자음이 없는 어두 위치뿐 아니라 제2음절 이하에서도 ‘ㄺ, ㄻ’가 이중모음 [we], [wi]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10) 1989~1991년 함경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당시 80세 전후의 제보자들은 (육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모음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李基文 外 1991:58-75, 곽충구 2003:67, 곽충구 2010:55, 곽충구 2019:303).
 11) 小倉進平(1930/1944:379)에서도 함경남도 북부 방언과 남부 방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12) 1994~2009년 중앙아시아 한인 11명(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려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제보자를 포함한 3명만이 10모음 체계를 보여 주었다고 한다(곽충구 2010:54-58).
 13) “‘쇠(소)’, ‘귀경’ 등에서 ‘ㄺ’, ‘ㄻ’는 바로 중부 조선 사투리의 ‘ㄺ’, ‘ㄻ’와 같이 가운데 원순모음이지만 그것들은 다만 위치상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한영순 1967:268).
 14) 다만, ‘ㄻ’가 둘째 소리마디 이하로 오는 경우에는 ‘ㄴ’을 대응시킬 때도 있고 ‘ㅣ’로 대응시킬 때도 있다(예. 사위~싸우, 까마귀~가마기)고 하였다(황대화 1986:16).

급하였다.¹⁵⁾

정용호(1988:80-87)도 함경도 방언 노년층 화자들의 발음에서, ‘니[ø]’를 어두 위치나 자음 뒤에서 [ɛ]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니[y]’ 또한 어두 위치나 자음 뒤에서 [i]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다만, 움라우트 환경이나 개음절 체언 뒤 ‘ㅣ’ 결합 환경, ‘자음+ㅛ’, ‘자음+ㅠ’ 환경에 한하여 ‘니[ø]나 ‘니[y]’가 실현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¹⁶⁾

북한에서 이루어진 조사·연구에 따르면, 당시 함남 방언 노년층의 모음 체계는 /니, 니/가 없는 8모음 체계였으며, 일부 결합적 환경에서만 [ö], [ü]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단모음 /니, 니/(=/ö, ü)의 존재 여부였다. 그러나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후설모음 /ㅡ/, /ㅓ/, /ㅕ/, /ㅗ/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니, 니/의 비음운화에 이어 후설모음의 실현 양상에 음성·음운론적 변이 및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한 논의들이 눈에 띈다.

강순경(1997:122-129)은 함경도 출신의 20~50대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모음 체계를 조사하고 그것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유형의 후설모음 융합(merger) 현상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¹⁸⁾ 첫째는 /ㅕ/와 /ㅡ/의 융합이다. /ㅕ/의 전진 상승으로 인하여 /ㅕ/가 /ㅡ/로 융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둘째는 /ㅡ/와 /ㅓ/의 융합이다. 단, /ㅡ/의 /ㅓ/로의 융합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당시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는 기존의 8모음 체계에서 /ㅕ/>/ㅡ/에 따른 7모음 체계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¹⁹⁾

방언연구회(2001:99-100)도 동북 방언, 그중에서도 함남 방언에서 후설모음의 동요가 두드러지며 ‘ㅕ’와 ‘ㅗ’의 음성 간극이 매우 좁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20세기 초부터 동북 방언의 모음 체계가 변화해 온 결과 ‘ㅡ’와 ‘ㅓ’ 및 ‘ㅕ’와 ‘ㅗ’의 조음역이 근접해 있으며, ‘ㅕ’는 그 조음역이 좁고 다소 고설 위치에서 조음되는 한편, ‘ㅗ’의 원순성이 약화됨으로써 ‘ㅗ’와 ‘ㅕ’의 대립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음상의 특징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현저하다고 하였다.

곽충구(2003:68-70)은 90년대 말 함남 함흥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당 제보자의 모음 체계가 불안정한 8모음 체계를 보였음을 언급하였다.²⁰⁾ /니/와 /니/는 각각 /ㅕ/와 /ㅣ/로 변화하였고, /ㅓ/와 /ㅡ/는 그 음성 간극이 중부 방언의 그것에 비하면 좁고 /ㅡ/는 [w], [β]의 변이음을 갖되 후부 변자음 뒤에서는 /ㅡ/>/ㅓ/의 변화를 겪기도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서북 방언처럼 /ㅗ/는 저설화가 현저하여 [ɔ], [ö], [ʌ] 등의 변이음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만, /ㅕ/는 중부 방언의 그것보다는 좀 더 전설 쪽에서 그리고 고모음 위치에서 조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음 체계의 변화는 해방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동북 방언은 서북 방언의 6모음 체

15) 다만, “모음 [ㅗ]가 개별적 단어들에서 [니]로 변한 특수한 경우가 있어 ‘소를 몰고 간다.’는 ‘쇠르 몰고 간다.’라 하고 ‘고기를 많이 잡소.’를 ‘괴기르 만이 잡소.’라고 한다.”고 하였다(김병제 1988:33).

16) 정용호(1988:87)은 함경도 방언에서 단모음 ‘니,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서나 자음 뒤에서 잘 발음되지 않는 현상은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들은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17) 다만, 이상의 연구는 함경도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성격이 강하고, 개별 하위 지역어에 대한 정밀한 조사·연구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8) 이때 함남 출신 제보자는 2명이었다. 함남 함흥 출신의 HC(28세(1970년생), 여)와 함남 갑산 출신의 HE(48세(1950년생), 여)이다(강순경 1997:119). 나머지 4명은 함북 출신의 제보자였다. 강순경(1997:117-135)에서는 ‘혼합(merg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강순경(1999:41-53), 강순경(2001:50-74)에 따라 ‘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 강순경(1997:127)에 따르면, 제보자들의 발화에서 ‘니, 니’는 [ɛ], [i]나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20)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함흥 지역어 음성 자료가 바로 이 제보자의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계를 지향하여 변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곽충구(2010:54-58)은 함남 단천 지역어의 모음 체계에서 /ɨ/~/ɪ/, /ɯ/~/ʉ/, /ɨ/~/ɳ/, /ɳ/~/ɳ/의 변이가 관찰된다고 하였다(곽충구 2010:54-58). 김수현(2015:56-71) 또한 함남 단천 지역어의 모음 실현에서 /i/~/ü/~/wi/, /e/~/ö/~/we/ 및 /i/~/u/, /ə/~/o/의 변이가 관찰됨을 언급하였다.

곽충구(2019:297-303)는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의 일환으로 2006~2007년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함남 금야(영흥), 정평 지역어가 모두 8모음 체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때 제보자들은 70대 노년층이었다. 다만, 이 자료는 ‘ɨ, ɯ’ 등이 모두 한글 전사로 되어 있는 데다 음성 파일도 없는 까닭에 정확한 음성형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서는 전설모음 /ɨ, ɯ/의 동요가 있었으며, 20세기 중엽 이후에는 후설모음 /ɨ/, /ɳ/, /ɳ/, /ɳ/의 동요가 발생하여 모종의 변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

본고는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에 대한 기존의 조사 자료 및 그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당시의 모음 체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실재시간상 20세기 초에 조사된 자료뿐 아니라, 현장시간상 20세기 초엽의 함남 방언으로 간주되는 자료 또한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모음 체계를 보다 정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는 20세기 초엽의 함남 방언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를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논저명	제보자		조사 지	시 음가	기 음가	모음 수
	출생 연도	출신지				
小倉進平 (1927)	보통학교 상급생 (1900년~ 1910년대)	함남	함남	북청, 흥원: '괴'의 원음 단천: '개'	대부분 지역: '귀'의 원음 단천: 'ㅣ'	(8모음~ 9모음)
小倉進平 (1930/1944)	보통학교 상급생 (1900년~ 1910년대)	함남	함남	풍산, 오로, 신흥, 정평, 영흥, 고원, 문천, 덕원, 안변, 신고산 (북청, 함흥, 흥원, 이원) [ø] 갑산, 혜산 [we] 북청, 함흥 (흥원) [ɛ] 이원, 신흥, 안변 [e]	함경남도 대부분 지역 (북청, 함흥, 안변) [ui] 북청, 함흥 [i] 안변 [u]	(8모음~ 9모음)
한영순(1967)	不明	(함경)	(함경)	'개' (일부 [ö])	[wi] (일부 [ü])	8모음
Ramsey(1978)	1894년, 1919년	북청	서울	[ö]	[ü]	10모음
황대화(1986)	노년층 (1910년대)	함주, 흥원	함주, 흥원	'개' (일부 [ö])	[wi], [i] (일부 [ü], [u])	(8모음)
李氣銅(1987)	1911~1923	북청	서울	[ö](~[we])	[ü](~[wi])	10모음
김병제(1988)	不明	함경	함경	'개' 또는 '개'	[wi]	(8모음)
정용호(1988)	70~80대 노년층 (1910년대)	함남 10개 시, 군	함남	[ɛ] (일부 [o], [ö])	[i] (일부 [ü])	(8모음)
곽충구(2003)	80세 이상 노년층 (1910년대)	함경	서울	[ö]	[ü]	10모음
김춘자(2007)	1921년	<삼수>	중국 중앙	[we]	[wi]	8모음
곽충구(2010)	1921년	<단천>	아시 아 중앙	[ö](~[e])	[ü](~[i])	10모음
김수현(2015)	1921년, 1926년	<단천>	아시 아	[ö] (~[we]~[e])	[ü] (~[wi]~[i])	10모음

<표 1>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한 조사·연구²¹⁾

기존 논의를 토대로 했을 때,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는 대체로 10모음 체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Ramsey(1978:26-28, 58-60), 李氣銅(1987:18-20), 곽충구(2003:67), 곽충구(2010:54-58), 김수현(2015:56-71)에 근거할 때, 20세기 초엽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는 /괴, 귀

21) 논저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추정되는 정보는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제보자의 출신지 중 <삼수>, <단천>은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이다.

/(/ö, ü/)가 단모음으로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엽 이후로 /ɰ, ɰ/(/ö, ü/)의 음가가 변화되기 시작하여,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는 기존의 10모음 체계에서 /ɰ/가 없는 9모음 체계를 거쳐 점차 8모음 체계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변화의 속도 및 방향은 함남의 하위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小倉進平(1930/1944:318-322)의 토대가 된 함남 방언 자료의 조사 시기는 1917년~1929년인데, 당시에 이미 /ɰ, ɰ/의 음가는 함남의 하위 지역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신흥, 안변, 이원에서는 ‘ɰ(oi)’에 대한 발음으로 [ø]와 [e]가 공존했으며, 북청, 함흥, 홍원에서도 [ø]와 [ɛ]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원의 경우, 읍내의 화자는 ‘ɰ(oi)’를 [ø]로 발음하는 한편 인근 촌락의 화자는 ‘ɰ(oi)’를 [ɛ]로 발음한다는 기술이 있다. ‘ɰ(ui)’의 경우에도 북청, 함흥에서는 [ui]와 [i]가 공존했으며, 안변에서는 [ui]와 [u]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어휘에 따라서도 ‘ɰ, ɰ’의 실현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화자에 따라, 또 개별 어휘에 따라 모음의 음가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ɰ, ɰ/(/ö, ü/)의 변화는 20세기 초엽 이전의 어느 시기엔가 발생하여 20세기 초엽에는 이미 지역별, 화자별, 어휘별 변이를 보여 주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 이래 북한에서 간행된 논저에 따르면, 이미 이러한 변화가 함경남도를 포함한 함경도 일대에서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영순(1967:55-57, 268), 황대화(1986:15-16), 김병제(1988:32-36), 정용호(1988:80-87)의 논의에 따르면, 조사 당시의 노년층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이미 전설 원순모음 /ö, ü/가 없어졌고, 이들이 다른 단모음 /ɛ(e), i/나 이중모음 /we, wi/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함경도, 그중에서도 함경남도의 하위 지역별로 상이했을 것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²²⁾

반면, Ramsey(1978:26-28, 58-60), 李氣銅(1987:18-20), 곽충구(2003:67), 곽충구(2010:54-58), 김수현(2015:56-71)는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를 10모음 체계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분석한 제보자들의 발화는 현장시간의 관점에서 20세기 초엽의 함남 방언으로 간주되는데, 이들 자료는 小倉進平의 자료 및 북한에서 보고된 자료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들 제보자의 경우, 단모음 /ɰ, ɰ/(/ö, 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보수적인 모음 체계를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사자의 자료 조사 및 전사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함남의 하위 지역별로 모음 체계가 상이한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화자에 따라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같은 모음이라도 개별 어휘에 따라 상이한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모음의 분포 환경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 외에도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의 차이, 근본적으로는 제보자의 거주 지역의 차이에서도 이 같은 모음 체계 차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amsey(1978:26-28, 58-60), 李氣銅(1987:18-20), 곽충구(2003:67)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함남 출신 제보자, 이른바 신향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또, 곽충구(2010:54-58), 김수현(2015:56-71)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서, 이들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가 함경남도이다.²³⁾ 따라서 언어 이주(language diaspora) 상황에서 일어나는 식민지 지체 현상(colonial

22) 북한에서 간행된 논저들의 경우, 이러한 논의의 근거가 되는 방언 자료의 조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23) Ramsey(1978)의 제보자 조오목레 씨는 1944년까지 북청군에 거주하다 황해도를 거쳐 서울로 이주하였으며,

lag)(Trudgill 2004:31-37)을 고려할 때, 이들 제보자의 언어는 이주 이전의 원적지 방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원적지 방언보다도 오히려 더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²⁴⁾

반면, 함경남도 현지에서는 20세기 초엽 이후 진행된 방언 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세기 중·말엽에 이르러서는 함남 지역에서 8모음 체계로의 변화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함남 방언 내적인 변화의 영향 유무에 따라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²⁵⁾

4.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

앞에서 기존의 조사 자료 및 그에 대한 기술에 근거하여 20세기 초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20세기 중엽 이후에는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는 함남 함흥 지역어의 음성 자료를 주 자료로 삼아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함흥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1998년에 곽충구 교수님께서 조사하신 것이다. 구술 발화, 어휘, 용언 활용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음성 자료(총 542분, 약 9시간 분량)를 필자가 직접 청취하고 정밀 전사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Praat(v5.1.02)을 이용하여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였다.²⁶⁾

제보자는 함남 함흥시에 거주하던 여성(JYH 씨)으로, 조사 당시의 연령은 51세(1948년생)였다. 실제시간상 이 자료는 23년 전의 언어 자료로서, 제보자의 연령은 2021년 현재 74세가 된다. 일반적인 언어 습득기를 고려했을 때, 해당 제보자의 자료는 대략 1940~1960년대의 함흥 지역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언어 습득기 이후의 언어적 변화도 감안한다면, 그보다 더 후대의 언어적 특성 또한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제보자의 자료는 기존에 보고된 함남 방언 자료에 비하여 언어적으로 상당히 개진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분단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언어 내·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20세기 초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이는 모음을 중심으로 20세기 중엽 이후의 모음 체계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4.1. /ㄴ/, ㄱ/

기존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방언의 /ㄴ/, ㄱ/는 이미 비음운화된 것으로 보인다. 강순경(1997:127)은 함경도 방언에서 ‘ㄴ, ㄱ’가 [ɳ], [i]나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곽충구(2003:68-70)은 함흥 지역어에서 /ㄴ/와 /ㄱ/가 각각 /ㄴ̥/와 / | /로 변화하

전광용 씨는 1945년에 서울로 이주하였다. 李氣銅(1987)의 제보자들도 모두 1945~1950년에 서울로 이주하였다. 곽충구(2010)의 제보자와 김수현(2015)의 제보자들은 모두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났으며 선대 거주지가 함남 단천군이다.

24) 여기서 ‘식민지 지체 현상’이란, 이주 전의 원적지 언어가 지녔던 특성들이 (원적지에서 해당 언어가 꾸준히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게) 타 지역으로 이식된 문명에서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25) 단, 여기에는 화자의 언어 습득기 이후에 일어난 방언 내적 변화 또한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6) 자료 조사 일시는 1998년 8월 31일~9월 7일경이다. 곽충구 교수님께서 필자에게 녹음 테이프를 빌려 주시고, 자료의 이용 및 연구를 허락해 주셨다. 논문에 인용한 모든 자료는 필자의 청취 및 음성 전사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곽충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였다고 보았다. 광충구(2019:297-303) 또한 함남 금야(영흥), 정평 지역어가 모두 8모음 체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²⁷⁾ 함흥 지역어 음성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니’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²⁸⁾

- (1) ㄱ. É: 에:(외(瓜)), ehabári 에하별이(외화별이), esamtsʰún 애삼춘(외삼춘), Égugesə 애국에서(외국에서)
 ㄴ. peúnda 베운다(보인다), pʰegiril 폐기를(포기를)
 ㄷ. tɛ:ndʒan 댐:장(된장), tɛ:nda 댐:다(된다(升)), tɛɛra 대애라(되어라(升)), tɛEra 대에라(되어라(升)), sé 세(쇠(金)), sʷɛtʰóp 쇠톱(쇠뿔), sɛ(~E)gamé 새가매(쇠가마(솔)), sʷɛɛsə 쇠에서(쇠어서(柴)), sɛɛsə 새에서(쇠어서(柴)), ségeŋ 세격(소경), sebinda 세빈다((장갑을) 낀다), tséna 재나(죄(罪)나), tsʷérɔpt'a 죄롭다(죄스럽다), tsérəbasə 재럽아서(죄스러워서)
 ㄹ. tʃéril 재를(죄(罪)를)
 ㄹ. keredodán 게레도당(괴뢰도당), kepʰent'éro 개편때로(교편(教鞭)으로)
 ㅂ. heʃʰɔrí 헤초리(회초리), hEʃʰɔrí 헤초리(회초리)
- (2) ㄱ. kiéman 기에만(기회만), tʃəŋnəŋʷɛk'á 정녕왜까(정형외과)
 ㄴ. keredodán 게레도당(괴뢰도당)
 ㄷ. keʰégil 개혁을(계획을)

(1)은 어두 위치의 ‘니’ 실현 양상이다. (1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ㄴ)은 양순음 뒤, (1ㄷ)은 치조음 뒤, (1ㄹ)은 경구개음 뒤, (1ㄹ)은 연구개음 뒤, (1ㅂ)은 후음 뒤의 ‘니’ 실현 양상이다.²⁹⁾ (2)는 비어두 위치의 ‘니’ 실현 양상이다. (2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2ㄴ)은 치조음 뒤, (2ㄷ)은 후음 뒤의 ‘니’ 실현 양상이다. ‘니’가 [ö]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고, [e], [ɛ], [E], [ʷɛ]로 실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함흥 지역어에서는 이미 /니/(=/ö/)가 비음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⁰⁾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귀’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

- (3) ㄱ. us'aramantʰéda 옷사람안테다(옷사람한테다)
 ㄴ. nwígibogo 뉘기보고(누구보고), nwígi tʷis'ori handadungə 뉘기 뒯소리 한다(누구 뒯말을 한다든가), tí 뒤(뒤), tí 디(뒤), tʷiri 뒤르(뒤를), tí:ru 디:루(뒤로), tʷík'itʰi 뒤끝이(뒤끝에), tidʒəbat'a 디제뵈다(뒤져뵈다), t'indá 띵다(띵다), tʰi'wára 티와라(튀겨라(炸)), tʰi'wára 튀아라(튀겨라(炸)), tʰigigu 티기구 있다(튀기고(炸)), tʰindá 띵다(띵다(彈)), tʰingínda 텡긴다(튀긴다), sʷípt'a 쉽다, sípt'a 쉽다(쉽다), sípt'a 쉽다(쉽다), síət'a 식었다(쉬웠다), síwət'a 식었다(쉬웠다)
 ㄷ. tʃí 지(쥐), tʃí: 지:(쥐), tʃisek'i 지새끼(쥐새끼)
 ㄹ. kʰí 귀(耳), kü 귀(耳), kí 귀(귀(耳)), kí 기(귀(耳)), kišín 기신(귀신)

27) 제보자들이 1930년대를 전후하여 출생한 점을 감안하면, 1930-50년대에 이미 /니, 귀/가 비음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28) 지면상 모든 예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조건 환경별로 대표적인 예와 변이를 보이는 예를 위주로 제시한다.

29) 이 지역어의 /ɬ, ʷ, ɬ/은 경구개음에서 치조음으로 재음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료상 /ɬ, ʷ, ɬ/이 치조음으로 실현된 예와 경구개음으로 실현된 예가 공존한다(소신애 2020:31).

30) 보조 제보자인 20대 남성 화자(1977년생)의 발화에서도 ‘니’가 [e(~E)]로 실현되었고(예. ke(~E)ropt'á 게롭다(괴롭다)), 3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니’가 [ɛ]로 실현되었다(예. kié 기애(기회)). 필자가 2012년에 홍원 출신 실향민(79세(1934년생, 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니’는 [e]로 실현되었다.

- (4) ㄱ. s'a'wí 싸위(사위), s'ai 싸이(사위), s'aúra 싸우라(사위라)
 ㄴ. as'ipt'á 아칩다
 ㄷ. polt'ag'wí 불따귀, is'agí 이싸기(앞사귀), palgí 발기(찢매), palgú 발구(찢매),
 panilk'ie 바늘끼에(바늘귀에), pak'hí 바키(바귀)

(3)은 어두 위치의 '귀' 실현 양상이다. (3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3ㄴ)은 치조음 뒤, (3ㄷ)은 경구개음 뒤, (3ㄷ)은 연구개음 뒤의 '귀' 실현 양상이다. (4)는 비어두 위치의 '귀' 실현 양상이다. (4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4ㄴ)은 치조음 뒤, (4ㄷ)은 연구개음 뒤의 '귀' 실현 양상이다. '귀'가 [ü]로 실현되는 경우는 '귀(耳)[kü]' 한 예를 제외하면 없다. '위'는 보통 [wi], [wi], [i], [i]로 실현되고, 일부 어휘에 한해 [çi], [u]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함흥 지역어에서는 이미 /귀/(=ü/)가 비음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¹⁾

4.2. /ㅡ, ㅏ/

기존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방언의 /ㅡ, ㅏ/는 점차 합류를 향해 변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강순경 1997:133, 곽충구 2003:68-70). 함흥 지역어 음성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ㅡ/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³²⁾

- (5) ㄱ. thigo ik'ú 트고 있구(틀고 있고), s'i:mñida 씌:니다(씌니다(用)), s'ámñida
 씌:니다(씌니다(用)), s'ùnən gə 쑤는 거(쓰는(書) 거)?
 ㄴ. k'ám 금(금(金)), kumí 굶이(금(金)), kumí 굶이(금(金)), kumí 굶이(금(線)이),
 kuúmi 구움이(금(線)이), ku:gát'o kumídzijo 구:것도 굶이지요(그것도 금(線)
 이지요), k'áls'e 굴썰(글썰), kundé 군데(근데), kurún 구룬(그런), kurəmún
 구러문(그러면), kurémun 구러문(그러면), kúɛdu 구래두(그래도), k'árɛdu 구
 래두(그래도), k'úrəñik'a 구러니까(그러니까), k'ík'a kut'énin 그이까 구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k'úgə kurək'he hamún 구거 구렇게 하문(그거 그렇게 하
 면), kurət'ingə 구랫든가(그랬던가)?, kurímñik'a 굶입니까(글(書)입니까)?, k'
 á:da 쿠:다(크다), k'háda 쿠다(크다), k'húda 쿠다(크다), k'hú:dzj kuzi(크지), k'
 h'úñik'a 쿠니까(크니까), k'húgidu k'húdzj 쿠기두 쿠지(크기도 크지), k'
 únəmma 큰엄마(큰엄마), k'h'undzjip 큰집(큰집), k'hundzjip 큰집(큰집),
 k'ullindá 풀른다(끓는다), k'uréra 꽃에라(꽃여라)
 ㄷ. h'agí 흑이(흑이), hullót'a 흘렀다(흘렀다)

31) 필자가 2012년에 흥원 출신 실향민(79세(1934년생), 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귀'는 [i]로 실현되었
 다.

32) 'ㄱ>ㅡ' 변화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ㅡ/가 선행 자음 없이 어두에서 실현되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참고할
 수 있다. inón 으논(의논), unó(~ú)n 우논(~눈)(의논), idz(~dz)á 으자(~쟈)(의자), i'wán 으원(의원), ión 으연(의
 원), iónira 으연이라(의원이라).

- (6) ㄱ. ʃanmadáni 장마당으(시장을), paŋinin 방으는(방(房)은)
 ㄴ. ʃámu 잠우(잠을), pulgùs'ɛ:mu 불구쌈:우(상추쌈을), súgabu 수갑우(장갑을),
 súgabul 수갑울(장갑을), pábu 밥우(밥을), ʃíban 집운(집은)
 ㄷ. menúri 메누리(머느리), menírira 메느리라(머느리라), t'énun 때눈(때(時)는),
 t'áru 딸우(딸을), tarúɖziyo 다루지요(다르지요), taridziyo 다르지요,
 hurundá 후룬다(흐룬다), pidám 비둠(비듬), əps'ut'énun 없우때눈(없을 때
 는)
 ㄹ. yágu 약우(약을), tsásigun 자식운(자식은), ʃagundziɸ 작은집(작은집), tsaging
 ánin 작은거는(작은 것은), tangí(~ú)ɖziye 당그(~구)지예(담그지요(浸))

(5)는 어두 위치의 /—/ 실현 양상이다. (5ㄱ)은 치조음 뒤, (5ㄴ)은 연구개음 뒤, (5ㄷ)은 후음 뒤의 /—/ 실현 양상이다. (6)은 비어두 위치의 /—/ 실현 양상이다. (6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6ㄴ)은 양순음 뒤, (6ㄷ)은 치조음 뒤, (6ㄹ)은 연구개음 뒤의 /—/ 실현 양상이다. /—/는 [i], [u], [u]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u]로 실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연구개음 뒤에서 /—/가 /ɾ/에 가깝게 실현되는 현상이 현저하다.³³⁾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함흥 지역어에서는 /—/의 조음역이 점차 /ɾ/ 쪽으로 이동해 가는 변화가 발생하여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음운 체계상으로는 /—/가 /ɾ/에 합류되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ɾ/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

- (7) ㄱ. urí 우리, ʉrí 우리, u(~i)rínin 우(~으)리는(우리는), uré 우레, us'ík'uñira 우시꾼(後行)이라 cf. yurimún 유리문, yu(~u)rí 유리
 ㄴ. múru 물우(물을), muk'í 무끼(무), musigə 무스거(무엇), mušiginga 무시긴가(무엇인가), muní 무니(무늬), purópt'a 부럽다, parópt'a 부럽다, p^hurudá 푸루다(푸르다), p^húri muradá 풀이 무루다(풀이 묶다)
 ㄷ. nún 눈(雪), núñi 눈(眼)이, nún 눈(眼), náni 눈으(눈(芽)을), ninése 눈에서(눈(芽)에서), náni ədú(~i)pt'a 눈이 어둡(~딤)다(눈이 어둡다), ninidziyo 눈이지요(눈(雪)이지요), ɔɖzum nəgi 오줌 누기, tʉndziɾi 동지르(동지름), t'úgi 똑이(똑이), t'ullindá 툐룬다(툐는다), t'ulk'ú 툐꾸(툐고), t'ulg^wóra 툐귀라(툐어라), susú garúri 수수 가루르(수수 가루를), sitt'óreda 슷돌에다(스톨에다), súgabul 수갑울(장갑을), súgabul 수갑울(장갑을), sígabul 슷갑울(장갑을), surí 술(酒)이, surí 술(酒)이, su(~i)rúl 술(~슬)을(술(酒)을), surúl 술을(술(酒)을), súri 술(匙)이, tsʉɖændzá 주전자(주전자), tsúo 주오
 ㄹ. ʃúri 줄이(줄(鑷)이), ʃusullá 좃올라(주우러), ʃ'uru::sí 쥬룻::이(죽), ʃ^húbʉnik'a चु우니까(추우니까)
 ㅁ. kulgun 굶운(굶은), kulgun 굶운(굶은), kúrim 구름, kúrim 구름, kumónjiro 구멍으로, kumónji 구멍을
 ㅂ. húʃ^hə 후쳐(후처(後妻)), hut^hóra 훌어라(훌어라), hunnundá 훌눈다(훌는다), húrinda 후린다(흰다)

33) 실제로 연구개음 뒤에서 /—/의 F2 값이 치조음 뒤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34) 광충구(2003:68)은 이 제보자의 발화상 순자음과 연구개자음 뒤에서 /—/ > /ɾ/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원순모음화 규칙의 구조 기술 부분이 확대된, 이른바 '규칙 단순화'라고 하였다. 그 밖의 환경에서도 /—/가 /ɾ/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구에 /—/와 /ɾ/는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보조 제보자인 2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는 [u]나 [u(~u)]로 실현되었다(예. kúrim 구름(그림), kúl 굴(글(書)), kú(~ú)l 굴(글(書)), k'ʉñimi 꿍임이(꿍임이), k'uné 꿍에(꿍어)).

- (8) ㄱ. iút 이웃, iút 이웃, iit 이웃, iúši 이웃이, kyə(~ɔ)iri 겨울이(겨울이)
 ㄴ. simul t'úsəl 스물 두 살(스물 두 살), kʰɔŋnamulk'úk 콩나물꼭(콩나물꼭), kʰ
 ɔŋnamulk'úk 콩나물꼭(콩나물꼭), amugát'o 아무것도, məbú 매부, məbú
 매부, abúdzɪ 아버지(아버지), abúdzɪ 아버지(아버지), kɔmɔbú 고모부,
 kubərinda 구부린다, kimbuthə 금(金)부터, pəbuthə 배(梨)부터, sebuʃhinin
 세부치는(쇠붙이는)
 ㄷ. enərɪ 에누리, eni(~ɯ)ri 에느(~누)리(에누리), eniriraŋ gónin 에느리란 거는
 (에누리란 것은), nanúmɯ 나누무(나누면), nurúgəl 누룩울(누룩울), periniŋ
 ginde 베르는 긴데(벼루는 건데), tʰedurída 테두리다, kadúgu 가두구(가두
 고), kadánda 가둔다, kadında 가둔다(가둔다), núni ədú(~i)pt'a 눈이 어둡(~
 듭)다(눈이 어둡다), patt'úk 발둑, patt'úk 발둑, patt'ík 발둑(발둑), patt'idigi
 발드득이(발드득), patt'ədúgi 발드득이, k'akt'ùgi 깎두기, k'akt'ègi 깎두기,
 k'akt'igí 깎드기(깎두기), satʰúruru 사투리루(사투리로), kə:ntʰɯ 건:투(권투),
 pɔtʰugádzi 보투가지(볼따구니), pɔtʰù(~ù)gádzi 보투가지(볼따구니), usurɪ 우
 수리, usurɪ 우수리, pʰyənʃ'ú 평쑤(평수), pʰyənʃ'úga 평쑤가(평수가), p'allè
 t's'ure 빨랫줄에(빨랫줄에), pɛtʰus'émɯ 배추쌈우(배추쌈을), pɛtʰis'és:m 배츠
 쌈:(배추쌈), samtʰún 삼춘(삼춘), ʃaginsamtʰin 작은삼춘(작은삼춘)
 ㄹ. meɟú 메쑤(메쑤), məktʰ'ɯ 맥쑤(맥쑤), p'allèʃ'úre 빨랫줄에(빨랫줄에), pɛʃʰ
 us'és:m 배추쌈:(배추쌈)
 ㄴ. ɔgùré 오구래(새알), ší: ogurɛ 시 오구래(수수 새알), oguraŋ pʰaʃ'úk 오구
 랑 팔죽(새알 팔죽), ogu(~ɯ)ràn pʰaʃ'úk 오구(~그)랑 팔죽(새알 팔죽), tagù(~
 i)rié 닥우(~으)리에(닭장에), tagùrie 닥우리에(닭장에), tagiríe 닥우리에(닭장
 에), məkk'úrɪm 먹구름, məktʰ'áŋgúrɯ(~i)m 먹장구름(~름)(먹장구름),
 pitk'úrɯm 빗구름(비구름), pik'úrɯmi 빗구름이(비구름이), pik'irimi 빗구름이
 (비구름이), pik'urimi 빗구름이(비구름이), kɛék'ɯ(~i)na 개엿구(~그)나(고엿구
 나), máŋkʰuna 많구나, pak'ú 받구(받고), pak'ú 받구(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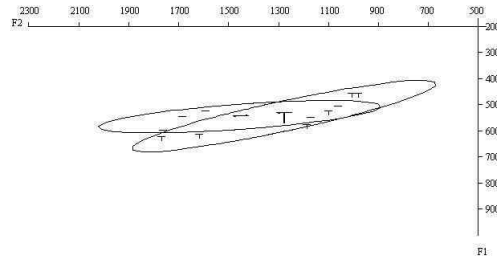
(7)은 어두 위치의 /ɾ/ 실현 양상이다. (7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7ㄴ)은 양순음 뒤, (7ㄷ)은 치조음 뒤, (7ㄹ)은 경구개음 뒤, (7ㅁ)은 연구개음 뒤, (7ㄴ)은 후음 뒤의 /ɾ/ 실현 양상이다. (8)은 비어두 위치의 /ɾ/ 실현 양상이다. (8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8ㄴ)은 양순음 뒤, (8ㄷ)은 치조음 뒤, (8ㄹ)은 경구개음 뒤, (8ㅁ)은 연구개음 뒤의 /ɾ/ 실현 양상이다. /ɾ/는 대부분 [u]로 실현되나, 원순성이 약화된 [ɯ]나 비원순화된 [i]로 실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치조음 뒤에서 /ɾ/가 /r/에 가깝게 실현되는 현상이 현저하다.³⁵⁾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함흥 지역어에서 /ɾ/는 대체로 기존의 조음역을 유지하되, /r/ 쪽으로 조음역이 다소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여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음역의 조정은 음운 체계상 /r/와 /ɾ/가 합류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r/와 /ɾ/의 합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³⁶⁾

그렇다면 이 자료상의 /r/와 /ɾ/는 실제로 합류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합류의 방향은 어떠한지 음향음성학적 관점에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아래는 이 자료의 /r/와 /ɾ/의 실

35) 실제로 치조음 뒤에서 /ɾ/의 F2 값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 뒤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36) 보조 제보자인 2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ɾ/가 [ɯ]나 [i]로 실현되었고(예. k'ul 꿀, k'uri 꿀이, k'iri 꿀이(꿀이)), 3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ɾ/가 [i]로 실현되었다(예. səil máls'inin 서울 말씨는(서울 말씨는)). 강순경(1999:38-40)은 북한 방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ɾ/→/r/ 현상을 /r/→/ɾ/에서 유발된 과잉교정 현상으로 본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후설성(backness)의 역전 현상은 두 모음 간의 합류가 일어났을 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평안 방언에서도 /ɾ/의 후설화로 인해 /ɾ/→/r/ 합류가 일어난 화자들의 발화에서 /ɾ/가 /r/보다 더 후설적으로 실현되는 역전 현상이 관찰된 바 있다(소신애 2010:242).

현 범위를 모음 분포도상에 나타낸 것이다.³⁷⁾



<그림 1> 함흥 지역어 모음 /ɨ/, /ɯ/의 분포도

/ɨ/와 /ɯ/는 모음 분포도상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고 이들의 변이음역 또한 거의 일치한다. 모음 분포도상의 위치에 근거할 때, /ɨ/가 /ɯ/로 합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합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³⁸⁾ 이는 /ɨ/가 음성적으로 후설화함에 따라 /ɯ/와의 안전 간극이 확보되지 못하고 두 모음의 변이음역이 중복된 결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ɯ/ 또한 부분적으로 전설화함에 따라 /ɨ/와 /ɯ/의 변이음역이 넓은 범위에 걸쳐 중복되고 있다. 이 지역어의 /ɨ/와 /ɯ/는 다른 모음들에 비하여 변이음역이 상당히 넓고 이에 따라 변이의 폭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4.3. /ɨ, ɯ/

기존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방언의 /ɨ/는 현저히 저설화되고 원순성 또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강순경 1997:122-123, 곽충구 2003: 68-69). 한편, /ɯ/에 대한 기술은 기존 논의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ɯ/가 전진 상승함으로써 /ɨ/에 합류되고 있으며, 그러한 합류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강순경 1997:123-126), 장차 /ɯ/와 /ɨ/의 조음역이 겹침으로써 이들 간의 합류가 예견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곽충구 2003:69-70). 본고는 함흥 지역어 음성 자료를 보다 정밀히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ɨ/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

37) Praat(v5.1.02)을 이용하여 각 모음의 제1포먼트(F1)와 제2포먼트(F2)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JPlotFormants(v1.4)를 이용하여 모음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모음의 포먼트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행 자음별로 각 모음의 포먼트값을 측정하고 그 평균을 구하였다. 작은 글자는 선행 자음별 모음의 F1, F2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큰 글자는 그것들 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타원은 각 모음의 변이음역을 나타낸다. 각 모음별로 약 70개의 토큰(token)을 분석하였다.

38) 한 음소가 점진적으로 다른 음소로 바뀐다는 점에서 합류의 과정이 단일 방향적(unidirectional)이며, 이에 Labov(1994: 321-323)가 언급한 합류의 유형 중 ‘전이에 의한 합류(merger by transfer)’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9) ㄱ. ɔdí 오디, oguré 오구래(새알), ɔgùré 오구래(새알), ogarí 오가리, ɔgarí 오가리, ɔ́o 오오(來), ɔnɪl 오늘, ɔ́remi 오레미(올케), ɔ́rebi 오레비(오빠), ɔ́ɸʰɔ́nɔ́ p'a 오촌오빠(오촌 오빠), ɔ́simñant'ónjan 오십 년 동안, ɔ́:t'u 옷두(옷도), ɔ́gédo 옥(玉)에도 cf. yɔ́sɛ 요새, yɔ́: 요:(요(褸)), yɔ́(~ʌ): 요(~여):(요(褸))
- ㄴ. mɔk 목, mɔ́gàdʒí 모가지, mʌk 먹(목), mɔ́:gi 모:기(모기), mɔ́dú 모두, mɔ́nɛ́gí 모내기, mɔ́rára 몰아라(驅), mʌrára 멀아라(몰아라(驅)), mɔ́tʰanda 못한다, mɔ́sindagu 모신다구(모신다고), mɔ́rúmñida 모릅니다(모릅니다), pɔ́ridu 보리두(보리도), pɔ́(~o)rídu 보리두(보리도), pɔ́rí 보리, pʌrí 버리, póm 붓, pɔ́tʰɔ́n 보통, póri 불이(불), p'ón 뽕(桑), pʰogídʒe 포기제(포기제) cf. pʰyɔ́dʒuné mñida 표준입니다(표준어입니다)
- ㄷ. nɔ́(~o)mbatʰí 논밭이(논), nɔ́mp'atʰí 논밭이(논이), nɔ́:be 노:베(무), nʌ:be 너베(무), nónnda 논다, nʌ(~ó)nda 년(~논)다(논다), nɔ́kʰú 농구(농고), nɔ́ɸtʰóne 농촌에, nɔ́ɸtʰóne 농촌에, nɔ́pt'á 높다, nɔ́pt'á 높다, nɔ́(~o)pt'a 높다, tóon 도온(돈), tó(~ó)n 돈, tóni 돈이, tóni 도~이(돈이), tó:ndɔ 돈:도(돈도), tɔ́dúgin 도독은, tɔ́dɔkʰíil 도독질(도독질), tɔ́dógi 도독이(도독), t'ó 또, t'ɔ́nɪl 뚱을, tʰɔ́nɔ́dʒi 통아지(통하지), tʰɔ́nɔ́hádʒiyo 통하지요, tʰɔ́(~ʌ)k'iga, 토(~터)끼가(토끼가), tʰɔ́:bi 톱:이(톱이), sɔ́gúm 소굼(소금), sɔ́gúm 소굼(소금), sogóm 소곰(소금), sɔ́góm 소곰(소금), sɔ́t 솔, sɔ́tʰún 솔운(솔은), sɔ́ɸʰí 소치(솔이), sɔ́ɸʰí íboda 소치보다(솔보다), sóri 소르(소(牛)를), sogurumáril 소구루마를(쇠수레를), sóri 소리, sɔ́(~ʌ)rí 소(~서)리(소리), tsɔ́:mk'a 좀:까(조입니까)?, tsʌ 저(조), tsɔ́ps'ál 접쌀, tsʌps'ál 접쌀(접쌀), tsɔ́(~ʌ)isák 조이삭, tsʌisági 저이삭이(조이삭이), tsɔ́səns'aramdirí 조선사람들이(조선사람들이), tsʰóns'uril 촌수(寸)를
- ㄹ. ɸosəmmáril 조선말을(조선말을), ɸótʰa 좋다(좋다), ɸót(~ʌ)tʰa 좋(~절)다(좋다), ɸɔ́ɸʰí 좋지(좋지), ɸ'ók'im 쪼끔(조금), ɸ'ók'um 쪼끔(조금), ɸ'ok'umdu 쪼끔두(조금도), ɸ'ok'úmdu 쪼끔두(조금도), ɸ'óra 초라(초(擻)라)
- ㄴ. kóyak 고약, kó(~ʌ)yak 고(~겨)약(고약), kʌyak 거약(고약), kɔ́gumágu 고구마구(고구마고), kópt'a 곱다, kósāin 고사~은(고생은), kósanɪl 고상을(고생을), kɔ́gi 고기(물고기), k'ogit'ɛnɪ 꼬깃덩이(고깃덩이), k'ó(~ʌ)ɸʰí 콩(~깅)치(콩치), k'ɔ́dɪ 끈으(꽃을), k'ɔ́tsʰí 꽃으(꽃을), k'ɔ́s'ɔ́nɪ 꽃송이, k'ɔ́(~o)ɸ'í 꽃지, kʰɔ́ 코, kʰɔ́(~ʌ) 코(~커)(코), kʰón 콩, kʰón 콩, kʰɔ́nɪl 콩을, kʰɔ́o 코~오(콩을) cf. kyó pʰomñida 교쁠니다(교포입니다), kyó(~ʌ)yuk 교(~겨)육(교육)
- ㄷ. hɔ́ndanmú 흥당무, hɔ́bák 호박, hɔ́ndʒá 혼자(혼자), hɔ́burɛ́bi 호불애비(홀아비), hórebi 홀애비(홀아비), hɔ́sán 호상, hɔ́mí 호미 cf. hyóɔ́ɔ́a 효자, hyʌ́ɔ́ɔ́a 효자(효자)

- (10) ㄱ. kadʒeona 가져오나(가져오너라), kadʒeona 가져오나(가져오너라), páa dzusio
 바아 주시오(봐 주시오), mathá dzusio(~ə) 맡아 주시오(~어)(맡아 주시오)
 ㄴ. púmɔrɪl 부모를, púmohantʰeda 부모한테다, ʃalmótʰamɔn 잘못하문(잘못하
 면), ʃammótʰamɔn 잠못하문(잘못하면), tɔrábodʒi 돌아보지, tʰidʒébɔnda 뒤
 제본다(뒤져본다), tsagibóda 자기보다, pɔmp'arámbɔda 봄빠람보다(봄바람보
 다), nwígibogo 누기보고(누구보고), het'ebó 햇대보(햇대보)
 ㄷ. ilbɔnnómi 일본놈이, éno(~o)mira 애놈이라(왜놈이라), sónirɔ 손으로,
 kyéronšik 거론식(결혼식), ɔrɔgúnesə 오로군에서, tʰéɾɔpt'a 쩌롭다(죄스럽
 다), tsérəbasə 재렵아서(죄스러워서), idanʃʰága 이덩차가(이동차가),
 todòkʃ'íl 도독질(도독질), tɔdógi 도독이(도독이), sitt'óreda 슷돌에다(스툼에
 다), sʰetʰóp 쇠톱(쇠톱), tansógəsə 단속에서(단속해서), huks'óge 후속에(후
 속에), pes'ogédo 뱃속에다, hes'ɔ 했소, pudzódo 부조도, tʰaldánin 찰저는
 (차조는), kó:(~á:)ntʰɔ 곤(~건):초~(권총을), kó:ntʰói 곤:초~이(권총이) cf.
 illycilláre 일료일랄에(일요일 날에)
 ㄹ. ʃʰaldʒ(~ɔ)l(~ə) 찰저(저)(차조), medz(~ɔ)l(~ə) 메저(저)(메조),
 ʃosəmmindʒógi 죠선민족이(조선 민족이), hept'ɔnʒɔhábiringa 헵동조합이
 라든가(헵동조합이라든가), tʰikʃ'oidʒi 특쵸~이지(특종이지), heʃʰorí 헤쵸리(회
 초리), nonʰóne 농촌에, nɔnʰóne 농촌에
 ㄺ. pʰigɔnámñida 피곤압니다(피곤합니다), məkk'ó 먹고, məkk'ó 먹고,
 k'ɪŋk'ó(~ó) 콩꼬(콩고), k'ɔ::ŋk'ón Ɔ::Ɔ(콩Ɔ), pak'ó(~ó):ls'i 바꼐씨(밭고랑),
 padak'ógí 바닷고기 cf. kidɔk'yó 기독교

(9)는 어두 위치의 /ɲ/ 실현 양상이다. (9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9ㄴ)은 양순음 뒤, (9ㄷ)은 치조음 뒤, (9ㄹ)은 경구개음 뒤, (9ㄺ)은 연구개음 뒤, (9ㄻ)은 후음 뒤의 /ɲ/ 실현 양상이다. (10)은 비어두 위치의 /ɲ/ 실현 양상이다. (10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0ㄴ)은 양순음 뒤, (10ㄷ)은 치조음 뒤, (10ㄹ)은 경구개음 뒤, (10ㄺ)은 연구개음 뒤의 /ɲ/ 실현 양상이다. /ɲ/는 [i], [ɔ], [ɪ], [ə]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ɔ]로 실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지역어의 /ɲ/는 중부 방언에 비하여 개구도가 크고 원순성이 매우 약하다. 이 때문에 이 지역어의 /ɲ/는 중부 방언의 /ɹ/([ɹ])와도 유사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 방언 내에서 /ɲ/와 /ɹ/가 합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어의 /ɹ/는 중부 방언의 /ɹ/와 그 조음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자는 /ɲ/와 /ɹ/가 분명히 구별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모음 체계 내에서 /ɲ/와 /ɹ/가 안전 간극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⁹⁾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함흥 지역어에서는 /ɲ/의 저설화 및 원순성의 약화가 발생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ɲ/와 /ɹ/의 합류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⁰⁾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ɹ/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

39) 제보자는 조사자가 산출한 /ɹ/와 /ɲ/를 청취하고 그 두 모음을 정확히 변별하기도 하였다.

40) 보조 제보자인 2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ɲ'는 [ɔ]로 실현되었고(예. k'óp'at 꽃밭, k'óp'atʰi 꽃밭(꽃밭을), pɔtʰón 보통), 'ɹ'는 [ə]로 실현되었다(예. musəbásə 무섭아서(무서워서), tʰá(~á)l 털(毛)). 3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ɲ'는 [ɔ]로 실현되었고(예. tɔdók 도둑(도둑), tɔdɔnóm 도둑놈(도둑놈), tɔdógirago '도둑'이라고('도둑'이라고), tɔdók 도적(도적), tɔdógi 도적이(도적이), hamgyəndɔ 함경도, hɔnʃʰá 혼차(혼자)) 'ɹ'는 [ə]로 실현되었다(예. márəʃ'ibi 멀었지비(멀었지), mɪlʃ'əndil 밀정들, irəpt'a 일없다(괜찮다), sərəpt'anin 서럽다는, ʃəlban 절반(절반), təpʰinda 덮인다)).

- (11) ㄱ. ədɪ 어디, ədɪ 어딴(어디), ə(~ɛ)dɪ 어디, ɛ'nɲi 언니, ɔmma 음마(엄마), ə (m)ma 어(~엄)마(엄마), ə(~ɛ)mma 엄마 ə(~o)səŋɐ 어(~오)성우(어성(語聲)을), ə:pt'a 없:다, ə(~i)pt'a 없(~읻)다(없다), ə:n 언:(언(諫)), əlmeyɔ(~ʌ) 열매요(~여)(열마요)? cf. yɔdza 여자, yə(~ʌ)dza 여자, yə(~ɛ)dzado 여자도, yədza 여자, yo(~ɛ)ŋə 용(~영)어(영어), yəŋəro 영어로, yɛ:mdʒi 염:지(부추), yə(~i):mdʒi 염(~음):지(부추)
- ㄴ. mə(~ɛ)k 먹(墨), mə(~o)gil 먹(~목)을(먹(墨)을), məgəra 먹어라, mə(~ɛ)gəra 먹어라, mə:lmyən 멀:면(멀면), mənɔzə 먼저, pəl 벌(罰), cf. pʰyənʰs'ú 평쑤
- ㄷ. nəlt'a 널따(넓다), nə(~ɛ)pt'a 넓다(넓다), nánda (빨래를)넋다, ná(~ɛ):l 널:(널), ni(~ə)dʒibəsə 느(~너)집에서(네 집에서), tɔ 더, tɔ:l 덜:(덜), t'ək 떡, t'ək 떡, t'ə(~ɛ)k 떡, t'ə(~ɔ)kt'u 떡(~떡)두(떡도), t'ɔkt'u 떡두(떡도), t'ə(~ɛ):kt'u 떡:두(떡도), t'ə:gənɲi 떡:얌니(떡 했니), t'ə(~ɛ):lbəsə 떡:어서, tʰə(~ɛ)l 털(毛), sə(~ɛ)rɪ 서리, sə(~ɛ)rɪmi 설음이(설음), s'əs'iik'a 썼으니까(썼으니까), tsə(~ɛ)mt'a 점따(점다)
- ㄹ. ʃə 저(저(彼)), ʃəgi 저기(저기), ʃ'ə(~ɛ)ts'ɪdʒi 젓시지(젓지), ʃəl(~r)məs'it'ɛ 젊었으때(젊었을 때), ʃ'əəra 찌어라(찌어라)
- ㄺ. kəri 거리, kə(~o)surumt'ɔn 거(~고)수름똥(거스름똥), kə(~ɛ)ldʒi 걸지(되지(硬)), kə(~ɛ)lk'u 걸꾸(걸고), kərəsə 걸어서, k'ə:nendan 꺼:낸단(꺼낸단) cf. kyə(~ɛ)iri 겨울이(겨울이), kyə(~ɛ)ŋʰiga 경치가
- ㅂ. hə(~ʌ)rada 혈아다(쉽다), hərangəsɪn 혈안 것은(쉬운 것은) cf. hyə(~ɛ)ŋi 형이, hyənʰsú 형수, hyɛŋsú 형수
- (12) ㄱ. yəŋəro 영어로, ʃ'əəra 찌어라(찌어라), ʃirəə 지러~어(간장을)
- ㄴ. ʃuməŋie 쥬머니에(주머니에), ʃibat'a 집었다
- ㄷ. kənnə(~i)ra 건너(~느)라(건너라), murə 물어(問), killət'a 길렀다, ət'ən 어떤, ət'ikʰe 어똥게(어떻게), k'ogit'ɛŋi 꼬깃덩이(고깃덩이), pidʒit'ə:k 비지떡:, hutʰəra 흠어라(흠어라), ʃusə 좇어(주워), pə:ls'ə 벌:써(벌써), kadzi(~ə)ga 가즈(~저)가(가져가) cf. ər'yəpt'a 어렵다, əryə(~ɛ)pt'a 어렵다
- ㄹ. kɪdʒə 그져(그저), wəndʒəi 완져~이(완전히), kəkʃ'əida 격져~이다(걱정이다), pɔŋʃʰə 본처(本妻)
- ㄺ. siŋəpt'a 싱겁다, həlgə(~i)pʃ'i 흘겁(~급)지(묻지), kukk'ə(~o)rɪ 국거(~고)리(국거리), tuk'ə(~o)pt'a 두껍(~쑹)다(두껍다), ʃagik'ək'ədʒi 자기껏까지(자기 것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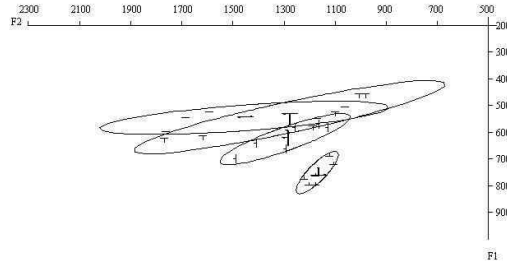
(11)은 어두 위치의 /ɪ/ 실현 양상이다. (11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1ㄴ)은 양순음 뒤, (11ㄷ)은 치조음 뒤, (11ㄹ)은 경구개음 뒤, (11ㄺ)은 연구개음 뒤, (11ㅂ)은 후음 뒤의 /ɪ/ 실현 양상이다. (12)는 비어두 위치의 /ɪ/ 실현 양상이다. (12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2ㄴ)은 양순음 뒤, (12ㄷ)은 치조음 뒤, (12ㄹ)은 경구개음 뒤, (12ㄺ)은 연구개음 뒤의 /ɪ/ 실현 양상이다. /ɪ/는 대부분 [ə]로 실현되나, 개구도가 낮은 [ɛ]나 [i]로 실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⁴¹⁾ 간혹 [o], [ɔ], [ʌ]로 실현되기도 하나 일반적이지는 않다.⁴²⁾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

41) /ɪ/ > /-/ 모음 상성이 일어난 예들도 다수 관찰되었다(예. hədɪŋa 하든가(하던가), puʃ'hédʒudira 부체쥬드라(붙여주더라), ət'ikʰe 어똥게(어떻게), ət'ikʰe 어:똥게(어떻게), irin 이른(이런), íringə 이른거(이런 거), irikʰé 이룽게(이렇게), irikʰédu 이룽게두(이렇게도), iri(~ə)kʰe 이룽(~룽)게(이렇게), kirikʰágu 그룩하구(그렇게 하고), kirikʰe 그룽게(그렇게), kiringə 그룬거(그룬 거), kiri(~ə)ŋge 그룬(~룬)게(그룬 게), kírík'a 그르까(그러니까) cf. kurún 구룬(그룬)).

42) 곽충구(2003:69-70)은 본고와 동일한 자료에 대해 /-/는 [ɔ]로 '어'는 대체로 [ə]로 실현된다고 하면서 /ɪ/와 /-/는 음성적으로 원순성보다는 혀의 '전후'에 의지하여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북 방언에서 대립이 약화된 /-/와 /ɪ/가 합류하고 /ɪ/가 점차 후설화하여 그 조음역을 확장한다면 /-/와 /ɪ/는 합류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동북 방언은 6모음 체계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자료상 /ɪ/와 /-/는 대

남 함흥 지역어에서는 대체로 /ɿ/의 고설화가 발생하여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자료상의 /ɿ/와 /i/의 조음역은 실제로 어떠한지, 기존 논의에서 언급한 대로 /ɿ/와 /-/가 합류되거나 /i/와 /ɿ/가 합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음향음성학적 관점에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아래는 이 자료의 /ɿ/, /i/, /-/, /ɿ/의 실현 범위를 모음 분포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함흥 지역어 모음 /ɿ/, /i/, /-/, /ɿ/의 분포도

/ɿ/는 음성적으로 상당히 저설화된 반면, /i/는 음성적으로 고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ɿ/와 /i/는 모음 분포도상 안전 간극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변이음역 또한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ɿ/와 /i/의 합류를 예견하기는 어렵다. 한편, /i/의 고설화로 인해 /i/와 /-/, /ɿ/는 모음 분포도상 근접하여 있으나 이들의 변이음역이 크게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에 이들 모음 간의 합류 또한 단언할 단계는 아니다.

4.4. /ɿ, ɿ/

기존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방언의 /ɿ, ɿ/ 또한 점차 합류를 향해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정용호(1988:87-90)은 함경도 방언의 청년층 이하 화자들이 /ɿ, ɿ/의 변별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강순경(1997:131-133) 또한 함남 방언의 /ɿ, ɿ/가 머지않아 합류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⁴³⁾ 함흥 지역어 음성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ɿ/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

- (13) ㄱ. É: 예:(외(瓜)), É 예:(외(瓜)), E(~e) (외(瓜)), émi 에미(어미)
- ㄴ. mé 메(樸), méʰi 멧이(멧이), meps'al 맵쌀, megéra 맥에라(떡여라), pÉ: 베(벼), pek'é 벳게(벳겨), péri 베르(벼루), p'ek'inda 뻗긴다(벗긴다), pʰé:ra 페:라(펴라)
- ㄷ. ne 네(네가), ni(~e) 니(~네)(네가), ní 니(네가), neréra 네레라(내려라), teréodʒo 데레오쥬(데려오쥬), t'é:ra 떼:라(떼어라), t'Énda 떼ندا
- ㄷ. ʃé:l 젤:(제일), ʃedz'arie 제자리에(제자리에)
- ㄹ. ké 게, kE 게, kée 게에(기어), kʰé:ra (불을)케:라(켜라)
- ㅂ. hebét'a 헤벳다(할퀴었다), heʰébara 헤체바라(헤쳐 바라)

체로 변이음역이 중복되지 않는다. 간혹 /ɿ/가 /ɿ/처럼 조음되는 것은 방언 외적인 요인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ɿ/의 고설화가 함남 방언 내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라면, /ɿ/의 원순화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평양 지역어에 이끌린 변화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3) 강순경(1997:131-133)은 함경 방언이 /ɿ/>/ɿ/의 상승 융합을 통해 6모음 체계가 되고, 다시 /-/>/ɿ/의 합류를 통해 5모음 체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14) ㄱ. t'ée 떼에(떼어), peéra 베에라(베어라), méera 메에라(메어라)
 ㄴ. ədime(~i)sə 어드메(~미)서(어디서), tibéra 디베라(뒤져라), tibéra 디베라(뒤져라), pibéra 비베라(비벼라), henp^hén 행펜(형편), kəp^hent'éri 개펜때르(교편을), tep^héra 뎡헤라(데워라)
 ㄷ. t^héne 체네(처녀), emi(~e)né 에미(~네)네(아낙네), eme(~i)né 에메(~미)네(아낙네), uré 우레, hórEmi 훌에미(훌어미), hóre미 훌에미(훌어미), ʃinirÉmi 지느레미(지느러미), mindillé 민들레, k'arésə 꿀에서(꿀여서), tírera 드레라(드려라), tidét'a 디뎡다(디뎡다), t'é 떼(떼), kuk'árise(~i)da 국구룻에(~이)다(국그릇에다), maséra 마세라(마셔라)
 ㄹ. idzé 이제(이제), hyəndzəʃ^hərəm 형제처럼(형제처럼), təndzéra 던제라(버려라), muʃ^héra 무체라(무쳐라), koʃ^héya 고체야(고쳐야), taʃ^hét'a 다첸다(다쳤다)
 ㄴ. kiyé(~i) 그계(~기), tangésə 당게서(당겨서), iʃ'akk'é 이쨍개(이쨍개), p'ek'édzinda 뺏게진다(벗겨진다), ik^hé 이케(이렇게), kandzik^héra 간지케라(간질여라), ʃik^héra 지케라(지켜라)
 ㅂ. sífenidzi 시행이지(시형이지)

(13)은 어두 위치의 /ㄱ/ 실현 양상이다. (13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3ㄴ)은 양순음 뒤, (13ㄷ)은 치조음 뒤, (13ㄹ)은 경구개음 뒤, (13ㄴ)은 연구개음 뒤, (13ㅂ)은 후음 뒤의 /ㄱ/ 실현 양상이다. (14)는 비어두 위치의 /ㄱ/ 실현 양상이다. (14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4ㄴ)은 양순음 뒤, (14ㄷ)은 치조음 뒤, (14ㄹ)은 경구개음 뒤, (14ㄴ)은 연구개음 뒤의 /ㄱ/ 실현 양상이다. /ㄱ/는 대부분 [e]로 실현되나, 간혹 [E]나 [i]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함흥 지역어에서 /ㄱ/의 조음역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간혹 고설화되거나 저설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다음은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ㄱ/의 실현 양상을 조건 환경별로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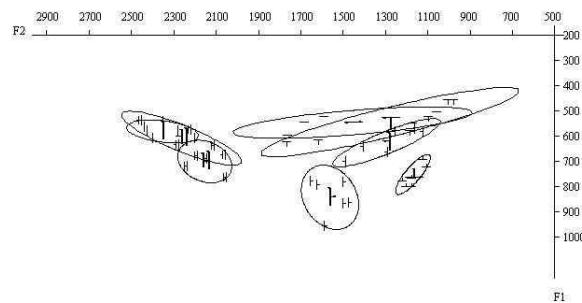
- (15) ㄱ. é: 애:(애(腸)), éε 애애(애(腸)), éimñik'a 애입니까(아닙니까?)
 ㄴ. mé 매(鞭), mÉ(~é) 메(~매)(매(鷹)), məpt'á 맵다, məʃ'áge 매짜게(뚝뚝하게), pé 배(梨), péga 배(腹)가, pé:(~é)l 벨:(~배앨)(벨), pεεrí 배앨으(벨을), p^hé k'i 패끼(팔)
 ㄷ. né 내(내가), nÉ 네(내가), tédabagi 대답아기(대답하기), t'É 떼(떼(垢)), t'éri 때르(때(垢)를), t'ériget'ó 때리겄쵸(때리겄쵸), sE 세(새(鳥)), sÉra 세라(새(鳥)라), ségaks'ihagu sésibe 새각시하구 새스배(신부하고 신랑)
 ㄹ. ʃεεngó 재앵거(자전거), ʃé:ra 쨌:라(쨌라), ʃ^héonin 채 오는(채어 오는)
 ㄴ. ké: ona 개: 오나(가져 오너라), ké 개(犬), ké:ɟzi 개:지(강아지), k'é 깨, k'énda 깻다(醒)
 ㅂ. hErópt'a 헤롭다(해롭다), héra 해라

44) 20세기 초 함남 북청 지역어에 대한 조사·연구인 Ramsey(1978:58-60)에 따르면, 당시 함남 방언의 'ㄱ[e]'는 서울말의 'ㄱ'보다 약간 더 높고, 독일어의 'ë'만큼 높다는 기술이 있다. 'ㄱ[e]'는 물론 더 낮으나, 음성 전사(phonetic transcription) [e]보다는 약간 더 높다고 하였다.

- (16) ㄱ. meéra 매애라(매어라(結)), t'éera (불을)때애라(때어라), keéra 개애라(다듬어라), k'éét'a 깨애티(깨다(破))
 ㄴ. kamé 가매(솔), tsɪnmeɔ́ám 직매점, sésibe 새스배(신랑)
 ㄷ. kaŋné: 강내:(강냉이), moré 모래, š(~s)irégí 시래기, kodéru 고대루(고대로), kepʰent'éri 개펜때르(교편을), təkt'É 덕데(화), karimt'É 가림때(가림대), kúseri 구새르(굴뚝을)
 ㄹ. índze 인재(임자), komó adžebí 고모 아재비(고모부), hadžé:ni 하재:니(하잡니), ʃ'aktʰ'égi 짹짹(짹짹), péʃʰedu 배채두(배추도)
 ㅁ. ak'és 아깨(아까), tilk'ε 들깨, tók'εbi 도깨비, ək'és:da 어깨:다(어깨에다)

(15)는 어두 위치의 /ɬ/ 실현 양상이다. (15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5ㄴ)은 양순음 뒤, (15ㄷ)은 치조음 뒤, (15ㄹ)은 경구개음 뒤, (15ㅁ)은 연구개음 뒤, (15ㄴ)은 후음 뒤의 /ɬ/ 실현 양상이다. (16)은 비어두 위치의 /ɬ/ 실현 양상이다. (16ㄱ)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16ㄴ)은 양순음 뒤, (16ㄷ)은 치조음 뒤, (16ㄹ)은 경구개음 뒤, (16ㅁ)은 연구개음 뒤의 /ɬ/ 실현 양상이다. /ɬ/는 대부분 개구도가 큰 [ɛ]로 실현되나, 간혹 [ɛ]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중엽 이후 함남 함흥 지역어에서 /ɬ/의 조음역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간혹 고설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는 /ɬ/와 /ɬ/가 구별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모음 체계 내에서 /ɬ/와 /ɬ/가 안전 간극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 /ɬ/와 /ɬ/의 합류를 논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⁴⁶⁾

그렇다면 이 자료상의 /ɬ/와 /ɬ/의 조음역은 실제로 어떠한지, 기존 논의에서 언급한 대로 /ɬ/와 /ɬ/가 합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음향음성학적 관점에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아래는 /ɬ/, /ɬ/를 포함한 이 자료의 모든 모음의 실현 범위를 모음 분포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함흥 지역어 모음 분포도

/ɬ/와 /ɬ/는 모음 분포도상 안전 간극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ɬ/의 변이음역이 매우 넓은 까닭에 /ɬ/나 /ɬ/의 변이음역과 부분적인 중복을 보인다. 따라서 아직 /ɬ/와 /ɬ/의 합류를 예견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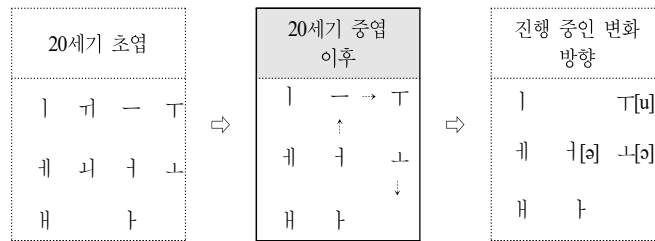
45) 강순경(1997:131-133)에 따르면, 제보자들의 발화에서 고립 모음 형태일 때는 /ɬ/와 /ɬ/가 확실히 구별되었으나, 문장 내의 발음에서는 /ɬ/가 /ɬ/로 상승 융합하고 있었다고 한다.

46) 보조 제보자인 2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ɬ[e]’와 ‘ɬ[ɛ]’가 변별되었고(예. kedžán 게장(게장), kE 게, kik'hé 그케(그렇게), ik'hé 이케(이렇게), ké 개(犬), kedžán 개장), 30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ɬ’와 ‘ɬ’가 변별되었다(예. mebún 맵운(매운), p'ek'in 뺨긴, tédabagi 대답아기(대답하기), tedžera 데제라(던저라), anindé 얇은데).

5. 결론

본고는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세기 초엽의 함남 방언 자료와 20세기 중엽 이후의 함흥 지역어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과정 및 진행 중인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함남 방언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20세기 이후 함남 방언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

첫째, 현장시간의 관점에서, 20세기 초엽의 함남 방언은 대체로 /ɨ, ɨ/ (= /ö, ü/)를 포함한 10모음 체계였으나 점차 /ɨ, ɨ/가 비음운화함에 따라 8모음 체계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세기 중엽 이후에는 /ㅡ/의 조음역이 점차 /ㅓ/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모음 체계상 /ㅡ/ > /ㅓ/의 합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음성적으로는 /고/가 저설화되고 /기/가 고설화되는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개/와 /해/는 비교적 안정적인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러한 모음 체계의 변화가 급속히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셋째, /ㅡ/ > /ㅓ/의 합류가 완료되면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는 /ㅣ (i), 개 (e), 해 (ɛ), 하 (a), ㅓ (u), ㅓ (ɔ)/의 7모음 체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는 20세기 초·중엽의 함남 방언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 및 함남 함흥 지역어 음성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20세기 말엽 이후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 같은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순경(1997),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어학연구》 3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117-135.
 강순경(1999ㄱ), 북한 후설모음의 융합(merger)현상, 《음성과학》 5-2, 한국음성과학회, pp.41-55.
 강순경(1999ㄴ), 북한 모음 /ㅓ/→/ㅡ/에서 발견되는 과잉교정 현상, 《음성과학》 6-1, 한국음성과학회, pp.33-44.
 강순경(2001), 《북한어 모음체계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47) 실향민의 경우, 대부분 1940~1950년에 이주하였으므로, 이주 전까지는 원적지 방언 내적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들의 모음 체계상 후설모음의 동요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같은 후설모음의 변화는 1950년대 이후에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12년에 조사한 홍원 출신 실향민(79세(1934년생), 1950년 이주)의 경우에도 /ɨ, ɨ/가 없는 8모음 체계를 보여 주었으나 다른 모음에 있어서는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pp.59-91.
- 곽충구(2010),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음운 변이, 《국어학논총》(崔明玉 先生 停年 退任 紀念), 태학사, pp.51-85.
- 곽충구(2019), <북부 방언의 어제와 오늘>, 《방언학》 30, 한국방언학회, pp. 295-340.
-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수현(2015),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공시 음운론, 박사학위논문(서강대).
- 김춘자(2007), 함경남도 삼수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리극로(1966), 《조선어 조 연구 - 북청 방언을 중심으로》, 평양: 사회 과학원 출판사.
- 방언연구회(2001), 《方言學 事典》, 태학사.
- 소신애(2010), 평안 방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평양 지역어의 모음을 중심으로, 《國語學》 58, 國語學會, pp.231-254.
- 소신애(2020), 함남 함흥 지역어의 자음 체계 및 관련 음운 현상, 《방언학》 31, 한국방언학회, pp.7-42.
- 李克魯(1932), 조선말의 홑소리, 156-160, 《한글》 4, 한글학회.
- 李氣銅(1987), 咸鏡南道 北靑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博士學位論文(高麗大), pp.1-129.
- 이기동(1993), 《북청방언의 음운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李基文 外 5人(1991), 韓國語 方言의 基礎的 研究, 《學術院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30, 大韓民國 學術院, pp.45-143.
- 정용호(1988), 《함경도방언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한영순(1967), 《조선어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연구-함북, 함남, 강원도의 일부 방언을 중심으로》,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 小倉進平(1927), 咸鏡南北道方言, 《朝鮮語》 2, 朝鮮教育研究會, pp.1-34.
- 小倉進平(1930), 咸鏡南道及び黃海道方言の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研究調査冊子》 第二輯, 小倉進平(1944)에 재수록, pp.297-380.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 Labov, W. (1994),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 1), Blackwell.
- Ramsey(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탐출판사.
- Trudgill, P. (2004), New-Dialect Forma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 토론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에 대한 토론문

이상신(아주대)

북한 방언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실제로는 특별히 공부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신 소신애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못했던 공부를 하게 되어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의미에서 제가 적절한 토론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는 자료를 정리하느라 들이셨을 고생을 생각하며 경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방대한 자료로부터 나온 합리적인 논의가 본 논문이라는 점에서 선생님의 논문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거리가 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사소한 몇 가지만 아래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쪽 아래 5줄: 황대화(1986)을 찾아보고 드려야 되는 질문이지만, “움라우트나 ‘|’ 결합 환경에 한하여 ‘ㄱ’이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음”이라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만 ‘ㄱ’이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4쪽 3줄: 역시 정용호(1988)을 직접 찾아보고 드려야 되는 질문이지만, ‘자음+ㅕ’, ‘자음+ㅠ’ 환경에 단모음 ‘ㄱ’과 ‘ㄱ’이 실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ㅕ>ㄱ’, ‘ㅠ>ㄱ’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후부 변자음”(4쪽 아래 4줄)이나 “연구개음”(11쪽 아래 5줄) 뒤에서 ‘->ㄱ’가 현저한 이유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3쪽 6줄: 위와 같은 종류의 질문인데, 치조음 뒤에서 ‘ㄱ’이 ‘-’에 가깝게 실현되는 현상이 현저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목에 “모음 체계”라 되어 있는데, 구조주의적 사고를 강조하면 음소 간의 관계가 좀 더 부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6쪽에 제시된 <표 1>의 맨 오른쪽에 “모음 수”라 되어 있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고 선생님의 용어도 아닙니다만, 8쪽의 “식민지 지체 현상(colonial lag)”의 “식민지”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 느낌입니다.

자료에 어두워서 자신이 없는데, 12쪽 (7ㄷ)의 ‘어둡다’는 중세국어의 ‘어둡다’를, (8ㄱ)의 ‘겨울’은 중세국어의 ‘겨울’을 고려하면 어쩌면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남 방언에서는 ‘어둡다’와 ‘겨울’이 일반적인 경우이겠지요?

제1부 <제2 분과>

북한 문법 ‘상토’의 문법 범주 연구

박효정(연세대)

차례

1. 서론
2. 북한 문법의 굴절과 파생
3. 북한 문법의 상토와 상범주의 설정
4. 상토의 위상과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에 대한 재고
5. 결론

1. 서론

남북의 언어 규범에서 큰 차이는 남한 문법의 조사, 어미 및 일부 접사를 북한 문법에서 ‘토’로 설정하는 것이다. 남쪽에서는 조사를 품사의 하나로 설정하여 단어 층위에 두고 어미는 파생 접사, 굴절 접사와 같은 접사 층위에 둔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남쪽의 조사, 어미 및 파·사동 접사, 복수표지 ‘들’을 따로 떼어 ‘토’라는 문법 범주를 설정한다. 토는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어의 줄기(어간)에 붙어서 나타난다.¹⁾ 북쪽의 품사 분류는 조사, 어미 및 접사가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단위라는 동질적 특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분류한 것이고 남쪽에서는 조사와 어미의 동질적 특성보다는 이질적 특성을 강조하여 분류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문법에서는 피동과 사동을 ‘상(voice)’²⁾로 분류하여 ‘-이-, -히-, -리-, -기-’류의 접사를 조사, 어미와 함께 토로 분류하며 동사에 붙는 상토만 인정하고 ‘높다-높이다’와 같이 형용사에 ‘-이-’가 붙은 것은 단어 조성의 접사, 즉 접미사로 분류하여 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동사 ‘보다’가 피동사 ‘보이다’로 될 때 의미의 변화뿐만 아니라 타동사에서 피동사로 품사의 전환이 일어나므로 북한 문법처럼 문법적 관계만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고는 피동과 사동의 형태소 ‘-이-, -히-, -리-, -기-’가 북한 문법에서 상토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조사, 어미와 함께 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려고 한다. 또한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의 적절성 여부를 파생어 중심의 접근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 문법의 상토 ‘-이-, -히-, -리-, -기-’를 남한 문법과 비교한다면 선어말어미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문법에서는 상토와 존경토 ‘-시-’, 시간토 ‘-었-, -겠-’을 문장성분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로 여겨 끼움토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문법에서

1) 정순기(2005: 9) 참고

2) 북한 문법에서는 남한 문법의 ‘태(態)’를 ‘상(voice)’으로 칭한다. 본고는 남한 문법의 ‘태’와 북한문 법의 ‘상’을 모두 ‘상’으로 통일하여 칭한다.

는 남한 문법의 접미사와 어미를 동일한 층위의 문법 범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 문법에서 토와 뒤붙이(접미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북한 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굴절 형태소인 ‘토’와 파생 형태소인 ‘접미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3장에서는 북한 문법에서 상토 ‘-이-, -히-, -리-, -기-’가 정립되는 과정과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에 대해 북한 문법의 논의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상토 설정의 적절성 및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 여부를 파생어 중심의 접근으로 재고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문법의 굴절과 파생³⁾

2.1. 굴절 형태소 ‘토’

토는 북한 문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북한 문법에서 토가 통시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립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문법이 갖는 독자성과 개별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고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 문법 토의 변화 과정을 주요 문법서를 통해 짚어봄으로써 토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⁴⁾

『조선어문법』(1949)은 북한 최초의 공식 규범문법서이다. 『조선어문법』(1949)에서 세운 품사체계는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⁵⁾로 현대국어의 격조사와 어미(종결어미, 접속어미, 선어말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토’로 처리하며 이를 품사로 설정하지 않았다.⁶⁾ 『조선어문법』(1949)에서는 접사를 두 층위로 나누는데 파생적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를 ‘어사 조성의 접사’,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를 ‘형태 조성의 접사’로 본다. 그리고 어근을 중심으로 어근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로,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접후사로 구분하며 접후사를 다시 어사 조성의 접후사(접사)와 형태 조성의 접후사(토)로 나눴다. 형태 조성의 접후사는 접후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와 접미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조선어문법』(1949)의 ‘조사’는 김수경의 『조선어문법』(1954: 260)에서 ‘단어 또는 문장의 뜻을 돕는 토’로 규정되고 격조사, 보조사, 어미류까지 합쳐져 토의 범주에 넣으며 토를 독립된 품사로 보았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1945-1954)은 토가 정립되기 이전으로 토에 대한 견해가 단일하지 않았고 토가 첨가되는 접사법을 교착어의 특징으로 포착하였지만 이는 이전 선학의 연구에서 가지고 있던 인식으로 전통문법의 수준을 넘지는 못하였다.

박재수(1999: 166-172)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 초반 여러 학술토론을 통해 토의 성격을 접사로 보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는 『조선어문법1』(1960), 『조선어문법2』(1963)의 서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⁷⁾ 『조선어문법1』(1960)에서는 ‘접후사’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형

3) 본고는 굴절의 개념을 넓게 보고자 한다. 단어의 문법적 기능, 역할, 관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 단어에 조사와 어미를 붙이는 과정을 넓은 개념의 굴절로 본다.

4) 이 절에서는 양옥주(1996)의 논의를 참고하여 시기별 대표적 문법서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양옥주(1996)에서 북한 문법 ‘토’ 이론의 발전 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1시기 규범문법 시대(1945-1954)의 대표 서적으로 『조선어문법』(1949)를, 2시기 서술문법 시대(1955-1970)는 『조선어문법1』(1960)을, 3시기 문화어문법 시대(1971-1980)는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을, 4시기 이론문법 시대(1981-1995)는 리근영(1985)의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을 각 시기를 대표하는 문법서로 소개한다.

5) 이때 조사는 현대국어 문법의 ‘보조사’를 이른다.

6) 『조선어문법』(1949: 69-70)에서는 단어의 기본적 의미를 ‘실질적 의미, 파생적 의미, 관계적 의미’로 나누는데 ‘파생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를 합쳐 ‘문법적 의미’로 규정한다. 그리고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부를 ‘접사’로 규정한다. ‘접사’의 개념은 『문화어문법규범』(1972)에서 이르러서 ‘토’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7) 『조선어문법1』(1960)은 어음론, 형태론에 관한 것이고, 『조선어문법2』(1963)는 문장론에 관한 것이다.

태부'라는 개념을 통해서 토를 정의한다. 토는 문법적 형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조선어문법』(1949)의 토 개념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토와 접미사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조선어문법1』(1960)에서는 토의 갈래를 '격토, 도움토, 종결토, 접속토, 규정토'8)로 두었다.

1970년대 가장 큰 변화는 형태론의 내용에서 품사와 토가 분리된 것이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에서는 목차를 '1장 단어와 그 구조, 2장 품사, 3장 단어와 형태(토)'로 구성하여 품사와 '토'를 분리하여 다루었는데 『조선문화어문법규범(2판)』(2011)에서도 그 구성을 따른다. 토 연구는 당시 가장 중요한 문법 연구 중에 하나로 교착어인 조선어의 개별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여겼다. 특히 접사와 토는 분포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접사와 토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에서는 접사와 토를 구분하기 위해서 토를 '문법적 뜻을 나타내는 형태부'로 정의하였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에서는 토의 갈래를 '격토, 복수토, 도움토, 맺음토, 이음토, 엮음토(=규정토), 꾸밈토, 상토, 존경토, 시간토, 바꿈토', 11개로 설정하였고 피동, 사동의 형태소 '-이-, -히-, -리-, -기-'가 굴절 형태소로 자리잡혔다.9)

이후 이론문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1980년대에 리근영의 『조선어리론문법』(1985)에서는 이전 시기와 달리 기존에 형태론 안에 묶여 있던 품사론과 단어조성론을 제외하고 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형태론의 범위를 형태론적 현상, 즉 문법적 형태와 문법적 의미, 문법적 범주와 그와 관련된 문법적 현상을 밝히는 것으로 기술하며 『조선어리론문법』(1985)에서는 토를 문법적 형태를 이루는 교착물로 정의하였다. 토의 갈래는 '격토, 복수토, 도움토, 맺음토, 이음토, 규정토, 상황토(=꾸밈토), 상토, 존경토, 시간토, 강조토, 바꿈토'의 12개를 두었다. 특징적인 것은 강조토를 새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정순기의 『조선어형태론』(2005)은 『조선어리론문법』(1985)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10) 최정후의 『조선어학개론(2판)』(2010: 380-382)에서 토의 특징은 교착적 덧붙이라는 것,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관계적이며 문장론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착적 덧붙이라는 것은 문법적 의미만 나타낸다는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토가 단어가 될 수 있는 표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관계적이며 문장론적이라는 것은 덧붙이(접사)와 달리 말뿌리(어근)에 붙는 규칙이 특수하고 문장에서 문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토'의 형태 변화가 없다고 함으로써 이형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상적이다.11)

북한 문법 연구사에서 토의 변천은 교착적 요소와 접사적 요소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8) 해당 용어의 대응하는 남한의 문법 용어는 격토는 격조사, 도움토는 보조사, 종결토는 종결어미, 접속토는 접속어미, 규정토는 관형형 어미이다.

9) 『조선문화어문법규범(2판)』(2011)에서 토의 갈래는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과 동일하다.

10) 정순기(2005)에서는 토의 상위 개념으로 '체언토와 용언토', '대상토와 서술토', '자리토와 끼움토'를 둔다. '체언토와 용언토'는 붙어 쓰이는 품사 부류에 따른 것이고, '대상토와 서술토'는 어떤 행동, 상태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역할이 있는지 또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연결지어 주는지에 따른 것이고, '자리토와 끼움토'는 그것만으로 단어 형태를 끝맺어 매듭지을 수 있으며 문장속에서 문법적 자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결국 '체언토와 용언토'는 '대상토와 서술토'와 같은 범주를 갖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격토	복수토	도움토	맺음토	이음토	꾸밈토	규정토	상토	시간토	존경토	강조토	바꿈토
체언토	○	○	○								(○)	(○)
용언토		(○)	(○)	○	○	○	○	○	○	○	(○)	(○)
자리토	○	(○)	(○)	○	○	○	○				○	
끼움토		○	(○)					○	○	○		○

11) 정순기(2005: 141)의 격체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주격조사로 '이, 가, 께서'를 별개의 형태인 것처럼 나열한다. 남한 문법에서 격조사를 제시할 때에는 '이/가'와 같이 병렬로 제시하여 '이', '가' 중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제시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 이론문법 시대에 이르러 ‘토’를 문법적 교착물로 여기며 토를 통해 조선어의 개별적 특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토의 범주에 교착적 요소뿐만 아니라 굴절적 요소인 존경 선어말어미 ‘-시-’, 시제 선어말어미 ‘-었-, -겠-’ 등과 접사적 요소인 피동, 사동의 형태소 ‘-이-, -히-, -리-, -기-’, 복수표지 ‘들’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북한이 정치, 사상적 철학인 주체사상을 언어철학에서도 기본으로 삼아 조사와 어미 및 인근 범주의 형태소까지 교착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당 형태소가 우리말 고유의 특성을 나타냄을 부각함으로써 주체의 언어사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여겨진다. 북한 문법에서 우리말은 오직 토만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를 이룬다고 하며(정순기 2005: 38) 문법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구조적 성격에 관계없이 토의 체계로 단일화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언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은 남한의 국어연구와 차이를 보여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총제적으로 동일한 언어의 문법 현상을 다양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한국어 문법 연구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의의도 찾을 수 있다.

2.2. 북한 문법에서의 ‘뒤붙이’

피동, 사동의 형태소 ‘-이-, -히-, -리-, -기-’의 문법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 토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북한 문법의 개념 중 하나는 뒤붙이이다. 뒤붙이는 말뿌리와 대응되며 앞붙이와 함께 덧붙이의 한 종류가 되는 형태론적 단위로 남한의 접미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북한 문법에서 ‘-이-, -히-, -리-, -기-’를 존경 선어말어미, 시제 선어말어미와 같은 범주로 설정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 문법에서 뒤붙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규범 문법서를 중심으로 ‘뒤붙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비교적 초기의 규범 문법서인 『조선어문법1』(1960)에서는 형태론의 품사를 다루는 부분 중 명사를 설명하는 장에서 접사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접사에 의한 단어조성법은 세 가지, 접두사적 수법, 접미사적 수법,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어울리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뒤붙이라는 고유어 술어가 아닌 접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조선어문법1』(1960: 219)에서는 접미사의 성격을 접두사와 달리 단어의 품사적 소속성을 규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미사는 어느 한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만을 구성하는 데 전속되어 있다. 또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범주가 접두사와 달리 자유롭고 의미적 특성이 풍부하다. 접미사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명사 조성법을 다루는 곳에서 등장하지만, 동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 각론에서 접미사에 의한 각 품사 조성 방법을 예와 함께 보여준다.

이후 출판된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에 이르면 단어구조와 그 특성을 다루며 뒤붙이를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뒤붙이’라는 고유어 술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뒤붙이는 그 자체로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말뿌리의 뜻을 보충하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그것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단어의 어휘, 문법적인 갈래를 규정하는 데 결정된 역할을 한다(『조선문화어문법규범』 1976: 122). 뒤붙이는 덧붙임법¹²⁾으로 단어를 형성할 때 활발하게 사용된다. 여기서도 『조선어문법1』(1960)과 마찬가지로 품사 각론에서 각각의 품사를 만드는 방법을 보이며 뒤붙이에 의한 동사, 형용사, 부사 형성 방법을 보인다.

12) 북한의 단어조성법은 합침법과 덧붙임법으로 나눈다. 합침법이란 두 개 이상의 말뿌리들을 합쳐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수법이며 덧붙임법이란 앞붙이나 뒤붙이를 말뿌리에 붙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수법이다(『조선문화어문법규범』 1976: 122).

『조선어학개론(2판)』(2010)에서는 뒤붙이를 형태론 중 단어의 구조에서 다룬다. 말뿌리는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부로서 단어 구조에서 핵으로 되는 것이며 새로운 단어는 말뿌리에 덧붙이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덧붙이는 그것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앞붙이, 뒤붙이, 토로 구분한다(최정후 2010: 375). 토도 넓은 범위에서는 뒤붙이의 한 종류로 최정후(2010: 376)에서 토는 단어변화적 뒤붙이이고, 뒤붙이는 단어조성적 뒤붙이로 설명한다. 최정후(2010)에서는 토를 뒤붙이의 범주 안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문법서들의 설명 방식과 차이를 보였다.¹³⁾ 즉 분포적 특성을 중심으로 단어조성적 뒤붙이와 토를 뒤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루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뒤붙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토와 단어조성적 뒤붙이(즉, 뒤붙이)를 모두 포괄하는 것과 그 하위 요소인 단어조성적 뒤붙이의 서로 층위가 다른 두 가지 개념에 혼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 문법에서 뒤붙이는 남한 문법에서의 접미사와 유사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접미사와 북한의 뒤붙이는 그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에서는 피·사동 접사를 접미사의 범주에 넣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토의 범주인 상토로 다룬다. 최정후(2010)에서 토를 단어변화적 뒤붙이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북한에서 피·사동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과 같이 단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높다-높이다’에서 보이는 변화는 의미 변화뿐만 아니라 품사 변화가 일어나서 상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문법의 상토와 상범주의 범위

3.1. 상토의 정립 과정

상토는 용언토 중 끼움토에 속한다. 끼움토는 문장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며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토이다. 또한 완결된 단어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줄기(어근)와 용언의 자리토¹⁴⁾ 사이에 끼어든다(정순기 2005: 127 참고). 그 중 상토는 단어의 풀이형에 붙어서 행동과 그 행동의 임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토이다. 북한 문법에서 ‘-이-, -히-, -리-, -기-’를 용언토이면서 끼움토에 속하는 상토로 설정하여 남한 문법과 달리 굴절 형태소로 처리한다.

‘-이-, -히-, -리-, -기-’가 상토로 정립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어문법』(1949)에서는 각 품사별로 문법의 범주를 설명하는데 동사의 상(voice)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이-, -히-, -리-, -기-’를 접사로 여김을 알 수 있으며 형용사의 상범주는 설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동사에 결합하는 접사 ‘-이-, -히-, -리-, -기-’는 형태 조성의 접미사 즉, 문법적 의미를 지닌 접사로 보고 형용사에 붙는 접사는 단어 조성의 접사로 보기 때문으로 문법의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초창기부터 북한 문법에서 형용사의 상범주를 설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선어문법』(1954), 『조선어문법1』(1960), 『현대조선어2』(1962), 『조선어문법』(1964), 『조선어문법』(1970)에 이르기까지

13) 이러한 설명 방식은 『조선어문법』(1949)를 따른 것으로 조선어에 있어 접두사는 언제나 어사 조성의 접사이며, 접후사는 어사 조성의 접사일 수도 있고 형태 조성의 접사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조선어문법』 1949: 71). 접후사에 있어 어사 조성의 접후사를 접미사, 형태 조성의 접후사를 토라 하며, 어(語)에서 토를 제외한 부분을 전체로 어간이라 한다고 기술하였다. 『조선어문법』(1949) 이후 접미사와 토를 다시 접후사 혹은 접미사라는 상위 범주에 넣어 설명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다가 최정후(2010)에서 이러한 기술이 등장한다.

14) 자리토는 그것만으로 단어 형태를 끝맺어 매듭지을 수 있으며 문장 속에서 문법적 자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남한 문법의 ‘격조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어미, 부사형 어미’ 등이 속한다.

북한의 주요 문법서에서는 『조선어문법』(1949)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이-, -히-, -리-, -기-’는 주되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를 조성하는 접미사로 보되, 동사의 어근에 직접 붙어 피동, 사동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단어 조성의 접미사로도 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후 북한은 1970년대 토를 중심으로 우리말의 교착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피동, 사동을 만드는 ‘-이-, -히-, -리-, -기-’뿐만 아니라 겹침상토 ‘-이우-, -히우-, -리우-, -기우-’를 상토로 명명하며 동사에 한하여 상범주를 설정하고 형용사에 붙는 ‘-이-, -히-’는 단어를 만드는 접미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김백련(1964)에서는 형용사에 상범주를 설정하며 북한의 기존 학교문법에서 형용사의 상범주를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어 현실과 유리된 기계적 결론이라고 비판하였고 이는 김백련 『조선어단어론』(2005)에까지 논지가 일관되게 유지되며 형용사의 상범주를 설정해야 함을 역설한다. 의미상, 기능상 차이가 없는 접사를 동사, 형용사 품사에 따라 형태 조상의 접사, 단어 조성의 접사로 구별하는 것은 언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 접사들은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하였을 때 모두 어휘·문법적 접사로 기능함을 논하였다.

북한 문법의 상토를 남한 문법과 비교한다면 선어말어미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것은 최현배(1937)의 보조어간 설정과 유사하다. 최현배(1937/1971: 349-389) 『우리말본』에서는 선어말어미 ‘-시-’, ‘-겠-’ 등과 피동, 사동 접사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남한 문법의 입장에서 파생적 성격의 접사와 굴절적 성격의 접사인 이질적인 두 형태소를 분류하지 않고 하나로 묶었다고 본다면 북한 문법의 설정이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동,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가 어근에 결합하여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문장구조에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점을 1차적으로 본다면 굴절 접사로 볼 수 있다.

3.2. 형용사와 상범주

조선어학전서는 북한의 역대 국어 연구의 성과를 대표하는 문법서를 엮은 것이다. 본고는 조선어학전서 중 정순기 『조선어형태론』(2005)와 김백련 『조선어단어론』(2005)에서 형용사의 상범주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어형태론』(2005)은 ‘형태론 서술의 문제, 체언토와 용언토의 문법 범주, 문법적 의미와 강조, 체언과 용언의 형태바꿈’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조선어단어론』(2005)은 단어조성과 품사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두 서적은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1>은 정순기(2005)에서 형용사에 상범주를 설정할 수 없다는 근거와 김백련(2005)에서 형용사의 상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정순기(2005)에서는 북한의 규범문법 및 전통문법에서 취하는 상범주의 개념을 이어가며 동사에만 상범주를 취하는 반면 김백련(2005)에서는 1964년에 발표한 소논문 이래로 형용사도 상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고는 두 문법서에서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 여부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일반언어학에 대한 기술과 ‘높다-높이다’의 변화에 대한 기술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1>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 여부의 근거

	정순기 『조선어형태론』(2005)	김백련 『조선어단어론』(2005)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 안 함	설정함
일반언어학	인구어 및 교착어에서 상범주는 동사에만 설정	인구어 형용사에 상범주가 없을지라도 조선어에 나타내는 것이 언어적 현실

높다-높이다	높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그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높-'이 '높이-'는 것처럼 '높-'이 '높이-'는 것은 엄연한 의미적 공통성을 갖는 것으로 부인할 수 없다.
--------	---	--

정순기(2005: 294)에서는 상범주는 동사의 고유한 문법적 범주로 동사로 표현된 행동과 행동의 주체 및 객체 사이에 맺어지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며 '높이다, 좁히다'는 높게 하거나 좁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그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형용사의 상형태로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백련(2005: 19-20)에서는 '-이-, -히-, -리-, -기-'류에 의해서 '높-'이 '높이-'가 되는 것은 '높-'이 '높이-'으로 되는 것과 의미적 공통성이 있다고 보며 다음의 예시를 통해 논증하였다.

- (1) 가. 눈을 높인다. (자동사의 사역형=타동사)
- 나. 열의를 높인다. (형용사의 사역형=타동사)

김백련(2005: 21)에서는 '-이-, -히-, -리-, -기-'류가 현실적으로 문법적 의미가 있어서 형태들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실지 어휘적 의미가 있어서 파생적인 동사들이 조성되므로 어휘·문법적 뒤붙이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로 인하여 행동적 의미를 가진 상형태를 구성하고 형용사가 동사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1나)는 (1가)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추동된다는 것으로 여긴다.

다음으로 일반언어학적 견지에서 볼 때 정순기(2005: 294)에서는 상범주는 동사에만 고유한 문법적 범주로 인정되어 오고, 인구어 그리고 교착에서도 상범주는 동사의 고유한 문법적 범주로 간주되어 온다며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을 부적절하게 보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선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미분화 상태에 있었지만 '-이-', '-히-', '-추-'가 미분화 상태에서 쓰이던 것이 형용사에 잔재적으로 존재하여 남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히-', '-추-'는 본래부터 문법적 형태 조성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조성 수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백련(2005: 19-20)에서는 인구어에 없는 형용사의 시칭형태가 조선어에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고 이에 따라 형용사도 시칭 범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공인되고 있다며 그저 형용사이기 때문에 상범주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고 기술하였다. 김백련(2005)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논리적 공통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길은 형태소 '-이-, -히-, -리-, -기-'가 상형태를 조성하는 문법적 의미와 함께 다른 단어를 조성하는 어휘적 의미도 가지는 어휘·문법적 형태소임을 인정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보았다.

본고는 정순기(2005)에서는 형용사의 상형태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일반언어학적으로 형용사의 상형태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근거로 한국어의 언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Keenan & Dryer(2007: 332)에서는 목적어가 동사의 피행위주(patients)가 아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타동사 즉, 상태 동사(stative verbs) 'be, become, lack, have'는 수동상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키냐르완다어와 같은 고도의 상태 동사는 비용(cost), 무게(weigh), 소유(have)와 관련된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며 Keenan & Dryer(2007)의 상태 동사는 한국어에서 '부족하다, 있다' 등의 형용사로 대응된다. 그런데 '부족하다, 있다'가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통사적 피동은 가능할지언정 형태적 피동은 불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어와 스페인어에서는 형용사에서 동사가 파생된 예가 있다.

- (6) 러시아어, 스페인어에서 형용사에서 동사 파생의 예(Haspelmath & Sims 2010: 88)

Deadjectival verbs (A → V)				
factive	Russian	<i>čern-yj</i>	→	<i>čern-it'</i>
		'black'		'make black'
inchoative	Spanish	<i>verde</i>	→	<i>verde-ar</i>
		'green'		'become green'

(6)의 러시아어에서는 형용사 'čern-yj(검은)'이 'it'로 인해 사역동사 'čern-it(검게 하다)'가 되고 스페인어에서는 형용사 'verde(푸른)'이 'ar'로 인해서 'verde-ar(푸르게 되다)'로 파생된다. 이것은 인구어에 형용사의 상범주가 없다는 정순기(2005)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동사의 상형태가 자동사, 타동사의 경계를 넘는 것이나 형용사의 상형태가 품사 변화를 보여 동사로 되는 것은 그 본질과 원리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일반언어학의 문법 범주 및 설명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보편적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언어의 문법 체계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¹⁵⁾ 굴절과 파생 간의 차이는 형태유형론에 나타나는 차이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굴절 범주는 파생에 비해 어휘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파생에 비해 규칙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범언어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보이지만 필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정순기(2005)와 김백련(2005)에서 보이는 형용사 상범주 설정의 차이는 '-이-, -히-, -리-, -기-'의 역할에 따른다. 김백련(2005)에서는 '-이-, -히-, -리-, -기-'를 접사로 보아 단어를 구성한다고 보되, 피동, 사동과 같이 문장구성에 영향을 주어 문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휘-문법적' 접사로 규정한다. 이는 남한 문법의 입장과 동일하다. 반면에 정순기(2005)는 동사에 붙는 '-이-, -히-, -리-, -기-'는 문법적 요소를 지닌 토(즉, 굴절 형태소), 형용사에 붙는 '-이-, -히-, -리-, -기-'는 접사로 본다. 다음으로 두 문법서는 '-이-, -히-, -리-, -기-'류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법적 현상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순기(2005)에서는 '먹다-먹이다-먹히다'를 어근 '먹-'과 관련된 동일한 행동으로 파악하고 김백련(2005)에서는 '먹다-먹이-먹히다'에서 '-이-', '-히-'는 동사의 행동적 성격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보아 '먹-'는 것만이 행동이 아니라 '먹이-', '먹히-'도 하나의 행동으로 본다. 정순기(2005)에서는 '먹이다', '먹히다'를 파생 과정을 중심으로, 김백련(2005)에서는 '-이-', '-히-'를 통해 파생된 결과를 중심으로 '먹이다', '먹히다'를 본다는 차이가 있다.¹⁶⁾ '-이-, -히-, -리-, -기-'에 대한 판단은 남한 문법에서도 판별에 이론이 있다. '높다-높이다'의 '-이-'는 지배적 접사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녹다-녹이다'의 '-이-'를 지배적 접사로 보기도 하고 한정적 접사로 보기 때문이다.¹⁷⁾

4. 상토의 위상과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에 대한 재고

3.2절에서 정순기(2005)와 김백련(2005)의 논의에서 형용사의 상범주를 이해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4장에서는 '-이-, -히-, -리-, -기-'를 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형

15) 연재훈(2011: 91-94, 138-139)에서는 한국어가 일본어, 터키어와 같이 교착어에 속하지만 한국어는 터키어와 일본어와 달리 형태적 사동법이 생산적이지 않고 사동사가 파생 동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동사로서의 의미 외에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일이 많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는 형태적 피동의 경우도 사동과 마찬가지로 일본어나 터키어만큼 생산적이지 못하다.

16) 이는 정순기(2005)는 어근을 중심으로 파생어를 판단하고 김백련(2005)은 접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파생어를 판단한다고 볼 수도 있다. 자세한 서술은 4.2절에서 후술한다.

17) 자동사 '녹다'가 '-이-'에 의해 사동사 '녹이다'로 된 것, 즉 동사의 하위 유형까지 문법의 범주에 둔다면 이때 '-이-'는 지배적 접사가 된다.

용사의 상범주 설정을 파생어 중심의 접근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4.1. 상토 설정의 적절성

먼저 ‘-이-, -히-, -리-, -기-’를 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논하도록 하겠다. Whaley(2008)에서는 굴절 형태소들은 근본적으로 문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예: 영어 -s, -ed, -ing), 파생 형태소들은 확고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한다고(예: 영어 un-, re-, -tion, -ly) 하였다. 일반적으로 굴절(inflexion)은 단어의 문법적 기능, 역할, 관계를 나타내고 파생(derivation)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여 어휘적 범위가 바뀌게 될 때를 이른다. 북한 문법의 토는 조사와 어미 외에 피동, 사동 접사와 복수표지 ‘들’이 포함되므로 북한 문법에서 파생과 굴절에 대한 개념이 일반언어학의 설명과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순기(2005: 26-27)에서 토는 형태 조성의 뒤붙이(접사)나 형태 조성의 덧붙이(교착물)¹⁸⁾이나 모두 문법적 형태와 관련되는 것인 만큼 형태 변화 부분에 소속되며 토로 묶여진다고 하였으나 차 후 기술에서 토는 그것이 붙는다 해도 다른 단어로 되지 않으며 오직 그 단어의 문법적 뜻만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⁹⁾ 해당 서술을 상토와 관련 지으면 논리적 모순이 보이지만 정순기(2005: 297)에서는 상토가 말뿌리(어근)에 가깝기 때문에 어휘적 성격이 강할 뿐²⁰⁾ 여느 토가 가지는 일반적 결합적 특성을 갖는다고 후술한다. 그러나 정순기(2005)의 서술을 따르자면 상토 이외에 ‘-답-’(예: 용감한 군인답다)²¹⁾과 같은 소위 통사적 접사를 토로 포함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또한 전통적으로 굴절 접사로 인식되는 조사,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수 없지만 ‘-이-, -히-, -리-, -기-’는 실질적, 어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생적인 동사를 형성하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상형태를 조성하여 문법적 의미를 갖는다. 북한 문법의 파생과 굴절의 개념은 일반언어학과 같지만 ‘-이-, -히-, -리-, -기-’의 굴절적 기능을 강조하며 굴절 형태소에 포함한다.

북한 문법의 끼움토, ‘상토, 시간토, 존경토’는 최현배(1937)의 ‘보조어간’과 유사하다. 최현배(1937) 『우리말본』에서는 선어말어미 ‘-시-’, ‘-겠-’ 등과 피동, 사동 접사를 ‘보조어간’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여 피동, 사동 접사와 선어말어미류를 불변부, 즉 어간의 일부로 파악하고 활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시경, 김두봉의 체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선어말어미류(-시-, -었-, -겠-), 파·사동 접사(-이-, -히-, -리-, -기-), 명사형 어미(-음, -기) 등을 해명하여 이전 문법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오던 것들의 실체를 ‘보조어간’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설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김병문 2016: 268). 그러나 불변부인 어간에 ‘-시-’, ‘-었-’ 및 ‘-이-, -히-, -리-, -기-’ 등이 보조적으로 결합된다는 설명은 어간의 정의에 모순적이고 파생과 굴절을 분리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후 안병희(1959)에서는 파생과 굴절 접미사를 재분류하여 이를 각각 불변부 어간, 가변부 어미에 귀속시키고 고영근(1967)에서는 한 용언에 포함된 접미사들이 그 기능이 파생인지 굴절인지에 따라 어간과 어미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며 ‘-이-, -히-, -리-, -기-’를 어간에 붙여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것으로

18) 정순기(2005)에서는 ‘덧붙이’, ‘뒤붙이’의 용어를 다소 혼동스럽게 사용한다. 정순기(2005: 25)에서는 ‘덧붙이’에 괄호를 두어 ‘교착물’이라고 서술하나 뒤 서술에서는 뒤붙이와 덧붙이를 모두 접사로 이르며 서술하기도 한다.

19) Haspelmath & Sims(2010: 90)에서는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는 속성 11가지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는데 굴절의 특성으로 ‘단어 부류를 바꾸지 못함’, ‘형태론적 패턴에 의해 표현되는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가 통사적 일치나 통사적 지배와 관련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20) 일반적으로 교착어는 어근에 가까울수록 어휘적 성격이 강하고 어근과 멀어질수록 문법적 성격이 강하다.

21) 이때 ‘-답-’은 논항구조를 갖으며 실질형태로서 쓰였다. 통사적 접사와 관련된 논의는 김창섭(1984, 1994), 시정근(1994, 199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보아 파생 접미사로, '-시-', '-였-'을 어말어미 앞에 붙여 용언을 활용한다고 보아 굴절 접미사인 선어말어미로 정리하였다. 북한 문법의 상토는 이와 같이 남한 문법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굴절과 파생을 분리하지 못하여 문법 기술이 후퇴한 면이 있다.

'-이-, -히-, -리-, -기-'는 순수하게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형태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첨가 방식에 있어서 조사와 어미의 교착적 특성과 차이가 있다.²²⁾ 따라서 전형적인 '토'의 범주로 볼 수 없고 어휘-문법적 의미를 가진 접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본고는 '-이-, -히-, -리-, -기-'류의 접사가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데, 이는 일찍이 김석득(1971), 시정곤(1998)에서 주장한 바 있고 시정곤(1998: 23)에서는 피동, 사동 접사를 김백련(2005)와 유사하게 '통사적 어휘접사(syntactic lexical affix)'라고 칭하였다.²³⁾ 본고는 김백련(2005)의 주장처럼 '-이-, -히-, -리-, -기-'는 어휘-문법적 형태소 혹은 파생 형태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조사, 어미와 함께 토로 상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4.2. 파생어 중심의 접근으로 본 '-이-, -히-, -리-, -기-'의 역할과 기능

다음으로 '-이-, -히-, -리-, -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형용사의 상범주 설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순기(2005)에서는 '-이-, -히-, -리-, -기-'가 어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사의 상범주는 인정하되, 형용사의 상범주는 인정하지 않았다. 본고는 정순기(2005)에서 접사의 기능을 어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어근을 중심으로 접사의 기능과 역할을 판단하는 것은 전통문법인 주시경(1910) 『국어문법』, 김두봉(1922) 『(김더) 조선말본』의 기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주시경(1910: 112-115)에서는 '기뻐(品詞變姓)'에서 사동과 피동을 서술하며 (2가)를 자동사 '줄다'가 자동사 '줄이다'로, (2나)를 타동사 '쓰다'가 피동사 '쓰이다'로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2다)는 형용사 '검-'에 '음'을 더해서 명사 '검음'이 된 것이고, (2라)는 동사 '먹-'에 '이'를 더하여 명사 '먹이'가 된 것이다. 주시경(1910)에서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파생된 것과 함께 동사에서 동사로 파생된 것을 모두 품사 변화로 인식하며 파생을 어근이 바뀌는 현상으로 이해하였다.²⁴⁾

(2) 주시경(1910: 112-115)의 '기뻐(品詞變姓)' 중 사동과 피동²⁵⁾

가. 제움이 남음 되게하는것²⁶⁾

줄이: 제움 몸 '줄'에 '이'를 더하여 남음이 되게하는것

나. 남음이 제움 되게하는것

쓰이: 남음 몸 '쓰'에 '이'를 더하여 제움이 되게하는것

다. 엇본임: 엇몸을 임몸 되게하는것²⁷⁾

검음: '검'은 엇몸이요 '음'은 그 '검'에 더하여 임몸으로 바꾸어지게하는것이라. 그러함으로 '검음'이 임이라

라. 움본임: 움몸을 임몸 되게하는것²⁸⁾

22)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조사, 어미와 접사는 차이가 있다. 조사와 어미는 음운론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의존성을 보이는 데 비하여 접사는 통사부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사적 의존성과는 관계가 없다.

23) 시정곤(1998)에서도 '-이-, -히-, -리-, -기-'가 갖는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통사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를 '-답-(용감한 군인답다), -이-(계사), -갈-, -되-' 등과 함께 통사적 어휘접사로 분류한 바 있다.

24) '높다-높이다'와 같은 형용사의 파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5)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하되, 문법 형태는 본고에서 "(작은따옴표)를 써서 가독성을 높였다. 이하 동일함.

26) '제움'은 자동, '남음'은 타동을 이른다.

27) '엇'은 형용사, '임'은 명사를 이른다.

28) '움'은 동사를 이른다.

먹이: 움뎠 ‘떡’에 ‘이’를 더한것

김두봉(1922)에서도 어근 중심으로 파생을 이해하지만 피동과 사동 접사에 대한 인식은 주시경(1910)과 차이를 보인다. 김두봉(1922)에서는 (3가)에서 형용사가 ‘-우-’, ‘-후-’ 등에 의해서 사동사가 될 때를 품사의 변화로 보고, (3나)에서 ‘웃다’, ‘울다’, ‘잡다’를 사동사 ‘웃기다’, ‘울리다’와 피동사 ‘잡히다’로 바뀌게 하는 ‘-기-’, ‘-리-’ ‘-히-’를 품사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바뀌게 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주시경(1910)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²⁹⁾ 김두봉(1922)에 보이는 인식은 현대 북한 문법의 형용사의 상범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김두봉(1922: 59-71)의 품사 변화

- 가. 얻의 바꿈 중 ‘얻에서 움로 바꾸임’³⁰⁾: 길다-길우다, 맞다-맞후다, 크다-키우다
- 나. 움의 바꿈 중 ‘뜻바꿈’: 웃다-웃기다, 울다-울리다, 잡다-잡히다

주시경(1910), 김두봉(1992)은 접사의 결합으로 어근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에 초점을 둔 반면 최현배(1937)에서는 접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데 초점을 두어, 두 가지 ‘뜻더하는 씨가지’, ‘말만드는 씨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남한 문법에서 접사의 기능은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로 나뉜다. 이때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는 ‘어근’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4)의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

(4) 가. 정성껏, 마음껏, 힘껏

- 나. 지금껏, 이제껏, 여태껏, 아직껏 (최형용 2016: 397)

한정적 접사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해 주기만 할 뿐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접사이고 지배적 접사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것은 물론 어근의 품사도 변화시키는 접사이다. (4가)는 ‘-껏’이 결합하여 ‘그것이 닿는 데까지’의 뜻을 더하며 ‘명사’에 접미사 ‘-껏’이 결합하여 의미의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품사까지 부사로 변화를 시켰기에 지배적 접사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4나)의 경우는 부사와 결합하여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품사의 변화는 없다는 것에서 한정적 접미사로의 용법을 보여준다. 이는 ‘-껏’이 쓰임을 ‘어근 중심’으로 접근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황화상(2018)에서는 ‘어근 중심의 접근’이 갖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들며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어근 중심 접근’의 문제점은 첫째, 접사 결합의 형태론적 과정을 포착하기 어렵고, 둘째, 후핵 언어인 한국어의 구조 특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과정을 끝낸 ‘파생어’를 중심으로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화상(2018)에서는 어떠한 ‘접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를 접사의 결합 과정이 아니라 접사 자체가 생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정곤(2006)과 유사한 견해로 접사가 참여하는 형태론적 과정 자체가 생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생은 ‘접사’를 중심으로 그 논항에 상응하는 ‘어근’이 결합하는 과정이고 어근은 접사를 중심으로 결합이 되는 것으로 결합 과정의 중심요소를 ‘접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결과로 생긴 ‘파생어 중심 접근’을 한다. 황화상(2018)은 기존의 어근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어근의 품사 변화와 접사의 기능, 파생어의 품사를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파생어의 형태론적 과정을 포착하여 설명하였다

29) 주시경(1910: 116)에서는 뜻이 바뀌는 ‘뜻바꿈’의 예로 ‘돌질’ 하나만을 제시한다.

30) ‘얻’은 형용사, ‘움’은 동사를 이른다.

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황화상(2018)에서는 하나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 낸 파생어는 모두 품사가 같다는 점을 주목한다. (4가, 나)에서 ‘-껏’이 붙어 만들어 낸 파생어의 품사는 모두 부사로 같다. 이를 피동, 사동에서도 적용하여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5)은 동사와 형용사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등이 결합된 예이다.

(5) 동사와 형용사의 사동사

접사	자동사 → 사동사	타동사 → 사동사	형용사 → 사동사
-이-	눅다-눅이다, 죽다-죽이다	보다-보이다, 먹다-먹이다	높다-높이다, 눅다-눅이다
-히-	앉다-앉히다, 눅다-눅히다	입다-입히다, 잡다-잡히다	좁다-좁히다, 밝다-밝히다
-리-	날다-날리다, 살다-살리다	물다-물리다, 알다-알리다	
-기-	웃다-웃기다, 남다-남기다	감다-감기다, 벗다-벗기다	
-우-	비다-비우다, 깨다-깨우다	지다-지우다, 차다-채우다	크다-키우다

주시경(1910), 김두봉(1922) 및 정순기(2005)에서는 (5)을 어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김두봉(1922), 정순기(2005)에서는 자동사를 사동사로, 타동사를 사동사로 만드는 것은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토, 상토로 분류하고 형용사를 자동사로 만드는 것은 단어를 형성하는 접사로 분류한다. 그러나 ‘눅-’과 ‘앉-’게 하는 것이 ‘눅이-’고 ‘앉히-’는 것처럼 ‘높-’고 ‘넓-’게 하는 것이 ‘높이-’와 ‘넓히-’는 것이라는 엄연한 의미적 공통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자동사 ‘눅다’, ‘앉다’가 ‘-이-, -히-’에 의해 타동사 ‘눅이다, 앉히다’로 변하는 것과 같이 형용사 ‘높다’, ‘넓다’가 ‘-이-, -히-’에 의해 동사 ‘높이다, 넓히다’로 변하여 ‘눅이다’, ‘높이다’는 사동주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황화상(2018)의 주장처럼 이를 파생어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이-, -히-, -리-, -기-’ 등의 접사가 지배하는 것은 어근이 아니라 파생 과정이 끝난 파생어 전체로 볼 수 있다. (5가~마)에서 ‘-이-, -히-, -리-, -기-, -우-’가 어근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접사의 영향으로 무엇과 결합하든 사동사로 그 품사가 결합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 -히-, -리-, -기-, -우-’가 파생어를 지배하여 그 문법적 범주(품사)를 결정한다고 보며 지배적 접사의 정의를 재설정하는 것이다.³¹⁾ ‘-이-, -히-, -리-, -기-’류 접사는 형태론의 개념과 통사론의 개념을 넘나드는 접사로 형용사에 붙어 행동의 의미를 가지며 동사로 전환됨을 부정할 수 없다.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 접사를 파생 전의 어떠한 품사와 결합하느냐를 중심으로 형용사에 붙는 상토와 동사에 붙는 상토를 나누는 것은 문법 기술의 측면에서도 비경제적이고 둘 사이에 어떤 제약과 차이가 있어 구별하는지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형용사의 상범주는 한국어의 엄연한 현실로, 동사의 상범주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결론

피동과 사동은 남북한 문법에서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문법 범주이다. ‘-이-, -히-, -리-, -기-’가 갖는 문법적, 어휘적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형용사의 상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까지 영향을 준다. 북한 문법에서는 ‘-이-, -히-, -리-, -기-’를 조사와 어미와 함께

31) 황화상(2018: 57)에서는 재배적 접사를 “지배적 기능을 갖는, 곧 파생어를 지배하여 그 문법 범주(품사)를 결정하는 접사”로 재정의한다.

목어 토의 범주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의 개별 특성을 무리하게 강조하다 생긴 오류라고 생각된다.

‘-이-, -히-, -리-, -기-’류의 접사는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중간적 성격으로 조사와 어미와 함께 토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북한 문법처럼 피동과 사동의 접사를 토로 설정한다면 이와 유사한 부류의 형태소 ‘-이-(계사)’, ‘-답-’, ‘-갈-’ 등과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득력 있는 논지가 따라야 한다.

정순기(2005)에서는 ‘-이-, -히-, -리-, -기-’가 어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사의 상범주는 인정하되, 형용사의 상범주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주시경(1910), 김두봉(1922)와 같이 전통적 관점에서 접사의 기능을 어근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피동과 사동에 있어서 김두봉(1922)에서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붙어 사동사가 되는 것은 품사의 변화로 보며 동사에 사동 접사가 붙는 것은 품사 변화가 아니라 뜻만 바뀌는 것으로 봄으로써 주시경(1910)과 차이를 보였다. 김두봉(1922)에 보이는 인식은 현대 북한 문법의 형용사의 상범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사의 기능을 어근 중심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은 접사 결합의 형태론적 과정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황화상(2018)은 접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결과로 생긴 ‘파생어 중심 접근’을 제안하며 하나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 낸 파생어는 모두 품사가 같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본고는 황화상(2018)의 논의에 동의하는 바이며 파생어 중심의 접근을 통해 ‘-이-, -히-, -리-, -기-’ 등의 접사가 지배하는 것은 어근이 아니라 파생 과정이 끝난 파생어 전체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파생어 중심의 접근은 자동사 ‘눅다’가 ‘-이-’에 의해서 사동사 ‘눅이다’로 변하는 과정과 형용사 ‘높다’가 ‘-이-’에 의해서 사동사 ‘높이다’로 변하는 과정의 공통성을 설명하여 한국어의 언어 현실에 더 부합한 서술로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67), 「현대 국어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1-63.
- 김두봉(1922), 『갑더조선말본』, 상해 새글집, 『역대한국문법대계』 1-23(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1983), 탑출판사.
- 김병문(2016), 「북한의 규범문법 성립 과정에 관한 연구 -자리토와 끼움토의 설정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67-294.
- 김백련(1964), 「‘조선어 동사, 형용사의 상 범주」, 『조선어문법리론집: 해방 후 편(1)』(김백련 엮, 1965),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59-160.
- 김백련(2005), 『조선어단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석득(1971), 「한국어의 형태·통사 구조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1954), 『조선어 문법』,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김수경·김백련(1962), 『현대조선어2』,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어문연구소(1964), 『조선어문법』,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45-161.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70), 『조선어문법』,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근영(1985),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박재수(1999), 『조선 언어학에 대한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수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시정곤(2006), 「우리말 접사의 통사론적 고찰」,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111-141.
- 안병희(1959), 「십오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 양옥주(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1945.8-1955.8」, 『형태연구사』(김영환·권승모 엮), 평양: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 364-401.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파주: 태학사.
- 정순기(2005), 『조선어형태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문화어문법규범편찬위원회(2011), 『조선문화어문법규범(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60), 『조선어문법1: 어음론, 형태론』, 평양: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63), 『조선어 문법2: 문장론』, 평양: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 조선어규범문법편찬위원회(1970), 『조선어문법』,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선어규범문법편찬위원회(1972), 『문화어문법규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선어규범문법편찬위원회(1976), 『조선문화어문법규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선어문연구회(1949), 『조선어문법』, 평양: 문화출판사.
- 주시경(1910), 『국어문법』, 경성: 박문서관, 『역대한국문법대계』 1-11(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1977), 탑출판사.
- 최정후(2010), 「조선어학개론(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서울: 역락.
- 황화상(2018), 「접사의 지배적 기능에 대하여-접사 결합에 대한 파생어 중심의 이해」, 『국어학』 86, 국어학회, 33-61.
- Edward L. Keenan and Matthew S. Dryer(2007), "Passive in the world's languages", in Timothy Shopen ed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1, Cambridge, U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5-361.
- Haspelmath, M., & Sims, A. D.(2010), Understanding morphology(2nd edition). London: Hodder Education.
- Whaley, L. J(2008), 『언어 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김기역 엮), 서울: 소통.

■ 토론

「북한 문법 ‘상토’의 문법 범주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병건(건국대)

이 연구는 북한 문법의 특징적 체계인 토 중 상토에 대한 연구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북한 문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무지가 발표자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라며 읽는 중 궁금했던 몇 가지의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북한문법에서 “‘높다-높이다’와 같이 형용사에 ‘-이-’가 붙은 것은 단어 조성의 접사로 본다.”는 것이 3.1.과 6쪽 “북한의 규범문법 및 전통문법에서 취하는 상범주의 개념을 이어가며 동사에만 상범주를 취하는 반면”의 설명처럼 널리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몇몇의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어문법규범』(197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 따르면, 토는 문법적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상토의 상은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그 임자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라 하고, “우리말에는 일부 형용사에도 상토가 붙어 동사로 넘어가는 것이 있다.”(250)고 하며 ‘높이다, 넓히다’를 그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김백련(2005)의 ‘어휘·문법적 뒤붙이(접사)’와 정순기(2005)의 ‘단어조성수단’ (“‘-이-’, ‘-히-’, ‘-추-’는 본래부터¹⁾ 문법적 형태 조성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조성 수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라는 7~8쪽의 설명은 둘 다 ‘높이-’ 등을 형태론적인 구성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둘 다 『문화어문법규범』의 ‘토는 문법적 범주’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 북한에서는 ‘-이/히/리/기-’를 문법적 범주를 실현하는 형태소(=토)로 보고, 남한에서는 ‘-이/히/리/기-’를 단어를 만드는 접사(북한 용어로는 덧붙이)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9쪽의 “북한 문법의 상토는 이와 같이 남한 문법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굴절과 파생을 분리하지 못하여 문법 기술이 후퇴한 면이 있다.” 등을 보았을 때 발표자께서는 이를 남한의 문법을 바탕으로 접사라 확정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도 문법범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는 논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왜 이것이 접사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어 조성의 접사로 보는 이유를 5쪽에서 “의미 변화뿐만 아니라 품사 변화가 일어나서”라고 하고 있고, 9쪽에서 “‘-이-, -히-, -리-, -기-’는 순수하게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형태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첨가 방식에 있어서 조사와 어미의 교차적 특성과 차이가 있다.”라고 했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6쪽에서 기술한 것처럼 “피동,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가 어근에 결합하여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문장구조에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점을 1차적으로 본다면 굴절 접사(형태소)로 볼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 입장은 ‘통사적 어휘접사(syntactic lexical affix)’(9쪽)인 듯한데, 12쪽에서는 “본고는 형용사의

1) 이것은 “정순기(2005)는 동사에 붙는 ‘-이-, -히-, -리-, -기-’는 문법적 요소를 지닌 토(즉, 굴절 형태소), 형용사에 붙는 ‘-이-, -히-, -리-, -기-’는 접사로 본다.”, “토는 그것이 붙는다 해도 다른 단어로 되지 않으며 오직 그 단어의 문법적 뜻만 나타낸다고 하였다.”는 8쪽의 설명과 충돌하는 듯하다. 이 기술이 정순기(2005)의 기술인지 글쓴이의 생각인지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을 듯하다.

상범주는 한국어의 엄연한 현실로, 동사의 상범주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문법 범주 요소(=상범주)로 보는 듯하여 앞뒤의 기술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이지요?

3. 남한 문법의 ‘태’와 북한 문법의 ‘상’을 모두 ‘상’으로 통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3쪽,

① “교착적 요소뿐만 아니라 굴절적 요소인 ~”에서 ‘교착적 요소’란 무엇입니까?

② “복수표지 ‘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수표지’는 접사입니까, 조사입니까, 어미입니까?

5. 4쪽, “조사와 어미 및 인근 범주의 형태소까지 교착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여 ~”라는 기술은 조사와 어미 등이 모두 교착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듯 해석되는데, 조사와 어미 중 무엇이 교착적 요소와 관련이 없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5쪽, “‘뒤붙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토와 단어조성적 뒤붙이(즉, 뒤붙이)를 모두 포괄하는 것과 그 하위 요소인 단어조성적 뒤붙이의 서로 층위가 다른 두 가지 개념에 혼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의 밑줄 친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7. 8쪽의 각주 18번은 잘 이해되지 않는데, 덧붙이는 앞붙이와 뒤붙이를 통칭하는 말로 우리로 보면 접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착물이라는 표현은 교착적 요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접사는 이렇게 보면 교착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8. “정순기(2005)의 서술을 따르자면 상토 이외에 ‘-답-’(예: 용감한 군인답다)과 같은 소위 통사적 접사를 토로 포함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기술을 보면 ‘-답-’ 등도 북한 문법상 ‘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그렇다면 ‘-답-’은 어떤 문법 범주를 가지는 것입니까?

9. 황화상(2018)의 논의를 빌린 ‘접사 중심’으로 본다면, ‘공부하-’의 ‘-하-’와 ‘고요하-’의 ‘-하-’는 동사 파생과 형용사 파생으로 다른 접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히/리/기-’를 접사 중심으로 보면 동사 파생 접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술했을 때 얻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전체 논의와 이 부분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것입니까?

10. “형용사의 상범주는 한국어의 엄연한 현실로”(12쪽) 보기에는 동사만큼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용사와 ‘-이/히/리/기-’의 결합은 ‘밝히다, 높이다, 좁히다’ 정도로만 나타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대 한국어 문법화 연구

안신혜(경동대)

차례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4. 의존명사 문법화 연구 논문
5. 어미의 문법화 연구 논문
6. 맺음말

1. 머리말

언어는 생명체와 같아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노쇠하여 사멸한다. 이는 한 언어를 하나의 개체로 보았을 때에도 그러하고, 그 언어에 속해 있는 각각의 단어들을 보았을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에 언어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유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이 느끼기 힘들 만큼 서서히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언어 요소가 변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변화를 야기하는데 이것은 한 언어 요소가 변화하면 그 언어 요소와 관계되었던 다른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어는 변천의 과정에서 선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하나의 단어가 변화할 때 계단을 밟듯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가듯 끊어짐이 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고 할 때에는 긴 변화 과정 중의 한 시점에 대해 살펴본다는 말이다. 문법화를 겪는 단어는 그 시점까지 변화가 이어져 왔고 그 이후로도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문법화 연구는 마치 흐르는 강의 한 지점을 인위적으로 잘라내어 연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언어는 의미와 형태에서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그 언어의 완결형이 아닌 문법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의 한 편린일 뿐이다. 만약 A 형태에서 B 형태로 변화해 온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는 그 변화 과정 안에서 무수히 많은 변화들을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볼 문법화 역시 언어 변화의 한 모습이며 언어의 변화 과정 중의 한 모습이다. 그렇기에 문법화 과정을 거치는 단어 역시 선적인 변화를 거치게 된다. 그 말은 그 단어가 끊어짐 없는 변화를 겪어 왔으며 그 변화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어들은 문법화가 더 진행되고 덜 진행되고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문법화의 특성은 정도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변화에서 문법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화 논문에서는 의존명사, 보조용언, 어미에 대해 연구하는

데 이 글에서는 문법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 중 이전의 연구와 다른 점이 있거나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문법화를 다룬 대표적 논문 몇 편에 대해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문법화는 ‘어휘적인 요소가 덜 어휘적인 요소로 변화하는 과정’인데 ‘내용어 > 기능어 > 접어 > 굴절접사(문법형태소)’로 변화한다.¹⁾ 문법화 논문에서는 명사의 문법화를 자주 다루는데 한국어의 명사는 문법화를 겪으면서 ‘자립명사 > 의존명사 > 어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명사는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고 변화 전에는 없었던 통사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Humbolt(1822)에서는 문법화에 대해 네 가지 단계를 제안하였다. 제일 첫 번째 단계인 1 단계는 화용적 단계로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인 형태소는 없고 관용어나 구와 절을 통해 사물이 지시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통사적인 단계인데 어순이 고정되어 단어들이 기능어로 진화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접어화 단계인데 기능어들이 실질 의미를 가진 말에 융합하여 문법 관계만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형태적 단계로 문법 요소들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Lehmann(1982)에서는 문법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법화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하나의 형태의 문법성 정도와 자립성 정도의 사이의 관계에 자립성의 척도를 따지기 위해 무게, 결속성, 유동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무게는 하나의 언어 형태가 다른 것들과 변별적으로 나타나도록 해 주는 여러 자질들을 말하는 것인데 무게가 나가는 형태일수록 자립성 정도가 강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 형태가 그 주변에 있는 것에 이끌리는 특성을 결속성으로 설명하였는데 결속성이 크면 자립성이 약해진다고 하였다. 유동성은 언어 형태가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 유동성이 크면 자립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Hopper(1991)에서는 문법화의 다섯 가지 원리를 제안하였는데 총위화, 분화, 전문화, 의미 지속성, 탈범주화가 그것이다. 총위화는 이전까지 존재한 총위와 새로 생긴 총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문법화소들이 문법화되었다고 하여 이전 총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분화는 같은 말에서 나온 문법 형태들이 의미적인 면에서 분화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한 단어가 문법화소로 변화하면서 처음의 단어는 어휘로서 남게 되고 파생된 문법화소는 새 의미를 얻게 되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법화가 덜 진행된 것과 더 진행된 것이 같이 공존하는 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전문화는 한 문법소가 어떤 기능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문법소들은 하나의 근원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이 공존하는 상태가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 때에 문법소들은 경쟁을 거쳐 특정 문법소가 다른 문법소들을 물리치고 특정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전문화라고 칭한다. 의미 지속성은 문법화 이후에 문법소가 어원이 되는 말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문법화가 진행될수록 문법소는 원래의 형태에서 변화하고 의미도 변화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 이후에도 근원이 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지속성이라 부른다. 마지막은 탈범주화이다. 문법화는 대개 명사나 동사에서 시작되어 형용사나 전치사, 후치사와 같은 범주로 변화한다. 이렇게 문법화를 거치면서 문법소로 변해가는 명사나 동사들이 원래의 문법범주의 특성을 상실하고 형용사나 전치사, 후치사와 같은 문법범주의 특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1) 전정례(2005) 인용

Traugott(1978)에서는 의미는 더 구체적인 '공간' 개념에서 덜 구체적인 '시간'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의미의 추상화를 말하는 것인데 단어의 구체적 의미가 문법화를 거쳐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의미는 처음에는 비슷한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지만 점차 원의에서 동떨어진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항상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진행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언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Heine et al(1991b)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사람이나 물체 등을 가리키는 말에서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에서 다시 공간을 가리키는 의미가 나오고 이것이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화하고 마지막에는 질을 나타내는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추상화 현상을 Traugott(1982, 1986a), Langacker(1990)에서는 주관화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주관화는 단어의 의미 변화를 이르는 말인데 의미가 변화할 때에는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더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화자가 자신의 입장, 상황에 비추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주관은 언어에 투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주관적인 의미로 옮겨가는 의미 변화인데 이러한 논리는 의미-화용론적 입장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의미의 추상화는 단어의 의미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의미가 추상화되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단어 안에 있던 구체적인 의미들은 점차 약화되게 된다. 이것을 의미의 희박화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 탈색 모형이다. 의미가 추상화될수록 구체적 의미는 탈색되고, 추상적 의미만 남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Lehmann(1982)의 크기와 축소 개념이다.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축소되면서 안에 남아 있는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다. 의미의 축소는 겉으로 보면 의미의 확장과 반대의 의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의미의 추상화는 의미가 확장되면서, 의미가 희박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화에는 방향성이 있다. 단어는 문법화가 일어날수록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한다. 즉 어휘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현상의 진행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방향성이라고 한다. 이 원리는 Bybee et al.(1994)에서 문법화의 방향을 연구하여 정리한 개념이다. 문법화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자 이것이 범언어적인 현상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고 음운은 자립적인 음운에서 의존적인 음운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또 범주는 어휘적 범주에서 문법적 범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하여 나온 것이 단일방향성이다. 이 단일방향성에서 파생된 원리가 일반화이다. 이것은 문법화된 문법소는 문법화 되기 이전의 어원어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개념이다. 위에서 살펴본 주관화, 탈색 모형, 단일방향성, 일반화 모두 의미의 추상화에서 비롯된 개념들이다.

3. 선행 연구

우리말은 기능어인 문법소가 발달한 언어이다. 어미나 접사, 조사 등의 종류가 많으며 사용 빈도도 높기 때문에 문법소에 대한 문법화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문법화와 관련하여 '허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체적 의미가 희박해지는 문법화의 특징적인 면을 잘 잡아낸 말이라 할 수 있다. 문법화 연구 초반에는 주격조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격조사가 생성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문법화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로는 김방한(1957), 이송녕(1958), 김영희(1975) 등이 있다. 문법화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시기에는 우리말 어휘 중에서 문법화의 단계에 접어든 것들을 찾아

내어 각각의 말들을 연구하는 일들이 많았다. 198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문법화 이론이 본격적으로 학계에 유입되면서 문법화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고 기초 이론을 다질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격표지, 시제선어말어미 등에 대한 연구들에서 진척을 보였는데 이승욱(1981)에서는 주격표지의 발달을 다루었고 홍윤표(1981)에서는 근대국어의 처소, 방향의 격표시를 연구하였다. 안효팔(1983), 홍종선(1984), 이태영(1985) 등은 조사가 문법화를 겪으며 변하는 모습, 어미가 문법화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 속격과 처격, 주격조사 '가'의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문법화 연구와 이론들이 정착이 되고 결과 중심의 연구가 아닌 과정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의존명사 문법화 연구 논문

의존명사의 문법화 연구 논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안주호(1997)와 정재영(1996)이 있다. 안주호는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에서 문법화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단계를 설정하여 문법화 이론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문법화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에 해당하는 의존명사의 문법화 하는 모습을 각각의 단계의 특징에 따라 설명하였다. 주로 자립명사에서 의존명사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법화의 방향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의 인접범주를 구분하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 그리고 문법화의 단계를 분류하였다. 문법화 제1단계는 자립명사가 의존명사로 변해가는 단계이다. 일정한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자립 어휘소가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단계인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했던 의미의 추상화 현상이다. 이렇게 다의화가 되고 유연성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자립 어휘소와 다른 의미를 가진 새로운 말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자립명사가 의존명사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문법화 제2단계에서는 의존명사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형태들은 문법소로 변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들인데 아직은 완전한 문법소가 되지는 않은 단계에 있다. 이것은 바로 전 단계인 문법화 제1단계에 비하면 문법 기능은 커졌지만 그 다음 단계인 제3단계에 비한다면 아직 실질 어휘 의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나 ‘접사’로 범주를 바꾸기 직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화 제3단계에는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등이 있는데 ‘조사’와 ‘접사’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 세 단계를 특성에 따라 이름 붙였다. 문법화 제1단계는 ‘의존명사화 단계’, 문법화 제2단계는 ‘접어화 단계’, 문법화 제3단계는 ‘어미·조사·접미사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보조동사나 의존명사들인데 ‘터’를 예로 들어 문법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문법화 제1단계에서 자립적 어휘소 ‘터’와 의존명사 ‘터’가 분리되어 나왔고 제2단계인 접어화 단계에서 선어말어미인 ‘-ㄴ 테-’가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문법 기능은 하지만 완전히 문법소로 문법화 한 것은 아닌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며 ‘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터’가 여러 어미들과 융합하여 하나의 어미로 되어 가는 모습을 제시하며 이러한 과정이 어미화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한국어 문법화에 대한 논문이 확연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후로도 문법화에 대한 논문이 뒤를 이어 진행되었다. 특히 이전에 외국의 문법화 이론에 한국어 문법화 연구를 적용하기만 하던 상황에서 한국어 문법화 단계를 만들고 우리말 문법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의존명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어미화에 이르기까지 이론을 정리하고 실제 문법화 사례를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정재영(1996)에서는 의존명사 ‘ㄷ’가 문법화 하는 모습을 통해 국어의 문법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ㄷ’ 명사구 보문 구성과 이 보문 구성이 문법화 한 ‘ㄷ’ 명사

구 보문 구성의 통합형 어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ㄷ’가 문법화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시간경과구문인 명사구 보문 구성 ‘-ㄴ/ㄹ디’, ‘-ㄴ디’, 통합형 접속어미인 ‘-ㄴ들’, ‘-ㄴ디’, ‘-ㄴ던’, ‘-관디’, ‘-란디’, ‘-ㄴ던’, ‘-ㄴ든’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ㄷ’ 명사구 보문 구성의 통합형 어미들 각각의 형태나 통사적인 제약, 의미 기능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의존명사 ‘ㄷ’ 명사구 보문 구성이 문법화 하여 의존명사 ‘ㄷ’와 관련된 문법 체계가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의존명사로서 가졌던 어휘적 기능과 통사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의존명사 ‘ㄷ’와 관련된 연구들 가운데 가장 폭이 넓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원시추상명사로 불리는 ‘ㄷ’와 ‘스’는 우리말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공간’과 ‘시간’을 뜻하는 단어였기에 이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ㄷ’와 ‘스’가 우리말 곳곳에 영향을 미쳐 의존명사와 용어들에까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재영(1996)은 우리말 전반을 관통하는 의존명사에 대해 정리한 것이므로 이 역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5. 보조용언 문법화 연구 논문

국어의 보조용언은 본용언에서 시작되어 문법화 과정을 거쳐 보조용언으로 변화해 간다. 이때 겪게 되는 주된 과정은 의미의 확장이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으로 사용될 때에는 가지지 못했었던 의미들이 이 의미의 확장 과정에서 새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상태나 동작의 진행이나 종결의 의미들이 그러하다. 우리말 용언의 문법화 연구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개별 어휘들이 문법화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다루는 방식이 많다. 강소영(2005)에서는 공시적인 문법화의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명사와 동사가 문법화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문법화의 단계를 시작 단계와 중간 단계로 나누어 구성요소들의 결합과 통합 과정을 통해 우리말 동사와 명사의 문법화 정도에 따라 파악하려 하였다. 구종남(2013)에서는 보조용언 ‘빠지다’, ‘터지다’, ‘제끼다’의 의미 기능과 통사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보조용언의 완료 기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완료상의 개념과 조건에 대하여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영진(1997)에서는 국어 문법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는데 풀이씨의 문법화 기준의 설정과 유형을 살펴면서 의미, 화용론적 기준까지 다루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풀이씨의 역할을 하던 것이 문법화를 겪어 가지가 되고 다시 어휘 형성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태영(1993)은 동사가 의미 변화를 일으킬 때에 겪게되는 문법적 기능의 변화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법화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하려 하였다. 김미영(1998)에서는 국어의 용언이 문법화 하는 단계에 따라 접어화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다시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의미, 형태, 음운, 통어적 측면에서의 각 단계 접어들의 특성을 살피고 이에 따라 다시 단계별 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조용언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 어휘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보조용언은 본용언에 기대어 기능하기는 하지만 어휘적 의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문법화의 단계로 보았을 때 진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직은 보조용언의 문법화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보조용언 전체를 아우르는 문법화 특성이나 원리를 찾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6. 어미의 문법화 연구 논문

우리말 어미의 문법화 연구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논문에는 김태엽(1998, 2000)이 있다. 김태엽(2000)에서는 국어의 종결어

미와의 문법화 양상에 대해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종결어미가 종결어미화 되어 사용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속 연결어미, 대등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명사형어미가 문법 기능이 전용되어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현상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이다. 3.1에서는 종속 연결어미가 종결어미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보이고 있다. 선행하는 문장을 후행하는 문장에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말어미인 종속 연결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로 기능이 전용되는 형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거든’, ‘-니까’, ‘-은/는데’ 등을 예로 들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4는 모두 후행하는 문장이 생략되고 문장의 구조가 축소되어 선행하는 문장만 남는다고 해도 대화 상황에서는 온전하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4) 가. 비가 그치거든 여기를 떠나라
 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날씨가 춥다.
 다. 눈이 많이 오는데 어디 가니?

예문5에서 선행하는 문장이 삭제되어도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5) 가. 비가 그치거든.
 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다. 눈이 많이 오는데.

이러한 기능 전용은 대등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명사형어미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등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 하는 것으로 ‘-건만’과 ‘-으면서’를 대표적인 예라고 제시하였다. “철수는 사과를 먹으면서 수박도 먹었느냐?”는 후행 문장을 삭제하여 “철수는 사과를 먹었으면서”의 문장으로 축소되어도 본래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적 연결어미 ‘-어’, ‘-게’, ‘-지’, ‘-고’ 등은 본동사 뒤에 결합되어 보조동사 구문을 형성하는데 이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 오는 보조동사가 삭제되면 보조동사에 결합되어 있던 시제어미가 본동사에 결합하면서 보조적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명사형어미가 종결어미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음’, ‘-기’가 하위문의 어미로 기능하다가 상위문이 삭제되고 나면 내포문만으로도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문장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어미의 문법화에 대한 여러 논문들 중 이 논문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언중들의 언어 생활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미가 문법화 되어 가는 모습 중에서도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전용되고 있는 현상은 어미의 문법화 현상 중에서도 높은 빈도로 접할 수 있는 예이다. 그러므로 생생한 언어 변화 현상을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문법화의 원리 중 의미의 확장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을 연결하는 용도로만 쓰이던 연결어미가 문법화를 통해 문장을 마무리 짓는 종결어미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7. 맺음말

이 글은 문법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말이 문법화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이전의 연구와 다른 점이 있거나 이전의 연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만한 들을 찾아보고 앞으로

의 문법화 연구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사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소영(2000),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권재일(1987), 「의존구문의 역사성: 통사론에서 형태론으로」, 『말』 12.
김기혁(1991),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해석」,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김미영(1998), 『국어 용언의 접어화』, 한국문화사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태엽(1990), 「의존명사 '것'의 문법화와 문법 변화」, 『대구어문논총』 8, 대구어문학회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22, 한국언어학회.
서태룡(1987),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손세모돌(1991), 「국어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 학위 논문.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이관규(1986), 「국어 보조동사 연구」, 고려대 석사 논문.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주행(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정재영(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현대 한국어 문법화 연구」에 대한 토론문

양세희(우석대)

이 연구는 우리말의 문법화를 다룬 논문들의 살펴봄으로써 우리말의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변화를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아직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더 구체적인 자료와 논의가 더해질 것임이 분명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한 점들을 질문 드리고자 한다.

1. 내용의 체계에 대하여

- 문법화의 범주

문법화 현상은 동사나 명사와 같은 큰 범주(major category)의 어기(語基, 재료)에서 비롯하여, 문장에서 그 자립성을 상실하여 의존적 형태로 변한 뒤 새로운 어미나 조사, 접미사로 전이되는 현상(안주호, 1996:101)이다. 어휘소(lexical form)에서 문법소(grammatical form) 사이는 스펙트럼과 같이 연속되어 정확한 구획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어휘적 의미 축에는 자립적 어휘소에 속하는 명사나 동사가 해당되고, 문법적 직능을 하는 축에는 조사, 어미, 접사 등이 해당되며,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것은 어휘 의미와 문법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나 보조용언들이다. 이 과정을 보다 상세화한 것이 안주호(1997)에서 제시한 문법화의 3단계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의존명사, 보조용언, 어미로 범주화하여 문법화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하고 있다. 이 범주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곧 연구의 내용 체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의존명사 문법화 연구 논문’은 ‘의존명사의 문법화’와 더불어 ‘의존명사로의 문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용언 문법화 연구 논문’ 역시 ‘보조용언의 문법화’와 더불어 ‘보조용언으로의 문법화’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어미의 문법화 연구 논문’은 어휘소가 어미로 문법화해 가는 과정과 달리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즉 기능의 전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의존명사, 보조용언, 어미의 문법화 논의에 대한 review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서론에서 이전의 연구와 다른 점이 있거나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문법화를 다룬 논문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의존명사나 보조용언 등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문법화를 다룬 부분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전의 연구와 다른 점은 언급하지 않아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review 성격에 부합하도록 발표문에 제시된 연구들보다 더 많은 연구물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주호(1997)를 기점으로 한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논문이 확연히 늘어났다.”고 하였으므로 후속 연구들의 경향에 대하여 기술되었으면 한다.

3.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종속적 연결어미 ‘-거든’, ‘-니까’, ‘-는데’, 보조적 연결어미 ‘-어’, ‘-게’, ‘-지’, ‘-고’, 명사형 어미 ‘-음, -기’가 종결어미로 전용되어 쓰이고 있는 현상은 언중들의 사용 빈도가 반영되고 문장 종결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수행-역량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화용론적 측면이 원인으로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중 ‘-거든, -는데, -어, -게, -지, -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종결어미로서 등재된 반면 ‘-니까, -음, -기’는 그렇지 않다. ‘-거든, -는데, -어, -게, -지, -고’는 명제적 사실이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니까’는 ‘-니까’를 포함한 발화 이면에 맥락이 생략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 듯하다. ‘-음, -기’ 역시 맥락에 의해 명사나 부사 등의 품사로 문장을 종결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서 추측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4. 문법화에 대한 과정 중심의 연구

선행 연구를 기술한 마지막 문장에서 1990년대에는 문법화 연구가 결과 중심의 연구가 아닌 과정 중심의 연구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문법화의 특성상 그 과정을 다룰 수밖에 없을 터인데 결과 중심의 연구와 과정 중심의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5. 역문법화에 대하여

문법 표현에서 어휘 표현으로 전이된 예들이 제기되면서 문법화의 단일방향성 원리를 위배하는 역문법화 현상이 논의된 바 있다. 한 예로, 의존적으로만 쓰이던 ‘뿐, 덧, 턱, 즘, 겸, 축’이 “뿐만 아니라, 어느덧, 턱없이, 봄철에 즘하여, 곁하다, 축에도 못 낀다.(고영근, 1970:108-111)”와 같이 자립성을 획득한 경우이다. 문법화 현상에 이어 역문법화에 대한 논의까지 풍성하게 형성된 지점에서 연구자의 문법화 논의들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지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참고 문헌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6-1.

안주호(1996), 명사 파생의 문법화 연구 - ‘터ㅎ’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2-1.

제2부 <특강>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와 한국어교육

허용(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 ▶ 번역: 내용을 넘어 미묘한 느낌까지 정확히 전달
- ▶ 번역 과정 또는 고급 한국어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한국어만의 언어적 특징은 무엇일까?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 ▶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differences that do not matter)의 경우에도 좀 더 상황에 적합한 고급의 한국어 표현

원문: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하루 책을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역번역문: 통계청은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하루 책을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 ▶ 오류나 1:1 대응의 대조언어학적 관점을 넘어서 또 다른 접근: 언어 유연성 필요(번역의 어려움)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① 기계 번역

<https://www.youtube.com/watch?v=GyNHpVoulpU>

원문(영어):

Hi, I'm a huge fan of yours, and I'm looking forward to your next release. Take care!

기계 번역문(구글):

안녕, 나는 너의 큰 팬이고, 너의 다음 번 릴리스를 기대하고 있다. 조심해!

➡ **높임법 & 어휘의 문제**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② 공공 번역

원문(한국어)

:이제 [중년이 되어 한 가정의 아빠, 엄마가 된] **소년소녀**들이 자녀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이 공원을 찾는다.

번역문(중국어)

:很多**中年父母**都带着年幼的儿女来这里参观学习。

- ➡ 논리적 모순으로 '소년소녀'대신 '중년 부모'를 주어로
- ➡ 한국어 원문의 느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③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雪國)>(영어 번역: 노벨 문학상 수상)

일본어 원문: "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

(한국어 번역: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였다.)

영어 번역문: "The train came out of the long tunnel into the snow country."(Seidensticker 1957)

(한국어 번역: 기차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설국으로 나왔다.)

👉 일본어 원문과 영어 번역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본 문학사상 최고의 명문(名文)으로 평가받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였다."라는 문장에 의해 독자들은 긴 터널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눈 덮인 은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터널 저편의 설국이라는 별천지가 한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①이 문장의 특징은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누가' 또는 '무엇이' 터널을 빠져나가 설국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주어가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시마무라 島村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몇 문장을 더 읽어내려 간 후이다. 이처럼 일본어에서는 주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주어를 특정할 수 있다. ②그러나 영어는 주어가 없이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이덴 스티커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A train came out of the long tunnel into the snow country.

기차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설국으로 나왔다.

기차를 주어로 한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영문이다. ③이 번역은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장 "기차가 신호소에 멈췄다."와도 상응하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번역으로 원문의 애매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는 뉘앙스뿐 아니라 ④시점의 차이도 확연하다.

원문의 경우 ⑤독자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 터널 안에서 눈 덮인 설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⑥영문의 경우 시점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고정되어 있다. 터널을 빠져나와 설국으로 달려가는 기차의 영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점인 것이다. ⑦원문에서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의 설국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감동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번역문은 '터널을 빠져 나온 기차가 설국에 나타난 정경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객관적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⑧일본어와 영어의 언어구조와 발상의 차이 때문에 『설국』의 첫 문장부터 영어권 독자들이 받는 느낌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성혜경, 2015)

- ▶ 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였다.)
- ▶ A train came out of the long tunnel into the snow country.
(기차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설국으로 나왔다.)

구분	일본어 원문	영어 번역문
문장구조	주어 없음: 문학적 애매함	주어 명시: 논리적, 구체적
독자의 시점	내부: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 터널에서 설국으로 이동	외부: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
묘사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의 설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감동	터널을 빠져 나온 기차가 설국에 나타난 정경에 대한 객관적 묘사

▶ **일본어와 영어의 언어구조와 발상의 차이** 때문에 『설국』의 첫 문장부터 영어권 독자들이 받는 느낌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일본어: 주어가 없어도 되는 반면
영어: 주어가 필수

왜 영어는 주어가 있어야 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어가 없어도 되는가?

2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란 무엇인가?

<동과 서>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vs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



동서양의 세계관과 언어

- ▶ 서양: 세상을 각각의 개체가 모인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가 중심
- ▶ 동양: 세상을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장으로 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동사'가 중심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영어와 같은 정보(사실) 중심 언어 [informational content-oriented]

☞ **문법** (grammar, rules of writing)이 중요

→ 규칙이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맞고 틀림'의 문제

한국어와 같은 관계(상황) 중심 언어 [relational situation-oriented]

☞ **화법** (way of speaking)이 중요

→ 규칙이 아니고 '상황에 적합한지'의 표현법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정보: 밖에 비가 온다.

영어: "it's raining outside." (내용 전달에 초점)

한국어: "밖에 비 와." "밖에 비가 옵니다." (내용+대화 당사자 간의 관계)

"우리가 언제 반말하는 사이였나?" (높임법: 내용 외적 요소가 언어 내용을 지배)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① 정보 중심 언어 → 신문기사나 보험약관, 계약서 등과 같이 사실 중심의 언어(글)

- ▶ 필자의 일방향적 내용 전달: 글로 설명, 정확성 중요
- ▶ 현장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전달 내용의 정확성을 위한 언어적 장치 필요
- ▶ 언어적 장치: 문법적 정확성, 생략 지양, 어순 중요

② 관계 중심 언어 → 대화 상황 중심의 언어(말)

- ▶ 언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 이외에 대화 당사자간 관계에 따른 언어 외적 정보가 추가됨(대화로 주고받음)
- ▶ 화자와 청자의 양방향적 의사소통
- ▶ 전달 내용의 정확성은 대화를 통해 수정 보완됨(문법적 정확성은 덜 필요)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인간 언어들이 가지는 특별한 구조> (2013년 9월 26일)

인간의 언어에는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경우 같은 종의 동물들은 같은 신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역시 눈물과 웃음은 보편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나타내지만, 언어만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언어들이 가능한 언어 구조 중 특정한 몇 가지 구조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셉 그린버그는 2천 개가 넘는 언어를 분석한 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주어(Subject)는 목적어(Object)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사(verb)와 목적어(O)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언어는 크게 영어와 같이 동사가 먼저 나타나는 SVO 언어와 일본어와 같이 목적어가 먼저 나타나는 SOV 언어로 나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알려주는 조사(markers)는 SOV 언어에서 훨씬 많이 나타나며 SVO 언어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어의 'The girl kicks ball.'은 우리말로 '소녀가 공을 찬다.'와 같이 표현되며 추가적인 품사가 있어야 합니다.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지난 7월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지에는 이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MIT의 테드 김슨과 그의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주어와 목적어의 분명한 구분을 위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주어와 목적어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 혼동의 염려가 적은 SVO 언어에서는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연달아 등장하는 SOV 언어에서는 이를 분명히 나타낼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이기 위해 이들은 기발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소녀가 공을 찬다.'는 문장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동작으로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녀, 공, 찬다는 행동의 순서로 이를 묘사했습니다. 즉 이들은 SOV의 순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찬다'는 행동에서 주어가 소녀이고 목적어가 공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 이들은 '소녀가 소년을 찬다.'는 문장을 역시 신체동작으로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찬다'는 행동의 주어로는 소녀와 소년이 모두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녀를 묘사한 후 찬다는 행동을 나타냈고, 그 다음 소년을 묘사했습니다. 곧 SVO의 순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SVO 언어인 영어사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SOV 언어인 한국어와 일본어 사용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사의 사용이 SOV 언어에만 나타나는 이유가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줍니다.

1. 정보(내용)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그렇다면 왜 SVO 언어에 비해 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SOV 언어가 지구상에는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깃슨은 여기에 대해, 실험에서와 같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SOV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곧바로 왜 인간은 SOV를 선호하는가 하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왜 일부 SOV 언어에서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SVO 언어에서는 조사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도 남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artshorne 2013)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한국어의 특징

- ① 대명사 사용의 부재
- ② 어순
- ③ 성분의 생략
- ④ 열린 문장구조
- ⑤ 화법으로서의 격조사
- ⑥ 화법으로서의 어미
- ⑦ 주관성 표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① 대명사 사용의 부재

할머니는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치실 때쯤 전쟁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스무 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시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못하셨습니다.

- ▣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할 자리임에도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① 대명사 사용의 부재

- ▶ 대명사는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 가치중립적(예: 신문 기사, 보험 약관)

예: he/she: '나'와의 관계(위/아래)에 대한 판단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다.

- ▶ 대화 중심의 언어인 한국어는 대화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야 한다.

예: I → 나, 저
you → 너, 당신, 사장님, 사모님

- ▶ 위아래가 분명한 경우(낮춤/높임), 그렇지 않은 경우(높임): 가치중립적인 대명사의 존재가 어렵다.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① 대명사 사용의 부재

- ▶ 한국어에서는 왜 '아버지, 어머니'를 대명사로 사용하지 않을까?
한국어에는 왜 대화당사자가 아닌 3인칭의 경우에도 '그분'이라는 대명사가 있을까?

예: 그 < 그분, 김 이사님, 이 학장님

- ▶ 그들은 나에게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 ▶ 대명사를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할 때 한국어에는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② 어순

- ① 대화의 특징: 양방향성이어서 수정이 가능하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은 생략도 가능
- ② 자유어순: 일정한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대화 상황에 따라 정보를 이어가면 된다.

예: 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 → 영희를 철수가 좋아해.
나. 철수가 그 사과 먹었어. → 그 사과는 철수가 먹었어.
다. 우리 반에서 철수가 가장 키가 커. → 키가 크기는 우리 반에서 철수가 제일이지.
라. 글썸, 그 집 사위를 영수로 하겠다 하네, 고모네가.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③ 성분의 생략

① 문법적인 영어: 선적인 구조의 언어, 말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 가. 1형식 (주어 + 동사)
- 나. 2형식 (주어 + 동사 + 보어)
- 다. 3형식 (주어 + 동사 + 목적어)
- 라. 4형식 (주어 + 동사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 마. 5형식 (주어 + 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 영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문장의 일직선상에 차례로 놓이며 의무적이어서 어느 것이라도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엄격한 통사 구조(문법적).

예: "∅ are students." (x)

"I met ∅" (x)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③ 성분의 생략

② 화법적인 한국어: 생략 가능

엄마: ∅ 숙제 다 했니?
아이: 응, ∅ ∅ 다 했어.
엄마: ∅ ∅ 끝까지 똑바로 다 한 거야?
아이: 응, ∅ 제대로 하느라고 ∅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 ▶ 문법적 접근: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
- ▶ 화법적 접근: 대화맥락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충분한 문장(상황에 따른 생략)
- ▶ 한국어에서의 문장 요소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선택적 요소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③ 성분의 생략

→ 관계 중심 언어의 특징

-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주어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 대화 당사자들이 아는 내용을 굳이 발화에 넣을 이유 없다.
- 쓰지 않는 것은 불필요해서 또는 잉여적이기 때문
- 주어나 목적어 등 모든 요소는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진달래꽃>

(김소월)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 가실 길에 ◇ 뿌리오리다.

-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이 시에 주어를 넣는다면 어떨까?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④ 계층적 구조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야.”

➔ 한국어는 일직선의 구조가 아니라 ‘주제+서술’의 계층적 구조

┌ 층위1(주제): 그 사람은

└ 층위2(서술): 아들이 의사야.

➔ ‘주어: 아들, 서술어: 의사야’로 분석하는 것과는 다르다.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④ 계층적 구조

“오늘 나 영화 볼 거야.”의 의미 구조는?

1) 문법적 분석

오늘(부사어), 나(주어), 영화(목적어), 볼 거야(서술어)

2) 화법적 분석

오늘(주제), 나 영화 볼 거야(서술)

➔ 1)보다는 2)의 분석이 한국어 문장의 의미 구조 분석에 더 적합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⑤ 열린 통사 구조

▶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 어순의 도치에도 문장이 된다는 것은 통사 구조가 열려 있다는 의미, 문법적 결속력이 약함을 의미.

예: 가. 「필요한 것 사 오세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나. 「나는 아직 살 만합니다.
 └세상은 아직 살 만합니다.

▶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문장구조이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문장구조

가.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냈다.

나.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에게 확인 메일도 보냈다.

 '청첩장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 아래 문장은 모두 '수식어 + 피수식어'로 된 표현들이다. 논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 보자.

- 가. 키가 크는 우유
- 나.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 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 라.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닦아라.
- 마. 어제 먹은 식당은 아주 비싸다.
- 바. 살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보니?
- 사. (이 꽃씨 좀 심어 줘.) 알았어. 심을 삼 좀 갖다 줘.
- 아. 속죄 받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도 일본 문화의 특성이다.
 < '이(理)의 한국, 법(法)의 일본, 중앙일보', 2019. 7. 24 >

- 영어와 같이 문법성이 강한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오류 문장
- 화법성이 강한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

▶ 한국어는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말 사이에 의미-화용적 관계가 언어 외적 배경 지식 등 '성립 가능한 연관성'이 상정되면 문장은 이루어진다.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⑥ 화법으로서의 격조사

- 한국어에서는 '격'도 문법적이라기보다는 화법적이다.
- '이/가', '을/를'은 문장구조(주격, 목적격)를 규정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격조사로 인해 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 나∅ 너∅ 사랑해.

▶ 격조사 없이도 격을 알 수 있는 것(대화 중심의 언어)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⑥ 화법으로서의 격조사

- 영어

Here in this country, it does not snow so much as **in** your country.

- 한국어

이 지역은 당신의 고향(에서 X)만큼 눈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 영어에서는 'in'이 필수, 한국어에서는 '에서만'은 이상.(한국어 문법의 화법성)

예: ① 나 \emptyset 너 \emptyset 사랑해.

②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밤에 늦게 자는 것[은] 좋지 않다.

③ [정경화[가] 금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나왔다.
| = (금빛 드레스를 입은) 정경화[가] 무대 위로 나왔다.
| 정경화[는] 금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나왔다.
|= (무대 위로 나온) 정경화[는] 금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④ [철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철수[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영수는 안다.

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취미가 같기 때문이다.

⑥ [달[은]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달[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말이다.

- ⑦ [난 떡[을] 먹고 싶어.
[난 떡[이] 먹고 싶어.
- ⑧ [네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 ⑨ 너 지금 어디야? 난(=나는) 강남역. 난(=나[는]) 담[이] 강남역이야.
- ⑩ 너 술[이] 세구나.(You, Alcohol is strong.)

▶ 한국어에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문법적 격을 넘어서는 화법적 표현들이 존재한다.

→ 한국어 조사 교육의 중요성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⑦ 화법으로서의 어미

- ① 한국어에는 왜 어미가 많을까? 어미는 화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
- ② 문장을 문법적 장치(예: 어순 도치)가 아닌 화법적 요소(의문형/명령형/청유형 종결어미)로 구분.
- ③ 대화 상대의 존재에 따라 어미가 달라진다는 화법적 내용을 문법에 포함
- ④ 영어 접속사에 해당하는 연결어미의 다양한 느낌(-니까, -어서)
- ⑤ 장르에 따른 문체의 변이
 - 설명문, 논설문: '해라/하라'체
 - 연설문: '-습니다'체
 - 동화 번역: '해요'체('옛날에 어떤 소녀가 살았어요.')(원문에 없는 표현)

㉔ 문법적 어미와 화법적 어미의 차이

▶ 문법적 언어들은 문법적 요인(주어의 인칭과 수, 문법성)에 의한 어미 변화

예: 독일어	한국어
Ich gehe.	나는 간다.
Du gehst.	너는 간다.
Er geht.	그는 간다.
Sie gehen.	그들은 간다.

▶ 한국어의 어미 변화는 문법과 무관. 의미와 상황에 따른 변화

- 예: 과자 먹어도 돼?
과자 먹으면 안 돼?
과자 먹지 마.
과자 먹고 싶어.

다양한 어미: 영어와 같은 언어에도 아래와 같이 의문형 표시 요소가 많을까?

예: 갑니까?	한말연구학회입니까?
갑까요?	한말연구학회일까요?
갑래요?	-
갑지요?	한말연구학회이지요?
갑는 거지요?	한말연구학회인 거지요?
갑겠습니까?	(한말연구학회이겠습니까?)

☞ 한국어에는 왜 이렇게 어미들이 많을까?

➔ 한국어의 어미 교육의 중요성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⑧ 주관성 표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 ▶ 언어의 객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것은 '문법'
- ▶ '화법'은 화자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
- ▶ "His son is a doctor."을 한국어로 옮기면?
 - ① (그 사람 아들은 뭐해?) 그 사람 아들_은 의사야.
 - ② (그 사람은 아들/딸이 의사야?) 그 사람 아들_이 의사야.
 - ③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난 체해?) 그 사람_은 아들_이 의사야.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⑧ 주관성 표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 다음의 문장들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 ① 가. 밥 먹었냐고?
나. 밥 먹었다면서 (왜 그래)?
다. 밥 먹었다니까!
라. 나도 그렇게 비싼 밥 먹어 봤거든.
마. 밥 먹었잖아? (왜 또 달라고 해?)
- ② 가. 떠났다.
나. 떠나 버렸다.
다. 떠나 버리고 말았다.

⑧ 주관성 표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 ▶ 위의 표현들은 감정 표현의 차이
- ▶ 모든 언어가 이러한 표현이 언어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문법 중심의 언어는 언어의 객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고,
화법 중심의 언어는 화자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언어이다.

→ 주관적 감정이 표현 속에 묻히는 언어 (영어) vs 주관적 감정이 표현에 드러나는 언어 (한국어)

3. 결론

- 통번역은 모국어와 외국어(한국어)의 두 언어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현장에서의 작업
- 기존의 모국어에 대한 의식에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것
- 지금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국어 의식 또는 제2언어 의식에 더하여 또 다른 언어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한국어라는 새로운 '랑그'를 갖게 되는 것)

☞ 한국어다운 새로운 '랑그'란 무엇일까?

관계 중심 언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자각 필요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와 한국어 교육

관계중심의 언어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그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참고문헌>

- 김대식(2012), “결정적 시기'가 뇌를 만든다.”, 조선일보,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 김대식(2013), “남보다 빨리 잘 실패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 조선일보,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 김진우(2002), [第二語習得研究: 現況과 展望], 한국문화사.
- 김한식·김나영 역(2007) 「번역의 원리: 이문화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히라코 요시오(平子義雄) 지음), 한국외대 출판부.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이리나 코르군(2015), “한국인의 상황논리와 서양인의 상황논리”, 중앙 SUNDAY 2015. 7. 5-6
- 허용(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언어와 문화 6-1.
- 허용(2014), 외국어교육 개선 방향 연구: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0-3.
- 허용(202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이해」, 소통.
-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Joshua K. Hartshorne(2013), “How to understand the deep structures of language”, *Scientific American*, September

감사합니다.

제3부 <주제 발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현재와 미래 -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중심으로 -

박석준(배재대)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3. 표준 한국어(KSL) 교재
4. 공교육 현장의 한국어(KSL) 교육 진전을 위한 몇 가지 논의

1. 들어가는 말

-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는 학습자가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 상속어로서의 한국어(KHL: 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 명확하게 시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1990년대까지의 한국어 교육이 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었다면, 2000년 들어 확연하게 교수·학습 수요가 증가한 것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장기 체류 유학생,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학생, 이주 노동자 등 한국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완전히 정착할 목적으로 한국어를 익혀야 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임.
- 그러다 보니 그동안 사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는 달리,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영역은 국가가 관여하는 공교육의 범주에까지 확장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교육부 고시 한국어 교육과정과 정규과목인 한국어의 존재임.
- 결혼 이민자의 본국 자녀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학령기 청소년인 중도 입국 학생들의 급증과,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규과목으로서 ‘한국어’와 이 과목의 교육적 틀을 담은 ‘한국어 교육과정’이 제정된 것임.
- 이 글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을 공교육 교육과정과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살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함.

2.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2.1.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어 과목의 목표, 의의

-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어가 주류 언어인 한국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 행위와 과정을 담고 있는 틀을 가리킴.
- 한국어 교육과정은 2012년 7월 교육부에서 고시, 같은 해에 표준 한국어 교재와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2013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됨.
- 2014년에는 표준 한국어 교재 교사용 지도서가 간행, 2015년에는 표준 한국어 교재 익힘책(워크북)이 개발되어 보급됨.
- 2012년 고시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 연구가 2015년에 이루어지고, 2017년 9월 말에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됨.
- 2018년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표준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새로이 간행되면서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2019년부터 이루어짐. 2019년에는 익힘책도 간행됨.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짐. 일반 외국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학령기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과, 각 교과의 학습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까지도 함께 길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화되어 있음.
- ‘한국어’ 과목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로 여러 교과의 학습을 한국어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름으로써 장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과목임. 학습자는 ‘한국어’의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과 학습 기초 역량, 대인관계 역량, 공동체·정체성 역량, 문화 이해 역량을 기를 수 있음.
- 한국어 과목은 학습자로 하여금 생활 한국어 능력과 학습 한국어 능력을 포괄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둠. 이와 동시에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목표를 둠.
- 한국어 과목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달성시키고자 하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 ② 모든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 ③ 학교의 교과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른다.
 - ④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 ⑤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한다.
- 한국어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 한국어 능력과 학업 수행 및 교과 적응을 위한 학습 한국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한국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학생

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을 돕는 일종의 디딤돌 프로그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한국어 교육과정은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획득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원래의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춤.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한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온 사회였지만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야 함. 언어적·문화적·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문화적 차이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며,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사회의 곳곳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
- 한국어 교육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2.2.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 한국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 체계를 설정하고 있음.
- ‘한국어’ 과목의 교수·학습 내용은 ‘생활 한국어 교육’과 ‘학습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활 한국어 교육’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습 한국어 교육’은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이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과, 각 교과 학습에 진입하고 적응하는 것을 돕는 ‘교과 적응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이를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로 각 교육 영역의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완성되어 나가도록 체계화하였음.
- 즉, 초급(1~2단계)에서는 이른바 ‘생활 한국어’인 ‘의사소통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중급(3~4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함께 학습 한국어 중 ‘학습 도구 한국어’를 병행 교육하며, 고급(5~6단계)에서는 학습 한국어인 ‘교과 적응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어 교육과정이 한국어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위한 일련의 전 과정이라는 점에서 초급에서부터 고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내용 체계를 명시하였으나, 실제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에서는 진단도구 측정에 따라 초급과 중급 단계에 대해서만 한국어 과목을 진행함을 고려할 때, 고급단계에 해당하는 ‘교과 적응 한국어’는 도구 교과로서의 한국어 과목의 성격보다는 개별 교과의 진입을 돕는 성격이 강함.
- 이와 같은 내용 체계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음.

		생활 한국어 교육		학습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재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소통 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삼용 어휘 교수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 위와 같은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기본적으로 수준별 무학년제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수준별 무학년제 운영’이란, 초중고의 학급이 각각 학년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한국어’ 과목은 한국어의 숙달도 수준에 따라 학급이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함. 즉 학년에 관계없이 한국어 숙달도 수준이 같거나 비슷한 학생들이 한 학급을 이루어 한국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뜻임.
- 단 언어 재료의 일부와 문화 주제 등은 학령에 적합한 것 즉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연령에 적합한 것을 가르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그 학령에 적합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 학습을 수월하게 함.

3. 표준 한국어(KSL) 교재

3.1.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따른 표준 교재 개발과 그 특징

- 2017년 개정되어 수정 고시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새로운 표준 교재가 2018년 연구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모듈식 교재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최초 교육과정에서 체계화되어 개정 교육과정에까지 이어진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라는 내용 체계에 부합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학습의 상황과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는 특성에 맞춰 변형과 운용이 자유로운 모듈식 교수·학습 모형을 도입하여 교재를 개발함.
- 즉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공히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을 두어 학습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구조화함.



<그림 1>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통합 모듈

-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는 네 단계를 1년으로 하는 교재 모듈을 구성함. 한 단계는 8단원 분량으로, 한 단원에는 각각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이 존재함.



<그림 2>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 모듈 구성

-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의 난이도는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의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도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3단계와 4단계에서 가능함.
-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가 각각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중고등은 다시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구분되는데, 각 과정이 시수 당 수업 시간에 차이가 있고 학습에서 다루는 지식의 수준도 다르며, 원적 학급에 돌아갔을 때 접하게 되는 텍스트의 수준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임.

3.2. 표준 교재의 모듈 요소 구성

<표 1>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의 모듈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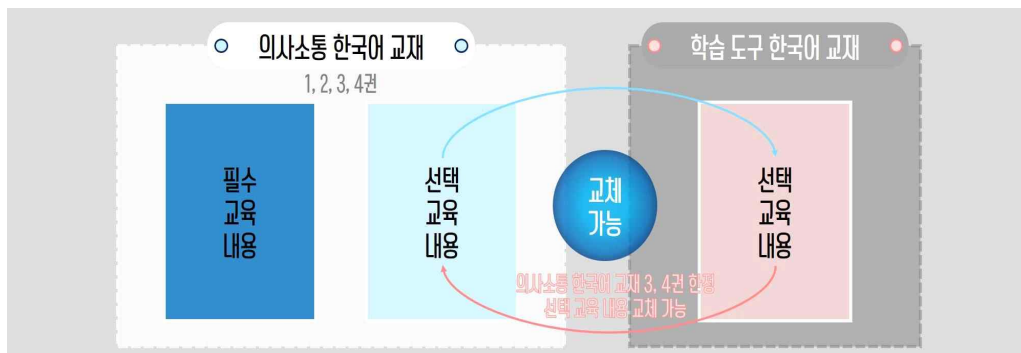
주제: 화제 중심	-권별 중요치(status)에 따라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화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 -주제 선정은 일반 한국어 교재의 초급과 중급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진 주제 구성에 기반을 둔 표준 한국어 교재의 주제 목록에 따름
상황 및 장면	-학령기 KSL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속 상황 및 장면 선정 -생존에 필수적인 일상생활의 상황 및 장면과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상황 및 장면을 학령기 KSL 아동 및 청소년의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선정
어휘	-학교생활 어휘의 경우,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상황 및 장면을 선정하여 추출한 어휘와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분석하여 추출한 어휘를 전문가를 통해 최종 검토하여 어휘를 선정 -학습 도구 한국어의 어휘의 경우, 학교 급별 교과서 어휘 분석, 기존에 이루어진 사고도구어 연구 분석,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과별 어휘 분석을 통해 최종 선정. 이후 교재 개발에서는 선정된 주제와 상황 및 장면을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어휘 재료와 연동시켜 어휘 교육 내용을 구성
문법	- 선정된 주제와 상황 및 장면을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법 목록과 연동시켜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
활동	-권별 중요치(status)에 따라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주제에 맞는 네 가지 의사소통 기능별 활동을 교재에 구현. 이때 네 기능은 각각 개별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도 구성할 수 있음

〈표 2〉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의 모듈 요소

주제 : 기능 중심	-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에서는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 특정 화제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학습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당 -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업 영위를 위해 요구하는 기능 목록과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 다루는 기능 목록을 검토하여 이른바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 기능’의 개념을 정하고, 이후에 ‘한국어 (KSL)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서 제시한 기능 목록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기능 목록을 선정
소재	- 앞서 선정한 기능을 교재에 구현하기 위해서 수업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소재를 선정. 이후에 중,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가 교수되는 학습 상황을 교과 적응 한국어 주제를 통해 일부 상정하여 소재로 활용
활동	- 학업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문식성 강화를 위해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고 교재 활동을 구성 -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하되, ‘듣고 쓰기’ 또는 ‘읽고 말하기’와 같이 기능을 통합하여 교재를 구성

3.3. 교재의 기본 설정과 단원 구성

- 모듈식 교재 개발 원리에 따라 교재의 각 부분은 모듈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독립성을 띠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됨. 따라서 교재의 각 요소는 그 자체로 완결된 교육 내용으로 역할하며 다양한 조합식을 통해 개별화된 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는 총 1~4권으로 구성되며, 필수적 교육 내용과 선택적 교육 내용으로 나뉨.
-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는 한 권으로 구성되며, 선택적 교육 내용으로서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 3, 4권의 선택적 교육 내용과 교체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



〈그림 3〉 교재 기본 설정

3.3.1.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 모듈식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을 시각화한 단원 도입 제시. 이를 통해 교재의 전체 구성 및 각 교육 영역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 모듈 개념을 활용한 단원 표지

○ 필수 영역(꼭 배워요)

- 어휘: 한 차시 분량. 스토리텔링 방식, 스냅샷 방식 등 어휘장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
- 문법: 4차시 분량. 목표 문법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장면을 삽화로 제시. 학습자로 하여금 단순히 문법적 지식을 외우게 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문법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황·맥락을 시각화하여 제시. ‘한국어 기초 사전(국립국어원)’의 정의를 기본으로 한 설명과 해당 문법의 용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용례를 제시. 목표 문법을 연습할 수 있는 대표 문형과 해당 문형에 적합한 어휘들을 제시하여 활동을 구성.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과업을 제시하여 확장 활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

○ 선택 영역

- 문화: ‘언어문화, 일상문화, 토래문화, 놀이문화, 문학’의 영역에서 KSL 학생들이 우선시하거나 선호하는 것 혹은 KSL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것을 조사·선정하여 구성.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별, 지역별, 문화별 차별성을 피지 않도록 구성. 지식 전달형, 체험형, 활동형 등 다양한 유형이 고루 담기도록 구성. 문화 영역의 경우 본 차시에 포함되는 영역은 아니나 교사용 지도서에 문화 교육에 대한 지도 방안을 제시

○ 선택 영역(더 배워요)

- 회화: 말하기와 듣기가 통합된 교육 영역으로 단순히 따라서 말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듣기 교육의 역할도 겸함
- 읽기, 쓰기: 각각 한 차시로 총 2차시 분량. 읽기에는 앞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등장할 수 있는 ‘문자 매체’를 제시. 쓰기는 앞서 읽기에서 제시된 장르의 글을 모방하여 쓰게 하거나 해당 장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글쓰기 장르를 별도로 선정하여 쓰기 활동을 구성.

3.3.2.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의 주제 구성

- 학습 활동에 기반한 학습 기능 및 사고 기능을 익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학습 활동이란 학습자가 학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의 집약체를 말함. 이때 ‘학습 기능(study skills)’ 또는 ‘사고 기능’은 ‘학습 활동’을 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구체적인 학습의 기술 및 사고의 방식 등을 말함

- 학습 기능 및 사고 기능의 함양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육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한국어 학습력’을 함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에 선재된 ‘학습 기능(및 사고 기능)’의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학습 도구 한국어의 학습 기능

세부 목표 설정하기	문제 해결하기
순서 정하기	오류 확인하기
학습 주제 제안하기	표현하기
학습 범위 조정하기	재구조화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정교화하기	진위 확인하기
정보 수집 및 공유하기	증명하기
토의하기	비교하기
주제 찾기	암기하기
추론하기	성찰하기
메모하기	예측하기
분류하기	의문 형성하기
구성 요소와 속성 확인하기	묘사하기
핵심 정리하기	기술하기
양상 확인하기	준거 설정하기
관계 파악하기	가치 판단하기

4. 공교육 현장의 한국어(KSL) 교육 진전을 위한 몇 가지 논의

4.1.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보완

- 초중고 공교육 현장에서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으로 2012년에 최초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와 내재된 한계점에 대한 수정 보완 연구가 2015년에 진행되었고 그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2017년 9월에 수정 고시되었으며, 보완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맞춘 새로운 표준 한국어 교재까지 간행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였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음. 특히 교육과정 부록의 언어 자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언어 자료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초급과 중급의 구별만 하고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하여 제시하였는데, 학습 도구 한국어에 적합한 사고 기능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로 개정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새로 간행된 표준 한국어 교재의 개발 과정에서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의 경우 사고 기능을 중심으로 교재 단원과 내용을 구성한 바 있음.
- ‘한국어’ 교과 운영이 중급 수준(1~4단계)까지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급 수준(5~6단계)의 언어 자료에 대한 제시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각급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진입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풍부하게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 적용 한국어 교육 영역의 언어 자료로서 ‘교과별 특정 문형’과 같은 문법 자료들이 조사되어 제공되면 좋을 것임.

4.2. 교육과정의 완전한 구현을 위한 교육 자료의 확충

-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표준 교재는 ‘의사소통 한국어 교재’와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가 간행되어 사용되고 있고, ‘교과 적응 한국어’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재는 없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재나 교육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교과 적응 한국어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재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 내용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합 수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가학습용 교육 자료 구축도 고려해야 함.
- 교과 적응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가 구축되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완전한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임.

4.3. 한국어(KSL) 교원의 전문성 제고

-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초중고 현장에서 ‘한국어’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한국어’과목의 운영 형태를 보면, 정규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방과후교실에서 비정규 수업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정규과목의 경우 반드시 교육부의 교원 자격을 가진 교원만 담당할 수 있음. 비정규 수업인 한국어 과목은 교육부 교원 자격이 없어도 담당할 수 있음.
- 정규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 초중등 교원 자격과 한국어 교원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교원이 드물어 대부분 초중등 교원에게 한국어 교육 단기 연수를 이수케 하여 담당하게 함.
- 단기 연수만으로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한국어 교원의 수준에 도달하기 쉽지 않으므로 연수의 기간(시수)을 늘려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초중고의 한국어(KSL)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한국어 및 다문화 교육을 관리하는 교원의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리 교원에 대한 연수가 실제 한국어 교육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임.

4.4. 다양한 형태의 교실 시도

-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들만 모아 가르치는 대안학교의 경우 한국어 과목의 효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어 학습 대상 학생 수가 적은 일반 학교의 경우 한국어 교실의 편성과 운영이 매우 제한된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수준별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한국어 과목임에도 수준별 분만이 어려워 다양한 한국어 수준의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음.
-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부모의 미비한 한국어 실력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과 외국인 부모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실의 운영도 시도할 만함.

4.5. 인터넷, 모바일 교육 콘텐츠 개발

- 현재 초중고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는 종이 책 형태의 교재가 중심인데,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익숙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매체나 채널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는 것도 필요함.

- 특히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 형식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한국어 학습 콘텐츠의 개발 보급은, 집합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질적인 학습자들에 대한 교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가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함.

참고 문헌

- 박석준(2020), 교육부 고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언어 재료, 문법교육 40호, 93-116쪽,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석준 외(2016), 한국어 교육과정 수정, 보완 및 한국어 성취도 측정도구 개발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심혜령·박석준(2017), 한국어(KSL)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한국어 개념 설정 원리와 실제, 언어와 문화 13권 3호, 97-115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심혜령 외(2017), 한국어(KSL) 교재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심혜령 외(2018), 중고등 한국어(KSL)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

▣ 토론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현재와 미래-한국어(KSL)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윤주(한성대)

이 발표문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현장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의 현황을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2장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어 과목의 목표와 의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기술해 주셨고, 3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표준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배경과 특징을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의 특수성까지 짚어내며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도 기술해 주신 바와 같이, 2012년 7월 처음으로 교육부에 의해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표준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2013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으며, 이후 연차적으로 교사용 지도서와 익힘책이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보완 연구가 이루어지고 2017년 9월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한국어 교재와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가 새롭게 발간되었고, 2019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성인 외국인 대상 교육으로 시작되었고 그 분야에서 먼저 발전이 이루어져 온 까닭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 분야는 그 필요성과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는, 이 분야 정책연구와 사업들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오신 연구자께서 직접 공교육 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식적·통시적으로 두루 조망해 주시고, 주요 논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저 역시 2012년 당시부터 한국어(KSL) 교육 관련 사업과 연구에 몸담아 온 입장에서, 발표문에 제시해 주신 여러 사안들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4장에 제시해 주신 한국어(KSL) 교육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논점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어 교육과정의 보완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2012년부터 언어 재료를 부록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 점은 당시에 많은 논의를 불러왔고 현재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언어 재료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실제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물론이고 교재 개발 작업을 2012년부터 직접 수행하신 연구자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언어 재료 부분 보강의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선 문제와 관련한 학계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주로 학습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과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이나 미국의 ESL 교육과정 WIDA의 경우, 등급 설계 및 성취기준 진술문

작성의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경우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발표문에 제시하신 내용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KSL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셨고, 현장 교사 대상 연수도 진행해 오신 입장에서, 연구자께서 그간 느끼신 점들을 기반으로 혹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과적응 한국어의 경우 학습도구 한국어와 달리 해당 교과와 담당 교사와의 협업이 중요할 터인데 이 점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작업이 최초로 시행되고 고시된 것이 어느덧 10년에 가까워져 가고,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이 현장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어느덧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교육 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학계에서나 현장에서나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의 동향 분석

조용준(건국대)

차례

1. 서론
2. 이론적 기초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의 연구 동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향 분석을 논의하기 전에 한국어 학습 연구의 필요성을 주체높임법 선어말어미 '-시-'를 예로 들어 기초적 논의를 한 후 그 연구 대상의 범위와 하위 분야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위주로 하되 단어임베딩(word embedding)을 활용한 언어 네트워크 맵도 활용하였다. 빈도 및 역빈도 기반 토픽모델링과 단어임베딩에 기반한 토픽모델링을 시행해 본 후 역빈도 기반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각종 동향 분석의 지표를 보면 한국어교육학은 2000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국어교육학의 한 분야에 속하면서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 다른 말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은 나름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 주제 자체가 융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국어교육 연구자는 물론, 일반 언어학 연구자, 국어학 연구자, 심리학 연구자, 사회학 연구자, 및 외국어 연구자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노력의 시발점으로 우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출판되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련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만 해도 4,736편에 이르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의 필요성과 그 범위를 논하고, 동향 분석의 기초적 논의로서 본 연구에서 선택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연구사적으로 소개한다. 제3장은 연구 방법론을 논의한 자리로서 분석 절차를 논문 목록 수집 작업, 목록 선택 및 선별 작업, 전처리 작업, 분석 작업 등의 순서로 논의한다. 제4장은 실제 분석 결과로서 기초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LDA 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이론적 기초

2.1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의 필요성과 그 범위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론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지향한다. 우선 제2언어 습득론의 영역과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2언어 습득론을 제2언어 습득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제2언어 습득’을 뚜렷하게 명시해야 한다. 외국어와 제2언어의 구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쪽을 대표형을 삼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2언어 습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언어’를 대표형으로 삼은 반면,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외국어’를 대표형으로 삼은 경향이 있다.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를 대표형으로 삼았다. 아무래도 ‘외국어’일 경우에는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학습(explicit and intentional learning)이 주가 된다면, 제2언어일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암묵적이고 우연적 학습(implicit and incidental learning)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모어 이외의 언어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일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2언어’라는 용어가 적합해 보인다. 제2언어 외에 계승어 및 균형적 이중언어 역시 포함하도록 한다.

‘습득’과 ‘학습’의 용어 선택에 관련하여서는 최근 별 의미 구별 없이 자유롭게 교체하여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도 이를 따르도록 한다. Ellis(2008: 7)에서는 ‘습득’과 ‘학습’의 용어 구분보다는 암묵적 학습과 명시적 학습의 구분이 좀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성(intentionality)과 의식(awareness)의 유무로 구분된다.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암묵적이고 우연적인 학습에도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암묵적이고 우연적인 학습은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할 경우 주어진 언어 항목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교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어 항목의 실제 정보와 사용은 매우 복잡하기에 실제 교수 내용은 과잉단순화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주체높임법 선어말어미 ‘-시-’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다. 한국어의 주체높임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언어학적 관심도 높았고 그 연구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예전에는 주로 문법학적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공손성(politeness) 등의 관점에서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와 Kim & Kaiser(2009), Mueller & Jiang(2013), Kwon & Sturt(2016), Lee, Hur & O’Grady(2017) 등 심리언어학적 연구로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주체높임법 현상이 인구에 등의 주어-동사 일치 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클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기본적이면서도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높임법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교육에서도 주체높임법은 당연히 기초적인 교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주체높임법의 위상에 대해서는 언어학계의 통일된 입장이 없다. 주어-동사 일치라는 통사적 일치 현상의 하나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H.-S. Choe, 1988; M.-Y. Kang, 1988; 한학성, 1993; 유동석, 1994; 1995), 근본적으로 의미화용론적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임동훈, 2000; Kim & Sells, 2007)도 있다. 이런 복잡한 측면은 한국어 교육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실제 현재까지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주체높임법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남(2008)은 “개인적인 직관의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점까지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연장자, 손윗사람, 또는 존중해 주고 싶은 상대에게는 그 상대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 그 행위나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형용사, ‘이다’의 여간과 어미에 ‘-시-’를 끼워넣는다는 간단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결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한국어 주체높임법의 다양한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1) 가. 저기 계신 아버님이 보이(*시)나?
나. 하나님/천사님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양규, 1975)
- (2) 가. 이것이 아버님의 유품이시다.
나. 아버님의 손이 떨리신다. (임홍빈, 1985: 307)
- (3) 가. 어머니께 이 옷이 어울리신다.

통사적 주어 위치에, 혹은 소위 주격 조사 ‘가’와 높임 명사구가 결합하여도 선어말어미 ‘-시-’가 쓰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심지어는 김정남(2008)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에 대한 수용성판단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장님께서서 공항에 도착했다’와 같이 높임의 조사 ‘께서’가 출현했으면서도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지 않은 예가 있다. 이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 문법적이라는 판단(이정복 2001)도 있지만 비문법적이라는 판단(최기용 2009)도 있다. 이런 경우 문법성(grammaticality)과 수용성(acceptability) 간의 긴장 관계가 나타나며 규범 문법, 교육 문법, 기술 문법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는 영역이 된다. 규범적 문법관을 가진 연구자라면 굳이 위의 특수한 예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규범적 정의를 설정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 비규범적, 더 나아가 비문법적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기술문법관을 지닌 연구자라면 이들 특수한 예들도 기술과 설명의 대상이 된다. 특히 제2언어습득론은 기본적으로 기술문법관에 기초한다. 한편 교육 문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수-학습에서의 효율성과 편의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선어말어미 ‘-시-’는 한국어 문법의 기초적 사항이므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하는 문법항목이다. 초급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현상을 단순화하여 가르치는 것이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초급에서 단순화하여 가르쳤다고 해서 숙달도가 향상된 후 주체높임법에 대해 심화 학습이 교실에서 수행되지는 않는다. 현상의 복잡성은 여전히 심각하며 그 단계에서 더 학습할 언어 항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높임법의 포괄되지 않는 나머지는 결국 학습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제2언어 학습자는 필연적으로 실제 의사소통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방대하면서도 매우 오염된 자료 속에서 암묵적이고 우연적 학습에 의해 주체높임법을 학습할 처지에 있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떠오르게 된다. 제2언어 학습자는 더디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어의 주체높임법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주체높임법에 대한 언어 지식과 사용에 있어 최종적으로 모어 화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입력과 출력의 양과 질에서, 학습 전략에 있어서, 지능과 언어 적성에 있어서 등 학습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차가 주체높임법의 궁극적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교수 내용과 방법은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주체높임법에 대한 지식과 사용에 있어 최초 상태와 최종 상태는 무엇이며 이 둘을 연결하는 궤적은 어떤 포물선을 그릴 것인가? 주체높임법에 관련하여 모어 화자가 보여주는 변이성(variability)은 제2언어 학습자의 것과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주체높임법의 제2언어 학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2언어 학습이 명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개인차가 있겠으나 제2언어 학습의 많은 부분들이 암묵적 학습에 의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지 없이도, 그리고 배우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도 주어진 환경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알게 모르게 학습함으로써, 결국에는 의식적인 내성(conscious introspection)이 가능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Chan & Leung 2014: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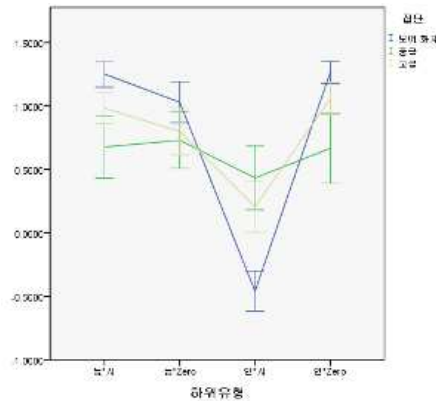
그렇다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궁극적 학습, 즉 모어 화자 수준의 언어 지식과 사용을 결국 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완전 학습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반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약어	조건		예문
		상위자	‘-시-’	
(ㄱ)	높*시	높임	있음	교수님이 강의실에 늦게 오셨다.
(ㄴ)	높*zero	높임	없음	교수님이 강의실에 늦게 왔다.
(ㄷ)	안*시	안높임	있음	철수가 강의실에 늦게 오셨다.
(ㄹ)	안*zero	안높임	없음	철수가 강의실에 늦게 왔다.

<표 1> 한국어 주체높임법 실험 설계 조건

선행 연구(Mueller & Jiang, 2013; Lee, Huh & O’Grady, 2017; Song, Choi & Oh, 2019 등)에서는 (ㄷ)만 제외하고 수용적이라고 보고한 문장들이다. 과연 한국어 학습자도 동일한 판단을 보여줄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 설계를 하였다. 조건이 4개이므로 각 레벨당 8개 문장씩 총 32개의 문장을 완성한 후 혼돈 문장으로 1.5

배인 81개의 문장을 무작위 배치하고 그 앞에 연습 문장 6개를 넣어 총 87개의 문장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K대학 학부생 중 중국인을 목표 집단으로, 한국인을 통제 집단으로 하여 실험을 하였다.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한국인 74명(남 36명, 여 38명), 중급 집단 53명(남 17명, 여 36명), 고급 집단 78명(남 19명, 여 59명)).



<그림 1> 한국어 주체높임법 습득 양상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모어화자는 (c) 예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는 모어화자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중급 집단에서 고급 집단으로 숙달도가 향상되면서 모어 화자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 학습자가 준모어 화자 (near-native speaker) 상태에 도달한다면 한국인과 좀 더 가까운 양상을 보여 줄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어능력 시험 6급 이상의 준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험해야 하므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질문들은 한국어 교수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보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이다. 단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론의 시각에 놓였을 때 의미 있는 질문들이 된다. 교수와 학습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수 혹은 교육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와는 달리 학습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학습자 언어와 그 학습자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그리고 학습자 언어가 변인이 되어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와 공동체의 다양한 양상들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질문들을 넓게 보면 Saville-Troike(2012: 2)이 언급한 제2언어습득론의 다음 세 가지 기초적 연구 문제와 연결된다:

- (1) ㄱ. 제2언어 학습자는 정확히 ‘무엇을’ 알게 되는가?
 - ㄴ. 제2언어 학습자는 이와 같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 ㄷ. 어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에 비해 ‘왜’ 제2언어 습득에 있어 더 성공적인가?

본 연구의 초점은 학습자 혹은 학습자 언어이다. 학습자 언어의 양상과 그 변화 및 변이, 그리고 학습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 언어가 학습자 혹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한다. 이런 점에서 대조 분석과 교수 내용 연구는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언어 대조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언어학적, 사회언어학적, 언어교육의 측면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 언어에서의 언어간 영향 (cross-linguistic influence) 혹은 전이(transfer) 현상을 연구하는 토대는 되지만 학습자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언어습득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연구와 응용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제2언어습득론은 제2언어 습득의 특성을 기술 및 설명하고 학습에서의 개인차 요인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Saville-Troike(2008)

의 위의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답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응용 제2언어습득론은 교수·학습의 제2언어습득론(instruct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으로 교실에서의 제2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후자는 제2언어습득론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위 영역으로, Lowen(2015)의 정의에 따르면 ‘학습의 메커니즘 그리고/또는 그 발생 조건의 체계적 조작이 부가 언어의 습득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 이론적이고 경험적 기반의 학문 연구 분야’로서¹⁾, 단적으로 말해 제2언어습득론의 교육적 측면, 혹은 그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 즉 이론적 제2언어 습득론은 Saville-Troike(2008)의 분류에 따라 관점(perspective)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언어학적 관점, 둘째는 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셋째는 사회적 접근으로 각 관점에는 연구의 개별적인 초점 영역과 그 영역에 대한 제2언어습득 이론이나 접근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관점	초점 영역	접근·이론
언어학적 관점	내적 측면	변형생성문법 <i>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i> 원리와 매개변인 모델 <i>Principles & Parameters Model</i> 최소주의 프로그램 <i>Minimalist Program</i> 접면 <i>Interfaces</i>
	외적 측면	기능주의 <i>Functionalism</i>
심리학적 관점	언어와 뇌	신경언어학
	학습 과정	정보처리 <i>Information Processing</i> 처리가능성 <i>Processability</i> 연결주의 <i>Connectionism</i> 복잡성 이론 <i>Complexity Theory</i>
	개인차	인본주의 모델 <i>Humanistic models</i>
사회적 관점	거시사회적 측면	변이 이론 <i>Variation Theory</i> 수용 이론 <i>Accommodation Theory</i> 사회문화 이론 <i>Sociocultural Theory</i> 컴퓨터매개 의사소통 <i>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i>
	미시사회적 측면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i>Ethnography of Communication</i> 문화변용 이론 <i>Acculturation Theory</i> 사회심리학 <i>Social Psychology</i>

<표 2> 관점과 연구 초점, 그리고 접근·이론에 따른 이론적 제2언어습득론의 하위 분류(Saville-Troike 2008: 30, Table 2.4)

제2언어습득론이 언어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관점이 가능한 것은 이 분야의 융복합적 성격에 기인한다. 제2언어습득이 언어 습득의 하나라고 보면, 언어 지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최초 상태와 중간 상태, 그리고 최종 상태에 대한 언어학적 정태 분석(static analysis)이 가능하며 또한 동태 분석(dynamic analysis) 뿐만 아니라 비교정태 분석(constrastive static analysis) 역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언어학에서의 공시·통시 연구에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언어학에서의 공시·통시 연구가 한 언어 공동체에 대한 연구라면 한 개인 혹은 그 개인과 동질적이라고 이상적으로 가정되는 집단의 연구라는 점에서 제2언어습득에 대해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역시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2언어습득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여러 다양한 이론으로 귀결되었다.

언어 습득의 하나라는 점에서 제2언어습득은 또한 심리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언어 습득은 결국 마음의 상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와 그 변화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 즉 동기, 정의(affect), 성격, 언어

1) “a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based field of academic inquiry that aims to understand how the systematic manipulation of the mechanisms of learning and/or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occur enable or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an additional language(Lowen, 2015.”

적성 등등은 물론 이들이 유발하는 제2언어 습득에서의 개인차에 주목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심리학적 관점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의 발달과 사용에는 사회적 측면 또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은 제2언어습득론의 한 하위분야로서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에 대한 제2언어습득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2언어습득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일반 제2언어습득론(general SLA)이 있다면, 특정 언어 습득을 연구하는 개별 제2언어습득론이 있으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 혹은 한국어 제2언어습득론은 후자의 한 종류이다.²⁾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는 응용 제2언어습득론, 즉 교육학적 관점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과 더불어 <표 2>에 제시된 영역을 포함하는, 즉 언어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관점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 연구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2.2 동향 분석에 대한 기초적 논의

2000년 이후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어 교육 분야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이 상당히 축적되어, 강승혜(2003)을 필두로 총 50여편에 이르는 형편이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망라한 한국어 교육 연구동향 분석 논문인 강승혜(2017)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의 관련 연구물의 총수가 7,681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보니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연구사 논문이 많아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연구사 논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논문은 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논문들로서 UCINET, TEXTCOM, 넷마이너 등 언어 네트워크 분석 혹은 토픽 모델링을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논문들과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시도한 논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사이람에서 개발한 Netminer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은데 이에 김민희(2020), 류연연(2020), 박영훈·김장식·송향근(2019), 신명선 외(2020) 등이 있고 KrKwic을 활용한 김은실·강승혜(2019), TEXTCOM을 이용한 백재파(2020), VOSviewer를 이용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응웬티 꾸잉안(2020) 등이 있다. 특히 넷마이너를 활용한 연구를 제외하고 언어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해 UCINET과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주암·전홍화·이정희(2019)의 경우 pajek을 이용하였고, 김폴잎(2020)은 Gephi를 이용하였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김폴잎(2020)을 들 수 있는데 형태소 분석기로는 Mecab-k를,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NetworkX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우선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실적이 방대하게 쌓여가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인 분석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모델링이 범용화 및 상용화하면서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동향 분석에 대중화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론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동향 분석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2.1절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추출한 2020년까지의 국내 연구물은 총 4,734편이었으며 이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활용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처럼 빈도 추정 및 역빈도(TF-IDF)에 기반한 LDA 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는 분포 의미론에 기반한 단어임베딩(Word Embedding) 사용하여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단어임베딩은 대규모 말뭉치에서 자연어의 워드벡터(word vector) 값을 추출하는 기계학습 기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법에는 Word2Vec의 skip-gram와 CBOW, fastText, Glove, Swivel 등이 있다. 본 연구는 Word2Vec의 skip-gram과 fastText 기법을 활용하였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의 동향 분석으로는 국내 연구로서 권성미(2015)와 김민희(2020)을 들 수 있고, 해외 연구로는 O'Grady & Choi (2015), Kim (2015), Byon (2015)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논문으로서 김민희(2020)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연구의 동향에

2) 이런 측면에서 대조언어학과 마찬가지로 대조 제2언어습득론 역시 가능할 것이다.

대해 Netminer 프로그램을 통해 토픽 모델링 기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의 범위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학위논문 298편과 학술지 논문 94편의 국문초록 전체와 서론 일부 부분(연구 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부분)이었다. 본 연구 또한 LDA 분석을 수행한다. 토픽모델링이란 비구조화된 문서에 출현한 단어들에 기초하여 잠재된 토픽을 확률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기법(신명선 외 2020: 9)을 말하며 이중 LDA는 문서들을 토픽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비지도 학습으로서 학습 데이터 없이 문서를 분류할 수 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시작점을 특정하지 않고 2020년까지 공개된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초순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한국어’를 키워드로 검색 가능한 논문들에서 서지사항을 추출하였다. 다른 연구들과 달리 ‘한국어’만을 검색어로 지정한 이유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연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학 뿐만 아니라 영어학 등 외국어 전공에서도 심심찮게 나올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간혹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검색을 통해 학술지 논문 44,735건, 석사학위 논문 10,652건, 박사학위 논문 1,458건 등의 서지사항을 엑셀로 반출하였다. 이후 2차례의 정제 작업, 즉 선별과 선정 작업을 통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 연구 논문 목록을 완성한 후 2021년 1월 중순에, 2020년 12월 발간 학술지 논문을 2차 수집하여 목록을 보완하여 최종 목록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구 목록은, 학술지 논문 2,497편, 석사학위 논문 1,782편, 박사학위 논문 457편 등 총 4,736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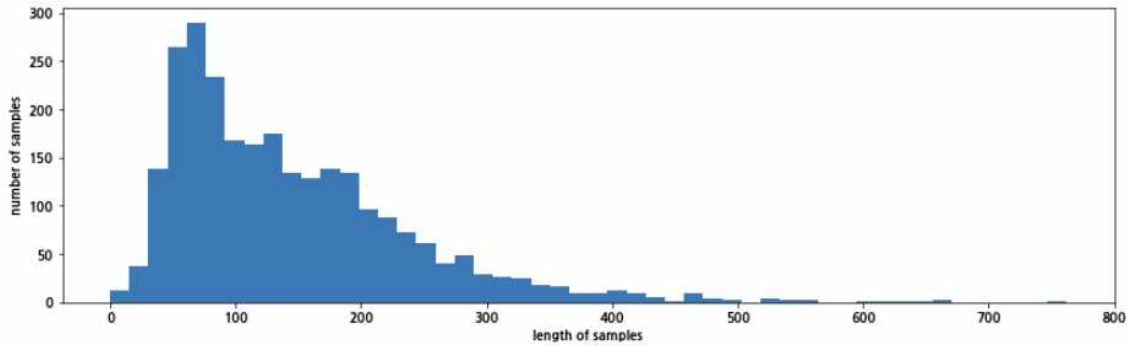
정제 과정 중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앞서 밝혔듯이 제2언어로서의 이론적 한국어 습득론과 응용 한국어 습득론을 망라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육이나 교수에 관련되더라도 제2언어 학습자 혹은 학습 과정 혹은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연관된 것이라면 응용 한국어습득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조 분석, 교수내용 분석 등은 제외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오류 분석은 포함하였다.

최종 목록을 완성한 후, 엑셀 파일 정제 작업에 들어갔다. RISS에서 반출된 서지 정보는 논문 제목에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고, 발행기관 URI, 제공처 등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엑셀에서 가능한 작업인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한 후 분석 대상인 주제어와 초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원문과 대조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최종 엑셀 파일을 완성하였다.

이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파이썬에서 결측치를 처리하고 정규식을 통해 단락구분 기호 등 불필요한 정보나 기호를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의 경우 발행처, 대학, 전공이 하나의 필드에 담겨 있어 이를 별도의 필드로 분리하는 작업을 정규식을 통해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초록과 키워드, 제목으로 한정하였으며 형태소 분석기는 파이썬 환경에서의 KoNLPy 라이브러리 5개(꼬꼬마, Okt, 한나눔, 코모란, 은전한닢)과 Khaiii를 수행해 본 후 편의상 성능이 높다고 알려진 은전한닢(mekab-k)을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도 은전한닢을 통해 명사만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와 추출 결과에 기대 복합어 처리를 위해 사용자 사전을 추가하였고 불용어(stopword)와 유의어를 등록하였다. ‘제2언어’와 같은 복합어의 경우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지 않으면 ‘제2’와 ‘언어’로 분석된 후 ‘언어’만이 키워드로 남게 된다. 복합어는 ‘관계절, 모어화자, 주격조사’ 등을 포함 총 358개였으며, 불용어는 ‘가설, 가운데, 연구대상’ 등 19개였고, 등록 유의어는 ‘모국어, 제2언어, 제2 언어, 제 2언어, L1’을 맨 앞의 ‘모국어’로 유의어 처리하는 등 총 133개였다. 또한 Soyspacing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띄어쓰기를 교정하고 최종적으로 토큰화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토큰화 수행 결과를 통해 본 각 문서 길이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형태소분석 후 연구대상 개별 문서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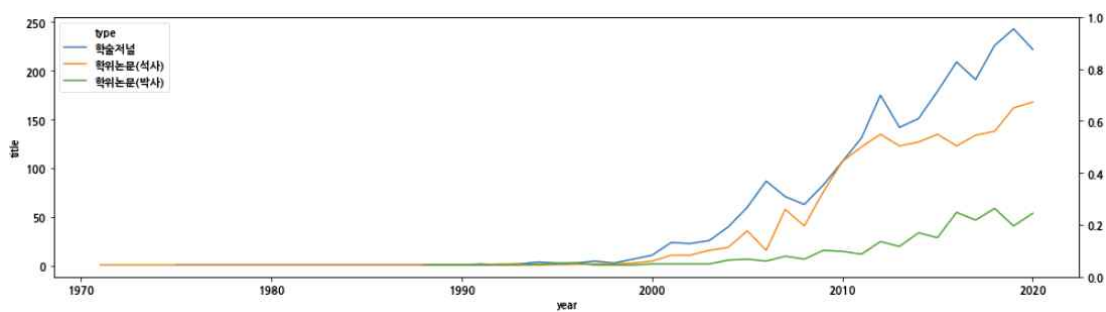
한 문서의 최대 길이는 762항목이었으며, 평균 길이는 143.6항목이었다.

토큰화 수행 Gensi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빈도와 역빈도에 기반한 LDA를 수행하고 시각화하였으며, 워드임베딩의 경우 Word2Vec과 FastText를 수행하고 그래핑 라이브러리 Plotly와 NetworkX를 이용해 LDA에 기반하여 시각화하였다. LDA의 토픽수는 5개로 한정하였다. 이중 워드임베딩에 기초한 분석은 적합한 모델을 생성하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작아 딥러닝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빈도에 기반한 LDA에 기초해 잠재토픽 및 하위 키워드를 분석하는 절차를 밟았다.

4. 분석 결과

4.1. 기술 통계 분석

분석 대상 논문 4,736편을 작성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영어가 59편, 일본어가 3편, 러시아어가 1편,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이었다. 전체 논문의 연도별, 유형별 논문수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3> 연도별 유형별 논문수 추이

연도	학술지논문	학위논문(석사)	학위논문(박사)	합계
1971	-	1	-	1
1975	1	-	-	1
1986	-	1	-	1
1987	-	1	-	1
1988	1	1	1	3
1989	-	-	1	1
1990	1	1	-	2
1991	2	1	-	3
1992	1	2	-	3
1993	2	2	1	5
1994	4	1	-	5
1995	3	-	-	3
1996	3	-	3	6
1997	5	2	1	8
1998	3	2	1	6
1999	7	3	1	11
2000	11	5	2	18
2001	24	11	-	35
2002	23	11	2	36
2003	26	16	2	44
2004	40	19	6	65
2005	60	37	7	104
2006	87	16	5	108
2007	71	58	10	139
2008	63	41	7	111
2009	83	76	16	175
2010	107	107	15	229
2011	131	122	12	265
2012	175	135	25	335
2013	142	123	20	285
2014	151	127	34	312
2015	179	135	29	343
2016	209	123	55	387
2017	191	134	47	372
2018	226	138	59	423
2019	243	162	41	446
2020	222	168	54	444
합계	2,497	1,782	457	4,736

<표 3> 연도별 유형별 논문수 통계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연구 논문의 수가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선 것은 1999년 이후이며 100단위 숫자로 증가한 것은 2005년, 200단위로 증가한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연구물이 급속히 팽창한 것은 한국어교육학 논문의 증가 양상과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두 시기로 나누어 LDA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다음 표에서 보듯 학술지 논문의 연도별 저자수 추이를 보면 공저 논문의 수가 꾸준히 상승 중임을 알 수 있다.

연도	단독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합	공저점유율
1975	1								1	0.00%
1988	1								1	0.00%
1990	1								1	0.00%
1991	1			1					2	50.00%
1992	1								1	0.00%
1993	2								2	0.00%
1994	4								4	0.00%
1995	1	1	1						3	66.67%
1996	3								3	0.00%
1997	4	1							5	20.00%
1998	3								3	0.00%
1999	7								7	0.00%
2000	8	3							11	27.27%
2001	18	3	2	1					24	25.00%
2002	15	5	2	1					23	34.78%
2003	23	2	1						26	11.54%
2004	33	4	1		2				40	17.50%
2005	46	10	3	1					60	23.33%
2006	70	8	5	3	1				87	19.54%
2007	61	8	1			1			71	14.08%
2008	47	8	4	1	1	1		1	63	25.40%
2009	63	17	1			2			83	24.10%
2010	77	23	7						107	28.04%
2011	93	34	3	1					131	29.01%
2012	121	36	9	6	2	1			175	30.86%
2013	104	33	3	2					142	26.76%
2014	102	31	15	3					151	32.45%
2015	113	54	11	1					179	36.87%
2016	137	57	11	2	2				209	34.45%
2017	127	48	11	2	1	1	1		191	33.51%
2018	148	63	12	2		1			226	34.51%
2019	155	69	13	3	2		1		243	36.21%
2020	149	56	12	3		2			222	32.88%
합	1739	574	128	33	11	9	2	1	2497	30.36%
비율	69.64%	22.99%	5.13%	1.32%	0.44%	0.36%	0.08%	0.04%	100.00%	

<표 4> 연도별 저자수별 논문수 통계

학술지 논문의 30%가 공저이며 그 비율은 2000년대 이전 12%, 2000년대 20%, 2010년대 32%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론의 융복합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연구의 범위와 자료의 양, 분석 이론과 연구방법론 등에서 단독 연구로는 쉽지 않다 보니, 협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총 4736편의 RISS 정보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국문 초록이 있는 논문도 있지만 작성 언어는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영문 초록만 수록한 경우도 있다. 초록이 아예 없는 논문수는 581개였으며, 국문초록이 있는 경우는 2619편, 영문초록이 있는 경우는 3465편인데 이중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1,930편에 이른다. 본 연구는 제목, 주제어,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전체 논문 4736편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4.2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LDA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연구가 양적으로 증대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두 시기로 나누어 각각 5개의 토픽을 선정하고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Gensim을 통해 역빈도(tfidf) 기반 LDA 모델을 학습하고 LDAvis의 Python wrapper인 pyLDAvis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우선 두 시기별로 언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연결 강도와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구하고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상위 15개의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1999-2009년			2010-2020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오류원인	0.881	0.864	0.076	교수과정	0.559	0.656	0.068
선호	0.678	0.731	0.022	교실수업	0.475	0.615	0.027
상황	0.661	0.713	0.018	교수법	0.458	0.608	0.05
쓰기	0.627	0.704	0.016	구어	0.424	0.584	0.021
사전	0.627	0.695	0.014	구안	0.424	0.596	0.023
실험통제	0.627	0.704	0.032	교육현장	0.407	0.584	0.017

오류분석	0.576	0.663	0.015	교육방법 제안	0.407	0.584	0.019
설문조사	0.559	0.671	0.013	국내대학	0.373	0.578	0.025
사실	0.542	0.663	0.009	교사	0.373	0.562	0.03
연습	0.542	0.655	0.010	구문	0.356	0.573	0.047
생활	0.542	0.655	0.021	구술	0.339	0.567	0.023
실태	0.542	0.655	0.010	구분	0.322	0.557	0.005
습득	0.542	0.663	0.013	교수	0.305	0.557	0.017
오류	0.508	0.641	0.011	교체	0.288	0.522	0.014
사용빈도	0.508	0.648	0.008	교실	0.288	0.536	0.013

<표 5> 시기별 상위 15개의 키워드 중심성

1999~2009년 사이의 시기는 대체로 ‘오류분석’, ‘오류’, ‘사용빈도’, ‘연습’, ‘실태’ 등 학습자 오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2010~2020년 사이의 시기는 대체로 ‘교실 수업’과 ‘교과과정’ 등의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언어로서의 응용 한국어습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빈도에 기반한 LD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opic0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0	"오류"	0.8	"오류"	1.1	"오류"	0.8	"전략"	1.5	"오류"	0.9	"오류"	1.3	"쓰기"	1.1
1	"피드백"	0.7	"발음"	0.8	"화행"	0.7	"화행"	0.7	"어휘"	0.7	"아동"	1.1	"텍스트"	0.9
2	"발음"	0.7	"전략"	0.6	"피드백"	0.6	"읽기"	0.7	"조사"	0.7	"문화"	0.9	"읽기"	0.8
3	"중국인학습자"	0.6	"숙련도"	0.5	"어휘"	0.6	"의사소통"	0.6	"작문"	0.6	"발달"	0.7	"대화"	0.7
4	"전략"	0.6	"읽기"	0.5	"텍스트"	0.6	"훈련"	0.5	"피드백"	0.5	"어휘"	0.6	"오류"	0.6
5	"표지"	0.6	"텍스트"	0.5	"쓰기"	0.5	"발음"	0.5	"의미"	0.5	"이중언어"	0.6	"철자"	0.5
6	"조사"	0.5	"상호"	0.4	"전략"	0.5	"요청"	0.4	"양식"	0.5	"관계절"	0.6	"영어"	0.5
7	"한자어"	0.5	"지각"	0.4	"거절"	0.5	"오류"	0.4	"분류사"	0.5	"습득"	0.6	"학생"	0.4
8	"쓰기"	0.5	"대화"	0.4	"활동"	0.5	"상호"	0.4	"교재"	0.5	"조사"	0.4	"일지"	0.4
9	"모음"	0.5	"수업"	0.4	"억양"	0.4	"발달"	0.4	"순서"	0.5	"요청"	0.4	"활동"	0.4
10	"습득"	0.4	"조사"	0.4	"조사"	0.4	"동기"	0.4	"연어"	0.4	"오류분석"	0.4	"실험"	0.4
11	"텍스트"	0.4	"범주"	0.4	"답화"	0.4	"아동"	0.4	"문법"	0.4	"읽기"	0.4	"수정"	0.4

<표 6> LAD 토픽별 상위 12개 키워드의 토픽기여도(1999-2009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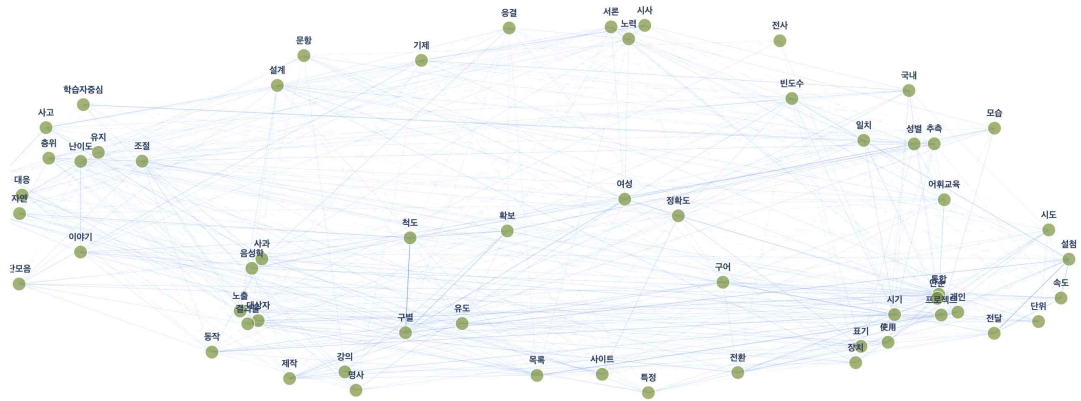
topic0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terms	significance	
0	"피드백"	0.9	"아동"	1.1	"피드백"	0.6	"부사"	0.9	"불안"	1.2	"화행"	0.7	"읽기"	0.9
1	"놀이"	0.8	"미국"	0.7	"텍스트"	0.6	"타기"	0.7	"동기"	1.0	"음성"	0.6	"이중언어"	0.8
2	"교사"	0.7	"듣기"	0.5	"크기"	0.6	"태도"	0.6	"학업"	0.7	"동사"	0.6	"텍스트"	0.7
3	"연어"	0.6	"영어"	0.5	"조선족"	0.5	"보조용인"	0.5	"호칭어"	0.6	"모음"	0.6	"문화"	0.6
4	"외국인"	0.6	"발달"	0.5	"다독"	0.5	"면적"	0.5	"외국인"	0.6	"결혼"	0.6	"한자어"	0.6
5	"문화"	0.6	"자녀"	0.5	"교정"	0.5	"숙달"	0.5	"작문"	0.6	"유표"	0.5	"직업"	0.5
6	"결혼이주여성"	0.5	"대화"	0.4	"말하기"	0.4	"한국인"	0.5	"문화"	0.5	"거절"	0.5	"자음"	0.5
7	"생활"	0.5	"이중언어"	0.4	"질의"	0.4	"정제"	0.4	"음절"	0.5	"모어화자"	0.5	"피드백"	0.4
8	"학생"	0.5	"문화"	0.4	"수업"	0.4	"다문화"	0.4	"학생"	0.5	"제2언어"	0.5	"기억"	0.4
9	"음독"	0.5	"주목"	0.4	"상세"	0.4	"자녀"	0.4	"띄어쓰기"	0.5	"습득"	0.5	"결혼"	0.4
10	"그룹"	0.5	"사회"	0.4	"암묵"	0.4	"자율"	0.4	"취도"	0.5	"한국인"	0.5	"필리핀"	0.4
11	"과제"	0.5	"학생"	0.4	"인지도"	0.4	"아랍인학습자"	0.4	"어미"	0.4	"비율"	0.5	"문장"	0.4

<표 7> LAD 토픽별 상위 12개 키워드의 토픽기여도(2010-2020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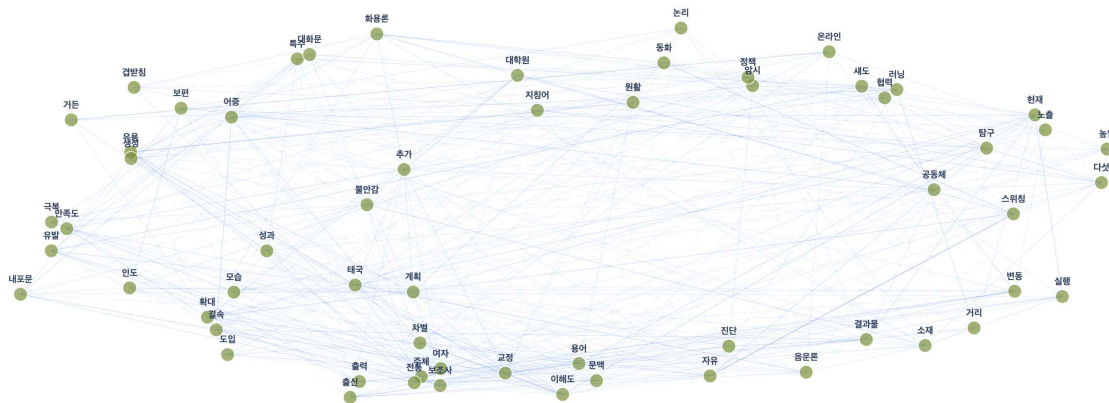
위 두 표는 각 시기에서 토픽에 대한 상위 12개의 키워드를 토픽 기여도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좀더 전처리의 필요성을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이 도표를 통해 추론해 보면, 1999-2009년 사이의 기간에는 중심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류’의 토픽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온 예들이 보인다. 또한 모어의 언어권을 보면 중국어권 학습자만 유일하게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2010~2020년 사이의 기간에는 ‘오류’라는 키워드의 토픽기여도에 있어 상위 12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역

시 중심성 분석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언어권에서도 ‘아랍인 학습자’, ‘필리핀’의 키워드로 보아 점점 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 중임을 엿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습득과 문화 적응 그리고 자녀의 이중언어발달 양상 등 다문화가정에 대해 좀더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fastText를 활용한 단어임베딩을 통한 상위 60위까지의 키워드 간의 중심성에 기초해 워드벡터를 networkX 라이브러리로 2차원 공간에 투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단어임베딩에 기초한 상위 60개의 키워드의 네트워크 맵(1999-2009년 기간)



<그림 5> 단어임베딩에 기초한 상위 60개의 키워드의 네트워크 맵(2010-2020년 기간)

위의 언어 네트워크 맵은 앞서 중심성 분석으로부터의 추론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앞선 시기에 비해 2010~2020년 사이의 기간에는 ‘새도’, ‘온라인’, ‘러닝’, ‘극복’, ‘만족도’ 등 좀 더 특정한 교수법적 용어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교수법이나 교수환경 등이 학습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는 응용적 연구들이 많이 산출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에 대한 기초적 논의와 더불어 그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에 대한 연구를 두 시기(1999-2009년 구간과 2010-2020년 구간)로 나누어 그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습득론은 개별 언어의 제2언어 습득 양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크게 이론적 한국어습득론과 응용 한국어습득론으

로 나눌 수 있다. 이론적 한국어습득론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양상을 한국어 학습자와 학습자 언어를 중심으로 다언어 사회 맥락 속에서 기술하고 설명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응용 한국어습득론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교실 내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연구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LDA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00년대에는 학습자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우세하였다면 2010년대는 교수법 등이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등 응용 한국어습득론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임베딩을 통해 딥러닝 기법으로 동향 분석을 계획하였으나 이를 부분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 정제 작업과 자료 보완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해외 연구물의 연구 성과 또한 포함할 계획이므로 영문 초록과 키워드 및 영문 제목을 기반으로 한 동향 분석 역시 필요하다고 보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저서 역시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동향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그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세분된 정량적 재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과제 중 하나로 남겨둔다.

참고 문헌

- 권성미(2015),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 한국어 습득 연구를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102.
- 김민희(2020), LDA를 통한 한국어 습득 연구 동향 분석 -중국어권 학습자 대상 연구를 바탕으로 -, 『반교어문논집』 55.
- 김은실·강승혜(2018), 학위논문 주제어 중심 연구동향 분석 -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9.2, 25-48쪽.
- 김정남(2008), 한국어 담화 교육을 위한 논의 - 한국어 경어법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19.2, 123-152쪽.
- 김풀잎(2020),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 16.1, 107-149쪽.
- 류연연(2020),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오류 연구 동향 분석 -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31.1, 23-49쪽.
- 박영훈·김장식·송향근(2019),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어문연구』 47.4, 451-474쪽.
- 백재파(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연구 담론 분석: 주요 학술지 대상 시기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49, 339-373쪽.
- 유동석(1994), 한국어의 일치, 『생성문법연구』 4, 211-248쪽.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응웬 티 꾸잉안(2020),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연구』 12.
- 이정희·안수현·이상준(2019),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서의 평가’ 연구 동향 모색,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9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장경완(2020),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359-378쪽.
- 주암·전흥화·이정희(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공기어 네트워크 기법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5, 197-222쪽.
- 최기용(2009), 『한국어 격과 조사의 생성통사론』, 한국문화사.

- 한학성(1993), 한국어의 AgrP와 NegP, 『언어』 18, 437-462쪽.
- Byon, A. S. 201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agmatics. L. Brown & J. Yeon (ed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Wiley Blackwell.
- Chan, R. KW & J. HC Leung. 2013. Implicit learning of L2 word stress regularities. *Second Language Research* 30.4, pp. 463-484.
- Choe, H.-S.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Ph.D. dissertation, MIT.
- Kang, Myung-Yoon.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Ph.D. dissertation, MIT.
- Kim, J.-B. & P. Sells. 2007. Korean honorification: a kind of expressive meaning.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6, pp. 306-336.
- Kim, J.-Y. 201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honology. L. Brown & J. Yeon (ed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Wiley Blackwell.
- Kwon, N., & Sturt, P. 2016. Attraction effects in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Frontiers in Psychology* 7.
- Lee, M. S. Hur, & W. O'Grady. 2017. Korean subject honorific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Pragmatics* 117, pp. 58-71.
- Leow, R. P. 2015. Explicit learning in the L2 classroom: A student-centered approach . New York: Routledge.
- Mueller, J. & N. Jiang. 2013. The acquisition of the Korean honorific affix (u)si by advanced L2 learner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7.2, pp. 318-339.
- O'Grady, W. & M.H. Choi. 201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yntax. L. Brown & J. Yeon (ed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Wiley Blackwell.
- Saville-Troike, M. 2008. *Introduc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S., J.-W. Choe & E. Oh. 2019. An empirical study of honorific mismatches in Korean, *Language Sciences* 75, pp. 47-71.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의 동향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호정(서울대)

이 연구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의 연구 동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물들을 검토하여 최종 4,736편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특정 연구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해당 연구의 전·중·후 시점에서 그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연구도 방대한 양의 연구물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거시적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어교육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통시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1차로 검색된 56,845편의 논문을 전처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종 선정된 4,736편의 연구물을 분석하는 지난(至難)한 연구 과정을 진행해 오신 발표자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논문의 이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맡은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1)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전처리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정련 및 선정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어’라는 검색 키워드를 통해 1차로 도출된 5,6845편의 연구물 가운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에 해당하는 최종 자료 선별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연구’의 범위를 기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학습 연구’에서 ‘학습’의 개념과 외연(外延)이 갖는 범위를 고려해 볼 때, 보다 구체적인 자료 선정 기준이 제시된다면 연구의 범위와 결과 해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제목, 주제어, 초록이라는 점에서 초록이 없는 경우, 영문 초록만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료 선별에 관해서도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출현 빈도, 관계가 중요하게 계량되는 연구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대상 언어, 자료 유형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구 결과의 도출과 논의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제2언어습득론의 범위를 이론적 연구와 응용 연구로 나누어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간에 이루어진 제2언어습득론 연구는 이 두 가지 연구 범주와 관련해서 어떠한 특징 또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2010-2020년 시기에는 제2언어로서의 응용 한국어습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데, 그 이전 시기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를 다시 둘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5개의 토픽을 선정하여 시기별 특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위 빈출(頻出) 키워드와 함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해 주는 토픽(topic)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토픽의 개수를 5개로 정하신 이유와 5개 토픽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견지에서 위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비롯해서 연구 방법과 내용에 대한 토론자의 부족한 식견에서 야기된 질문일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애써 주신 조용준 선생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및 쟁점

-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방성원(경희사이버대)

차례

1. 머리말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맺음말

1. 머리말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학은 시대적 변화,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발전해 왔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를 다시 교육에 환류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실천적 학문으로서 한국어 교육학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는 타 세부 주제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8년부터 주요 학회들은 전국학술대회 주제에 ‘기술 혁명’, ‘네오 테크놀로지’, ‘포스트 휴먼’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술 담론 형성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한 대면 접촉 제한의 상황에서 전 세계가 온라인 교육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교육 체제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들까지 전면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한국어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효율적인 수업 진행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모든 한국어 교사들이 수업을 이어 가기 위해 실시간 화상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학습자 상호작용 및 피드백, 평가 등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해 온 교수 활동의 대안을 찾아야 했으며 현재도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방법,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실제로 2020년 한국어 교육의 주요 학술지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블렌디드 러닝·플립 러닝 기반 한국어 교육 등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및 수업 사례를 다룬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첫째,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연구의 시대별 추이는 어떠한가?
- 둘째,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연구에 자주 출현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 셋째,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연구의 주요 토픽은 무엇인가?
- 넷째,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영향력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추이 분석,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연구의 동향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연구의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의 타 세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교육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이 확대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방대한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새롭게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사한 주제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가 변경아(2017), 박진철(2019), 장혜림·송향근(2019), 김형민 외(2020), 백재파(2020) 등 연이어 발표된 바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고 앞으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구 동향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범위, 분석 기준 및 방법이다. 특히 분석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며 연구의 쟁점 및 전망 등 연구 방향 도출의 내용에 차이를 가지게 된다. 선행 연구의 연구 범위, 분석 대상, 분석 기준 및 결과 등의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사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요약

	연구 범위	분석 대상	분석 기준	분석 결과
변경아 (2017)	한국어 교육의 온라인 매체 활용 교수·학습	학술지 55편 학위논문 106편 (총 161편)	연도 온라인 매체 활용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차 증가 추세 • 이러닝 학습 환경 연구 많음 • 모바일 러닝 연구 상승 • 설문조사, 매체별 비교 연구 많음
박진철 (2019)	한국어 교육의 멀티미디어 활용 연구	학술지 135편 학위논문 222편 (총 257편)	연도 논문 유형 주제(멀티미디어 기능, 개발 단계,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유형별 편중 •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을 위한 이론 수용, 교수학습 과정의 가설 및 이론 연구 병행, 실제 교수 학습 적용을 위한 노력 • 자가학습용 교육과정 연구 심화 필요
장혜림 송향근 (2019)	멀티미디어 포함 영상매체 관련 한국어 교육 연구	학술지 123편 학위논문 294편 (총 417편)	논문 유형 연도 내용(주제, 장르, 교수학습방안 실제)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주제보다 늦은 시작 • 다양한 장르의 영상매체 활용, 한류와 연관성 • 동일 매체로 다양한 교육 가능 • 주제, 교육대상, 연구 방법의 편중

			연구방법	
김형민·이선영·박영지 (2020)	‘매체’가 아닌 ‘자원’으로서의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학술지 108편 학위논문 174편 (총 282편)	연구 일반 (연도, 유형,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주제 (교육 내용, 교수학습 유형, 교수학습 도구, 상호작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질적 성장 • 개발, 분석, 양적 연구 비중 높음 • 일반 목적, 전 등급 대상 연구 많음 • 자가 학습 연구 많음 • 교육 내용 특정하지 않은 연구 많으며, 읽기·듣기에 비해 말하기·쓰기 연구가 많고, 어휘·문화 연구가 문법·발음 연구보다 많음 • 교수학습 방안(수업모형 개발) 다수 • 개발 연구는 상용화 수준 드물 • MALL 연구 급증 •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중요 원리
백재과 (2020)	한국어 교육의 MALL 연구 답론	학술지 25편 학위논문 70편 (총 95편)	연도 논문 유형 텍스트 마이닝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심 • 어휘, 말하기 분야, 애플리케이션 분석·설계·구성 연구 활발 • 핵심어 3개 집단(MALL 변인, MALL 도구 개발, MALL 적용 답론) 연구 경향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 기법으로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비구조화된 문서 집합에서 잠재된 토픽들을 추출해 주는 확률적 모델 알고리즘이다(Blei, Ng & Jordan 2003, 박준형·오효정 2017:238 재인용). Blei, Ng & Jordan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발표한 이후로는 주로 LDA 기법이 토픽 모델링의 주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남춘호 2016:92). LDA는 문헌, 단어 등 관찰된 변수를 통해 문헌의 구조와 같은 보이지 않는 변수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전체 문헌 집합의 주제, 각 문헌별 주제 비율, 각 단어들이 각 주제에 포함될 확률들을 알아낼 수 있다(박자현·송민 2013:15). 최근 들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 연구 동향의 주제 및 추세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신명선·장경완·이안용 외 2020, 이주희·박은현 2020, 장경완 2020, 정연희 2020 등). 본 연구에서도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LD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Language Network Analysis)은 언어로 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나타낼 만한 개념을 단어의 형태로 추출하고 그들 간의 동시 출현과 같은 연관관계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텍스트의 의미적 내용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내용 분석 방법이다(이수상, 2014:53)¹⁾. 전통적인 내용 분석에 근거할 때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주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데,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중심을 두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김준현 2015:273, 문영주 2020:221). 동시 출현

1) 언어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등이 모두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황서이·황동열 2018:10).

단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동향 분석 역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김은실·강승혜 2019, 강병훈 2019, 윤데레사 2019 등).

토픽 모델링은 키워드의 중요도 확률에 따라 유의미한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황서이·황동열 2018:17),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의 관계를 파악하여 지식 구조의 흐름을 살피는 데 유용하다(정보권·이학연 2016, 문영주 2020:219 재인용). 이에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도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한국어 교육 연구의 주제 및 지식 구조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3.1. 분석 도구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넷마이너(NetMiner 4.3)를 사용하였다. 넷마이너는 LDA 기법의 토픽 모델링, 언어 네트워크 구성 및 분석 지표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어 학술 연구 동향 분석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넷마이너와 함께 자료 수집 및 전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인 Biblio Data Collector도 함께 사용하였다.

3.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절차 및 주요 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 절차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및 선정	KCI 논문 수집 및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전 처리	제외어, 유의어, 지정어 처리
연도별 추이 분석	연도별 논문 편수 분석
빈도 분석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연구 주제 분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언어 네트워크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words co-occurrence network) 분석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
논의 및 해석	분석 결과의 해석

1) 자료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학술지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Biblio Data Collector를 통해 KCI 논문 중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주제를 다룬

2) 이수상(2014:63)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논문 53편 중 19편이 NetMiner를 사용하여 관련 프로그램 중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소논문의 서지 사항을 수집하였다. 논문 제목에 ‘한국어’가 포함되고 저자 등록 키워드에 ‘온라인, 웹, 인터넷, 사이버, 이러닝, 원격, 학습 사이트, 멀티미디어, 매체, 콘텐츠, 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SNS, 팟캐스트, 블로그, 모바일러닝, 스마트러닝,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챗봇,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라도 포함된 논문을 모두 검색한 결과, 총 396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통신언어 분석을 다룬 사회언어학 분야, 자연언어처리를 포함한 컴퓨터 공학 분야 등 한국어 교육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타 학문 분야의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목록을 확인하고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한국어 교육 분야의 논문 중에서도 수업에서 드라마, 뉴스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초록을 통해 연구 목적과 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총 209편의 학술지 소논문을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키워드 추출을 위한 분석 대상 언어 텍스트의 범위는 논문 제목 및 저자 등록 키워드로 한정하였다.³⁾

2) 전 처리

분석 대상 텍스트로부터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단어 추출 및 정제 작업 등의 전 처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추출 대상을 한국어 명사로 한정하였으며 넷마이너의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 기능을 활용하여 단어 목록 정제를 위한 전 처리를 실시하였다. 유의어 사전을 이용하면 연구자들마다 띄어쓰기를 다르게 표기했거나 다른 용어로 사용했지만 사실상 유사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를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립러닝, 플립 러닝, 플립드 러닝, 플립트 러닝, 역진행 학습, 거꾸로 학습’ 등은 모두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므로 ‘플립러닝’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유의어 사전에 등록하였다. 지정어 사전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의미가 분리되지 않도록 지정하기 위한 사전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능력시험’은 하나의 지시적 의미를 가진 용어이므로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분리되지 않게 지정어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제외어 사전은 분석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을 제외하고 처리하도록 등록하는 용도이다. 가령 ‘연구’, ‘중심’, ‘기반’, ‘대상’, ‘탐색’, ‘고찰’, ‘온라인’, ‘한국어’, ‘교육’ 등은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 주제의 특징을 드러내기 어려운 단어이므로 제외어 사전에 등록하였다.

3) 출현 빈도 분석

전 처리를 통해 추출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 출현 빈도 분석을 통해 고빈도에 속하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상위 200개 빈도의 키워드는 워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4) 토픽 모델링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사전에 토픽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토픽의 개수는 연구 결과의 해석 가능성에 영향을 주므로 주요 이슈가 된다(문영주 2020:225). 다만, 최적의 토픽 수에 대한 통계적 해법은 없으며, 토픽 수의 결정은 산출된 토픽들의 해석 가능성과 타당도 및

3) 국문 초록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려 하였으나 209편 중 87편의 논문이 국문초록 없이 다국어 초록만 제시하고 있어 분석 대상 텍스트 유형을 논문 제목과 저자 등록 키워드로 한정하였다.

연구 질문과 관련한 유용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남춘호 2016:98).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주제를 세밀하게 분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픽 개수를 달리하는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토픽의 개수를 7개로 산출하였다.⁵⁾

5) 언어 네트워크 분석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지식 구조에서 영향력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논문별로 등장하는 키워드 리스트는 2-모드 리스트이므로, 이것을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1-모드로 데이터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거리, 즉 단어 간 근접성을 기준으로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1-모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3어절 내의 근접 거리, 동시 출현 빈도가 2회 이상인 경우로 1-모드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⁶⁾

데이터 변환 후에는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해 다시 데이터 필터링 과정을 거쳤다. 넷마이너의 쿼리(Query) 기능을 활용하여 등장 빈도 5회 이상, 단어의 길이 2음절 이상, 동시 출현 단어 쌍이 등장하는 문서 수 2개 이상인 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데이터 크기를 축소하는 단계를 거쳤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성한 언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단어 동시 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의 분석 지표로 연구 동향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중심성 분석이다. 중심성 분석에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 중심성은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문영주 2020:225). 이는 다른 단어들과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정도로서 가장 중요한 값이라고 볼 수 있다(황서이·황동열 2018:16).⁷⁾ 신명선(2019), 신명선 외(2020) 등의 논의에서도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단어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중심성 분석 중 연결 중심성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⁸⁾

4. 연구 결과

4.1. 연도별 추이

KCI를 통해 수집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 209편의 연도별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상승, 2019년과 2020년에 대폭 연구가 증가한 것

4) 토픽 수의 결정에서 추출된 토픽의 해석 가능성과 타당도, 연구 질문에 비추어 본 유용성 및 분석의 용이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 단계에서 해당 연구 영역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요구된다(남춘호 201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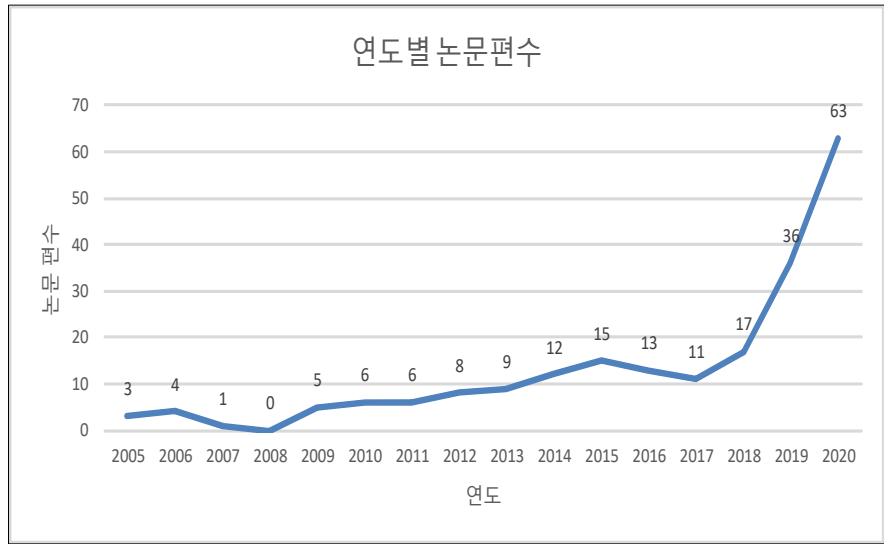
5) 넷마이너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위한 분석 옵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F-IDF 0.2 이상, 단어 길이 2음절 이상, alpha 0.1, beta 0.01, 반복횟수 1000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설정하면 여러 문서에서 흔하게 사용되어 주제에 대한 의미 기여가 낮은 키워드를 제거할 수 있다.

6) 넷 마이너의 Work network 실행에서 Window size 3, 동시 출현 빈도 2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7) 근접 중심성은 다른 주요 단어들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정보 흐름을 빠르게 전달할 있는 단어임을 의미하며, 매개 중심성은 중간에서 다른 의미들을 생성하고 확장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황서이·황동열 2018:16).

8) 이수상(2014:64)에 의하면 언어 네트워크 활용 학술논문에서 사용한 중심성 분석은 연결정도 중심성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부터 한국어 교육 관련 주요 학회들이 학술대회 기획 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술 담론 형성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2020년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증가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도별 논문 추이(2005~2020)

4.2.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 추출된 569개 키워드에 대하여 출현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 빈도 30위의 단어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학습, 수업, 학습자, 활용, 교사, 개발, 블렌디드러닝, 매체, 문화, 애플리케이션’ 등이 고빈도로 등장해 온 단어이다. 그 중에서도 ‘학습’, ‘수업’, ‘학습자’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키워드 상위 빈도 30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학습	182	17	교수학습	30
2	수업	115	18	사례	30
3	학습자	97	19	인식	30
4	활용	70	20	MOOC	29
5	교사	59		스마트러닝	29
6	개발	58	22	쓰기	28
7	블렌디드러닝	57	23	가상현실	27
8	매체	55	23	모바일러닝	27
9	문화	53	25	교재	25
10	애플리케이션	49	26	어휘	25
11	플립러닝	46	27	말하기	23
12	콘텐츠	40	28	능력	22
13	운영	37	29	과정	21
14	분석	36	30	모바일	20
15	상호작용	35		자료	20
16	멀티미디어	34		학문 목적	20

빈도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도식화하면 어떤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였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상위 빈도 2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키워드 상위 빈도 200개 워드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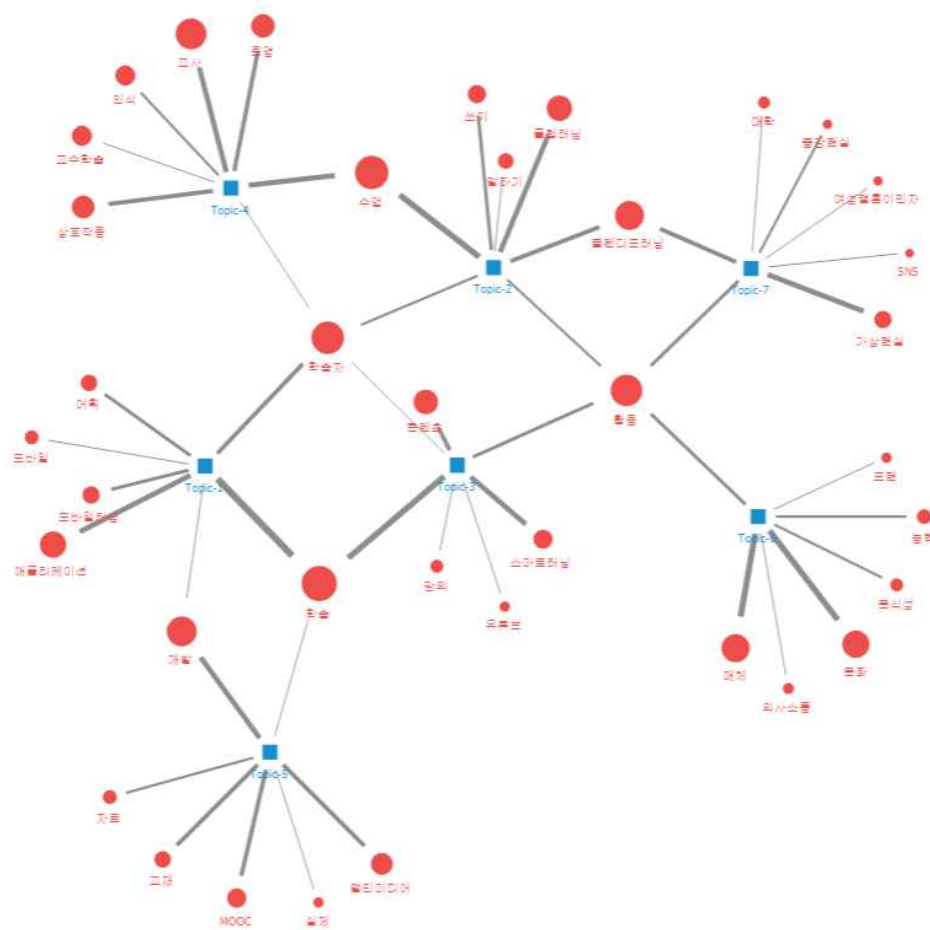
4.3. 토픽 모델링 분석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주요 토픽을 찾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7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토픽별로 할당된 키워드를 확률 순서대로 10개까지 제시하고, 해당 토픽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문서 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4>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	키워드	백분율 (%)	문서 수
1	학습, 애플리케이션, 학습자, 모바일러닝, 어휘, 모바일, 개발, 분석, 사건, 요구	19	40
2	수업,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쓰기, 학습자, 활용, 말하기, 학문 목적, 학습, 모형	15	32
3	학습, 스마트러닝, 콘텐츠, 활용, 유튜브, 학습자, 강의, 스마트, 교수학습, 디지털	11	23
4	교사, 수업, 운영, 상호작용, 인식, 학습자, 교수학습, 화상, 사례, 학습	16	33
5	개발, MOOC, 멀티미디어, 교재, 자료, 학습, 실제, 과제, 과정, 분석	14	29
6	매체, 문화, 활용, 능력, 문식성, 의사소통, 표현, 정보, 영상, 복합	17	36
7	가상현실, 블렌디드러닝, 활용, 증강현실, 여성결혼이민자, 대학, 설계, 발전, 학습	8	16

상대적으로 가장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토픽 1이다. 토픽 1> 토픽 6> 토픽 4> 토픽 2> 토픽 5> 토픽 3> 토픽 7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는 각 토픽에 할당된 키워드를 포함하여 맵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7개의 토픽이 특정 키워드를 공유하기도 하며 토픽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림 3>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시각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키워드가 모여서 토픽을 구성하므로 각 토픽에 대해 주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별로 할당된 키워드 확률 분포를 참조하여 확률 값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하되 해당 토픽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논문의 제목, 키워드, 초록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주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토픽 1은 ‘온라인 한국어 학습을 위한 도구 개발’에 대한 주제로 ‘학습, 애플리케이션, 학습자, 모바일러닝, 어휘, 모바일, 개발, 분석, 사전, 요구’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모바일러닝 관련 논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웹 기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사이트,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위한 도구 개발’이라는 주

9) 토픽 맵에서 토픽별로 점의 크기와 선의 굵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점의 크기는 키워드의 등장 빈도, 선의 굵기는 토픽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제로 명명하였다. 초기에는 웹 기반 한국어 프로그램, 사이트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2013년부터 학습용 애플리케이션 분석, 모바일러닝에 대한 학습자 인식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어휘 학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2는 ‘온라인 혼합 수업의 활용’에 대한 주제로 ‘수업,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쓰기, 학습자, 활용, 말하기, 학문 목적, 학습, 모형’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는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온라인 학습을 기반으로 교실 내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플립 러닝에 관한 연구가 대학의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수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블렌디드 러닝은 플립 러닝의 중요한 이론적 기저가 되므로(성민경, 2016:33) 두 가지를 하나의 주제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 기능 중에서는 쓰기와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 러닝을 적용하는 수업에서 표현 영역에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 준다.

토픽 3은 ‘스마트러닝과 콘텐츠 활용 학습’에 대한 주제로 ‘학습, 스마트러닝, 콘텐츠, 활용, 유튜브, 학습자, 강의, 스마트, 교수학습, 디지털’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유튜브 등 대중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학습이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 사례,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학습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러닝의 개념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모바일러닝’과 구별되는 스마트러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토픽 4는 ‘교사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에 대한 주제로 ‘교사, 수업, 운영, 상호작용, 인식, 학습자, 교수학습, 화상, 사례, 학습’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특히 2020년 COVID-19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이 증가하면서 실제 온라인 수업 운영 및 상호작용의 사례에 바탕을 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눈에 띈다. 총 33편 중 20편의 논문이 2020년에 발표되었으며 그 중 14편이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실제 운영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는 교수 학습 상황의 변화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교수 실재감,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등 교사 및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세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토픽 5는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개발, MOOC, 멀티미디어, 교재, 자료, 학습, 실제, 과제, 과정, 분석’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토픽 5는 토픽 1과 ‘개발’, ‘학습’의 키워드가 중복되는데 토픽 1에서 ‘학습’이 가장 높은 확률의 키워드로 나타났다면 토픽 5에서는 ‘개발’이 가장 높은 확률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MOOC의 기반이 되는 교재의 개작, 부교재 또는 보조 자료로서의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동영상 교수 자료 개발, 온라인 한국어 레벨 테스트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로서 글로벌 MOOC나 K-MOOC 관련 연구에서도 주로 강의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6은 ‘매체 문식성과 문화 교육’에 관한 주제로 ‘매체, 문화, 활용, 능력, 문식성, 의사소통, 표현, 정보, 영상, 복합’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다중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매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 담론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사의 매체 문식성, 복합 문식성, 매체 기반 의사소통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문화 교육 분야에서 매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픽 맵을 통해서 볼 때 토픽 6은 ‘활용’의 키워드를 다른 토픽과 가는 선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토픽으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토픽 7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주제로 ‘가상현실, 블렌디드러닝, 활용, 증강현실, 여성결혼이민자, 대학, 설계, 발전, 학습’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VR(가상현실), 증강현실(AR, 실감형 콘텐츠)을 활용하여 대학 또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안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에서 이 토픽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¹⁰⁾

4.4. 언어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유의미한 토픽을 추출하였고 각 토픽에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들에 나타난 동시 출현 단어의 연결 강도,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지식 구조에서 영향력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2019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동시 출현 단어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출된 동시 출현 단어 쌍에 대하여 연결 강도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동시 출현 단어 분석 결과 상위 단어 쌍

키워드 (Source)	키워드 (Target)	연결 강도 (Weight)	키워드 (Source)	키워드 (Target)	연결 강도 (Weight)
어휘	학습	20	애플리케이션	학습	9
수업	운영	16	스마트러닝	학습	9
상호작용	학습자	14	콘텐츠	학습	9
인식	학습자	13	수업	플립러닝	9
매체	활용	11	운영	화상	9
학습	학습자	11	교수학습	학습	8
사례	수업	10	멀티미디어	활용	8
개발	학습	10	사례	운영	8
교사	인식	10	모형	수업	8
개발	애플리케이션	10	MOOC	글로벌	8
매체	영상	10			

동시 출현 단어 쌍 중에서 연결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휘, 학습’이고, ‘수업, 운영’, ‘상호작용, 학습자’, ‘인식, 학습자’ 등도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동시 출현 단어 쌍의 목록을 보면 ‘학습’, ‘수업’, ‘학습자’, ‘활용’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동시 출현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결

10) 토픽 7에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지만 이른 시기에 인터넷을 활용한 교사 교육 연구도 포함되었다. 남춘호(2016:98)에서는 토픽 모델링이 흔히 잡음 자료들을 소수의 토픽에 몰아넣음으로써 나머지 다수의 토픽들을 좀 더 해석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토픽 7개 중 가장 소수에 해당하는 토픽 7에 비교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연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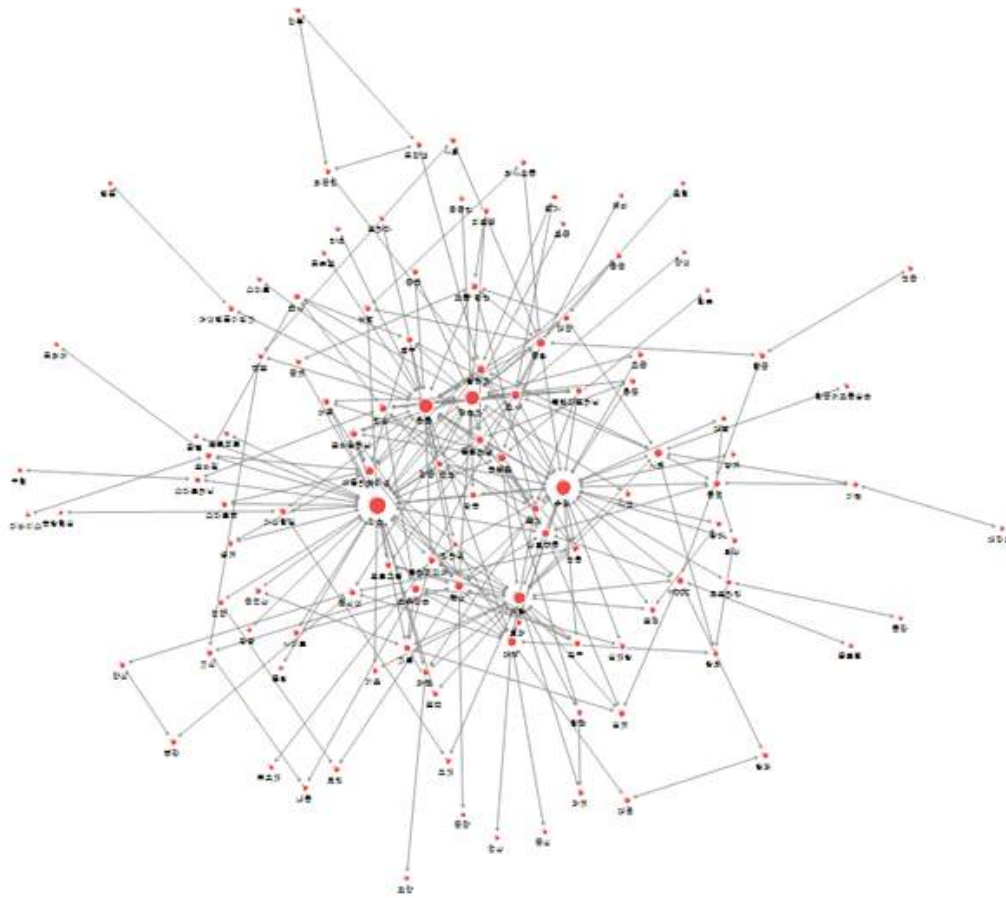
중심성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 연결 중심성 분석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네트워크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학습, 수업, 활용, 학습자, 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된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중심성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언어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키워드의 중심적 역할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6> 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학습	0.290323	사례	0.072581
수업	0.241935	교수학습	0.072581
활용	0.217742	플립러닝	0.064516
학습자	0.217742	인식	0.064516
개발	0.169355	쓰기	0.064516
애플리케이션	0.096774	상호작용	0.064516
분석	0.096774	자료	0.056452
교사	0.096774	멀티미디어	0.056452
문화	0.08871	MOOC	0.056452
매체	0.08871	운영	0.048387
말하기	0.080645	모바일러닝	0.048387
콘텐츠	0.072581	교육 방안	0.048387



<그림 4> 중심성 분석 결과 시각화

그런데 4.1.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는 2019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209편의 논문 중에서 2018년 이전 논문이 110편이며, 2019년 이후 논문이 99편이다.¹¹⁾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COVID-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이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지식 구조에도 변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당 연도를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두 시기의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1)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자료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연구물의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적어도 100개 이상을 분석 자료로 사용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김은실·강승혜 2019:13).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9년 이후의 연구 편수는 99편으로 100편에 근접하고 연구 논문의 제목과 저자 등록 키워드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사용했기에 데이터 크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시기별 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2005~2018년		2019~2020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개발	0.223684	수업	0.291667
학습	0.210526	학습	0.222222
활용	0.184211	학습자	0.194444
학습자	0.171053	활용	0.180556
수업	0.144737	인식	0.111111
멀티미디어	0.092105	말하기	0.111111
자료	0.078947	운영	0.083333
콘텐츠	0.065789	플립러닝	0.069444
애플리케이션	0.065789	적용	0.069444
문화	0.065789	애플리케이션	0.069444
실제	0.052632	상호작용	0.069444
매체	0.052632	개발	0.069444
교수학습	0.052632	만족	0.055556
MOOC	0.052632	대학	0.055556
활동	0.039474	가상현실	0.055556
조사	0.039474	유학생	0.041667
정보	0.039474	요구	0.041667
운영	0.039474	외국인	0.041667
요구	0.039474	사례	0.041667
쓰기	0.039474	블렌디드러닝	0.041667
블렌디드러닝	0.039474	분석	0.041667
분석	0.039474	매체	0.041667
보조	0.039474	기관	0.041667
모바일러닝	0.039474	교육 방안	0.041667
도구	0.039474	교수학습	0.041667
		교사	0.041667

이상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내 학술지의 논문에서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학습, 수업, 활용, 학습자,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념들과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과 ‘수업’, ‘학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서준일·장경원(2016:422-425)에 의하면 국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는 ‘활용, 스마트폰, 개발, 교육, 분석’의 순이고, 국외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는 ‘learning, system, using, environment, teaching’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한국어 교육 분야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국외의 연구처럼 교육의 본질 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 수업,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주요 단어와 긴밀하게 연결된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후로는 ‘수업’의 연결 중심성이 1위를 차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말하기, 운영, 적용, 대학’ 등의 연결 중심성이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둘째, 전반적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 영향력 높은 키워드는 ‘개발’과 ‘활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¹²⁾ ‘활용’과 ‘개발’은 서준일·장경원(2016:422-425)의 스마트 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던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9년 전후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활용’은 여전히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개발’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 콘텐츠’ 등의 키워드도 2018년 이전에는 중심성이 높았으나 2019년 이후로는 중심성 값이 낮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학습자’와 연결된 주요 키워드로서 이전에는 높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식, 만족, 상호작용’ 등의 키워드의 중심성이 높아졌다. 이 중에서 ‘인식’은 ‘학습’, ‘교사’, ‘상호작용’ 등과도 직접 연결되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학습,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블렌디드 교육’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이 유지되었는데 관련된 개념으로서 ‘플립 러닝’의 중심성이 확연히 높아졌다. 플립 러닝은 기존에 활용되던 블렌디드 러닝의 방법을 뒤집고 분리한 형태로서(이민경 2016:34), 여러 교육 분야에서 사전 학습의 자료가 될 만한 MOOC 등 공개된 온라인 콘텐츠에 힘입어 플립 러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국내외의 다양한 교수 학습 상황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플립 러닝’이 ‘수업’, ‘학습자’, ‘활용’ 등의 중심성 높은 키워드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이전에 비해 중심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애플리케이션’은 ‘학습’, ‘학습자’, ‘활용’, ‘분석’, ‘모바일러닝’, ‘어휘’ 등의 키워드들과 연결되며 전반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이며 2019년에도 유사한 순위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중심성이 높아진 점도 주목된다. ‘가상현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빠른 상용화에 힘입어 ‘활용’, ‘학습’과 연결되며 새롭게 부상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병훈(2019),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분석-키워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혜(2017),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을 기초로 한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 새국어교육 110, 121-146쪽.
- 김은실·강승혜(2019), 한국어교육 평가 관련 연구 동향 분석-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0쪽.
- 김형민·이선영·박영지(2020), 웹 기반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이종언어학 80, 이종언어학회, 105-136쪽.
- 남춘호(2016), 일기자료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기법의 활용가능성 검토, 비교문화연구 22-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89-135쪽.
- 문영주(2020), 토픽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교장공모제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6-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17-242쪽.
- 박자현·송민(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정보관리학회, 7-32쪽.
- 박준형·오효정(2017),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 - LDA와

12) 김형민·이선영·박영지(2020:119)에서는 웹 기반 교육 연구의 연구 방법에서 ‘통합 연구, 개발 연구, 분석 연구’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활용 연구’라는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 HDP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35-258쪽.
- 박진철(2019), 한국어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87-508쪽.
- 백재파(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MALL 연구 담론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455-1472쪽.
- 변경아(2017), 온라인 매체 활용 한국어교육 교수학습 연구 동향 분석,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준일·장경원(2016), 언어 네트워크 분석 활용 스마트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3,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409-438쪽.
- 서희정·이종연(2018),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교육 동향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4,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649-678쪽.
- 신명선(2019), 토픽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어 문법 교육' 연구 동향 분석, 문법교육 36, 한국문법교육학회, 95-134쪽.
- 신명선·장경원·이안용 외(2020),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소통.
- 윤데레사(2019),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성민경·정주영 외(2016), 플립러닝 이해와 실제, 교육과학사.
- 이수상(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한국정보관리학회, 49-68쪽.
- 이주희·박은현(2020),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2016년~2019년 한국어 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한말연구학회, 279-304쪽.
- 장경원(2020),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동향 분석-언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59-378쪽.
- 장혜림·송향근(2019), 영상매체 관련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30-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1-191쪽.
- 정연희(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동향 분석-한국연구재단의 선정과제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81, 이중언어학회, 347-367쪽.
- 황서이·황동열(2018),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예술경영 연구동향 분석, 예술경영연구 48, 한국예술경영학회, 5-29쪽.
- Cyram(2017), NetMiner 4.3. Seoul: Cyram Inc.

■ 토론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및 쟁점」에 대한 토론문

김정훈(한양대)

이 논문은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급 학술지 소논문 209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향후의 해당 분야의 연구 방향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 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먼저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핵심 주제 7개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Language Network Analysis)을 통해 대상 논문에서 추출된 동시 출현 단어의 연결 강도와 중심성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밝힌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고 교육 시스템의 패러다임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때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간학문적 연구를 시도하고 정량적인 연구와 정성적인 연구를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토론자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범위와 전문성이 한층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연구 결과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 미칠 ‘선순환적 환류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 자리에서는 논문을 읽으며 토론자가 궁금하게 여겼던 내용에 대해서 청중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그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픽 모델링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헌에서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분석 기법으로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클러스터링(clustering: 그룹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주제를 추론하게 됩니다. 연구자는 이 기법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진 7가지 핵심 주제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동향을 세목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추가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표 4>에 7가지 핵심 주제의 상대적인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중이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기술할 수 있는지요? 다음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관련 연구 논문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토픽 모델링을 시행한다면 상승세와 하강세에 있는 핵심 연구 주제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추론할 수 있을지요?

두 번째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동시 출현 단어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출현 빈도에 따라 추출된 단어 군의 상호 관계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구자는 대상 논문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 쌍을 추출하고 이를 연결 강도

순으로 배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대상 논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돋보입니다만, 분석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표 5>에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 결과가 연결 강도에 따라 나열되어 있는데, 각 단어의 조합을 근거로 연구 동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수업-운영’의 조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수업의 운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상호작용-학습자’의 조합에 대해서는 ‘언어 교육의 특성이 반영되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중심성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자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를 나누고 대상 논문에서 추출된 고빈도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만, 키워드의 이면에 숨어 있는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추론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2019년 이후 중심성 수치가 높아진 ‘인식’의 경우, 동시 출현 단어 분석에서는 ‘학습자’와 높은 연결 강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연구에서 ‘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수-학습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학습자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교수-학습활동의 근본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지요?

이 논문에 적용된 분석 기법의 경우, 정량적인 통계치에 대해 정성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상 논문들을 통찰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고견을 청하려다보니 질문이 장황해졌습니다. 아무쪼록 토론자가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부 <제4 분과>

한국어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

-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중심으로 -

장은경(경희대)

차례

1. 서론
2. B&L의 공손 이론
3. 사죄표현의 분석
4.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
5. 결론

1. 서론

1.1. 연구 목적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대화 행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항상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동기가 효율성을 우선하기도 한다. Lakoff, R(1973)에서는 화행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대인 관계의 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령, 대화의 주된 목적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포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 내용만을 발화할 것이고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기보다 공손을 지킨다는 것이다. 공손은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행위에서 마찰이나 갈등을 되도록 피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행위이다. 말하자면, 대화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면 욕구(face wants)를 만족시키는 언어 행위를 말한다.

사과 화행의 수행동사로 쓰이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는 화자가 자신의 과거 과실로 인하여 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었거나 손실을 입혔을 때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경우 사과 화행이 갖추어야 할 적절성 조건¹⁾을 보면 사과의 대상이 되는

¹⁾ Searle(1969)은 특정 화행을 수행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아래의 적절성 조건(felicity condition)을 제안하였다.

- 명제 조건(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발화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조건
- 예비 조건(preparaory condition): 발화의 장면 설정에 관련된 모든 조건(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갖는 신념 등)

행위는 화자에 의해 과거에 일어난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가 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손실을 초래했고 화자도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1) {진동수 아파트 거실(낮)}

진동수와 오수영이 은재를 맞이한다.

유은재: (꽃바구니 오수영에게 건네며) **지난번에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꾸벅) 죄송합니다.

오수영: (진동수 보면서) 이럴 것까진 없는데... (난폭한 로맨스, 2012)

위의 대화를 보면 화자(유은재)는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가 잘못된 것(오해를 한 일)임을 인정하고 그 행위에 대해 '죄송합니다'를 사용하여 사과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대화를 보면 (1)의 사과 화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태수: 승아 씨, **미안하지만 이것 좀 께매 주세요.** (양말 주며)

승아: (받으며). 어머 양말이 구멍이 났네요. 제가 께매 놓을게요. (몽땅 내사랑, 2011)

(2)의 대화는 사과 화행이 갖추어야 할 적절성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과 화행에서는 사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야 하는데 (2)의 대화를 보면 '미안하지만'이라는 사죄표현을 발화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죄표현의 대상은 후속 발화로 상대방에 대한 요청이다.

(1)' 유은재: (꽃바구니 오수영에게 건네며) **지난번에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2)' 태수: 승아 씨, **이것 좀 께매 주세요.** (양말 주며)

(1)에서 '죄송합니다'를 삭제한 (1)'을 보면 지문의 비언어적 표현이 뜻을 더해 주어 사과의 뜻은 전달이 되지만 문장이 종결되지 않는다. 반면, (2)에서 '미안하지만'을 삭제한 (2)'의 경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두 대화 모두 사죄표현의 유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공손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own and Levinson(1987)의 공손 이론을 토대로 대화에 나타나는 '미안하다', '죄송하다'의 쓰임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화용적 기능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표현이 어떠한 화행

-
- 성실 조건: 화자의 의도에 관련된 조건
 - 필수 조건: 특정 화행 수행에 필요한 본질적 조건

그리고 약속, 화행을 들어 적절성 조건의 내용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요청', '주장', '질문', '감사', '조언', '경고', '인사', '축복' 등의 화행에 적용하여 적절성 조건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는데 사과 화행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에서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언어 연구의 자료는 실제적 발화를 반영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추출한 자료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해당 발화 추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만큼의 성과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 대본을 사용하였다. 드라마 대본 자료는 2005년도 이후에 방영된 것으로 가능한 한 현대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발화가 기대되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자료는 '몽땅 내 사랑(2011), 웃어라 동해야(2010), 역전의 여왕(2011), 난폭한 로맨스(2012), 미생(2014), 지붕 뚫고 하이킥(2010), 커피하우스(2010), 신의퀴즈(2014), 여인의 향기(2011), 강남엄마 따라잡기(2007), 결혼합시다(2005), 내조의 여왕(2009), 사랑해 울지마(2008) 등으로, 각 드라마에서 3회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드라마 자료에서의 언어 자료 추출 방법은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사용된 장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드라마 장면은 시간과 장소가 동일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 상황에 적절한 맥락 설정, 한 화제에 대한 대사가 전개되므로 사죄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죄표현에는 볼드체와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죄표현과 관련된 부분은 볼드체로만 표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사죄표현의 선 발화 혹은 후 발화가 분석에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2. B&L의 공손 이론

Brown and Levinson(이하 B&L, 1987:146)에서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수행되는 대화는 협력적 상호 행위에 대하여 위협적인 요소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행위를 체면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 이하, FTA)로 정의한다.

그리고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 두 가지를 기본적인 욕구(wants)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적극적 체면은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플러스 방향의 욕구를 말하고 소극적 체면은 타인과 거리를 두어 간섭을 받거나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이너스 방향의 욕구를 말하는데, 이러한 체면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B&L(1987:65-68)은 화자와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3) a. 청자의 소극적 체면 위협 행위: 명령, 요청, 충고, 금지, 위협
- b. 화자의 소극적 체면 위협 행위: (제안, 감사, 사죄 등에 대한) 수락, 감사, 변명, 약속
- c. 청자의 적극적 체면 위협 행위: 비동의, 비판, 불평, 비난, 모욕, 반박, 불일치

d. 화자의 적극적 체면 위협 행위: 사과, 겸손, 핑계, 고백, 자기 비하

사실, 대부분 화행은 화자와 청자의 체면을 동시에 위협한다. 가령, 명령은 청자의 소극적 체면 뿐만 아니라 적극적 체면도 위협할 수 있고 요청은 청자의 소극적 체면과 화자의 적극적 체면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사과 화행 역시 화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면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 가령, 청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화자는 적극적 체면이 위협받고 청자는 소극적 체면이 위협받게 된다. 만일, 화자가 자신의 체면을 더 보호할 경우, 요청을 수행하지 않거나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 없이 노골적으로 요청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요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요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화자는 자신의 체면 보호를 포기하고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여 체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B&L(1987:69)은 화행 수행 시의 체면 위협(Face Threatening: 이하, FT)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로 공손 전략(politeness strategy)을 제안하였다. 공손 전략은 FT의 정도와 공손성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FT의 정도는 화자와 청자 간 거리, 힘, 부담의 정도에 의해 산출된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B&L은 다음과 같이 FT 완화를 위한 공손 전략의 체계를 제시하였다²⁾.

- (4) a. 노골적인 발화(without redressive action, baldly)
- b. 적극적 공손 전략(positive politeness)
- c. 소극적 공손 전략(negative politeness)
- d. 암시적 표현(off record)
- e. 체면위협행위를 하지 않음(Don't do the FTA)

대화 참여자들은 적극적 체면 위협의 우려가 있을 때 'b'를 사용하고 소극적 체면 위협의 우려가 있을 때는 'c'를 사용한다. 'b'의 적극적 공손 전략은 주로 청자와의 유대감, 동질성, 친밀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관심 표명, 과장된 표현, '우리'와 같은 내집단 표지, 동의 표시, 반대 회피, 공감대 조성, 농담, 청자의 욕구를 이해한다는 전제나 단언, 약속이나 제의, 낙관적 표현, 청자와의 공동 활동 표현, 이유 표시, 상호성의 가정, 청자에게 호의 표시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c'의 소극적 공손 전략은 청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습적인 요청, 질문, 비판적 표현, 부담 완화, 존대 표현, 채무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 등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사죄표현은 청자의 체면을 배려하는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사용된다.

²⁾ (6)의 'a'는 발화 내용으로 인한 FT가 거의 없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공손표현이 필요하지 않다. 주로 위급한 상황, 청자에게 이익이나 도움이 되는 상황, 소음이 심한 상황, 대인 관계 유지가 필요 없는 상황, 정보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d'의 암시적 표현은 '펜을 빌려야 할 때' 어 필통이 없네.'와 같이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이 경우 화자의 욕구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관한 여러 암시(hint)를 포함하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모호하여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화의 목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이 표현은 화자 자신의 의도와 행위에 대해 암시적으로 전달하여 그 해석의 여부를 청자에게 전가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e'는 FT의 정도가 아주 높은 단계로 이 경우 사람들은 언어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사죄표현의 분석

본 논의는 ‘미안하다’, ‘죄송하다’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이, 친소, 힘)에 따른 쓰임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드라마 자료에서 추출한 언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사용된 화행은 ‘사과(57장면), 요청(42장면), 거절(40장면), 예고(18장면), 금지(13장면)’ 등으로 나타났다.

3.1. 사과 화행

사과 화행은 화자가 자신이 과거에 행한 행위가 청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B&L(1987)에서는 사과 화행을 화자의 적극적 체면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자의 소극적 체면도 아울러 위협할 수 있다. 즉, 청자는 화자의 사과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수용할 경우 화자의 사과를 축소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이 화자의 사과 수행에 대한 청자의 대답이다.

(5) 봉이: (퍼즐 들고 대문 열고 들어오며) 오빠 왔다며~ 오오 역시 고기파티!

태훈: (안쓰럽게 보는) 봉이야. 이래저래 힘들었을 텐데...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힘도 못 돼주고. 미안하다.

봉이: 나 괜찮으니까 오빠 오빠 공부에 신경 써. (자리 비집고 앉으며)

다들 긴장하셔야겠는데요

불판을 재미있기처럼 싹 쓸어버리는 육식의 대가 이봉이 출동합니다.

(웃어라 동해야, 2010)

(6) {강재 필재 송이 필용 말선 안나 동해 앉아 있다.}

필용: 홈쇼핑 김치 판매는 순조롭습니까?

저희가 불미스런 일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재: 아닙니다. 별 말씀은요.

회장님이 공정한 판단 해주셔서 다시 계약하고 정규편성 받았습니다.

필용: 언제 한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소문 자자한 이사장님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강재: 그럼은요.. 규모도 작고 볼 품 없습니다만 언제든 환영입니다.

(웃어라 동해야, 2010)

(7) {은희 집, 거실. 은희, 승아, 두준에게 얘기 다 들은 듯 소파에 앉아 있다.}

승아: (90도로 꾸벅)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태로 오해를 해서..**

두준: 됐어요. 죽을 죄진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몽땅 내 사랑, 2010)

(8) {앞에 심사위원들 있고, 석울과 그래가 한 팀이 되어 발표}

석울: (천천히 눈을 뜨며)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뚜벅뚜벅 걸어 그래 옆을 지나면서) 장그래 씨 고생했어요.

그래: (석울을 돌아 보면)

석울: (중앙에 서서) **번잡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 (노트북 쪽으로 가서 조작한다)

(미생, 2014)

위의 대화를 보면, 청자에게 불이익 혹은 불쾌감을 초래한 행위가 모두 화자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관리 부족, 청자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화자의 사과에 대한 (7), (8), (9)의 대답은 ‘괜찮다’, ‘아니다’, ‘됐다’로 사과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수용 발화로 나타났다³⁾. (10)의 경우는 특정 대상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공적 상황에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사과에 대한 대답은 나타나지 않았다⁴⁾. 사과의 대상은 ‘지각, 무례한 행동, 부주의, 거짓말, 업무상의 실패, 약속 불이행, 의무 불이행, 걱정, 물질적 손해’ 등이 관찰되었다. 이때 사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 형식은 ‘-아/어서 미안하다/죄송하다’, ‘-은/는 건 미안하다/죄송하다’, ‘-았/었으면 미안하다/죄송하다’, 등으로, 이 가운데 ‘-아/어서 미안하다/죄송하다’의 형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형식은 한국어 사과 화행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과 화행을 수행할 때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힘도 못 돼 주고’, ‘저희가 불미스런 일을 끼쳐드려서’, ‘번잡스럽게 해서’ 등과 같이 사과의 대상이 되는 사건 내용을 덧붙이면 사과의 효력을 강화하여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높여 주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대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3.2. 요청 화행

B&L(1987)에서는 요청은 화자가 청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화행으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요청은 청자의 행위로 어떠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화자의 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에 화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즉, 요청은 화자의 적극적인 체면 손상과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 손상을 동시에 초래한다. 만일, 화자가 자신의 부담

3) 대화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역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순서를 바꿔 가면서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대화 참여자 간 순서 교대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전후의 행위와 연관이 있는 하나의 연쇄체, 즉 인접쌍을 만든다(Sacks와 Schegloff, 1973).가령, 요청의 후행 발화는 수락/거절, 평가의 후행 발화는 동의/반대, 사과의 후행 발화는 수용/거부 등으로 나타난다.

4) 사과의 후행 발화로 수용, 거부 이외에 무응답/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청자의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수용 혹은 거부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나 체면 손상의 정도가 청자의 그것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요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청자의 부담이나 체면을 배려하는 공손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요청을 수행할 것이다.

일상 대화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오랜 사회적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청 화행은 화자와 청자 모두의 FTA에 해당이 되지만 청자와의 관계에 무심하지 않은 이상 화자는 자신의 체면 보호보다 상대방의 체면 보호를 우선하게 될 것이다.

다음 대화들은 요청 화행에서 관찰된 사죄표현이 쓰인 예들이다.

(9) {순재의 집 앞에서 보석이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난 장면}

아줌마: 저... 사장님, 죄송한데요, 야쿠르트 값 좀 정산해 줄 수 있으세요?

보석: 아, 예, 얼마죠?

아줌마: 27,000원입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2010)

(10) {궁전 커피/궁전 커피 화장실(낮)}

진수가 자리로 가려는데 문고리를 마구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 어떡해~’ 하는 승연 목소리 들리고.

승연: 저...손님...손님..

진수: 네.

승연:(문고리를 잡고 난처한) 저기..이게..하..문이 고장이 났나 봐요. 문이 안 열려요..

진수: 네?(어이없는)

승연: 아..이게 가끔씩 말썽이긴 했는데..

저~ 죄송한데요, 밖에서 좀 열어봐 주실래요?

밖에서 열면 될 거 같은데..

(커피하우스, 2010)

(11)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전화 중이고}

석호: 어? 이걸 또 뭐가 달려 온 거야? (안내데스크에 건성으로 올려두며)

죄송한데, 이거 좀 버려주세요.

(미생, 2014)

(12) {교무실 금지, 서서 교재 챙기고 있는}

금지: 웬일이야? 교통사고라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뛰어나가는데)

나영: (수업 끝난 듯 들어오다 마주친다) 금지 쌤 어딜 그렇게 급히 가?

금지: 나영 쌤! 미안한데, 나 보강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뛰어나가고)

나영: 뭐? 금지쌤~ 무슨 일인데? (하다) 뭐야. 짜증 나! 원장 딸이라고 유세야 뭐야.
(몽땅 내 사랑, 2010)

(13)

태수: 승아 씨, 미안하지만 이것 좀 꺾매 주세요. (양말 주면)

승아: (받으며) 어머 양말이 구멍이 났네요. 제가 꺾매 놓을게요.
(몽땅 내 사랑, 2010)

위 대화에서의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사과 화행에서의 쓰임과는 달리 화자가 이미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요청에 대한 것이다. 이는 (9)의 보석의 대답과 (13)의 승아의 대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석과 승아의 대답은 사죄표현에 대한 것이 아닌 요청에 대한 수락이다. 사과에 대한 후속 발화는 수용이나 거부로 실현되나 요청에 대한 후속 발화는 수락이나 거절로 실현된다.

위의 대화를 보면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발화는 사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요청으로 사죄표현이 없어도 전달 내용에는 상관이 없다. 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요청에 앞서 사용된 사죄표현은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 손상을 배려하기 위한 공손 전략으로 쓰인 것으로 사과 화행에서의 사죄표현과는 그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과 화행에서의 사죄표현은 화자가 과거 한 일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에 불균형이 생겨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쓰인 것이라면, 요청 화행에서의 사죄표현은 앞으로 수행하게 될 요청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화시키고 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발화 앞에 부가적으로 실현되는 사죄표현의 형식은 ‘죄송한데(요)’, ‘죄송하지만’, ‘미안한데(요)’, ‘미안하지만’ 등과 같이 ‘죄송하다’, ‘미안하다’에 연결어미 ‘-는데’와 ‘-지만’이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9), (11)와 같이 요청 화행 앞에 쓰이는 사죄표현의 경우 ‘저기’ ‘저’ 등의 주저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저어⁵⁾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켜 화제 도입을 예고하고 동시에 후속 발화 수행에 있어서 화자의 거북함이나 망설임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청자의 부담이나 체면 손상을 줄여 화자가 목적하는 요청 화행을 성공시키는 데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3.3. 거절 화행

일반적으로 선 발화의 반응에 대한 후 발화는 선 발화의 성격과 연관이 있는데, 거절 화행은 주로 요청, 제의, 제안, 조언 화행에 대한 비선호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거절은 선 발화에 대해 거절 혹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의 체면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

⁵⁾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주저어를 감탄사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뜻이 없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논의하였으나 신지연(1988)에서는 ‘간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담화 화용론적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후 주저어는 담화표지로 다루어지면서 그 기능을 밝히는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며, ‘글썸’(이해영, 1994), ‘뭐냐, 있지’(임규홍, 1995), ‘그래’(이한규, 1996), ‘말이야’(임규홍, 1998), ‘거시기’(이봉선, 1998), ‘예, 아니, 글썸’(이원표, 2001), ‘아’와 ‘어’(강우원, 2002), ‘있잖아’(김주미, 2004), ‘자’(임규홍 2005, 김영철 2008) 등을 들 수 있다.

다. 아래 제시한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은 거절에 대한 선 발화이다.

(14)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여량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

여훈: 형사님.. 우리 여량이 괜찮은 거죠? 그쵸?

경희: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훈: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경희: 죄송하지만. 현재 용의자의 신분이라서 그건 좀 곤란합니다.

(신의 퀴즈, 2014)

(15) {음악가의 반지를 훔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연재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장면}

연재: 연주회가 무산된 건 유감인데요... 그치만 그게 진짜 저 때문은 아니거든요.

제가 반지를 훔친 게 아니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억울해요.

변호사: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연재: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재판까지 가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결백은 밝혀야 되니까요. 변호사님이 꼭 좀....

변호사: 죄송합니다만 이 사건은 못 맡을 것 같습니다.

연재: 아니, 왜요?

(여인의 향기, 2011)

(16) {미정과 민주가 수미에게 학원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

수미: 학원을 가르쳐 달라구?

미경: 응. 니네 애 다니는데 좀 가르쳐 줘...

우리끼리 알라 볼라니까 완전 한양에서 김 서방 찾기다.

수미: 미안하지만, 안 돼.

미경: 야,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구 안 된다는 거야?

수미: 남편 팬티 색깔은 가르쳐 줘도 과외 선생님 전화번호는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게
이 동네 엄마들이야. 미안하지만, 절대 못 가르쳐 줘.

(강남 엄마 따라잡기, 2007)

본 연구 자료에서 거절의 선 발화는 요청이나 제안 화행에서 관찰되었다. 위의 대화에서 거절 화행에 쓰인 사죄표현을 보면 앞서 살펴본 요청 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발화의 앞에 위치한다. 즉, 화자는 거절이 청자의 적극적 체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하여 사죄표현을 공손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의 사죄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거절을 수행할 경우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거절 화행의 형식을 보면 (14)와 (16_두 번째 수미 대답)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유', '상황설명', '변명' 등이 사죄표현과 함께 쓰이고 그 뒤에 거절 화행이 수행된다. '이유', '상황설명', '변명' 등과 같은 말을 덧붙이면 청자에 대한 공손의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14)과 (15)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5)의 대화를 보면 덧붙이는 말 없이 '사죄표현 → 거절'의 구조로 실현되었는데, 이는 (14), (16)의 대화보다 공손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16)의 '미안하지만, 안 돼'와 같이 서로 친밀한 관계나 (15)의 '죄송합니다만, 이 사건은 못 맡을

것 같습니다.’와 같이 관계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특히, (15)에서 사용된 사죄표현은 의례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나 만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거절을 수행할 경우 청자의 적극적 체면은 더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거절을 한 화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죄표현은 ‘죄송하다’, ‘미안하다’에 ‘-는데’, ‘-지만’이 결합된 형태로 주로 실현되며 이는 요청 화행에서 쓰인 형식과 같다.

3.4. 예고 화행

예고는 화자가 앞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고 밝히는 화행으로 주로 일인칭 주어와 의지를 나타내는 ‘-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행위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보면 약속 화행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약속의 경우 예고와는 달리 화자가 약속하는 그 무엇이 청자의 관심 혹은 청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화자가 약속 화행을 수행함으로써 수혜자가 되는 사람은 청자가 되지만 예고 화행의 수혜자는 화자가 된다. 이처럼 해당 행위의 수행이 청자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행위로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예고 화행과 약속 화행이 갈린다. 다음은 예고 화행의 대화이다.

(17) {아파트 문 앞에서 경호업체 직원들과 실랑이 중인 경희}

경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난 담당 형입니다, 비키십시오!

직원1: 안됩니다. 외부인의 방문을 일체 허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직원2: (경희 들어가려 하자 막아서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경희 잡고)

경희: (꼭 참다가) 죄송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완력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신의 퀴즈, 2014)

(18) {집에 사업과 관련해서 손님을 초대한 상황에서}

윤사장: 너 어디 가는 거야?

석우 : (경황없지만 서회장에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겠습니다.

(하는 데, 조여사가 주방에서 나오며)

조여사: 그게 무슨 소리야? 손님 앉혀놓고 어딜 간다구. (결혼합시다, 2005)

(19) {레스토랑, 지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지애: 여보세요. (깜짝)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뭐? 거기 어딘데!!!! 알았어.

(입 닫고 바로 일어서는) 미안한데, 나 가봐야겠어.

태준: 무슨 일인데요.

지애: (놀란 채 허둥지둥) 우리 남편이... 암튼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간다)

태준: (표정) (내조의 여왕, 2009)

예고 화행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요청, 거절 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죄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 내용 앞에 위치하여 해당 발화로 인하여 유발 가능성이 있는 청자의 체면 손상을 줄이고자 한다. (17)의 대화는 경호업체 직원과 경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호업체 직원들은 본분 상 외부인 출입을 금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길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화자(경희)가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그들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화자가 사죄표현을 공손 전략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20)과 (21)의 대화도 뒤에 오는 화행을 수행하기 전에 사죄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체면 손상을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사죄표현의 쓰임은 앞으로 청자의 체면 손상 유발 가능성이 있는 화행을 수행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 적어도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인 사죄표현의 형식도 앞에서 논의한 요청, 거절 화행에서 쓰인 것과 같다.

3.5. 금지 화행

금지 화행은 청자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행위라는 점에서 요청 화행과 유사하다. 그러나 금지는 요청과는 달리 청자가 과거에 했던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요청 화행은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하기 바라지만 금지 화행은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安達(2002)에 따르면, 금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직 실행하지 않은 행위를 금하는 ‘예방적 금지’와 이미 실행했거나 실행하고 있는 행위를 금하는 ‘저지적(沮止的) 금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아래의 대화들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저지적 금지의 예이며 예방적 금지의 예는 관찰되지 않았다.

(20) {동해가 자신의 엄마 방에 필재가 있는 걸 보고}

동해: 저기요. 봉이 삼촌!

필재: (놀라보면)

동해: **(진지하게)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가 혼자 있을 땐 우리 방에 오지 말아주세요.**

필재: (당황) 어? 아니 난 그냥.

동해: 부탁드립니다. (나가면)

필재: 아~ 자식.. 저 자식이 버티고 있어서 고백도 힘들겠고.

고백해도 저 자식한테 맞아 죽을 각을 해야겠네.

(웃어라 동해야, 2011)

(21)

태준: 화자 씨 전화 바꿨어요? 번호 이게 아닌데?

화자: 내 번호 암만해도 차단당한 거 같아서.

태준: 저기... 화자 씨, **미안한데요.**

내가 따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네? 어떡하죠? 내가 보기보단 순정파라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밖에 모르는 성격이라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어요.

(내조의 여왕, 2009)

(22) {외할머니와 재혼한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미수: 여보세요...? (듣다가) 저 문수자씨 아니에요. 딸이에요.....

죄송한데요 **인제 전화 그만해 주세요, 엄마가 받고 싶지 않으신가** **박요...** 그러니까

노인: 나 곧 세상 떠날... 암환자예요...여기 (지방이름) 에 있는 암 병원입니다.

어서 어머니 좀 다시 바꿔 줘요, 어서요

미수: (놀라는 ??-머뭇거리며) 그런데 엄마가... (사랑해 울지 마, 2008)

금지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혹은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청자의 체면 위협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대화에서 사용된 사죄표현도 금지 화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자의 적극적인 체면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공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

본 장에서는 위의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대화에 출현하는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은 사죄표현의 사용 목적, 사죄표현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1. 사죄표현의 사용 목적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 목적을 가지고 대화한다. 대화를 통해서 정보와 의미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 증진도 도모한다. 전자는 화행 목적이고 후자는 관계 목적으로⁶⁾ 사죄표현의 사용은 관계 목적을 지향한다. 본 논의의 분석 자료에서 추출한 사죄표현은 사과,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사죄표현도 모두 관계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과 화행과 그 외의 화행에서 사용된 사죄표현에는 차이가 있었다. 사과 화행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과실 → 청자의 체면 손상 → 화자의 사과(화자의 체면 손상, 사죄표현 사용) → 청자의 수용 혹은 거부(청자의 체면 손상)’로 구조화할 수 있다. 화자가 청자에 대한 과실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균형 상태를 이룬다. 이러한 균형 상태가 화자의 과실로 인하여 청자의 체면이 위협받게 되면서 불균형 상태로 전환되고 불균형 상태를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화자는 자신의 체면을 희생하면서 사죄표현을 사용하여 사과 화행을 수행한다. 만일, 청자

⁶⁾ Brown과 Yule(1983)은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정보 전달 기능(transactional function)과 상호작용적 기능(interactional function)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정보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이고 후자는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가 화자의 사과를 수용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거부하면 회복할 수 없다. 말하자면, 사과 화행에서 사용된 사죄표현은 사과 화행을 직접 수행하는데, 그 목적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하겠다.

반면, 요청 화행은 '사죄표현 + 요청 → 수락 혹은 거절'로 구조화할 수 있다. 요청 화행은 청자의 행위로 화자가 이익을 보게 되므로 화자는 요청을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청으로 인하여 청자의 체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도 보여줘야 한다. Leech(1983)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라는 배려의 격률을 제안하고 있다. 즉, 요청을 하기 전에 위치하는 사죄표현은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체면 손상에 주목하여 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자 자신의 부담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거절 화행은 '요청, 제안 → 사죄표현 + 거절'로 구조화할 수 있다. 거절 화행은 주로 요청이 선 발화일 때 관찰되었는데, 이때 거절에 앞서 사용된 사죄표현은 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 손상을 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거절을 해야 하는 화자의 심적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고 화행은 화자가 자신의 미래 행위를 표명함으로써 화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구속하는 화행으로 '사죄표현 + 예고'로 구조화할 수 있다. 예고에 앞서 사용된 사죄표현은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 손상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지만 예고 화행에 대한 화자의 부담감은 요청, 거절, 금지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인다.

금지 화행은 '사죄표현 + 금지 → 수락 혹은 거절'로 구조화할 수 있다. 금지 화행은 요청 화행과 마찬가지로 청자의 행위에 의해 화자가 이익을 보지만 그 화행의 목적은 다르다 할 수 있다. 요청이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금지는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금지에 앞서 위치한 사죄표현은 청자의 적극적인 체면 손상을 배려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담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화행은 사과 화행과는 달리 사죄의 대상이 과거에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죄표현은 지금부터 수행하게 될 발화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담이나 체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수행되는 발화 행위의 교환은 협력적 상호 행위에 대한 위협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사죄표현이다. 즉, 사죄표현은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이 수반하는 효력의 강도를 완화하고 청자의 부담이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한다. 이때 사용되는 사죄표현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발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주로 청자와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죄표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형성하여 대화의 토대를 만들어 목표 화행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언어적 전략 장치로 볼 수 있다.

4.2. 사죄표현의 기능

사과 화행에서 쓰이는 사죄표현은 주로 ‘-아/어서 미안하다/죄송하다’, ‘-았/었으면 미안하다/죄송하다’, ‘-은/는 건 미안하다/죄송하다’의 형식으로 실현되어 온전한 문장으로 사과 화행을 마무리한다. 반면,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서의 사죄표현은 ‘미안하다/죄송하다’에 ‘-지만’이나 ‘-는데’가 결합된 형식으로 실현되어 문장 안에서 다른 언어 요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식으로 실현되는 사죄표현은 후속 발화를 도입하는 기능을 하고 담화의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담이나 체면 손상에 대해 배려를 나타낸다.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서의 사죄표현은 후속하는 화행이 수반하는 효력의 강도를 완화하고 청자의 부담이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실현시킨다. 이로써 화행의 이행에 대한 촉구로 유발될 수 있는 청자의 부담감이나 체면 손상의 완화 효과를 얻게 되고 청자로 하여금 해당 화행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도록 한다.

5. 결론

- 사과 화행과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서의 사죄표현의 사용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닌 대인 관계적 목적으로 사용
- 사과 화행의 경우 사죄표현은 종결형으로 실현되나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와 ‘-지만’, ‘-는데’ 등이 결합된 형식으로 실현
-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서의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은 문두에 위치하여 후속하는 화행을 도입하는 기능을 함
- 사과 화행에서 쓰인 사죄표현은 화자 자신의 과실로 불균형을 초래한 청자와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서 쓰인 사죄표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형성하여 대화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화행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언어적 전략으로 사용

참고 문헌

김경석(1996), 요청, 거부, 사과 발화행위의 전략, 사회언어학 4(2), 한국사회언어학회, 143-169.

김서형(2013), 한국어 화행에서 공손성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61, 123-143.

김은아(2013), 독일어와 한국어의 공손표현 비교: 요청과 거절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김진무(2011), 사과화행의 화용론적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7, 프랑스문화예술학회, 59-94.

- 유형선(2001), 거절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11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20.
- 이수연(2008), 한국어 거절 표현 연구, 국어연구 198, 국어연구회.
- 이은희(2013), 한국어 금지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준학(1979), 화용론과 공손의 규칙, 어학연구 16(1), 한국언어학회, 1-11.
- Brown, P. & Levinson, S. 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 in language usag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ffman, E.(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 behavior*. New York: Pantheon Books.
(역: 広瀬英彦·安江孝司(1986), 儀禮としての相互行為 - 対面行動の社会学, 法政大学出版局)
- Leech, G. N. (1983). *Principle of pragmatics*. New York, NY: Longman. (역: 池上嘉彦·河上誓
作訳(1987), 語用論 紀伊国屋書).
- Schegloff, E. A. (2007). *Sequence organization in interaction: A primer in conversation
analysi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역: 坂本百大(1986), 言語行為, 勁草書房).
- 安達太郎(2002), 命令·依頼のモダリティ, 宮崎和人·安達太郎·野田春美·高梨信乃 新日本語文
法選書 4 モダリティ, 42-77, くろしお出版.
- 宇佐美まゆみ(2008), ポライトネス理論研究のフロンティア, 社会言語科学 11-1号, 4-22.

■ 토론

「한국어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미안하다’, ‘죄송하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전영옥(상명대)

이 연구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중심으로 한국어 사죄표현의 화용적 기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Brown and Levinson(1987)의 공손 이론을 토대로 이들 표현이 어떠한 화행에서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드라마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곧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사과화행뿐만 아니라 ‘요청, 거절, 예고, 금지’ 화행에도 나타나고, 사죄표현이 이들 화행이 수반하는 청자의 부담이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형성하여 목표 화행의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안하다’, ‘죄송하다’ 표현이 갖는 화행의 양상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죄표현’은 수행동사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사과드립니다’에서 ‘사과하다/사과드리다’는 사죄표현으로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죄표현’보다 ‘사과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와 이 연구에서 사죄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문 번호 (4)에서 Brown & Levinson(1987)의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공손 전략을 설명하면서 적극적 체면 위협의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 공손 전략’을, 소극적 체면 위협의 우려가 있을 때 ‘소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죄송하다’의 사죄표현은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 화행’에서 화자는 거절이 청자의 적극적 체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하여 사죄표현을 공손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죄표현은 소극적 체면 위협의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소극적 공손 전략’인데, 거절 화행에서는 적극적 체면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장의 도입 부분에서, 본 논의는 ‘미안하다’, ‘죄송하다’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이, 친소, 힘)에 따른 쓰임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손성, 공손 전략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손성에서 차이가 나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구분하여 설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청자의 체면 손상을 완화하여 관계가 더 좋아짐으로써 대화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시된 예만으로는 대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문 (16)의 경우 ‘미안하지만’이 사용되었지만 청자의 체면 손상을 완화하였다는 것이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예만으로는 의례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이후의 상황이 더 제시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억양이나 말투 등도 공손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대본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뒤 맥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대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였습니다. 최근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드라마 대본 자료를 최근에 구하기가 어렵고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요? 연구자들을 위해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틀은 설명을 하였지만 한국어에서의 관련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 않아서 이 연구가 그동안의 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표현이 갖는 화행과 화용적 기능에 관한 고찰이 주는 의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태초점교수 연구의 현황과 전망

정대현(협성대)

차례

1. 서론
2. 형태초점교수의 연구 현황
3. 논의
4. 결론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형태초점교수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해 보고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한국어교육에서의 형태초점교수에 관한 연구는 양질의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최선희와 김대희(2017)에서는 한국어교육 관련 형태초점교수 연구 66편 가운데 12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분야의 연구가 메타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최선희와 김대희(2017) 의하면 ‘연구 참여자, 목표 문법, 처치, 측정, 효과성’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양질의 논문을 추출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한편 정대현(2012)에서는 형태초점교수와 관련한 연구 11편(2007~2012)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가 형태초점교수에 관한 연구 동향을 10년 전에 고찰한 만큼 또 다른 1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2012년 이후에 나타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 기간을 편의상 전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는데 전반기는 2007~2012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하반기는 2012~2020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첫째, 형태초점교수의 어느 분야를 연구하였는가?

둘째, 어떤 교수 기법을 사용하였는가?

셋째, 통합적 형태초점교수법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는가?

넷째, 형태초점교수의 어떤 연구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였는가?

2. 형태초점교수의 연구 현황

2.1 전반기(2007~2011) 연구의 시사점

정대현(2012)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입력 처리 교수 연구 성과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절에서는 2007~2011년까지 이 연구 분야와 관련한 논문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정대현(2012)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2007~2011년까지 생산된 연구 성과를 전반기로 분류하는 것은 형태초점교수와 관련한 내용이 2011~2012 사이에 양질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전반기의 연구 내용이 시사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언어 항목의 양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이 분야의 연구가 거의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기에는 11개 정도의 목표 언어 항목 정도가 존재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복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가설을 세운 후에 이를 교수법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추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근거는 실험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 데이터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연구에는 연구자가 미처 통제하지 못하는 변인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 항목을 반복하여 실험하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셋째 시각적 입력 강화의 경우에는 폰트 크기 조정하기, 밑줄긋기, 폰트 기울이기와 같은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는데 이 기법을 어느 유형의 문법 항목에서는 어느 형태로 강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넷째, 문법의 난이도 축적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형태초점교수의 탄생 배경에는 ‘습득하기 어려운’이라는 전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문법의 난이도를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2.2 형태초점교수의 연구 분야(2012~2020)

2.2.1. 교수법의 효과

최주희, 정대현(2018) 본 연구는 명시적 수업의 시기가 문법적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명시적 교수의 유용성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인데, 형태초점교수에는 교수 기법에 따라서 명시적 교수법과 암시적 교수법, 그리고 이 둘의 연속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형태초점교수의 효과가 교수 단계의 어느 시점에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명시적 정보가 쓰기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지, 아니면 쓰기 후 활동 단계에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언제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형태초점교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Doughty와 Williams(1998)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형태초점접근법의 교수 기법을 목표 언어 항목에 적용한 효과를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이밍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형태초점교수에 관한 연구를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백장미(2012)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문법을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형태초점 과제를 활용하여 문법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형태초점 과제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문법 제시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제의 유형을 추출한 후 과제를 설계, 실제 예를 보였다. 언어교육에서 문법은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 중 하나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수의 변화는 문법 연습과 생산 방식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견 학습을 촉진할 경우 더 효율적인 문법 교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제시 단계에서 형태초점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발견 학습을 촉진시킨 후 문법을 설명, 연습,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백재파(2020)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암시적·명시적 형태초점교수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존 학술 논문 36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5개의 효과 크기를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형태초점교수 기법이 명시적인 것에서부터 비명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기법의 명시성 정도가 뛰어난지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명시성 기법, 비명시성 기법의 순서로 교육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형태초점교수법의 형태는 단일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태초점 교수 기법 자체가 명시성과 비명시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명시성-비명시성의 연속체로 구성되는 교수 기법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더하여 명시성-비명성의 연속체로 이루어진 교수 기법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2.2.2.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임진숙(2018)에서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문법 교수가 한국어 통제 작문실험을 위해 입력 강화 교수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연구 결과 입력 강화 방법이 전통적인 쓰기보다 문법적 정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입력 처리 방법은 입력 강화 방법보다 통제된 쓰기에 효율적이었다고 기술한다. 즉, 문법 지도를 위한 입력 처리 방법이 통제된 쓰기의 표현 정확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중심의 모든 교수법에서 입력 처리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출력 중심의 교수 효과와는 비교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입력과 출력이 어느 교수법이 효과적 인지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양명혜(201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기능 영역을 교수할 때 적절한 교수 유형으로 형태초점교수법을 제안한다. 형태초점교수법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4가지 기능 영역, 즉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특이점은 연구 범위가 넓은 것으로 형태초점접근법의 효과, 등급별 작문 오류 분석, 학습자 수준에 따른 교수 모형, 형태초점교수법과 관련한 요구 조사, 교수 학습 방법의 설계 기준, 교수 효과 검증에 이른다. 이 논문이 학위 논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연구가 범위가 학술지 논문에 비하여 넓어야 하지만 넓은 강조점

을 찍는 것이 아닌 체계성을 가진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논문에서는 형태초점교수법의 실험 대상을 특정한 후에 실험을 실시한 반면에 이 논문에서는 등급에 따른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이 교수법이 대상에 맞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2.2.3. 문법 영역

성지연(2012)에서는 형태초점교수를 통한 한국어 내포문 연구를 관형사절과 명사절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 초점 기법과 통합 모델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교수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행 전 단계에서는 입력 기법(입력 쇄도, 입력 강화)을 사용하였고 수행 단계에서는 발견 과제(입력 처리, 의식 상승) 산출 과제(딕토글로스)를 사용하였고 수행 후 단계에서는 피드백 기법(명료화 요구, 동료 피드백, 상위 언어적 규칙 설명)을 활용하였다. 2007~2011년도에 연구한 형태초점교수법의 연구는 교수 기법이 비교적 단순하였는데 비하여 이 논문에서는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초점교수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를 형태초점교수 기법이 통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와 통합 기법의 활용은 그간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연(2013)에서는 형태초점교수를 활용한 한국어 조사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조사는 조사가 없는 국가의 언어 화자에게 낯선 문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초점 접근법의 기법과 과제를 적용하여 도입에서는 목표 언어 형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입력을 주는 입력 홍수 (Input flood) 기법을, 제시에서는 목표 언어 입력의 한 측면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기법을, 연습에서는 반복 연습을 통해 목표 언어 형태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류 수정 요구하기(Output enhancement) 기법을, 과제에서는 의사소통 속에서 목표 언어 형태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의식 향상 과제(Consciousness-raising tasks)를, 정리에서는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여 목표 언어 형태를 습득할 수 있는 오류 인식 수정하기 (Recast)기법을 적용하여 한국어 조사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하였다. 형태초점교수 기법을 교수 단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형태초점교수에서 특정한 목표 문법을 선정할 때 의사소통 가치가 있지만, 학습자가 주의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문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조사’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국화(2016)에서 형태초점 과제 수행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첫째, 형태초점 과제 수행이 격조사(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습득에 있어 이해능력과 생산능력 모두에 효과적인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둘째, 형태초점 과제 수행이 격조사의 장기적인 습득에 효과적인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태초점 과제 수행이 격조사 습득에 효과적임을 확인한다면, 그 효과가 이해능력과 생산능력 중 어디에서 더 효과적인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박연(2013)의 연구와 다른 점은 형태초점 교수의 효과를 이해능력(읽기)과 생산능력(쓰기) 영역에서 검증하고 이에 더하여 지연 실험을 통해서 지연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연구 순서로 볼 때 김국화(2016)의 논문 주제가 박연(2013)의 연구보다 앞서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바람직한 교수 모델을 개발하는 순이어야 할 것이다.

장수(2017)에서는 형태초점교수를 통한 한국어 연결어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아서, -(으)니까, -느라고, -기에, -(으)므로” 등이 목표 문법이었다. 목표 문법을 전통 교수법, 입력 강화, 디토클로스를 각각 적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서 어느 교수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적절한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더 나아가 등급별로 더 적절한 교수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초급에서 입력 교수보다는 전통 교수법과 입력 강화를 결합한 교수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형태초점교수 기법이 많다는 의미는 다른 한편으로 어느 조건에서 가장 교수 기법이 적절한지를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근(2020)에서는 형태초점교수를 활용한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데/는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결어미 ‘-(으)ㄴ데/는데’는 외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문법으로 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문법이며 이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어 문법에는 형태와 의미가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의 형식을 지닌 문법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학습자의 학습 난점이라는 것은 주의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주의력의 선택적 속성에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의력을 목표 언어의 자질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문법 의식 상승 과제와 함께 입력 처리 교수를 결합한 형태의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술과 그에 근거한 교수법적 적용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 이 논문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입력 처리 교수와 의식 고양 과제를 결합한 형태의 교수가 학습자의 목표 문법에 어느 정도까지 유익하였고,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김겸손(2020)에서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형태초점교수 기반 문법적 언어 교육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이 ‘문법적 언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전성어미’와 같이 단일 문법 범주에서 특정 문법을 선택하여서 연구하였는데 반해 이 연구는 단일 문법 범주를 뛰어넘는 언어에 초점을 두었다. 문법적 언어에서도 시상과 관련한 문법을 목표 문법으로 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시상을 다룬 연구 논문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교수 기법에는 입력 중심의 입력 처리 기법, 출력 중심의 의식 고양 과제를 사용하였다고 밝힌다. 교수 기법의 사용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입력과 출력 모두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해가능한 입력과 이해가능한 출력’이라는 이론이 모두 지지를 이론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어느 한쪽의 이론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입력과 출력 양자를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두 이론이 가지는 논리적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앞으로의 연구가 ‘입력과 출력’을 모두 활용한 교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신혜린(2020)에서는 형태초점교수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사동 표현을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초곤(2012)의 연구와 동일한 문법 사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 형태초

점교수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 전통적 교수 형태인 PPP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두 연구 논문의 차이는 여러 형태초점교수 기법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초곤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 기법은 입력강화, 딕토글로스, 의식 상승 과제, 가든 패스, 고쳐말하기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한 반면에 신혜린(2020)의 연구에서는 입력 처리 전략, 구조화된 입력, 산출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2012년 이후의 연구가 형태초점교수 기법이 통합적인 형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도 일정한 범주의 교수 기법을 활용한 연구도 지속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형태초점교수 기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것은 교실 상황이라는 환경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점을 고려한다면 여러 교수 기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연구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목표 문법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초점교수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교수 기법을 사용한 점은 기존 연구에서는 보기 어려운 점으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연구 분야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교수 기법이 사동 표현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제2 언어 습득의 근원적인 문제로 환원되는데 즉, Krashen(1976)의 가설에 의하면 이해가능한 입력으로 언어는 습득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신혜린(2020)의 연구는 Krashen(1976)의 가설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초곤의 연구는 입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가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습득과 학습의 분리 가설의 논쟁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입력에 강조점을 두는 가설에 관한 연구도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2.4. 교재 디자인

마에무라 카즈아키(2018)에서는 교재에 형태초점교수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재 제작 시에 적용가능한 교수 기법의 실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형태초점 교수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활동에 매이지 않고 교재라는 반영구적 실물 안에 담기는 형태로 학습자에게 의식적, 무의식적 교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2.2.5. 오류수정 피드백

김숙영, 고정민(2015)에서는 형태초점교수 수업에서 오류수정 피드백과 학습자 반응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학습자가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은 언어 형태는 단어였으며, 그다음이 문법이었고, 발음상에서 피드백은 많이 받지 않았다. 피드백 유형에서는 명시적 수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피드백이었지만, 오류고쳐 되말하기는 교실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는 피드백이었다. 학습자 반응률은 다른 기존의 연구 결과만큼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형태초점 교수에 대한 처방적/예방적 접근과 피드백 유형이었다. 교사가 처방적 접근을 취하면 학습자는 적극적

인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가 시작한 예방적 접근은 덜 적극적인 학습자 반응으로 이어졌다.

2.2.6. 어휘 영역

윤창숙(2019)에서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호칭어·지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수-학습 방안으로는 학습자가 사용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가족 지칭어’와 ‘친한 친구 사이/선후배 사이의 호칭어·지칭어 교수-학습 방안을 중심으로 입력 강화, 명시적 설명 제공, 의식 고양 과제 등 형태 초점 접근법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어휘 영역에서도 통합적인 형태초점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8. 문형

임윤주(2019)에서는 형태초점교수를 활용한 한국어 기본 문형 교육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형태초점교수를 기본 문형에 활용한 논문은 이 논문 이외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교육의 핵심을 문법에 두지 않고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두어서, 서술어의 품사와 논항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기본문형을 18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입력 강화를 통해 문형에 대해 학습자들이 암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형의 명시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한국어 문장의 통사적인 체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형태초점교수를 기반으로 하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문형을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삼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으로 형태초점교수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두는 형태초점교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기술한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형태초점교수가 한국어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2.2.7. 적용의 문제

우형식(2012)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형태초점교수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FonF에는 체계적인 기법이 많이 있지만 그중 일부만 KFL에 적용되었다. 입력 향상, 입력 처리, 리캐스트, 딕토글로스 등이다. 둘째, 일부 문법 형식과 범주에 국한하고 있다. 어미, 간접 인용표지, 사동, 과거 시제, 불규칙 활용 등이다. 셋째, 언어 습득을 위해 다양한 작업이 적용되었는데. 자료 읽기, 듣기 및 선택, 그림 테스트, 자료 재구성 및 말하기 등과 같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교육에서 형태초점교수의 적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논의

3.1. 연구 분야의 확장

전반기의 연구는 주로 학습이 어려운 문법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목표 문법의 습득을 높일 수 있는가에 집중되었다. 이는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습자를 연구의 중심에 놓았다는 의미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에 중심을 두고자 하는 연구 동기가 컸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하반기의 연구 분야는 전반기 연구 분야의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이 분야의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자를 중심에 두면서도 형태초점교수라는 거대한 연구 몸통에서 여전히 비어 있는 부분 있는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명시적 수업’을 어떤 타이밍에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명시적 지식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탐구한다.

그리고 명시적 교수와 비명시적 교수의 효과에 대한 연구 문제도 이 분야의 비어 있는 연구 주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향후 명시적 교수와 비명시적 교수의 연속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한국어교육에서 형태초점교수의 연구는 점증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양적인 증가를 암시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이외에도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문법 영역, 교재 디자인, 오류수정 피드백, 어휘 영역(호칭어와 지칭어)으로까지 이 분야가 확대되었다. 특히 형태초점교수의 교육적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서 한국어 교재를 디자인할 때 입력 강화의 여러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3.2. 목표 문법 항목 일관성

전반기(2007~2012)	하반기(2012~2020)
관형사형 어미	
시제	조사
내포문 연구(관형사절과 명사절)	내포문 연구(관형사절과 명사절)
간접인용표현	연결 어미(‘-(으)ㄴ데/는데’)
피동 표현	문법적 언어
불규칙 활용	사동 표현
명사형 전성어미	

형태초점교수 기법으로 어떻게 문법을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반기에도 주요한 화두로 자리를 잡았다.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하반기 전체 연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전반기와 하반기 연구에서 목표 문법의 범주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형태초점교수 기법이 목표 문법의 특정한 자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가치가 있지만, 학습자가 주의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문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반기도 전반기와 같이 목표 문법을 선택할 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문법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포문 연구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목표 문법으로 선정되었는데 적용한 교수 기법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느 기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3. 통합적 교수 기법의 적용

2007~2012	2012~2020
<p>단순화된 교수 기법 적용 활자 강화 입력 처리 교수 정의적 입력 구조화된 입력</p>	<p>통합적 교수 기법 적용 활자 강화 입력 채도 입력 처리 교수 정의적 입력 구조화된 입력 고쳐말하기 되말하기 의식 고양 과제 명시적 설명 제공 딕토글로스 가든 패스 산출 기법</p>

전반기 연구와 후반기의 연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연구에서 적용한 교수 기법이 다양해지기도 하였고, 교수 단계와 적합한 교수 기법을 적용하는 통합적 형태초점교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정확히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연구가 적용되었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국외 문헌과 국내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관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형태초점교수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아마도 그 시작에서는 ‘도입-제시-생산’으로 이어지는 교수 전 단계에 이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없었을 것으로 본다. 형태초점교수가 특정한 교수 단계에서 목표 문법에 적용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는데 이 연구의 깊이가 심화되면서 교수 각 단계별로 형태초점교수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모든 교수 단계에 형태초점교수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어교육에서 이 교수법을 본격적으로 채택한다면 교안, 교재, 교사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전면적인 형태초점교수의 적용이 과연 기존의 교수법과 어느 정도로 차별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4. 결론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밝힐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겸손. (2020). 중급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형태초점교수 기반 문법적 언어 교육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국화. (2016). 형태초점 과제 수행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습득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15).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한국어 연결어미 '-길래'의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9(1), 29-58.
- 김숙영 (Suk Yeong Kim),& 고정민 (Jungmin Ko). (2015). 형태초점교수 수업에서 오류수정 피드백과 학습자 반응. 외국어교육연구, 29(3), 109-129.
- 마에무라 카즈아키(Maemura Kazuaki). (2018). 한국어 교재에서의 Focus on Form의 반영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41-58.
- 박연. (2013).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한 한국어 조사의 지도법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 박정근. (2020). 형태초점교수를 활용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2015). 영어권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26(3), 117-144.
- 백장미. (2012). 한국어 문법 제시를 위한 형태 초점 과제 설계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6(1), 53-74.
- 백재파. (2017). 한국어 교육에서 디토클로스 교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515-535.
- 백재파. (2020).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암시적·명시적 형태초점교수의 효과 비교 연구. 문화와 융합, 42(9), 707-732.
- 성지연. (2012). 형태초점교수를 통한 한국어 내포문 교육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 신혜림. (2020). 한국어 사동 표현 교수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 양명혜. (2018).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한 한국어 문법 교수? 학습 방법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 우형식. (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99-128.
- 윤창숙과 임진숙. (2019).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교육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83(-), 99-123.
- 임윤주. (2019).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기본문형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 임진숙. (2018).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문법 교수가 한국어 통제 작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9(4), 131-159.
- 장수. (2017). 형태초점교수를 통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 정대현. (2012). 한국어교육에서 입력 처리 교수 연구에 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9(2),

265-286.

최선희, 김대희. (2017). Research on Form-focuse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 Critical Review.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2), 269-276.

최주희, 정대현. (2018). 분리적 형태초점교수의 타이밍 효과와 학습자의 쓰기 정확성에 관한 연구 - 명시적 지식과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0(49), 325-355.

■ 토론

「형태초점교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오재혁(건국대)

이 연구는 형태초점교수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대현(2012)에서 형태초점교수 관련 연구 11편을 토대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음을 밝히고,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관찰하고, 차곡 차곡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형태초점교수에 관하여 공부할 연구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메타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논쟁적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연구자께서 발표문에 모두 담기 어려웠던 내용을 소개하거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고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형태초점교수 연구 현황을 정리하실 때, 후반기(2012~2020)년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법의 효과’,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문법 영역’, ‘교재 디자인’, ‘오류수정 피드백’, ‘어휘 영역’, ‘문형’, ‘적용의 문제’로 구분하였는데, 혹시 ‘연구 분야’를 이렇게 나누신 관점, 혹은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서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질문, ‘첫째, 형태초점교수의 어느 분야를 연구하였는가?’, ‘둘째, 어떤 교수 기법을 사용하였는가?’, ‘셋째, 통합적 형태초점교수법은 언제부터 본격화하였는가?’, ‘넷째, 형태초점교수의 어떤 연구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였는가?’, 이 중에서 셋째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문에서는 ‘통합적 형태초점교수법’의 사용이 전반기(~2012)와 후반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요인으로 이렇게 연구가 적용되었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살짝 미루셨습니다. 지면의 속성상 내용을 유보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통합적 형태초점교수법’이 ‘본격화’하게 된 원인 혹은 맥락, ‘본격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 내지는 대표적인 논문 등, ‘통합적 형태초점교수법’의 ‘본격화’에 대해서 지면에서 유보하셨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발표문의 제목이 “연구의 현황과 전망”인 만큼, 이후 형태초점교수 연구자들에게 바라는 점, 혹은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가 있으면 미리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어-아랍어 문법 항목 비교 연구

- 초급과정 문법을 중심으로 -

권현숙(경희대)

차례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의 고찰
3. 한국어-아랍어 문법 항목 비교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초급 한국어 문법 항목이 아랍어 문법 항목과의 대응 여부를 비교-분석하여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와 아랍어는 언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표기문자를 비롯해 쓰기 방향, 어순, 발음 등 언어 교육의 전 영역에서 유사한 요소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각자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H.A. Gleason(1961:343)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100%에 가까운 음운구조와 50%에서 90%의 문법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어휘에 관한 한 1%, 아니면 그 이하로도 족하다.”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 언어 습득에서 문법은 어휘보다 훨씬 기능 부담이 높고 그만큼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착어인 한국어는 문법의 상당 부분을 문법규칙이 아니라, 조사, 어미와 같은 기능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한국어 문법의 특징은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 언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아랍어권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학습의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문화는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언어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한 민족의 의식구조는 언어를 매개로 발현된다는 관점에서 문화는 언어와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서하석(2008)에서는 “언어는 문화와 유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Sapir, 1921)”라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목표 언어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apir와 Whorf의 Sapir-Whorf 언어가설을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인간의 사고도 달라 세계의 영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목표 언어에 대한 문화적인 지식이 전제되었을 때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의 주요한 예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랍어권 화자¹⁾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모든 문화가 공동화 되어 있다. 전 세계 모슬렘들은 국가별로 혹은 민족별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종교의식을 행할 때만큼은 코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사용한다.²⁾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가 문화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중동 아랍권 국가에

1) 본 연구의 아랍어권 화자는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에 분포한 아랍연맹소속 22개 회원국의 아랍인들이다. 아랍인은 90% 이상이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모슬렘으로 본 연구의 주요 대상된다.

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랍어는 타 언어들보다 특히 문화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아랍어권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가 이슬람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랍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문법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아랍어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초급과정에서 학습하는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두 언어 간의 대응양상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정보는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교육 방안과 교재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된 정보는 교수자에게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이해 자료, 학습자에게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 자료로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고찰

2.1. 한국어와 아랍어의 대조 분석

한국어와 아랍어 두 언어를 비교했을 때 두 언어는 상이한 어근에 속해 있으며 표기 문자를 비롯해 쓰기 방향, 어순, 발음 등 유사한 요소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각자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글자를 쓸 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반해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두 언어 간에 상이함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전 세계 약 7,73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³⁾는 알타이어족에 속해 있으며 대표적인 특성으로 교착어로서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문법 형태소 하나가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형태소가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를 계속해서 어간에 첨가하여 문법범주들을 길게 이어서 형성해 낼 수 있다.⁴⁾ 또한 한국어는 ‘주어(S)+목적어(O)+동사(V)’ 순서로 기본적인 문장 형성이 이루어지며 문장성분의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밖에도 모음조화나 두음법칙, 피수식어는 수식어 앞에서 수식, 한 문장 내 복수 주어 허용, 조사 발달, 단위 명사 발달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히브리어와 함께 셈어족에 속하는 아랍어는 아랍연맹 소속 22개 국가⁵⁾에서 약 3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많게는 전 세계 13억 모슬렘들이 종교어(코란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아랍어는 서기 610년부터 632년까지 23년 간 꾸라이쉬 부족의 일원이었던 예언자 모하메드가 알라로부터 계시 받은 기록인 코란을 중심으로 현재는 전 세계 모슬렘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 언어로써 사용되고 있다. ‘동사(V)+주어(S)+목적어(O)’를 기본 어순으로 문장 형성이 이루어지며 한 단어는 하나의 글자로 이어서 쓰나 일부 글자는 제약에 따라 띄어쓰기⁶⁾를 한다. 또한 아랍어는 묵음이나 받침이 없으며 अबجد(abjad)⁷⁾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랍어는 코란의 문어체를 중심으로 한 표준아랍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어체 아랍어로 나눌 수 있다.⁸⁾ 구어체 아랍어는 각 지역 별로 산개된 방언이 많이 있어서 지역이 다르면 표현하는 어휘나 발음이 달라 지역

2) 아랍연맹 회원 22개국은 이슬람 종교언어로써 또한 일상생활언어로써 아랍어를 사용한다.

3) [국감보도자료 20.10.08] 한국어 제1언어 사용인구 전세계 7,730만명으로 세계 14위, (작성자: 경기 광명갑 - 임오경 의원)

4) 임지룡 외(2005:66-67), 송철의(2001:4-5) 참조

5) 아랍연맹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이스라엘, 에리트레아, 서사하라, 차드를 포함하면 총 26개국이 있다. (한국-아랍소사이어시티 연례보고, 2012)

6) 띄어쓰기라기보다는 이어서 쓰던 글자를 끊어 쓰는 것에 가깝다. 한 단어는 끊지 않고 이어 쓰며 /, د, ذ, ر, ا, و, ز, / 등 6자는 뒤에 이어서 쓸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7) 자음 중심의 음소 문자

8) 문어체 혹은 문학체로 불리는 ‘푸스하(فصحى)’와 나라별, 지역별로 달리 쓰이는 방언의 성격을 가진 ‘암미야(عامية)’

방언끼리는 의사소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준 아랍어는 22개 아랍연맹국가들의 공용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아랍인들은 물론 아랍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까지도 표준아랍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공식적으로 쓰기와 인쇄물은 코란의 문어체 표준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의 아랍어는 오늘날까지 정통 표준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랍어 체계에 대한 연구는 코란 기준의 ‘푸스하’와 지역별로 분화·발달된 ‘암미야’로 나뉘는 아랍어의 특성상 아랍 현지 연구자마다 또는 연구자의 지역에 따라 그 기준과 정리의 체계를 달리하여 포괄하기가 곤란하다. 국내의 경우 아랍어 체계에 대한 연구와 문법서가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아랍어 연구자들의 정리와 연구를 참조하여 일부 재구성하였으며, 예문의 경우 공일주(2010)와 이병학(2014)의 정리에서 다수 차용하였고 상세한 범위는 각주를 통해 밝혔다.

2.1.1. 음운체계

1) 자음체계

먼저 한국어에는 모두 19자의 자음이 있으며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자음은 조음위치에 따라서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조음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표로 간소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방법		기의세기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p]	ㄷ[t]		ㄱ[k]	
		경음	ㅃ[pʰ]	ㄸ[tʰ]		ㄲ[kʰ]	
		격음	ㅍ[pʰ]	ㅌ[tʰ]		ㅋ[kʰ]	
	마찰음	평음		ㅅ[s]			
		경음		ㅆ[sʰ]			
		격음					ㅎ[h]
	파찰음	평음			ㅈ[tʃ]		
		경음			ㅉ[tʃʰ]		
		격음			ㅊ[tʃʰ]		
공명음	비음	ㅁ[m]	ㄴ[n]		ㅇ[ŋ]		
	유음		ㄹ[l/r]				

한편 아랍어의 자음은 모두 28자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아랍어의 자음은 조음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치간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젓, 인두음, 성문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조음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측음, 설전음으로 분류된다. 이를 표로 간소화 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아랍어의 자음 체계

발음위치 발음방법		발음위치		양순음	순치음	치간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젖음	인두음	성문음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과찰음	유성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ب[b]			د[d]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ذ[dh]					
	무성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ت[t]		ك[k]	ق[q]		ء[ʔ]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ط[t]					
파찰음, 유성							ج[j]					
마찰음	유성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ذ[dh]	ز[z]		غ[gh]		ع[ʕ]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ظ[ʒ]						
	무성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ف[f]	ث[th]	س[s]	ش[sh]	خ[kh]		ح[h]	ه[h]
		비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				ص[s]					
비음				م[m]			ن[n]					
측음							ل[l]					
설전음							ر[r]					
반모음				و[w]				ي[y]	(w)			

한국어의 자음 체계와 아랍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 조음위치 면에서 아랍어가 한국어의 자음 조음위치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음위치 면에서 한국어 자음을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한국어 자음을 발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랍어에서는 자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자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자음이 가지는 정보량이 많기는 하지만 모음에 의존도가 아랍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모음이 균형을 맞추는 한국어의 소리를 내는 것을 생경하게 느끼며 많은 오류를 나타내게 된다.⁹⁾ 또한 한국어와 아랍어의 자음 변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 예로 유성성과 유기성을 들 수 있다. 아랍어의 자음은 크게 유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눌 수 있어 유성성을 기반으로 자음을 변별할 수 있는 한편 한국어에는 유기성에 따라 ‘평음 - 경음 - 격음’의 삼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음을 변별하는 조음방법 면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이고 있어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세 가지 소리를 구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모음체계

한국어에는 모두 10자의 기본모음(단모음¹⁰⁾)¹¹⁾이 있으며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누고,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과 중모음 그리고 저모음으로 나눈다. 이를 표로 간소화 하면 다음과 같다.

9) 아랍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자음 발음 오류는 조진영(2012)의 연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0) 한국어의 이중모음에는 w계열(/ㄱ/, /ㄲ/, /ㄴ/, /ㄷ/, /ㄸ/, /ㄹ/), y계열(/ㅅ/, /ㅆ/, /ㅈ/, /ㅊ/, /ㅊ/, /ㅌ/, /ㅎ/), i계열(/-/) 등이 있다.

11) 이기문 외(1984) 참조

〈표 3〉 한국어의 모음체계

구분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i]	ㅡ [ü/wi]	ㅡ [i]	ㅓ [u]
중모음	ㅓ [e]	ㅓ [ö/we]	ㅓ [ə]	ㅓ [o]
저모음	ㅓ [ɛ]		ㅓ [a]	

한편 아랍어의 기본 모음은 모두 3자이다. 아랍어의 모음은 발음하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누고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나눈다. 또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과 저모음으로 나눈다. 이를 표로 간소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아랍어의 모음체계

구분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폐 (고)	i		u
개 (저)			a

이 외에 단모음 3자에 자음을 활용한 장모음 3개, 이중모음 2개가 있다. 이와같이 아랍어와 한국어는 모음체계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모음을 변별하여 표기하고 발음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¹²⁾

3) 발음 표기

아랍어에는 한국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세 개의 모음만 존재하며 일부 공식적인 인쇄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쇄물에서는 모음 표기를 생략하고 있다. 아랍어권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음이 표기 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읽기가 쉽지 않다. 아랍어는 모음 외에도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 자음 아래, 위에 표기하는 발음 부호로 수쿤(السكون), 샷따(الشدة), 탄윈(التنوين), 맛따(مدة), 타마르부타(تاءمربوطة) 등이 있다.

2.1.2. 음절 및 문장 구조

1) 음절 구조

한국어에서의 음절 구조는 ‘모음’(V), ‘자음+모음’(CV), ‘모음+자음’(VC), ‘자음+모음+자음’(CVC)으로 모음을 중심으로 음절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모음을 중심으로 자음이 모음의 앞이나 뒤에 위치하며 첫소리가 나는 자음을 초성, 중간소리가 나는 모음을 중성, 끝소리가 나는 자음을 종성이라 하며 한국어에서는 초성과 종성에 자음군¹³⁾이 올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아랍어의 음절 구조¹⁴⁾는 ‘자음+모음’(CV), ‘자음+장모음’(CVV)¹⁵⁾, ‘자음+모음+자

12) 아랍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모음 발음 오류에 대한 연구는 조진영(2012)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3) ‘땅’에서 /ㄸ/은 경음으로 하나의 자음으로 인식하며 ‘닭’에서 /ㄷ/은 두 개의 자음으로 자음군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발현되는 발음은 /ㄱ/ 하나이기 때문에 ‘strike’와 같은 실제적인 자음군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박재양(2001):15, 조진영(2012):47~64 참조 및 재구성

15) VV는 장모음

음'(CVC), '자음+장모음+자음'(CVVC), '자음+모음+자음+자음'(CVCC), '자음+장모음+자음+자음'(CVVCC)으로 아랍어의 음절은 하나의 자음으로 시작한다. 즉,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랍어의 음절 구조에서는 '모음+자음'(VC) 구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아랍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음절 '모음+자음'(VC) 구조에서의 오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2〉 아랍어의 음절구조

لا[la]	ك[kā]	قول[qul]	قل[qāl]	طالب[talb]	ظل[dāll]
CV	CVV	CVC	CVVC	CVCC	CVVCC

2) 문장 구조

한국어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술어의 형태를 취하며, 형용하는 관형사, 즉 꾸미는 말이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문장 성분들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가 발달되어 있어서 문장 내에서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다. 문장 안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그 어순이 바뀌어도 단어에 붙어있는 '은, 는/을. 를' 조사가 단어의 성분과 의미를 결정하고 그 문맥의 의미를 포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순에 의한 문장의 뜻의 변화가 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아랍어의 문장은 크게 기타문(유사문장¹⁶)과 명사문, 동사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기타문은 완전히 문장으로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명사문은 명사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동사문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사문장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와 시간의 부사 혹은 장소의 부사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의 유사문장은 전치사와 소유격 명사¹⁷로 구성된 구(句)이며 아랍어의 대표적인 전치사는 '-안에(في), -에게(الى), -(으)로부터(من), -할 때 까지(حتى), - 위에(على), -에 대해(عن)이다. 시간의 부사나 장소의 부사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의 유사문장도 구(句)의 형태고 구성되며, 아랍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사는 '이전에(قبل) 이후에(بعد), 사이에(بين), 옆에(حانب), 와 함께(مع), 향해(نحو)이다.

다음 명사문은 아랍어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문은 사람이나 사물 또는 한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 있는 문장이다. 명사문의 주어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명사이며 주격이다. 술어는 명사문의 주어와 함께 문장을 완결지어 주는 부분으로 주격이다. 명사문의 주어는 단 하나이고 주어가 여럿일 수 없으며 대화 중 주어가 누구인지 이해되면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 문장 안에서 술어는 여러 개일 수 있다. 대화 맥락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것은 한국어의 주어 생략과 유사한 점이다.

동사문은 유사문장이 사용되는 동사문도 있는데 이는 전치사가 이끄는 유사문장이 사용된 동사문과 부사가 이끄는 유사문장이 사용된 동사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치사가 이끄는 유사문장이 사용된 동사문의 경우 전치사 뒤에는 소유격 명사가 오며 소유격을 취하고, 부사가 이끄는 유사문장이 사용된 동사문의 경우 부사는 목적격을 취하며 부사 뒤의 후연결어는 소유격을 취한다.

16) 이병학(2014:164)에서는 문장과 유사하지만 문장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명사문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유사문장은 문장이 아니기에 형태적으로 구(句)가 된다.

17) 예의 아랍어 구의 마지막 글자에는 소유격임을 나타내는 모음인 카스라(i)가 있다.

2.1.3. 품사

한국어 품사는 단어는 의미나 기능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개 품사로 나뉜다. 각 품사는 그 성질에 따라 다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묶인다.

아랍어 품사에는 명사, 동사, 불변사 등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르는 형용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등은 명사, 동사, 불변사 세 가지 품사 하위에 속해 있다. 아랍어 문법에도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 이에 대한 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형용사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사 등은 아랍어 문법에서는 명사에 속한다. 한편 전치사는 아랍어 문법에서 불변사에 속한다. 이와 같이 아랍어 문법에서는 품사에 대한 개념이나 분류가 한국어¹⁸⁾와는 다르다.

먼저 아랍어의 명사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별도의 품사로 분류하는 것까지 명사의 종류로 보기도 한다. 여기에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유사형용사, 과장 형용사, 능동분사, 수동분사, 연고 형용사, 시간명사, 장소명사, 한차례 명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등이 있다. 아랍의 문법 개념으로는 형용사, 분사, 동명사 등이 모두 명사에 속한다.¹⁹⁾ 또한 아랍어에서 명사는 그 명사가 나타내는 성과 수, 격이 맞는지 잘 나타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음 아랍어는 세 개의 자음을 단어의 기본 어근으로 삼고 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등 대부분의 단어들은 품사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세 개의 자음을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3자음 어근 동사가 가장 흔하며 기본이 되는 3자음 어근 동사를 1형 동사라고 한다. 이런 동사의 대부분은 1부터 10형식까지 나누어질 수 있지만 모든 동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한편, 아랍어 불변사는 말 그대로 불변한다. 낱말의 어말 모음이 항상 불변한다는 데에서 ‘불변사’란 이름이 붙여졌다. 다시 말하면 아랍어 명사는 낱말의 어말이 격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변하고 아랍어 동사 중 현재 동사는 마르푸오(자립형), 만숨(의존형), 마즈줌(소실형)에 따라 어말 모음이 /u, a, 수쿰(무모음)/으로 바뀌지만 불변사는 이런 어말 모음의 변화가 없다. 형태소로 쓰이는 아랍어 불변사에는 전치사, 접속사, 제외사, 호격사, 의문사 등이 있다.

아랍어 불변사는 홀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반드시 명사나 동사 앞에 접두 되어 사용된다. 명사, 동사, 불변사 외에 아랍어에는 동사의 의미를 갖는 동사성명사가 있다. ‘조용히 해(صتة=اسكت), 가져가(اليك=خذ), 오라(حي=فعل)’ 등이 있다. 동사의 의미를 갖는 명사들 즉 동사성명사는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어미가 늘 불변한다.²⁰⁾

2.1.4. 기타 특징

앞에서 분석한 언어적 특징 외에도 아랍어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어와 상이한 특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아랍어 숫자²¹⁾는 그 숫자 조합의 문법적인 형태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자리 숫자들로서 숫자 1~10²²⁾까지고, 둘째는 11~19까지의 숫자들로 일 단위 숫자와 십 단위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숫자들이다. 셋째는 21~99까지의 숫자들 가운데 10의 배수

18) 국어의 학교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아홉 가지를 품사로 분류하고 있다.

19) 이병학(2014:92)

20) 공일주(2010:190)

21) 이병학(2014:304-350)의 정리를 따른다.

22) 1~10 아랍어 숫자 표는 이병학(2014:305)의 정리를 따랐다.

를 제외한 숫자들로²³⁾ 일 단위 숫자와 십 단위 숫자가 대등 접속사 ‘ و /wa/’로²⁴⁾ 연결되어 있는 숫자들이다. 넷째는 20 이상 10의 배수 숫자들²⁵⁾이며, 마지막은 101이상의 10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이다. 아랍어의 숫자는 남성 사물을 셈할 때와 여성 사물을 셈할 때 어미 자음에 차이가 있다. 숫자를 사용할 때도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넷째 20 이상의 10의 배수 숫자들은 남성형과 여성형의 차이가 없다.²⁶⁾

다음 아랍어에서 시간은 시간²⁷⁾의 정서를 표현할 때는 ‘1시’만 기수의 여성형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수를 사용한다. 분단위의 경우 기수로 표현한다. 15분과 10분, 30분은 기수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분수로 더 많이 표현한다.²⁸⁾ 또한 이런 숫자는 오른쪽엿 왼쪽으로 써 가는 아랍어 표기와는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와 아랍어는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음절 구조, 문장구조를 비롯해 다양한 면에서 상이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글자를 이어서 쓰는 아랍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의 자모음을 보았을 때에 독립된 그림 혹은 모양을 맞추는 퍼즐과 같이 인식할 수 있다. 자모음을 쓰는 순서, 쓰는 방법, 자모음의 수, 발음, 글을 써내려가는 방향 등 기초를 배우는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특정하여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2.1. 한국문화와 아랍문화의 대조 분석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문화의 분류를 언어문화, 생활문화, 정신문화, 사회문화 등 큰 영역으로 분류한 후 연구자에 따라 세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아랍문화의 특성상 종교가 가지는 문화적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므로 아랍의 사회 및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적 차이점을 아랍의 특징에 맞추어 ‘의무, 금지, 남녀유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의무’면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틀 안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랍에서는 모든 주권은 유일신 ‘알라’로부터 기인하며 국가와 민족, 종교의 모든 권력은 유일신 알라로부터 나온다. 이와같이 알라로부터 기인한 종교적인 의무가 오주(五柱)와 육신(六信)²⁹⁾에 잘 나타나 있다.

오주는 무슬림으로서 이행해야하는 다섯 가지 의무를 일컫는다. 첫째는 샤하다(Shahādah), ‘하나님(알라)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전령이다.’를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잘라(Ṣalāh)로 모슬렘으로서 이행해야 할 예배를 의미하며 주로 매일 5번 정구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예배를 일컫는다. 셋째는 자카(Zakāh)로 어려운 모슬렘 형제를 돕는 자선을 이르며 여기에는 종교세도 포함된다. 자신의 수입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순수 저축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넷째는 싸움(Ṣawm, ‘단식’)으로 이슬람력 라마단월의 금식을 의미한다. 이 달은 전 세계의 모슬렘이 동시에 단식을 함으로 모슬렘 형제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하즈(Hajj)로 일생에 한 번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로

23) 21, 22, 23..., 31, 32, 33..., 41, 42, 43... 등

24) و에 모음 파트하인 /a/가 더해졌다.

25) 20, 30, 40, 50..., 100, 200, 300..., 1000, 2000, 3000..., 10000, 20000...

26) 이병학(2014:305)

27) 이병학(2014:304-350)의 정리를 따른다.

28) 이병학(2014:344)

29) 이주화(2012:250-265), 전완경(2013:110-113), 정수일(2002:109-159) 참조 및 재구성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은 모슬렘으로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코란에서 이르는 여섯 가지 교리를 이른다. 첫째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이다. 모슬렘 아랍인들의 근본은 알라의 유일성에 있다. 유일신으로 알라에게는 독존성, 무한성, 창조성, 자비성 등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알라와 알라의 속성을 믿는 신앙이 전제된다. 둘째는 천사에 대한 믿음이다. 천사는 예언자들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하거나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알라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과 같은 존재로 이들에 대한 아랍인의 믿음이 요구된다. 셋째는 코란과 성서 등 신의 계시를 기술한 책인 성전에 대한 믿음을 이른다. 넷째는 이브라힘, 이삭, 예수, 모하메드 등 알라신의 예언들을 믿는 것을 이른다. 이들 예언자들을 통해 유일신 알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알라로부터 이루어질 심판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이른다. 마지막 여섯째는 모든 것이 알라로부터 결정되어져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이른다.

한국사회에서의 대표적인 금기는 ‘국가 체제’에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이는 남북한이 국가체제에 대한 상호간의 대립 하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랍에서의 금기는 대부분 종교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금기는 여성의 의복과 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랍의 여성은 외출 시에 반드시 머리(카락)를 가려야 한다. 머리는 여성의 정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여성은 머리(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히잡(hijab)’을 사용하여 머리와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신체 노출을 금기하며 꺼리기 때문에 절대로 길이가 짧은 옷은 입을 수가 없다. ‘히잡’의 경우 머리를 가리지만 전신을 가리는 ‘부루카, 아바야, 차도르, 니캅’등을 착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수영을 할 때에도 수영복은 전신을 모두 가리는 것만 입을 수가 있으며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을 입지 않으면 외부에서 수영을 할 수 없다. 또한 손님을 초대해도 여자들은 남자 손님과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드물다. 보통 음식 준비가 끝나면 여자들은 방에서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여성에게 가족이나 결혼을 약속한 남자 외에는 접촉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음식이다. 아랍에서는 음식물에 대해서 알라로부터 허락된 음식인 할랄(Halal)과 알라로부터 금지된 음식인 하람(haram)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비늘 있는 생선과 갑각류, 식물(과일과 채소 등) 그리고 이슬람 의식으로 도축한 육고기를 할랄-음식이라 칭하며 섭취한다.³⁰⁾ 한편 알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물, 돼지고기, 개고기, 당나귀 고기, 피(생육), 죽은 짐승의 고기는 하람이라 하여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술과 마약 등을 강력하게 금지한다.³¹⁾ 그래서 술 대신 많이 음용하는 커피나 차 문화가 발달해 있다.

과거의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가 유별하고, 남성이 중심이 된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회구조에서부터 조금씩 양성이 평등한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한편 아랍은 현대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과거의 한국과 유사한 남녀유별의 사회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예배 그리고 결혼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랍에서는 남녀의 유별을 강조하여 학교에서 남녀가 따로 공부를 한다. 초중고,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를 따로 두고 있으며 남자학교에서는 남자 선생님이 여자학교에서는 여자 선생님이 가르친다. 만약 여자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과 학습자 사이에 가림막을 쳐서 공간을 구별한다. 예배에서도 남자가 예배하는 예배실과 여자가 예배하

30) 공산품에 대해서도 식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만 먹거나 먹기 전 식품의 재료를 확인한다. 또한 소고기는 기본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고기이지만 도축 과정이 이슬람의 법도를 따랐을 때에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할랄 고기가 된다.

31) 김신영(2000:11)

는 예배실이 구별되어 있다. 심지어 결혼식을 할 때에도 신랑과 신부는 별도의 공간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며 예식 후에 신랑과 신부만 따로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이 외에도 아랍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베두인’이다. 일반적으로는 목축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아랍계 유목민을 베두인이라 가리켜 칭한다. 베두인 사회는 유목 사회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힘, 노동력, 응집력, 결속력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열악한 사막 환경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생활 규범적 가치도 필요했다. 이에 가족주의, 집단주의, 부족주의, 배타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다.³²⁾ 특히 아랍인의 배타주의는 유일신 알라의 가호 아래 이루어진 아랍 문화에 상대되는 다른 문화에 대해 대적해야 할 이방문화로 인식하기 때문에 타 문화가 바탕이 된 이방 문화(아랍의 관점에서)와 언어를 교수-학습하는 데에는 큰 장애로 작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언어, 즉 아랍어는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타 언어권보다 특히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화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한국어-아랍어 문법 항목 비교 분석

본고에서는 한국어 초급과정에서 학습하는 문법 항목을 비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재인 ‘알짜 한국어1, 2권’³³⁾에 제시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1권과 2권에 각각 48개씩 총 98개로 이는 1, 2권 각 과마다 4개의 문법을 제시하여 전체 12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98개의 문법 항목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각 과마다 제시되어 있는 문법이 아랍어에도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면 어떤 문법과 대응되는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두 언어의 문법 항목을 비교-분석한 표에서는 문법 유사도에서 일치하면 ‘O’로, 일치하지 않으면 ‘X’로, 일부 일치하면 ‘△’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알짜 한국어1 문법의 아랍어 대응양상

과	한국어 문법	아랍어 대응문법	유무	비고
1	N입니다	형태 없음	×	• 명사 형태로 대응
	N은/는	형태 없음	×	• 보조사 없음
	N이/가 아닙니다	ليس	O	• 부정동사+N/A→부정문
	N입니까?	هل? - V/A/N에 모두 결합	O	• 의문사(할)+지시대명사+N/A • 의문사+V
2	이것/그것/저것 (이,그,저)	ذلك / هذا - 이것, 저것	O	• ‘이것/저것’은 대응이 있으나, ‘그것’은 대응되는 것이 없음.

32) 김정위(2002:50-59)

33) 아랍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 개발된 ‘알짜 한국어 시리즈’ 중 『알짜 한국어1』, 『알짜 한국어2』는 초급 과정 교재로 권별로 총 12과로 구성되었으며, 매 과마다 문법이 3~4개씩 제시되어 있다.

	N이/가	ضممة / ان / ون - 주격을 표시하는 ‘담마’ 또는 발음부호로 명사에 붙어 주격을 나타냄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 쌍수, 복수에 따라 형태가 변함. • 단수 주격 표시: 담마 • 쌍수 주격 표시: 아-니 • 복수 주격 표시: 우-나
	N이에요/예요	형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없음.
	N에 있다/없다 (위치의 여부)	يوجد / لا يوجد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 ‘유자두(있다) / 라유자두(없다)
3	A/V습니다/됩니다 A/V습니까?/됩니다 까?	형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없음. • 의문문은 의문사 ‘할’로 모두 대응
	N에서 (장소에서의 활동)	في .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치사 ‘피’는 ‘안에, -에, -에서’까지 확장되는데, 문장에서 문맥상 의미로 파악함.
	N에 가다/오다	ذهب / أتى - V ‘다하바, 아타’+전치사 (일라)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하바+일라: -에 가다 • 아타+일라: -에 오다
	N도 (추가)	أيضا - 부사 ‘아이단’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N/A+아이단 (범주 확장)
4	A/V아/어요	형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없음.
	N에 (시간)	في - 전치사 ‘피’는 ‘N에서’와 동일하게 사용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에서는 ‘-에/-에서’가 구분되지만 아랍어에서는 전치사 ‘피’로 같이 표시함.
	N을/를	فتحة / ان / بين - 목적격을 나타내는 ‘파트하’, ‘아이니’, ‘이-나’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 쌍수, 복수에 따라 형태가 변함. • 단수 목적격 표시: 파트하 • 쌍수 목적격 표시: 아이니 • 복수 목적격 표시: 이-나
	V(으)르까요?	형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사 ‘هل(할)’로 표시 가능
5	N부터 N까지	من / إلى 전치사 ‘민’: -부터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에는 ‘시간과 장소’ 명사만 올 수 있음.

		전치사 '일라': -에서		
	V고 싶다 (화자의 희망)	أريد أن - 우리-두+안+V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두('원하다'는 의미의 동사) • 우리-두 뒤에 다른 V를 쓰려면 전치사 '안'과 함께 써야함. • V(우리-두)만 쓰고 뒤에 명사가 오면 '원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임.
	V고 싶어 하다 (다른 사람의 희망)	أريد أن / تريد أن - 유리-두 안(남성)+V - 투리-두 안(여성)+V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두 동사의 3인칭인 유리두+안(남성)/투리두+안(여성)으로 구분해서 사용함.
	N하고(대상 나열)	و 접속사 '와'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와/과, 그리고'의 의미를 포함. • 뒤에 N/A/V와 결합 가능.
6	A/V왔/었	كان / كانت - 아랍어 과거 동사: 카나(남)/카나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가 따로 없음. • A의 과거형은 과거동사 '카-나'를 앞에 붙임.
	A/V고 (대등 나열)	و - 접속사 '와'로 'N하고'와 동일 사용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와/과, 그리고'의 의미를 포함.
	V고 (시간 순서)	و - 접속사 '와'로 'A/V고'와 동일 사용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와/과, 그리고'의 의미를 포함.
	V(으)르래요? (상대방 의사, 제안)	형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사 'هل(할)'로 표시(의미만 전달)
7	안 A/V	لم / لا / لن - V 부정: 람(과거 부정), 라(현재 부정), 란(미래 부정) - A 부정: '라이싸'를 붙여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에만 붙여 부정을 나타냄. ① 과거 부정: 람+현재 V ② 현재 부정: 라+현재 V ③ 미래 부정: 란+현재 V
	A/V아/어서 (시간 순서)	ثم - 전치사 '쑤마' - 동사문+쑤마+동사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문+쑤마+명사문 • 형용사문은 없음. • 영어 'then'과 유사
	A/V지 않다	ليس، ليست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람/라/란: V 부정

		- 라이싸/라이싸트(형용사 부정) - 동사 부정(람,라,란)		• 라이싸: N/A 부정
8	높임말 표현	형태 없음	×	• 아랍어는 높임말이 없음
	V(으)시	형태 없음	×	• 아랍어는 높임말이 없음
	N(으)로 (도구/수단/재료)	ب	○	• 전치사 '비'는 도구, 교통수단에 사용. • 방향을 나타낼 때는 '일라'와 같이 씀. 예) '집으로, 집에'는 모두 '일라'를 씀.
	V(으)세요?	형태 없음	×	• 아랍어는 높임말이 없음
9	A/V(으)르 거예요 (추측)	سوف / س - 싸: 싸우과의 줄임말	○	• V: '싸'나 '싸우과'+현재동사 • A: 싸+카나동사+A
	비불규칙	형태 없음	×	
	A/V지만 (대조)	ولكن / لكن - 라킨과 와라킨은 같은 의미고 대체 가능함. - 접속사(그러나, 하지만, 그런데)의 의미까지 포함	○	• V/N/A/명사문 뒤나 앞에 씀. (영어 but과 비슷함)
못 V	لا أستطيع - 라 아쓰따피우 안 +V(못하다)	○	• 아쓰따피우(할 수 있다) 라는 동사에 '라'를 붙여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냄.	
10	'으'탈락	형태 없음	×	
	A/V아/어서 (이유나 근거)	لأن - 리앗나('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접미 인칭대명사	○	• '리앗나' 뒤에 접미 인칭대명사를 붙임(누구 때문인지를 나타냄) • V/A/명사문 앞에 씀.
	N에서 N까지	من / إلى - '민~일라'와 동일함	○	• 한국어 문법 'N부터 ~N까지'와 동일한 문법 사용.
	V(으)세요 (명령/요청)	명령형으로 표현 - 명령형은 패턴이 있으며, 동사형마다 패턴이 상이함	△	• 명령의 의미는 있고, 요청의 의미는 없음. • 요청 표현: من فضل (민 파들리카)
11	N(으)로(방향/목적)	إلى	○	• 전치사 '일라'로 대응

	지)			
	V(으)ㄴ 시다(제안)	ن+ل - 리나+V	○	• 전치사 '리나'가 V앞에 붙어 '제안'의 의미를 나타냄
	V아/어 보다 (시도/경험)	- 시도: جرب أن + فعل - 경험: فعل + من قبل	△	• 의미(시도/경험)에 따라 대응이 다름. • 시도: 자르립 안+V • 경험: V+민 까블르
	V지 말다	لا تفعل - 라+현재V+단축법 ³⁴⁾	○	• 단축법: 발음 생략(수쿰)으로 표시되어 발음하지 않음) • 수쿰: '우, 아, 이' 발음은 생략
12	V아/어 주다 (주어의 동작)	형태 없음	×	
	V(으)ㄴ 수 있다/없다	أستطيع أن / لا أستطيع أن - 아쓰따따우 안 / 라 아쓰따따우 아 +V(못 하다)	×	• 못 하다/할 수 없다/ 다르다는 아랍어에서는 동일 의미로 보고 같은 동사로 표현함.
	ㄴ불규칙	형태없음	×	
	V겠 (현재의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	س / سوف - 미래V 사용	○	• 'A/V(으)ㄴ 거예요'와 동일 문법 사용

초급1 과정인 '알짜 한국어1'에서는 한국어 문법 항목이 아랍어 문법과 대응되는 것이 28개였고, 일부 일치하거나 의미적으로 대응 양상이 축소되거나 확장된 것이 4개, 대응하는 것이 없는 것이 16개였다.

1과에 제시된 'N입니다'는 아랍어에서는 명사 형태로 제시되어 한국어와 대응 형태가 다르다. 또 한국어 보조사 '은/는'은 아랍어에는 없다. 다음 한국어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여 서술어의 형태가 다양한 반면 아랍어는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A/V습니다/입니다', 'A/V아/어요,'는 아랍어에서는 동일 형태로 표기된다. 뿐만 아니라 아랍어에는 높임말이 없어서 한국어 '높임말 표현'과 대응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A/V(으)ㄴ 거예요'와 같이 어미의 변화가 동사와 형용사에 같이 적용되지만, 아랍어는 대부분 동사와 형용사에 적용되는 규칙이 각각 다르다. 부정문도 마찬가지다. 의문문은 한국어는 서술어의 변화로 나타내지만 아랍어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A/V에 나타나는 불규칙이나 탈락 현상도 아랍어는 대응되는 것이 없다.

〈표 6〉 알짜 한국어2 문법의 아랍어 대응 양상

과	한국어 문법	아랍어 대응문법	유무	비고
1	V아/어 본 적(이)	سبق لي أن	○	• لم يسبق لي أن

34) 단축법(요구법)은 주로 1·3인칭에 대한 요구와 2인칭에 대한 금지를 나타낼 때 쓴다. 주로 부정이나 명령(금지)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법이다.

	있다/없다 (경험)	- 싸마까 리 안+V (전에 해 본 적이 있다) لم يسبق لي أن - 램 야쓰비끄 리 안 + V (전에 해 본 적이 없다)		람 야쓰비끄 리 안 + V: '전에 했다'라는 V(야쓰비끄)를 쓰고, 부정을 나타내는 '람'을 붙임.
	V(으)르 줄 알다/모르다	أعرف أن / لا أعرف أن+فعل	△	• 대응문법은 따로 없고, 동사문 형태(아으리푸 안/ 라 아으리푸 안+V)로 씀.
	V는 것	동명사로 표시 예) وصل / وصول 와쌀라(도착하다): 동사 → 우쭈울(도착함): 동명사	△	• 동명사 형태는 V형태 별로 상이함
	N보다	비교급으로 표시 예) كبير / أكبر 카비룬(크다)/아크바르(더 크다)	○	• 아랍어에서는 'N보다'는 문장의 한 부분임 • 뒤에 오는 A의 형태가 바뀌면서 비교급이 됨
2	N마다	كل + اسم	○	• 쿨루(마다) + 단수 N: '각각'의 의미 예) كل طالب (쿨루 딸립)- 학생마다 • 쿨루+복수 N: '모두'의 의미 예) كل الطلاب (쿨루 앳딸랍) - 모든 학생
	A/V(으)ㄴ/는 것 같다 (추측, 불확실한 단정)	يبدو أن / يبدو	○	• V'압두(보이다)+N/A/명사문(~처럼 보인다)
	A(으)ㄴ데/V는데	لكن	○	• لكن(라킨)은 영어 'but' 과 유사
	A(으)ㄴ, A(으)ㄴ/는/(으)르	① N+A 결합 형태 ② 관계대명사 형태 ما : 사물에만 쓰임 من: 사람에게 쓰임 الذي: 사람, 사물에 모두 쓰임.	○	• 관계대명사에 따라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달라짐.
3	N(이)나	N+ أو	○	• 영어 'or' 과 유사

	A/V(으)니까	لأن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유를 나타내는 아랍어는 모두 'لأن(리앗나)'로 표시함
	A/V아/어야 하다 (당위)	يجب أن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지부(V) 안+ V(목적격 형태로 씀) A와 쓸 경우: 야지부(V) 안+ 카나V(과거동사)+A
	V(으)르게요 (화자의 의지, 약속)	سوف / 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랍어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표시함 V: '싸'나 '싸우파'+현재동사
4	V(으)려고 하다 (의도, 의향)	أتوي أن V+전치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문법은 따로 없으나 '안위(-하고자 하다)'라는 V로 표시함
	A/V왔/었으면 좋겠다 (가정, 조건)	أتمنى أن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타맛나 안+V(목적격형태) 뒤에 V만 올 수 있음
	A/V기 때문에	بسب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بسبب(비싸바비)+N/명사문 형태 N에만 대응됨. بسبب: 전치사로 '이유, 원인'을 나타냄
	ㄷ불규칙	형태 없음	×	
5	A/V(으)ㄴ/는데 (배경이나 상황)	형태 없음	×	
	A/V아/어도 되다 (허락, 허용)	يمكن أن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 읍키누(가능하다)+안(접속사)+V
	A/V(으)ㄴ 때	عندم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다마(접속사)+V 인다마(접속사)+과거동사+A
	V는 게 어때요? (조언, 권유)	ما رأيك 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라으유카 비?('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음)
6	V(으)러 가다 (이동의 목적)	أذهب إلى 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드하부 일라~리~하러 가다'라는 표현으로 가다(V)+리(전치사 '~기 위해')
	ㅎ불규칙	형태 없음	×	

	V고 있다 (진행)	현재동사로 표시	△	• 현재V로 표시
	V(으)려면	형태 없음	×	
7	V(으)르까 하다	أفكر أن	○	• 우파키루(생각하다) 안 (전치사) +V: ~할까 생각 중'이라는 의미
	A/V(으)면 (조건, 가정)	إن / إذا	○	• '이다' 가정문 • '인' 가정문 둘 다 사용 가능
	N와/과	و	○	• 전치사 و(와)는 V/N/A와 결합 (범주 확장)
	V기로 하다 (약속)	형태 없음	×	
8	A/V지요? (확인)	أليس كذلك	△	• 알라이씨 가달리크? (그렇지 않아?)라는 표현을 씀
	르 불규칙	형태 없음	×	
	V는 중이다 (진행)	현재 동사로 대응		• '-고 있다'와 동일
	V기 전(예)	قبل+اسم	○	• 까블라(전치사)+동명 사 • 까블라(전치사)+안(접 속사)+V
9	A/V네요 (감탄, 놀람)	감탄표현(ما أفعل) 예) ما أجمل (마 아즈말라): 예쁘네요	△	• 한국어 문법 'A/V군 요'에 더 가까움.
	스 불규칙	형태 없음	×	
	N에 대해(서)	حول / عن 하올라/안+명사	○	• 하올라 / 안+N
	A/V(으)면 안 되다 (금지)	형태 없음	×	
10	A아/어 보이다	يبين+صفة	○	• V(보이다)+A
	A다면, Vㄴ/는다면	가정문으로 대응	○	• 가정법으로 통일
	A는 편이다, V는 편이다	형태 없음	×	
	N처럼	مثل	○	• 미슬라+N
11	간접 화법	قال أن - 말했다	×	• 깔라(말했다) 안나(접 속사)+대 명사+동사 문/명사문/형용사문
	V자마자	حالما	○	• 할라마+V
	V다가	형태 없음	×	

	V(으)ㄴ 후에	بعد أن+فعل	○	•바으다 안(접속사)+V - 바으다(~후에)
12	V(으)ㄴ 만하다 (행동할 가치)	형태 없음	△	
	A(으)ㄴ가 보다, V 나 보다 (추측)	يبدو أن	○	•압두 (V) 안나 (접속 사)+V/명사문/A
	V게 되다 (동작의 변화)	형태 없음	×	
	A/V(으)면서	أثناء	○	• 동사문+아쓰나아+동 사문 • 동사문/명사문 대응은 있지만, A는 없음. • 영어 'while'과 유사

초급2 과정인 ‘알짜 한국어2’에서는 한국어 문법 항목이 아랍어 문법과 대응되는 것이 29개였고, 일부 일치하거나 의미적으로 대응 양상이 축소되거나 확장된 것이 7개, 대응양상이 없는 것이 12개였다.

먼저 ‘V아/어 본(적)이 있다/없다’는 아랍어에서는 과거동사에 전치사를 붙여 ‘내가 ~전에 해봤다’라는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고, 여기에 부정을 나타내는 ‘람’을 붙여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아랍어는 동일 항목의 문법도 N/V/A에 따라 대응양상이 달라진다. 다음 조사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한국어와는 달리 아랍어는 조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조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 항목은 대응되는 것이 없거나, 일부만 가능한 것도 있었다. 한편, 주체가 화자나 청자나에 따라 적용이 다른 문법, 의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문법은 아랍어에 대응되는 것이 거의 없거나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권에서와 같은 A/V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법이 아랍어에서는 각각 다른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다수였다.

이와 같이 초급과정의 문법 96개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어의 문법 항목이 아랍어 문법에도 대응되는 것이 모두 57개였다. 반면 일부 일치하거나 의미적으로 대응 양상이 축소되거나 확장된 것이 11개, 대응이 없거나 다른 것이 28개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대응되지 않거나 일부만 대응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에 발달되어 있는 높임법이 아랍어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한 문법 항목은 아랍어에서 대응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높임법과 같이 대상의 나이나 지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문법 항목은 아랍어권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 학습자 모두가 실제 한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다음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문법 항목에서도 조사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하지만 아랍어는 조사가 있지만 주로 격변화(주격, 대격(목적격), 소격)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그 외 한국어 조사 문법은 아랍어에서는 전치사로 대응되는 것이 많다. 이에 ‘조사’라는 문법적 특징이 거의 없는 아랍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사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사 문법 외에도 한국어는 어미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어미 결합에 따라 생성된 문법 항목이 많다. 한편 아랍어는 기본적으로 한 동사가 10형까지 형태가 변화한다. 이처럼 각 동사마다 성별과 인칭, 단수, 복수, 쌍수 등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고 아랍어권 학습자들은 어미 결합에 따른 문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동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결합 형태가 달라지고, 불규칙 동사나 탈락 동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문법은 화자나 청자 중심으로 달라지거나 의미가 변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아랍어와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이다. 보통 아랍어는 인칭이나 성별, 단수, 복수, 쌍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문장에서 중심이 화자, 청자에 따라 의미가 변화되고 적용되는 문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랍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낯설 수밖에 없다.

아랍어에서는 ‘이유나 원인’과 관련된 문법은 보통 의문사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유나 원인’과 관련된 유사문법이 초급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난이도별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서 이들 문법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교사가 세심하게 분류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한국어에 발달한 ‘호칭’이 아랍어에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영어와 유사해서 한국어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숫자’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한국어는 고유어 숫자, 한자어 숫자가 구분되어 초급 학습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외 두 언어 간의 차이로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문장의 어순’이다. 한국어는 SOV의 어순을 갖는 언어인 반면 아랍어는 VSO의 어순을 갖는다. 이렇듯 문장의 어순이 다르다 보니 문법 항목의 위치도 아랍어와 차이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휘면에서도 한자어와 색채어, 특수 어휘 등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한국어의 ‘동음이의어’가 문법 문장에서 오류를 범하는 사례도 많이 보인다.

한편, 한국어 문법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에 동일 적용되는 문법이 많다. 하지만 아랍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적용 문법이 구분되는 것이 동일한 것보다 많다. 이는 아랍어권 학습자들에게는 오히려 한국어 문법이 쉽게 학습될 수도 있지만, 한국어는 받침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어미가 달라진다. 이는 학습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된다.

또한 문어 중심의 언어인 아랍어와는 달리 문어와 구어가 같이 발달하여 문법 항목에서도 구분되는 것은 아랍어권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랍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 학습에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양한 표현으로 적용되는 문법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나 막 왔어/나 방금 왔어/나 온 지 조금 됐어/나 온 지 별로 안 됐어(얼마 안 됐어)/나 이제 왔어/바로 막 왔어’의 표현은 아랍어에서는 ‘바로’라는 부사로 통일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아랍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 보이는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문법 항목을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큰 아랍어권 학습자를 지도할 때는 학습자의 모국어이자 이슬람문화권의 공용어인 아랍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문장이나 문법면에 있어서는 우선 교수자가 아랍어의 기타문, 명사문, 동사문 등 아랍어만의 문장 구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통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 관형사, 수사, 대명사, 감탄사’ 등 아홉 개의 품사 체계를 가진 한국어와 달리 아랍어는 ‘명사, 동사, 불변사’로 구분된다. 명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등을 포함하고, 동사는 과거동사와 현재동사(직설법, 접속법, 단축법, 명령법)를 포함한다. 불변사는 전치사, 접속사, 부정사, 의문사, 감탄사를 포함한다. 이것으로 ‘명사문, 동사문, 기타문’이 구성된다는 정도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사나 명사를 활용하여 VSO의 어순을 기본으로 아랍어 문장이 구성되기 때문에 SOV의 문장 구성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초급과정에서 학습자가 명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와 형용사도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문장에서 활용되는 구성 원리까지 학습시켜야 한다. 이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문법 및 품사의 범주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두 언어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나아가 아랍어권 학습자들에게 전략적으로 맞춘 문장 및 문법 교육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조사의 사용이나 한국어의 다양한 접속부사, 수 체계 등의 차이점도 특정한 전략을 사용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두 언어가 갖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인 측면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초급과정에서 배우는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두 언어가 문법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매개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교수방법을 개발하는데, 근거가 될 자료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이러한 상이점을 고려해 타 언어권의 학습자와는 다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 교육은 먼저 단어와 문법, 문화의 의미보다는 언어 형태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예비편(첫걸음편)에서는 한글 자모와 기본적인 인사, 기본 어휘와 문형 등을 학습하기 때문에 단어와 문법, 문화 교육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랍어의 언어 구조와 매우 다른 한국어 형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는 짧은 어구가 반복되고, 리듬감이 있는 동시 등을 활용하여 언어 형태에 중점을 두고 아랍어권 학습자들이 한글 자모를 쉽게 익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급과정에 이어 중·고급과정의 문법 항목까지 비교 분석하여 여기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문법 교재’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혜림(201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구어성 문법 목록 선정에 관한 연구 -연결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58집, p1~24, 우리말 연구학회.
- 공일주(2010), 『아랍어의 이해』, 문예림.
- 공지현(2015), 「한국어와 아랍어의 신체어휘 관영어 비교연구」, 『중동문제연구』 제14권 1호, p133~170, 중동문제연구소.
- 권현숙 외 1인(2019), 『아랍인을 위한 알짜 한국어1, 2』, 한글파크.
- 김문규 역(2010), 『101가지 아랍어 동사: 구어체, 요르단 팔레스타인 편』, Fridrik E. Tiedemann Jr 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종도(2013), 『알시 쉬운 아랍어 기초 문법』, 명지출판사.
- 노미연 외 1인(2015), 「중급 아랍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비교 연구」, 『동악어문학회』 65집, p367~393, 동악어문학회.
- 박은하(2017),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 항목 제시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7집, p650~660, 한국콘텐츠학회.

- 박석준(2017),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항목의 학습 단계 설정에 관한 연구 -‘난이도’의 개념과 적용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제37호, p35~57. 문법교육학회.
- 이병학(2014), 『종합아랍어 문법: 01어형과 품사편』, 문예림.
- 이지용(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유형 분류 연구」, 『영주어문』제36집, p277~306, 영주어문학회.
- 이준호(2017), 「한국어 초급 문법 항목별 화용 정보 구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36집, p75~98, 한국언어문화학회.
- 알레파이 멘나탈라(2013),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석사논문.
- 안한나 외 1인(2019),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오류 분석과 면담 사례 연구-카타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89호, p33~66, 인문연구학회.
- 양명희(2017), 「한국어교육에서의 유사 문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 제3권 2호, p253~27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지용(2006), 「한국어 초급 교재 비교 연구-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집 2호, p149~17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서하석(2008),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 한빛문화.
- 서희만(2000), 『아랍의 언어와 문화』, 조선대출판부.
- 송경숙 외(2010), 『초급 아랍어 강독』, HUFS BOOKS.
- 장경미, 「아랍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맞춤법 오류 연구 -아랍에미리트 학습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5권 2호, 2016, p77~100.
- 정정덕(2011), 『언어권별 한국어 문법교육』, 지식과 교양.
-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한정환(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어휘와 문법-조사, 어미의 기본 어휘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7집, p383~411, 한국어학회.
-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한재영 외(2008), 『한국어 문법교육』, 태학사.
- 헤바 무함메드(2017), 「아랍어권 학습자용 한국어 연구 현황 및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42집, p291~32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토론

「한국어-아랍어 문법 항목 비교 연구-초급과정 문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마나르 알사라흐네 (국방어학원)

최근 들어 아랍어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부는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집트를 시작으로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대학에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한국어가 개설되었고, 세종학당 개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류의 영향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아랍 현지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자들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아랍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와 결과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언어권에 비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발표자가 펴낸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알짜 한국어 첫걸음과 한국어1, 2’ 한국어 교재는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교재를 바탕으로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법학습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두 언어의 문법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랍어권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연구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한다.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본고를 읽고 느낀 것과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아랍어 표기의 오류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2.1.3 품사’에서 아래쪽 ‘불변사’에 대한 설명에서 예로 들은 것 중에 ‘조용히 해(صَه=اسكت)’는 → 조용히 해(صَه=اسكت)로, 오라(فعال=حي)는 → 오라(تعال)’ 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맞는 표기입니다. 또한 ‘오라’ 동사는 4개가 있어서 4개를 다 쓰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것 하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2.1. 한국문화와 아랍문화의 대조 분석’ 내용 중 현재 아랍어권에서 조금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남녀가 유별하여 학교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습 공간이 분리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성별을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랍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어서 대학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남학생들을 여자 선생님이 가르칠 때 ‘가림막’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급과정 문법 항목 비교-분석에서는 분석 자료를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교재로 삼은 것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이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본 교재를 기본 자료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아랍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연구나 추후 기능별 교재 개발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에 대해서 한국어에 유사문법 항목이 많고 이것이 초급에서 고급단계까지 난이도별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랍어에는 행위나 상태가 원인이나 이유임을 나타내는 표현,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문법, 인사말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발표자께서 교육현장에서 이들 문법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교사가 세심하게 분류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를 아랍어권 학습자에게 어떻게 지도하면 효과적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여쭙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와 교재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기셨으니, 지속적인 연구 성과물을 기대하면서 본고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4부 <제5 분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 방언에 대한 언어태도

이정은(성균관대)

차례

1. 머리말
2. 연구 배경
3. 연구 결과
4. 논의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사회에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이하 이주민)¹⁾이 꾸준히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 수가 2018년 말에 200만명,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섬에 따라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²⁾. 이러한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에 발맞춰 한국사회, 한국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연구 또한 한국어교육의 틀 안에서 대상화하는 데서 벗어나 한국어 사용자로서, 한국사회의 다중언어사용자로서 그들에 대한 다양한 통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언어, 다문화 배경의 이주민들의 한국어 사용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실천적 차원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현상의 기술에서 더 나아가 그 사회심리적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용 주체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를 주제로, 한국어 사용의 사회심리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때 한국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 방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 지역의 방언에 대한 태도는 국내의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이번 질적 연구는 그 실제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가설을 세우며 이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 배경

2.1. 이론적 배경

-
- 1) 이들은 이주자,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 거주자, 아주 외국인 등 다양하게 지칭되나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정착한 거주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주민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주민도 결혼이주여성, 여성결혼이주자 등의 여러 명칭이 있으나 이민자라는 통칭에 맞춰 부르려고 이를 선택하였다.
 -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하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말에 2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 12월 말에 체류 외국인인 252만4천656명에 이르러 이는 전체 인구의 4.9%에 육박하였다가 2020년 10월에 약208만명이 되었다고 한다. 학술적으로 인구 통계상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

이 연구는 이정은(2016)의 후속 연구로서, 2016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토박이 한국어 화자에 대한 언어태도에 대한 통찰로부터 본 연구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정은(2016)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양상을 밝히고 이것이 사회언어학적 차원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 논의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태도의 특이점으로서 일부 면담참여자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국어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 때 자신을 평가하는 토박이 한국어 화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언어학 연구의 잠정적인 가설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언어학 연구 가설(이정은, 2016:277)

- ㄱ. 가설1: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 초기의 사회적 교류 양상과 사회문화적 의사소통능력 발달은 밀접한 영향 관계를 갖는다.
- ㄴ. 가설2: 경제적 요인(직업 포함)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다.
- ㄷ. 가설3: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연계망은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며, 이것이 사회문화적 적응 및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ㄹ. 가설4: 한국어 사용에 대해 불안감이 높은 결혼이주 여성은 토박이 한국어 화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4와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국 언어로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생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본 것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체적 언어 현실인 그들의 지역어에 대한 태도를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심층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언어 태도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 혹은 그 변이형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화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일컫는 용어이다. 사람들이 특정 언어의 자질에 대해, 혹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판단근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한국사회언어학회 편, 2012:153). 따라서 언어 태도 연구는 그 태도가 언어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언어 사용에 내재한 사회심리적 차원을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언어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차원을 탐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서는 단일언어 사회라는 인식 속에서 방언 의식, 모어 의식, 문자 의식, 경어 의식 등을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그리고 국내의 방언이나 표준어에 대한 태도 연구는 토박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어나 외국어에 대한 태도는 토박이 한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언어 적응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양명희,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의사소통민족지학 차원의 연구인 왕한석(2007, 2010)과 모어와 한국어에 대한 언어의식을 연구한 차윤정(2015)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구들은 한국사회 이주로 인한 문화 적응과 언어 적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언어변이로서 지역방언에 대한 인식에 대한 탐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한국어교육, 인류학, 사회학, 보건학 등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들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언어에 대해서는 적응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어 실력의 부족을 지적하거나 해결 방안으로서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거주국의 언어 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표준어와 지역어를 모두 주체적 한국어 사용자로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표준어, 지역 방언 등과 같이 한국어 변이에 대해 갖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내의 언어 태도 연구뿐만 아니라 방언 연구의 외연을 새롭게 확장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사실 국내의 방언 연구는 토박이 한국인을 상대로 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방언적 특질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평가를 심도있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 연구와 의사소통 민족지학 차원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홍미주, 2018), 또한 표준어와의 관계와 변화 방향, 그리고 서로 다른 방언들 간의 관계와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적 연구로 나아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조태린, 2015). 이러한 방언 연구에 대한 모색은 한국사회, 한국어 공동체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주민들의 언어 접촉 차원의 언어 변이 연구와 맞닿게 될 것이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만난 이주민들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표준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국 각지에 정착하여 지역 방언의 환경 속에서 이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이 표준어와 지역 방언 등 다양한 언어 변이에 대해 갖는 태도를 통해 새로운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심리를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로 수행된 것이고, 면담 중에 방언 이미지 평가의 과제를 하나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은 거주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하였지만 가능한 거주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고 비교적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방언에 대한 인식이 풍부해야 질적 연구로서 비구조화한 면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자 모집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 과정의 연락과 면담 등 모든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모집은 문자, 이메일, 전화를 이용하고, 면담은 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연구참여자와 비대면 면담을 수행하여 그들의 방언 사용과 인식에 대한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언어 태도를 고찰하고, 면담 중에 수행한 표준어와 방언의 이미지 평가를 면담의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모집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 문제를 고려하여 발표자의 기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교류를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소개 등으로 새로운 참여자를 찾고 그들과 개별 연락을 하였다. 다음의 3장에서 논의 되는 연구 성과는, 이 중에서, 연구자와의 라포가 잘 형성되고 가장 심도 있게 면담이 진행되었던 3명의 여성결혼이민자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³⁾. 그 면담 참여자의 특

3) 이 연구는 현재 미완성 상태로 발표 이후에도 계속 수행될 예정이다. 사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바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에 대한 신뢰 속에서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참여를 약속한 경우에도 일상의 여러 변수들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코로나 19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배가시켰는데, 특히 2020년 하반기 코로나 2차 대유행과 연말과 2021년 1월에도 계속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도 여유가 없어지면서 면담이 연기되거나 연구참여를 수락하였으나 아직 면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3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의한 것과 이후의 추가 면담들을 완료한 후에 후속 연구로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면담의 성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대규모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물론 향후 설문 조사도 비대면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웹문서를 전달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성 및 자료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가명)	국내 거주 기간	모어	한국어 사용	국적	면담
참여자1 (현애 씨)	10년	일본어	표준어, 전라도말	한국인	90분(Zoom)
참여자 2 (윤아 씨)	8.7년	키르기스어	표준어, 전라도말	한국인	57분(Zoom)
참여자 3 (미진 씨)	8.9년	베트남어	표준어, 전라도말	한국인	45분(Zoom)

〈표1〉 면담참여자의 특성 및 자료 관련 정보

위 3명의 연구참여자는 한국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비교적 잘 하는 편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2016년 연구자와 만나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한 바 있고 면담 참여 전후에도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교류하여 나누는 등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라포 형성이 잘 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전체 면담은 기본적으로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2) 면담의 주요 질문

- 한국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사용 양상
- 고향에서 모어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사용 양상
- 모어와 한국어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 표현
- 한국어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이미지 표현 선택
- 자녀들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생각 말하기

면담에서 참여자가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비교 설명을 요청한 것은 이를 통해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이정은(2016)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대비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한국어 언어 변이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평가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 보고 이를 면담 구성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를 좀더 명확히 비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담 중에 이와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 과제는 참여자들이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평가를 이미지화할 때 관련 있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과제 수행 방식은 Zoom에서 화면 공유를 통해 언어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단어들을 고르는 것이다. 과제 수행을 위한 평가어는 이노우에 후미오가 그의 방언 이미지 연구에서 활용한 것을 제시하였다.

(3) 이노우에 후미오의 일본어의 방언 이미지 평가어(사나다 신지, 2008:242)

- [+지적(知的)] 근대적, 도회적, 바르다, 시원시원하다, 표준어에 가깝다
- [-지적(知的)] 불명료, 사투리가 있다, 옛날말을 쓴다, 수수하다
- [+정적(情的)] 부드럽다, 너그럽다, 소박하다
- [-정적(情的)] 호쾌하다, 엄하다, 난폭하다

이노우에 후미오는 위와 같은 네 그룹의 16개 평가어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이것을 방언 이미지로서 '잘 들어맞는다, 조금 들어맞는다, 들어맞지 않는다'의 3단계로 평가하였지만, 이 연구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과제 수행의 수월성을 위하여 제시된 단어를 보고 표준어와 지역방언 중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선택하도록 하고, 둘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둘다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어는 다음과 같다.

(4)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어

현대적이다, 도시적이다, 멋있다 : 구식이다, 수수하다, 촌스럽다
바르다, 정확하다 : 정확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시원시원하다 : 답답하다
부드럽다 : 거칠다
너그럽다 : 엄격하다
평화롭다 : 무섭다, 난폭하다
+지적 : -지적
+정적 : -정적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언어변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면담 말미에 수행함으로써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이번 면담 연구 이후에 기획하고 있는 후속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사용할 평가어를 점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3. 연구 결과

3장에서는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 그들 고향의 표준어와 지역방언 등 그들을 둘러싼 여러 언어와 그 언어 변이에 대한 사용 양상과 태도를 살펴보겠다. 이 때 연구참여자들이 면담에서 드러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주요 내용을 면담의 전개 순서와 참여자들의 원래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3.1. 면담 참여자별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3.1.1 사투리를 쓰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현애 씨는 올해로 한국에 온지 11년차가 되는 결혼이민자이다. 고향에 있을 당시에는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개인적으로 교육방송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였고, 한국에 와서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라도 지역의 방언을 듣고 배웠다. 그녀는 한국어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표준어로 말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가끔씩 사람들이 웃으며 외국인인데 사투리를 한다고 웃으며 놀리는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지역 방언 사용을 의식하게 된다고 한다.

현애 씨는 한국어의 변이에 대해서는 모어만큼 자세한 예를 들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전라도 지역 출신인 경우는 잘 판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애 씨는 모어의 방언과 한국어 지역 방언들에 대해서도 각기 특성을 비교해 설명해 주었다. 자신의 고향인 오사카 사투리와 전라도 말은 강약이 잘 드러나고 리듬이 많다고 표현하면서 이에 비해 경상도 말은 리듬감이 적어 자신이 가장 알아듣기 힘든 지역 방언이라고 하였다.

현애 씨는 모어인 일본어의 경우에도 표준어와 고향 지역의 방언을 모두 구사하였는데, 각각의 말들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평가하였다. 일본어의 표준어는 ‘차갑고, 차분하고, 재미없는 말’로 표현한 반면에 고향 지역의 방언은 ‘따뜻하고 밝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

우는 표준어는 ‘조용하고 아무런 냄새가 안 나죠’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주 지역 방언은 ‘시끄럽고 시골’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녀는 이때 ‘시골’이란 표현에 대해 나쁜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였다. 사투리를 쓰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들은 현애 씨가 언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예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의 언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어의 표준어와 고향 지역의 방언, 한국어의 표준어와 전라도 방언의 평가에 근거하여 그 변이들의 효용성을 평가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현애 씨의 한국에서의 정착지인 전라도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유대관계를 맺기에 효과적인 언어 변이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호감도를 보여주었다. 현애씨는 이주민으로서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이때 전라도말보다 표준어로 더 잘 구사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하며, 한국 사회의 소통의 기본이 되는 표준어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유지시켜주는 전라도말의 실력을 모두 더 높이고 싶다고 하였다.

3.1.2. 사투리를 쓰면 더 재미있어져요...일할 때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해요.

윤아 씨는 이제 한국에 온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결혼이민자이다. 고향에서 알고 지내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운 것은 결혼 후에 지역 다문화센터에서였다. 고향에서 만난 남편이나 지인들은 표준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의 썸⁴⁾ 전라도 방언에 무척 놀랐다고 한다.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톤이 심하니까 말투가 싸우는 것 같이 들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특별한 느낌이 없고, 어르신들하고 지역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는 재미있다고 한다. 일을 할 때는 표준어로 말하려고 하는 윤아 씨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윤아 씨의 모어 전라도 말만큼이나 사투리가 심하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윤아 씨는 고향에서나 지금 사는 곳에서나 주변에 지역방언보다는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고향에서나 지금 거주지에서나 직장인으로서 일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표준어를 쓴다는 것이다. 가령 요즘 일 때문에 다른 지방에 출장 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럴 때면 자신의 사투리가 신경 쓰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 조심스럽다. 그럴 때면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게 되고 스스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윤아 씨는 평소에 사적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사투리를 쓰면 재미있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일부러 장난치려고 사투리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사투리를 더 잘 쓰고 싶어진다고 한다. 사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사투리가 촌스럽게 들려서 그냥 싫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말투는 부드럽지만 이기심이 느껴지고, 썸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게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쁜 생각이 없고 더 배려해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인식은 윤아 씨가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 때문이라고 하였다.

3.1.3. 습관인가 봐요.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4) 윤아 씨는 전라도말에 대한 평가로서 ‘썸다’는 표현을 여러번 사용하였는데 이를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하였다.

미진 씨는 한국에 온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결혼이민자이다. 한국에 와서 다문화센터에서 표준어로 한국어를 배웠는데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지역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쓰게 되었다. 친척 언니가 경상도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경상도 사투리를 보통의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 경상도 말은 무겁게 들렸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전라도 말은 친근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고, 말할 때 마음 편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미진 씨는 아주 친하지 않으면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⁵⁾. 그래서 전라도말 특유의 종결어미 사용이나 사투리 표현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더 많이 쓴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사투리를 더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습관이 됐는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고 미진 씨의 남편도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미진 씨가 잘못 배울까봐 사투리를 잘 안 썼는데, 미진 씨의 한국어가 점점 더 유창해지면서 남편도 사투리를 더 쓰게 됐다고 한다.

사실 미진 씨는 사투리를 더 써야지 하고 생각한 것은 없고 생활하다보니깐 더 쓰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는 표준어를 더 잘 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어차피 주변에서 다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혼자만의 노력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미진 씨를 2016년에 처음 만났을 때는 통역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중년 이상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보다 사투리 억양이나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한다. 사투리는 처음 들었을 때 싫거나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배운 한국말과 다르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좋아지게 되고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더 잘 쓰게 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미진 씨가 경험한 한국어 지역 방언은 표준어, 전라도 말, 경상도 말, 그리고 여행에서 들은 제주도 말인데, 이 말들의 이미지에 대해, 표준어는 잘 들리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라도 말은 부드러운 말로, 경상도 말은 무뚝뚝하고 무거운 느낌의 말로, 제주도 말은 외국어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

3.1.4. 한국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태도

세 면담자 모두 지역 방언에 대해 우호적이고, 지역 방언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표준어는 세 사람 모두에게서 공용어로서 사회 활동의 기본이 되는 언어라는 기능적 유용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직장에서의 업무와 일과 관련된 대인 관계에 따른 차이였다. 윤아 씨는 통역을 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정확한 표준어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현애 씨와 윤아 씨는 직장에서 상대하는 토박이 한국인들에게 전략적으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 지역 방언은 유대감 형성에 유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3.2. 지역 방언에 대한 이미지 평가

2.2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언어태도를 좀더 명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면담 중에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이미지로 여겨지는 평가어를 고르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는 참여자들이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한 표현들은 이번

5) 미진 씨는 고향에서도 학교에서는 표준어를 집에서 부모님과 지역 사투리를 썼다고 한다.

면담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이후에, 새로 기획하고자 하는 설문 조사에서 사용할 평가어를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 연구참여자들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표준어에 대한 평가어	지역방언에 대한 평가어	해당 없음
현애	바르다, 정확하다 시원시원하다	수수하다, 부드럽다(그런 면도 있음) 난폭하다(말하는 방식만) ⁶⁾	현대적이다, 도시적이다, 멋있다, 정확하지 않다, 불 분명하다, 답답하다, 엄격 하다
윤아	현대적이다, 도시적이다, 멋있다 정확하다, 엄격하다 부드럽다	수수하다, 구식이다 촌스럽다(예전에 그랬지만 요즘은 귀엽고 재미있다) 거칠다, 썰다, 빠르다 ⁷⁾	시원시원하다, 답답하다
미진	현대적이다 바르다, 정확하다,	전통적이다. 멋있다 정확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시원시원하다 부드럽다, 평화롭다	도시적이다, 수수하다, 구 식이다, 촌스럽다, 답답하 다, 거칠다, 무섭다, 난폭 하다, 엄격하다

〈표1〉 표준어와 전라도말에 대한 이미지 평가

평가어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어를 현대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노우에와 같은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통념적으로 평가된 것과(사나다 신지 편, 2008)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방언에 대한 평가어의 선택 결과나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관련이 없다고 표현한 평가어들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통념적 평가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미지 평가 결과는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지역 방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앞선 면담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고, 면담에서 세 연구참여자들이 지역 방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평가어들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사실 연구자가 현장에서 만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연구의 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 한국어 공동체 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이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미루어보아 이들의 지역방언에 대해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위 표의 평가를 통해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어 표준어와 그들이 정착한 지역의 방언은 모두 중요한 언어적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사람이 면담에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각기 다른 기능적 효용성을 가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언어 사용 양상이 언어변이의 이미지 평가에서나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4. 논의

세 연구참여자 모두 자신들의 지역 방언에 대해 우호적이고, 지역 방언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 연구참여자의 면담의 내러티브화에서 나타나

6) 현애 씨는 이 단어의 선택에 대해, 지역방언이 정확히는 소리가 크고 빨리빨리 말하는 모습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표준어는 이런 느낌이 없어서 이 표현에서 지역방언을 떠올렸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7) 윤아 씨가 ‘난폭하다’를 보고 대체한 평가어들로 특히 ‘썰다’는 면담에서 자신의 지역방언에 대해 평가하는 말로 자주 등장한 것이다. 윤아 씨의 강조한 발음을 반영하여 ‘썰다’로 표현하였다.

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함께 대비시켜 말할 때 자신을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세 사람은 그러한 중립적 위치에서 각 언어 변이의 사용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특성에서는 한국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그들의 언어태도와 그 평가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때 보여주는 사회심리는 면담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며 구성하는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면담자의 표준어와 지역방언에 대한 태도, 평가적 의미, 정체성

연구 참여자	언어 태도	평가적 의미	정체성
현애	사투리를 쓰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해 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을 여는 것 같아서	유대감	내국인 ⁸⁾
	(한국어 표준말 교육의 필요성) 기분을 알고 있으면 다 통하니까	일반성	유창한 한국어 사용자
윤아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말을 하게 되면 사투리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원 하게 말을 못해서 (똑똑하게 설명을 못할 거 같다)	전달의 명확성 정확성	전문 직업인 ⁹⁾
	웃겨요, 재미있어요, 장난치는 걸로 일부러 써요	유대감	친밀한 구성원
미진	저는 아주 친하지 않으면 사투리를 자주 안 써요	유대감	가족, 친밀한 구성원
	(지역 방언과 비교한 표준말의 평가) 잘 들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처음 한국어 쓰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전달의 수월성 명확성	유창한 한국어 사용자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다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어의 언어 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표준어나 지역 방언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한국어 언어 변이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통념과 차이를 보이고, 이주민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기에는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정의적 요인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연구 결과를 거칠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이민자들이 보여주는 한국어 언어 변이들에 대한 태도의 질적 차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질적 연구자가 계속 지고 가야하는 과제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아직 수행 중인 미완성의 연구로서, 연구참여

8) 현애 씨는 어린 아이나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외국인에게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지역 방언을 쓰려고 한다.
9) 윤아 씨는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를 다양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지 못한 추가 면담을 더 수행하고, 면담의 사회심리적 차원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보완하여 부족한 논의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면담의 성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연구를 후속 연구로 기획하여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참고 문헌

사나다 신지 편(2008), 『사회언어학의 전망』, 서울:제이앤씨.

왕한석(2007) 『또 다른 한국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교문사

왕한석(2010)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서울:교문사

양명희(2020), 「언어태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회언어학』, 28(4), 131-154,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정은(2016), <이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면담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255~27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이정은(2020), 이주자 가족의 사회 연계망과 하위문화에 대한 일고찰 - 사회문화적 실천의 언어 선택 및 사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총』37, 5-28,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조태린(2015) 국어 방언과 방언 연구의 변화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23(1), 177-199, 한국사회언어학회.

차윤정(2015), 한국 생활의 경험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의식 변화, 코기토 77,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한국사회언어학회 편(2012), 『한국사회언어학 사전』, 서울:소통.

홍미주(2018) 전이지대로서의 섬진강변 지역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영남학67, 141-1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토론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 방언에 대한 언어태도」에 대한 토론문

백승주(전남대)

여성 결혼이민자와 지역 방언의 관계는 주로 지역 방언이 한국어 교육의 대상인가 아닌가, 대상 이라면 어느 정도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논의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역 방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제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지역 방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지역 방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학계에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지역 방언에 태도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현애 씨’의 ‘시골’에 대한 묘사와 ‘윤아 씨’가 출장 갔을 때 자신의 사투리에 신경을 쓴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구 대상자들은 지역 방언과 표준어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 적응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여성들의 지역 변이어 대신 표준형을 더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표준어의 위세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남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투리 사용을 더 선호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사회언어학에서는 숨겨진 위세로 파악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께서 제작한 언어 태도 평가 도구의 평가어가 이러한 위세의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현대적이다’, ‘정확하다’, ‘바르다’라는 어휘로는 표준어가 가진 위세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라도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언어태도만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라도 방언 이외의 지역 방언에 대한 태도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시될 설문 조사에서 어휘 평가어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이 추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르에 따른 댓글 의사소통 분석

- 뉴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

신유리(남서울대)

차례

1. 들어가기
2. 담화로서의 댓글과 뉴미디어 담화 관행
3. 기생 장르로서의 댓글
4. 협력 장르로서의 댓글
5. 댓글의 장르적·의사소통적 특성과 함의
6. 나오기

1. 들어가기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의 등장과 인터넷 및 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매체 환경과 우리들의 미디어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접하고, 텔레비전 시청보다 유튜브(YouTube)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한다.¹⁾ 전통적인 매체 관행에서는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수신자의 관계로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반면, 뉴미디어 관행에서는 독자/시청자가 텍스트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사용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용자(user)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인터넷상에 공유함으로써 프로슈머(prosumer)가 되어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통합을 용이하게 되었다(Ritzer and Jurgenson 2010, Khosravini and Unger 2011/2016 재인용).

이러한 참여형 웹에서 프로슈머가 생산 및 소비하는 텍스트 중 댓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댓글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그 영향력 또한 강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댓글리케이션’, ‘댓글놀이’, ‘댓글문화’ 등과 같이 댓글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둔 신조어들과 사회적·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댓글 조작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댓글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200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언론학의 주도로, 주로 뉴스 소비 및 해석 방식으로서의 역할, 기사 수용이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조국현 2007). 2010년 이후 언론학은 뉴스 이외에도 블로그,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댓글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온라인 구매 상황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염정윤 외 2020).

1) 텔레비전 시청보다 동영상 시청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음이 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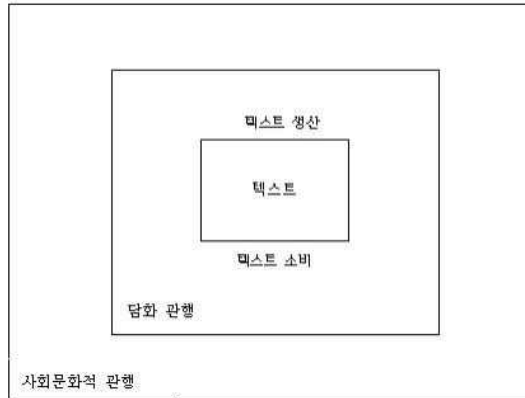
한편 언어학에서는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비판적 읽기 및 수신자의 반응에 대한 권순희(2003) 오은하(2016), 텍스트유형학의 관점에서 댓글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밝힌 조국현(2007), 댓글의 텍스트언어학적, 상호작용적 특성을 논의한 양명희(2011)가 있다. 장르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인터넷사이트의 토론 댓글에 주목한 연구(조국현 2007, 안태형 2010, 2011, 양명희 2011)와 뉴스에 달린 댓글에 대한 연구(안태형 2015, 이정복 2018, 김규현 외 2019, 이정복·박은하 2019)가 주로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는 토론 댓글의 유형, 방어 전략, 상호작용적 특성 등을 살펴본 것이고 후자는 주로 악성 댓글의 범위, 특성, 유형, 실태, 방안이나 댓글에서의 욕설 사용 양상과 이에 대한 함의를 다룬 논의이다. 이전에는 온라인상에서의 토론 장르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장르가 뉴스기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여론 형성이나 상업 활동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댓글의 특성과 영향력을 연구해왔으며, 언어학에서는 논쟁 행위를 위한 의사소통 특성 및 전략, 또는 비난 및 악의적 언어 행위로서의 언어 표현의 관점에서 댓글을 다루어왔다. 오늘날 댓글은 토론, 보도기사에 대한 코멘트, 온라인 쇼핑의 구매평뿐 아니라 그 기능과 사용 맥락이 다양화되었다. 즉 토론, 뉴스보도, 넓은 의미의 광고 장르를 넘어 새로운 장르와 관련성을 지니게 되었다. ‘댓글놀이’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용어이다. 토론, 코멘트, 구매평 등은 정보 추구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이 용어는 댓글의 오락 추구의 성격을 함의한다.

언어 사용의 목적이 정보성 추구인가 오락성 추구인가의 문제는 장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다(Fairclough 1995/2004).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상황에서의 댓글을 장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발견되는 댓글의 장르적 특성과 의사소통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의사소통 기술의 변화는 장르의 변화를 이끈다는 발상(Fairclough 1995/2004)에서 시작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미디어와 가장 구분되는 뉴미디어의 특징은 대화형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두산백과) 댓글은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의사소통의 장면이자 담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 언어로서의 댓글에 착안하여 장르적 특성을, 언어를 통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행위로서의 댓글에 주목하여 의사소통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담화로서의 댓글과 뉴미디어 담화 관행

댓글에 대한 의사소통적, 장르적 탐구를 위해서는 담화(discourse)의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담화라는 용어는 언어학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관행으로서 고안된 언어 사용”(Fairclough 1995:95)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뉴미디어 환경은 언어적 맥락 이외에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접근으로 보인다. Fairclough의(1995, 2003)는 담화가 텍스트, 담화 관행, 사회문화적 관행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텍스트는 사회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언어적 영역을 의미하며, 담화 관행이란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영역으로 텍스트와 사회를 매개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그의 이론들은 매체 담화나 정치 담화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주요한 방법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의사소통 사건의 비판적 담화 분석을 위한 이론틀(Fairclough 1995:59)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텍스트는 실제 언어 자료 자체로서의 댓글(들)이며, 담화 관행은 이 댓글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 환경과 관련된다. 그리고 텍스트와 담화 관행은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관행의 맥락 안에서 이해된다. 사회적 맥락은 사회를 이루는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등과 같은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데 댓글은 미디어 생활 또는 관행과 관련된다. 담화 관행의 측면에서 보자면 댓글 텍스트는 넓은 의미의 인터넷 사용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참여형 웹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관행과 관련을 맺는다. 기존 미디어와 구분되는 뉴미디어 담화 관행의 특성을 알면 뉴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화된 댓글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이들 담화 관행의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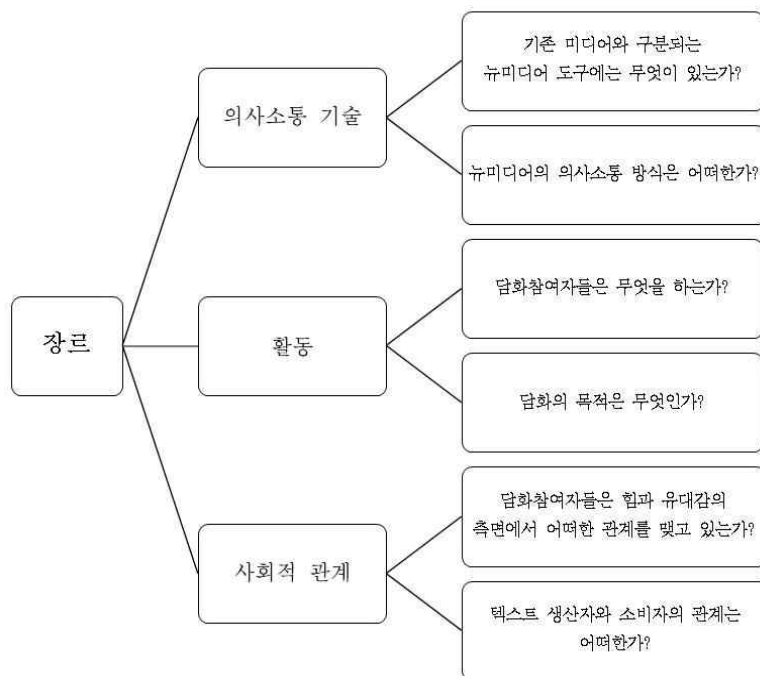
<표 1>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담화 관행 비교(신유리 2020a: 39)

	기존 미디어	뉴미디어
매체의 종류	신문, 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	(소셜네트워크 기반) 인터넷
텍스트 생산 방식	폐쇄적	개방적
텍스트 생산자의 성격	소수의 전문가, 권위자	일반인
텍스트 생산의 기제	게이트키퍼	1인 미디어
텍스트 배포 대상	익명의 대중	차별화된 대중
텍스트 소비 방식	선택의 제약	선택의 다양성
텍스트 소비자의 성격	수신자	사용자

뉴미디어의 담화 관행에서는 방송사나 언론사의 소수의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개인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 플랫폼은 이러한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의사소통 도구이자 방식이다. 텍스트 생산자의 이러한 변화는 매체 담화, 정치 담화와 같은 제도 담화의 제도성이 희석되거나 거세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는 텍스트의 수신자로서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은 반면,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용자로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소비한다. 이

를테면 이전에는 텔레비전으로 소수의 방송사가 송출하는 텍스트를 수신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나 동영상공유플랫폼(예: 유튜브)이 제공하는 무수한 텍스트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한다.

이 연구는 뉴미디어(즉 의사소통 기술)의 담화 관행에서의 댓글이 사용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인데, 의사소통 기술은 담화의 장르적 특성과 관련된다(Fairclough 2003). Fairclough(2003)에 따르면 담화는 장르, 담론, 스타일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되며 장르란 사회적 관행을 구성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담화를 통해 하는 활동이나 목적과 관련된다.²⁾ 매체 담화의 경우 보도기사, 뉴스보도, TV토론, 다큐멘터리, 토크쇼 등은 장르적 특성에 의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장르가 의사소통 기술, 활동, 사회적 관계의 범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기술과 도구는 의사소통 기술에 해당한다. 담화의 목적은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댓글과 결합되어 있는 원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함께 담화 목적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담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힘과 유대감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위계 또는 거리와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댓글을 하나의 담화로 인식하여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담화에 참여하는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본고에서 다룰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 Fairclough(2003)의 장르 요소에 따른 댓글 분석을 위한 틀

뉴미디어의 담화 관행에서 장르 혼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주요한 특징이다(Fairclough 1994, Khosravini and Unger 2011/2016).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장르가 출현했으며, 이 새로움이란 ‘무’에서 ‘유’의 개념뿐 아니라 기존 장르의 혼합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2) 또한 그는 담화를 이루는 다른 요소로 담론을 꼽으면서, 이는 사회적 관행을 특징한 방식으로 표상하는 언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교육의 영역을 예로 들자면 영어조기교육 담론, 거꾸로 교육(flipped learning) 담론과 같이 교육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끝으로 스타일은 언어 사용을 통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담화 유형이나 장르에 따라 담화 참여자가 추구하는 정체성의 모습은 상이하다. 댓글 텍스트를 담화로 인식할 때 장르, 담론, 스타일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면 미국에서 텔레비전 매체가 상용화됨에 따라 1960년에 대선을 위한 텔레비전 토론이 생겨났으며, 이는 현대면 토론 장르에 기반한 것이었다.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대중매체의 시장화’(Fairclough 1995/2004)로 집약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은 장르의 변화 및 혼합을 이끌었다. 인터넷 미디어 관행에서 보도기사의 경우 소비자로서의 독자에게 선택(클릭)을 받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흥미로운 스토리 위주의 기술이 이루어지며 이는 정보와 오락의 혼합을 넘어 오락성의 추구가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담화로서의 댓글의 장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댓글 담화가 지닌 전반적인 의사소통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자 한다.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C나 스마트폰 기기와 같은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통 방식은 상호적이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채팅창이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루어지는 채팅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댓글은 온라인 채팅에 비해 공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강하며 다수의 사용자를 잠재적인 독자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상의 의사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기생 장르로서의 댓글

댓글은 본질적으로 원 텍스트가 존재하고 그것에 달린 텍스트이다. 동일한 웹 공간에 존재하는 게시물에 부착되는 점에서 본문 텍스트에 붙는 머리말, 목차, 주석 등과 같이 일종의 “기생 텍스트”(Genette 1989)의 속성을 지닌다(조국현 2007). 기생 텍스트란 용어는 댓글이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텍스트임을 나타내며 이는 곧 원 텍스트는 댓글이 존재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댓글이 없는 뉴스기사는 성립되지만 있으나 뉴스기사가 없는 댓글이 생산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 텍스트에 떨어져 존재하며 댓글 텍스트가 없어도 원 텍스트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는 댓글을 ‘기생 장르’라고 칭하고자 한다. 기생 장르로서의 댓글은 원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상호담화적 특성을 지닌다. 이 장에서는 기생 장르로서의 댓글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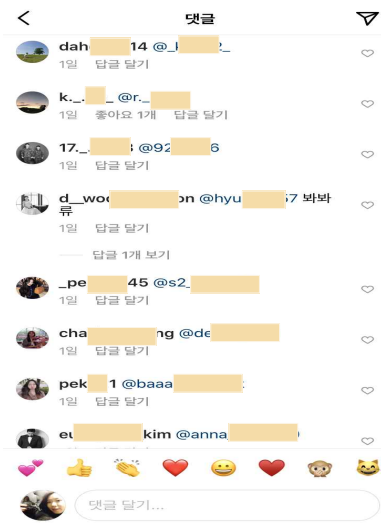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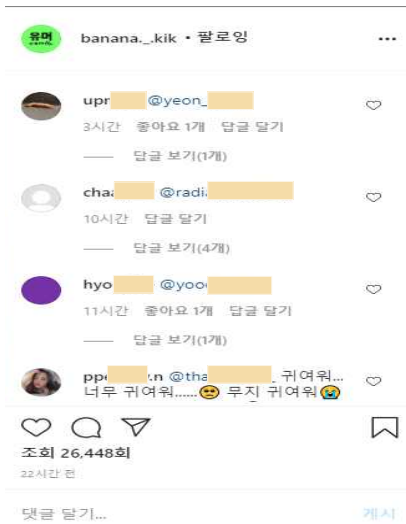
3.1.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댓글

스마트폰의 발달은 소셜미디어의 다양화를 이끌었다. 소셜미디어란 “메시지 및 다른 미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사이트와 플랫폼”(Sergeant and Tagg 2014:3, Khosravini and Unger 2011/2016 재인용)을 의미한다. 연령대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미디어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의사소통 양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문자로 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짧은 동영상, 이미지화된 문자 텍스트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의 댓글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뉴스가 유통 및 재생산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인스타그램은 보다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세계와 관련되며 딱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과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또한 사용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나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담화 장면은 공적이고 매스미디어의 특성이 강한 콘텐츠(텍스트)에 달린 댓글이다. 즉 사적인 계정에서 게시한 콘텐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며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해당 콘텐츠를 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담화인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따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원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이 없다. 그 대신에 해당 콘텐츠를 메시

지 기능을 통해 개개인에게 ‘전달’하거나 댓글을 통해 상대방의 계정 아이디를 태그(tag)함으로써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곳으로 부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양상이 관찰되는 인스타그램의 댓글들이다.

- (1) “짧은 다리의 비애 ㅋㅋ”라는 강아지 영상에 달린 댓글 (2) “반려동물이 흥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카드형 텍스트에 달린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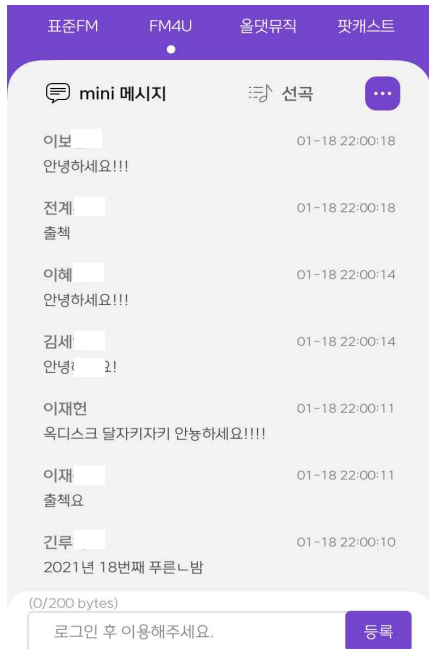
동일한 플랫폼에서 원 텍스트(콘텐츠)가 예(1)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예(2)는 정보를 추구하여 담화의 목적이 상이하다. 그러나 두 예 모두 대중매체 담화의 특성을 지니며 댓글이라는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해당 담화가 존재하는 공간/상황으로 초대하고 있다. 상대방의 아이디를 콜뱅이표(@, at sign)를 사용하여 태그함으로써 호출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온라인 공간이 클릭/터치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하이퍼링크의 특성을 지니며, ‘특정 게시물과 연관되는 미디어 텍스트로서 해당 게시물과 댓글 사이에는 상호텍스트성이 존재한다’(조국현 2007). 댓글은 원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는 원 콘텐츠와 댓글 간의 상호관계를 이룰 때 ‘아이디 태그’라는 담화(언어 사용)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을 부르는 행위는 주로 개인 차원의 계정이 아닌 ‘볼거리’를 제공하는 매스미디어의 특성이 강한 계정에서 두드러진다.

3.2. 공중파 라디오 방송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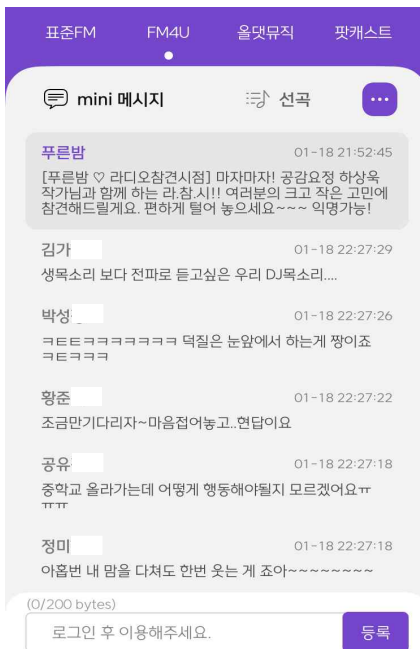
라디오는 기존 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손편지나 전화 연결로 청취자와 제작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손편지를 의사소통 도구로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으며 주로 온라인 게시판이나 핸드폰 문자,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방송국에 따라 앱상에서 추구하는 상호작용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데 각 방송사가 사용하는 용어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MBC 라디오 어플인 ‘미니’는 “메시지”, SBS 라디오 어플인 ‘콩’은 “채팅”, SBS 라디오 어플인 ‘고릴라’는 “공감로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중에서 ‘미니’의 경우가 댓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청취자 간의 개인적인 대화는 지양해달라는 제작진의 공지는 제작진과 청취자의 상호작용을 상정한 것으로, 라디오의 장르적 특성상 제작진과 청취자는 실시간 채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MBC 라디오 ‘미니’ 앱 메시지3)

(1)



(2)



위의 예 (1)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의 담화 장면으로, 청취자들은 진행자와 제작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는 제작진이 청취자들에게 고민 사연을 요청하는 상황이며 청취자들은 사연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청취자의 이야기에 반응하거나(진행자가 적극적인 듣는 이) 진행자 또는 출연자의 말에 반응한다. 텍스트 입력 창에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 것 또한 짧은 길이로 이루어지는 채팅과는 거리가 있음을 암시한다.⁴⁾ “메시지”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팅보다는 핸드폰 문자 텍스트에 가깝는데, 문자와 다른 점은 해당 메시지를 제작진뿐 아니라 청취자들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작진의 공지를 포함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텍스트가 원 텍스트이고 이에 청취자들이 짧게 글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댓글로 이해할 수 있다.

라디오를 매개로 한 매체 담화는 공적이고 제도적 상황의 담화임에도 이전부터 청취자와의 소통을 추구했다. 오늘날에는 라디오 방송을 라디오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환경이 됨에 따라 소통 방식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취자들은 댓글을 통해 제작진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청취자들의 댓글을 읽음으로써 방송 자체, 방송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3.3. 영화 추천 및 제공 플랫폼 ‘왓챠’의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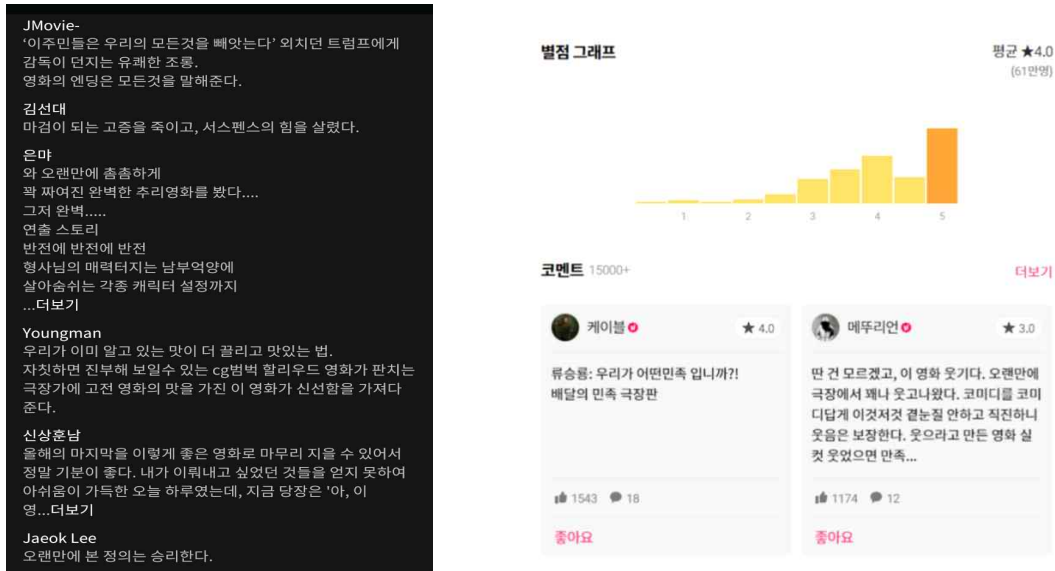
스마트폰이나 각종 PC, 스마트TV 등을 사용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의 사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 또한 뉴미디어 환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주로 영화 콘텐츠 영상을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 ‘왓챠(Watcha)’를 살펴보겠다. ‘왓챠’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와 사용자 수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일종의 댓글을 통해 자신이 시청한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사

3) 다른 방송사의 앱과 달리 ‘미니’는 실명으로 글을 작성하는 체계이다.

4) 채팅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러한 제한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릴라’의 “공감로그” 창에도 동일하게 글자 수의 제한이 있지만 ‘콩’의 “채팅”창에는 이러한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용자들이 별의 개수로 평점을 매길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이를 참조할 수 있으나 의견을 작성할 수는 없다.

- (1) ‘왓챠’ 스마트폰 앱에서 영화에 대한 코멘트 (2) ‘왓챠피디아’에서 영화에 대한 코멘트



위에서 (1)은 스마트폰에서 ‘왓챠’ 앱상에서의 모습이고 (2)는 ‘왓챠피디아(Watchpedia)’ 웹페이지의 모습이다. 왓챠피디아는 PC 버전으로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왓챠’에서 제공하지 않는 콘텐츠(영화, 드라마, 책)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모바일버전과 다르다. 여기서는 “코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 텍스트(이러테면 영화)가 존재하고 이것에 대한 간략한 평가라는 점에서 댓글로 볼 수 있다. 원 텍스트에 대한 평가는 추천/비추천의 근거로 작용하며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⁵⁾

지금까지 여러 의사소통 매체에서 ‘댓글’로 칭할 수 있는 담화 장면들을 살펴보았다. 인스타그램에서 댓글이라는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 특정한 담화 상황으로 상대방을 초대하는 행위는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면대면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 대화의 시작을 여는 것과 유사하게 온라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함으로써 해당 담화가 제공하는 오락/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즉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존재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일종이라면, 왓챠/왓챠피디아의 댓글은 평가적 특성이 강하여 논평(comment)의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라디오 앱의 경우, 방송사마다 상호작용하는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댓글이 채팅(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핸드폰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판의 댓글의 특성이 혼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댓글을 통해 매체 담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청취 행위를 유도한다는 점이고, 여기에 진행자를 포함한 제작진과 청취자의 친밀감 형성, 그리고 청취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5) 네이버(Naver)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사용자가 영화에 대한 코멘트를 댓글의 형식으로 ‘평점’란에 달 수 있다. 그러나 이밖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와 달리 ‘왓챠피디아’는 영화 및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 텍스트에 대한 평가만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협력 장르로서의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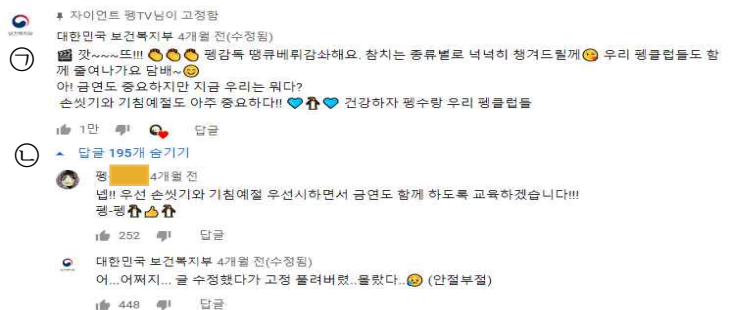
3장에서는 원 텍스트에 기생하는 형태로 담화의 목적을 이루는 댓글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원 텍스트와 공동으로 담화의 목적을 성취하는 댓글의 양상을 이야기하겠다. 기생 장르로서의 댓글은 원 텍스트가 댓글 텍스트가 없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만 협력 장르로서의 댓글은 원 텍스트와 함께 하나의 완전한 텍스트(담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즉, 원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댓글의 장르적 특성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담화 장면은 주로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강한 ‘유튜브(Youtube)’에서 관찰된다.

4.1. 제도 담화의 또 다른 담화 관행에서의 댓글

유튜브는 개인이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로, 제도적으로 방송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담화 관행의 영역이다. 유튜브 사용자 수가 텔레비전 시청자 수를 추월함에 따라 최근에는 방송국의 제작진이나 연예인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제작진이 운영하는 채널은 텔레비전 방송 영상을 유튜브 매체에 적합하게 길이만 편집한 것이 있는가 하면, 유튜브 채널 전용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사회문화적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는 EBS 방송사의 제작진이 텍스트의 생산자이지만 기존의 방송 담화와는 구별되는 탈제도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텍스트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담화의 담론적 특성, 주인공 ‘팽수’를 필두로 하여 팽수 세계에서 형성된 담화참여자들의 정체성의 모습, 그리고 유튜브라는 의사소통 도구가 지닌 탈제도성, 일상성과 관련된다. <팽TV>는 제도 담화가 유튜브라는 뉴미디어의 담화 관행 안에서 장르적, 담화적으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담화 자료이다.⁶⁾

이 절에서는 텍스트의 생산자가 개인 차원이 아닌 방송사의 제작진일 때 해당 채널의 댓글 텍스트를 통해 담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관찰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팽TV>의 예를 가져오겠다. 개인이 텍스트 생산자인 유튜브 채널과 동일하게 <팽TV>에서도 제작진과 유튜브 사용자들이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텍스트 내용에 대한 반응이나 팽수를 비롯한 담화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응원, 격려, 칭찬, 동감 등과 같은 언어적, 사회적 행위를 댓글을 통해 수행한다. 특히 <팽TV>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해당 담화가 오락 장르적 특성과 제도 담화임에도 탈제도성, 탈권위성을 지님에 따라 제도 영역의 담화를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모습이다. 이러한 담화를 이루는데 댓글도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을 암시적 주제로 한 에피소드(텍스트)에 달린 댓글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유리(2020b)에서 다루었다.

위의 영상 제목은 “지각해서 핑수 PD 잘렸습니다”로, 핑수가 <핑TV> PD 대신에 영상을 제작한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담화는 재미와 웃음을 추구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의한 금연 캠페인이 텍스트에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예(1)에서 보건복지부가 댓글을 달고㉑ 이를 <핑TV> 제작진 고정한 것이 보인다. 토론 게시판의 댓글과 유튜브 오락 채널의 댓글은 장르적 특성에 의해 차이가 나는데 위의 댓글들은 후자의 맥락에서 쉽게 관찰되는 담화 양상이다. 입말 표현,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표현,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모티콘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댓글이라는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 제도성을 강하게 띄는 보건복지부 기관이 대중들과 일상세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담화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㉑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댓글에 사용자들의 답글이 달리기도 한다. 댓글 ㉑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수정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중 하나로 유튜브 댓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살펴볼 예는 SBS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2년부터 2021년 1월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는 “사회, 종교,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네이버)으로 시청자를 넘어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이 채널은 ‘짧은 그알’, ‘그알저알’, ‘그알 외전’, ‘그알 비하인드’ 등과 같이 여러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방송의 영상을 짧게 편집한 ‘짧은 그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튜브 채널만을 유통 경로로 하고 있다. “그것도 저것도 알고 싶다”의 줄임말인 ‘그알저알’에서는 담당PD, 프로파일러, 어떤 사건의 주인공 등과 인터뷰를 하는 형식의 영상이며, ‘그알 비하인드’는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콘텐츠 모두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을 통해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남기라고 공지한다. 시청자들은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이 댓글은 ‘그알저알’이나 ‘그알 비하인드’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즉, 시청 소감이나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달는 행위가 새로운 종류의 담화를 생산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래 예는 ‘그알저알’과 관련된 담화 장면으로, 먼저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㉑과 같이 제작진에 공지가 올라오면, 이에 시청자들이 댓글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은 ㉒과 같이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콘텐츠)로 게시된다.8) 댓글에는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원이나 기원과 같은 다른 화행도 발견되지만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은 동일하다(일차적으로는 윤여성 씨, 궁극적으로는 제작진).

(1)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의 ‘그알저알’이 생산되는 과정

㉑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㉒ ‘그알저알’ 담화의 한 장면



7) <그알>의 팬들을 “그알이”로 칭한다.

8) 해당 영상의 제목은 “‘화성 8차 사건’ 제심 무죄 받은 윤성여 씨 모셨습니다! | 그알저알 EP.17”이다.

또한 예(2)는 ‘그알 비하인드’의 담화 장면으로 이 역시 커뮤니티란을 통해 시청자들이 댓글로 방송된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⁹⁾ 이 질문은 사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주로 추론 및 추리에 의한 질문이다. 제작진이나 프로파일러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시청자는 해당 사건을 다룬 탐사 방송을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간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반 개인이 제도권 방송 담화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을 일종의 추리게임과 같은 오락 활동으로 소비할 위험을 지닌다.

(2)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의 ‘그알 비하인드’가 생산되는 과정

- ㉠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 ㉡ ‘그알 비하인드’ 담화의 한 장면



유튜브 매체 관행에 의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알저알’이나 ‘그알 비하인드’와 같은 새로운 담화 유형이 가능해졌으며 댓글이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시청자들은 담화 생산에 기여한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많이 다루는 만큼, 선정적인 내용이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방식으로 담화가 구성되는 등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오락적 요소를 지닌다. 댓글은 이러한 오락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또 다른 담화 장치로 기능한다.

4.2. 유희적 활동으로서의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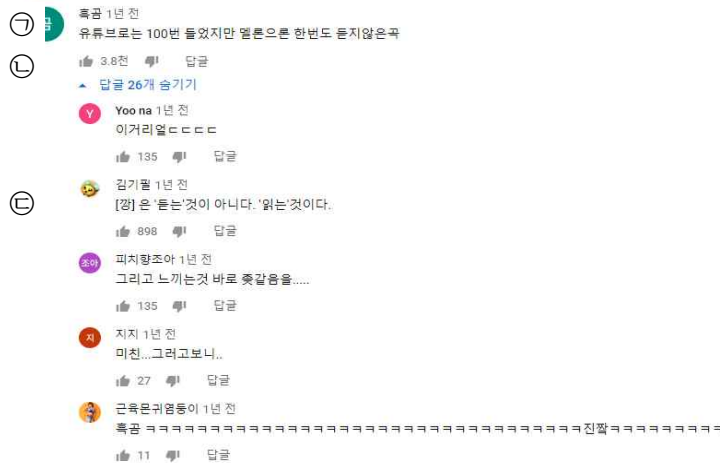
댓글이 의견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 일종의 언어유희로 기능함에 대해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다(김규현 외 2019). 여기서도 댓글의 유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뉴미디어 관행에서 발견되는 댓글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다룬 예는 하나의 새로운 담화를 생산하는 데 댓글이 ‘보조적’ 역할을 했다면 이 절에서 살펴볼 예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매체 담화로서의 오락성을 추구하는 데 댓글의 담화적, 장르적 요소가 기여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댓글 텍스트가 없으면 하나의 완성된 담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음 예는 이와 같은 댓글의 오락성을 잘 보여주는 담화 장면으로, 2020년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슈가 된 이른바 ‘1일1깡’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2017년 발표된 가수 비의 노래 “깡”이 대

9) 해당 영상의 제목은 “용의자가 접견 중 보인 수상한 행동은? 제주 주점주인 살인사건 취재 뒷이야기 | 그알 비하인드”이다.

중들에게 조롱의 대상으로서 희화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가수가 보인 유쾌한 반응에 힘입어 온라인 상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것을 의미하며, 이 열풍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밈(meme)’ 문화가 꼽힌다(김경욱 2020). 밈이란 “특정 문화 현상을 모방하여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 내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박광길 2020:8)하며, 일상적 용어로 짤방(짤림방지의 줄임말), 패러디물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백지원 2020). 네티즌들은 원 텍스트를 모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밈 행위와 함께 원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에 댓글을 다는 행위로 유희적 활동을 한다. 다음은 유튜브의 “깡” 뮤직비디오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1) 유희의 대상이 된 뮤직비디오 “깡”에 달린 댓글




위의 담화 장면은 원 텍스트(뮤직비디오)에 댓글과 이에 대한 답글들이 달린 모습이다. ㉠에서 (댓글 기능이 있는) 유튜브로는 수많은 들었지만 음원만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해당 노래를 듣지 않았다는 언급에 ‘좋아요’가 38,000개로 이 댓글에 공감하는 이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에서 “[깡]은 ‘듣는’것이 아니다. ‘읽는’것이다.”라는 답글도 댓글에 의한 놀이 활동의 영향력을 보여 준다. 젊은 연령대가 일종의 놀이로서 댓글을 쓰는 것은 2007년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조국현 2007). 댓글로 재미를 추구하는 언어 사용의 한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이 행위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댓글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댓글 놀이에서 댓글은 일종의 기생 장르의 성격을 지녔다면 오늘날에는 댓글의 유희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협력 장르의 성격을 지닌다. 다음은 댓글의 오락성이 핵심이 되는 미디어 담화의 예이다.

(2) 오락성이 댓글에 의해 성취되는 담화의 예



 Bree · 10개월 전
맥주 거품 볼때마다 웃기네.
원수한테도 그렇게는 안주겠다 야

 우주비행사 · 10개월 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진짜 볼때마다 이선균 맥주 너무 못
따라서 이입깨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위의 예는 인스타그램의 유머 계정에서 가져온 것으로, 종합예능채널 tvN 드라마의 한 장면이 영상으로 있고 그 아래 이 영상에 대한 유튜브 댓글이 보인다. 원 텍스트(드라마 영상)와 유튜브 댓글을 편집하여 혼합한 것인데 댓글이 유머적 요소로 작용한다.¹⁰⁾ 이와 같은 이른바 ‘댓글반응 콘텐츠’는 유희적 행위로서의 댓글이 담화에서 오락 장르의 특성을 담당하여 새로운 담화를 이룬다.

의사소통 매체가 새롭게 등장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는 담화적,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댓글의 목적 또한 다양해졌다. 댓글은 3.1에서와 같이 개인과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수행하는 대화에서 상대방을 호출하는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4.1에서와 같이 제도기관과 일반 개인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는 유튜브 매체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댓글은 개인 간의 대화의 속성부터 매체 오락 담화에 이르기까지 장르의 범위가 다양하며 이는 뉴미디어 환경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구현정, 서은아(2012). 악성 댓글의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말연구 30, 5-32.
 권순희(2003). 인터넷 신문의 리플 텍스트에 나타난 수용자의 반응 분석. 국어교육 111, 227-253.
 김경옥(2020). ‘깡’은 왜 계속 날지? 한겨레, 2020. 06. 09.
 김규현·서경희·임시은(2019).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의 욕설의 분석: 사이버 공동체의 언어게임으로서의 언어유희. 사회언어학 27(3), 63-96.
 김병철(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의 상호작용적 특성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14), 147-180.
 김소담·양성병(2014).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일반댓글과 소셜댓글의 비교 분석 연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79-386.

10) 이 영상의 출처는 유튜브 “tvN D ENT” 채널이며 제목은 “이지은을 웃게 만든 이선균 “행복하자” 맥주 한 잔 하면서 속 마음을 털어놓는 돌 | #감쪽한혼종_나의아저씨 | #Diggle”이다. 이 영상에 위에서 제시한 댓글이 확인되었는데 ‘Bree’의 댓글에는 18,000개의 ‘좋아요’와 57개의 답글이 달렸다.

- 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경일(2019). 악성 댓글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548-558.
- 박광길(2020). 인터넷 밈의 언어적 성격 고찰. 인문과학연구 66, 5-26.
- 백지원(2020). 밈(Meme) 현상 : 온라인 여가와 놀이 힐링치유기반 웰니스관광 트렌드. 웹진 문화관광, 7월.
- 신유리(2020a). 혼합 장르로서의 정치토크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신유리(2020b).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유튜브 담화 분석:<자이언트 핑TV와 중앙 행정 기관의 협업을 중심으로. 담화와인지 27(3), 93-125.
- 안종목·박광순(2007).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비교 연구: 포털사이트와 신문사닷컴의 관련뉴스, 하이퍼링크, 댓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2), 335-372.
- 안태형(2010). 인터넷 토론 게시판 댓글의 유형 연구. 우리말연구 26, 311-333.
- 안태형(2011). 인터넷 토론 댓글의 방어 전략과 전략 선택 요인. 배달말 49, 71-94.
- 안태형(2013).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 우리말연구 32, 109-131.
- 안태형(2015). 네이버(Naver)기사에 딸린 악성 댓글의 실태. 우리말연구 40, 153-174.
- 양명희(2011). 토론 댓글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다음 아고라의 토론 댓글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0, 161-186.
- 염정윤·김류원·정세훈(2020). 국내 댓글 효과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언론정보연구 57(2), 5-49.
- 오은하(2016). 인터넷 기사문의 댓글에 대한 내용 분석: 독자들의 비판적 읽기 양상 탐색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9, 123-158.
- 이정복(2018). 뉴스 댓글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와 한국 사회의 금기 문화. 우리말연구 55, 61-91.
- 이정복·박은하(2019). 네이버 뉴스 댓글의 욕설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27-1, 153-178.
- 이정은·장희순(2020). 악성 댓글에 노출 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악성 댓글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노를 중심으로. 발달지원연구 9(3), 145-162.
- 임혜빈·이병관(2019). 첫 댓글의 영향력: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정보왜곡 효과 탐구. 광고학연구 30:1, 7-27.
- 장윤재·이은주 (2017). 있는 그대로의 댓글 vs. 승인받은 댓글 vs. 인용된 댓글. 사회과학연구논총 33(1), 377-416.
- 조국현(2007). 인터넷 '댓글'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3, 203-230.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Bloomsbury Academic. 이원표 역(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Routledge.
- Wodak, Ruth and Meyer, Michel. (2001/2016). Critical discourse studies: history, agenda, theory and methodology. eds. by Ruth Wodak & Michael Meyer, 1-22. London: Sage Publication.

■ 토론

「장르에 따른 댓글 의사소통 분석-뉴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공나형(광주교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뉴스나 쇼핑, 혹은 유튜브(YouTube) 등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이라면, ‘(뉴스/영상) 내용보다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클릭해 봤다’와 같은 댓글을 한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기사의 내용보다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읽으며 유희를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본 이용자들도 꽤 많을 것이다. 어떤 댓글들은 통쾌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어떤 댓글은 기사보다도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물론 대부분은 그 근거가 빈약해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간혹 해당 내용을 ‘정보’라고 쉽게 믿고 싶어 한다-. 이러한 댓글의 현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하나의 신생 장르로 보고 해당 속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웠다. 본 토론문에서는 개인적으로 해당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의문을 기재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다소 미시적인 부분이다.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담화 관행을 비교한 <표 1>에서 뉴미디어 시대에 텍스트 소비자의 성격은 오히려 제3의 생산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용자’라는 것은 그 범위나 정의가 매우 폭넓고 이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기존 미디어 시대에서도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인용을 하는 것도 ‘사용’의 한 부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뉴미디어에서의 텍스트 소비자는 수신자이면서 동시에 이를 가공하거나 또 다른 참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제3의) 생산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사용자’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짧은 식견으로는) 담론의 참여자로서 활발히 기능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텍스트 소비자의 속성과 완벽히 조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두 번째, 기생 장르로서의 댓글 부분은 ‘기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숙주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발표자도 비슷한 의견을 발표문에 기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비교적 짧은 층 ‘대다수’가 ‘일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이보다 좀더 마니아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영화 추천 혹은 공유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왓차’의 경우는 댓글 역시 숙주 역할을 하는 원 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과연 이를 상호대화적 특성을 지닌 장르로 볼 것인가(5p 상단 참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이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원 매체/댓글 장르들을 하나의 범주에 묶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기생’이라는 실현 환경이 갖는 의미가 좀더 보강된다면 개인적으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세 번째, 좀더 거시적인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론자의 짧은 지식에 근거한 입장에서, ‘댓글’은 단순히 실현 환경만 보았을 때 생래적으로 모두 기생적이라 생각한다. 어떤 댓글은 원 매체 구성에 협력적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어떤 댓글은 협력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영상은 매체의 특성상 댓글이 협력적으로 기능하는 데 훨씬 유

리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댓글을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하여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의 경우, 해당 댓글들은 협력 장르로서의 댓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 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에 작용하는 변수들을 균질화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보장된다면 더욱 재미있는 논의가 될 것 같다.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의 ‘맞춤법총’ 담화 - 한국어 어문 규정에의 시사점 고찰 -

유희재 (연세대)

차례

1. 서론
2. 한국어 어문 규범
3. 데이터와 방법론
4. 페이스북 대나무숲 맞춤법 담화 분석
5. 어문 규범과 맞춤법총 이데올로기
6.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에서 맞춤법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투고할 수 있는 공개 페이지인 ‘대나무숲’에서 참여자들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여러 행동 유도성(affordance)를 사용하여 맞춤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맞춤법’에 대한 담화이므로, 한국어 어문 규정으로 제정된 규범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뉴스나 신문과 같은 기존 미디어가 아닌 비교적 신매체로 볼 수 있는 SNS에서의 담화이다. SNS는 부유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시민의 권력이나 정체성과 결부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KhosraviNik and Zia 2014). 한국에서도 SNS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으며,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65.2%가 이러한 SNS를 사용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이러한 SNS는 기존의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뒤엎으며 개인과 단체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는 생산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방향적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담화를 송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SNS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SNS가 의사소통의 민주주의를 불러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Wodak and Wright 2006, Morozov 2011 등). 물론 SNS가 기존 미디어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으며, 다양한 비주류의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했고,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다(Kahn and Kellner 2004, Kelsey and Bennett 2014).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소비자가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SNS 기업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작취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Ritzer and Jurgenson 2010, Fuchs and Sevignani 2013).

SNS, 더 넓게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기존의 대면 담화나 텍스트와는 다른 특성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언어적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맞추어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언어’의 새로운 어휘나 문법, 화용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이정복 2000, 2003, 2005, 임규홍 2000, 박동근 2001 등), 인터넷 담화에서 적용되는 전략이나 상호작용적 특성 역시 분석된 바 있다(안태형 2011, 양명희 2011, 안미경 2019)

이러한 SNS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의사소통의 권력이 선별된 엘리트에서 일반 대중에게 분산됨과 동시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하고 극단적인 의견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Papacharissi 2015). 사람들은 더 인기 있는 노드(node)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며 의견이 양극화되는 경향성을 보이며(KhosraviNik and Unger 2015), 쟁점거리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언어 역시 단순하고 극단적인 레토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Papacharissi 2015). 이들의 담화에는 명료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상징적이고 양극화된 언어에 의존한다(Papacharissi 2015). 이들은 주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집단 구분을 활용하며, 몇몇 인상적인 단어들(buzzword)에 의존하기도 한다((Krzyżanowski and Ledín 2017). 따라서 이러한 SNS 담화에서는 전통 매체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인종차별이나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표현 역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나타난다(Fielder and Catalano 2017, Breazu et al. 2019). 한국어와 관련해서도 SNS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여 ‘우리끼리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곽면선 2019),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정복 2010, 2013)이 분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NS 중에서도 페이스북의 대나무숲 페이지에서 맞춤법, 그중에서도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담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담화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행동 유도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이번 장에서 언급한 SNS의 특성과 함께 설명하려 한다. 또한 이에 나아가서 SNS에서 나타난 이러한 담화가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해 어떤 점을 시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2. 한국어 어문 규범

‘맞춤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어기본법(일부 개정 2009. 3. 18)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어 어문 규범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데, 표준어에 대한 규정을 국가 차원에서 고시했을 뿐더러 세부적인 조항과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조태린 2016). 이 중 본고의 연구 대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맞춤법 규정에서는 ‘표준어’를 적는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 역시도 관련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특히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문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어문 규정이 실생활의 언어와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짜장면’, ‘맨날’, ‘눈두덩이’와 같은 단어는 실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만 비표준어였으며, 이는 국민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어 규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추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통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기도 하였다(임규홍 1995, 안상순 2004, 안용순 2011 외). 또한 발음과 관련해서도 단모음 조항, 이중모음 조항, 소리의 길이 등이 현실 발음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안병섭 2010).¹⁾ 또한 이와 함께 <한글 맞춤법> 규정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띄어쓰기, 두음법칙, 사이시옷과 같은 표기 조항인데 해당 조항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하더라도 실제로 이 내용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이관규 외 2015). 특히 <한글 맞춤법>에서는 총칙으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서로 상충되는 원칙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 원칙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적 표기법 원리도 존재하고 있어 그 복잡성이 한층 더해진다(정희창 2011).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어문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특히 띄어쓰기의 경우 관련 어문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에 따라서 표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러한 규정을 모두 완벽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 역시 드물다(이관규 외 2015). 따라서 이러한 어문 규정이 국어기본법이라는 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법적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어 왔다(조태린 2008). 실제로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몇 조항들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이를 어긴다고 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강제성이 전혀 없고, 따라서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김세중 2005, 조태린 2008).

한편 이러한 어문 규정과 관련된 정반대의 비판 역시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한국어의 사용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창조적 사용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소수자의 언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길섭 2003, 문성준 2003). 이러한 주장은 특히 <표준어 규정>과 연관이 깊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어는 서울과 대비되는 다른 곳의 언어와, 교양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주변화하는 정의인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정오 관계나 우열 관계로 바라보게 하며, 표준어가 아닌 것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할 수 있다(조태린 2016). <한글 맞춤법>도 제1장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된 다른 비판은 이러한 표준어 정책이 성문화된 규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어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어떤 것이 표준어이고 어떤 것이 표준어가 아닌지를 제시해주는 성문화된 규범은 언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 언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언어에 대한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안상순 2004, 조태린 2016). 따라서 성문화된 표준어와 맞춤법에 대한 규정을 탈피하여 공통어를 향해 나아가거나(이상규 2004),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대중화하는 방안(조태린 2016, 정희창 2016)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계나 정책 관련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현실성, 정당성 등을 논하는 연구이며 실제로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1)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정희창(2018)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이 고시본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손대는 것은 법률의 개정과도 같아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시시각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편이다. 또한 어문 규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한 보고서나 연구에서도 현재 존재하는 어문 규범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나 수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이관규 외 2015, 김정태 2004, 국립국어원 2011, 국립국어원 2010 외), 막상 선행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어문 규정의 현실성이나 실효성, 정당성과 위험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춤법에 대한 페이스북에서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어문 규범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생성하고 고착화하며 전파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3. 데이터와 방법론

본 연구는 페이스북의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맞춤법에 대한 글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페이스북 대나무숲은, 페이스북의 페이지(Page)에 해당한다. 이러한 페이지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적으로 설립하는 일반 페이스북 계정과는 달리 몇몇 운영자를 주축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리며,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때 페이스북의 ‘대나무숲’ 페이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²⁾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대학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실명으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익명으로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페이지이다.

이러한 대나무숲 페이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집단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대학의 대나무숲 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각 대학의 대나무숲 페이지는 몇 명의 익명 운영자가 운영하며, 사람들은 이 운영자에게 별도의 신청 형식을 활용하여 익명으로 글을 투고할 수 있다. 대학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 이 과정에서 글의 작성자가 해당 대학의 관련자임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간소하게 마련되어 있다.³⁾ 이후 운영자가 이렇게 투고된 글들을 살펴보고 올릴 만한 글들을 추려 각 글에 번호를 붙여 페이지에 업로드한다. 이때 한 게시글에 한 개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비슷한 주제의 여러 글을 추려 한꺼번에 올리기도 한다. 이후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이에 댓글을 달 수 있으며, 댓글에도 대나무숲 페이지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글은 공개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제공되어 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페이스북의 대나무숲 중 ‘#맞춤법’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가장 반응⁴⁾(‘좋아요’ 포함)과 댓글이 높은 세 가지의 게시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게시글은 다음과 같다.

- A 대학교 대나무숲 - 글 1, 글 2
- B 대학교 대나무숲 - 글 1

2)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는 것을 본 임금님의 미용사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으며 이후 이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린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3) 대개 학교 공식 어플이나 포털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이는 해당 대학의 학생이 아니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이다. 물론 해당 대학과 관련이 없더라도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각 대학의 대나무숲에 투고된 글들은 대부분 해당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 교원 등의 관련자를 작성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페이스북의 게시글에는 버튼을 눌러 가장 기본적인 ‘좋아요’ 반응을 남길 수 있으며 싫어요, 화나요 등의 다른 반응 역시 남길 수 있다. 해당 반응은 한 사람이 한 게시글 당 한 번씩만 남길 수 있다.

- C 대학교 대나무숲 - 글 1, 글 2⁵⁾

가장 먼저 A 대학교 대나무숲에는 맞춤법에 대한 두 편의 글을 한꺼번에 올려 올리었으며, 총 191개의 댓글이 달려 있고 90개의 반응이 달려 있다. B 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한 편의 글을 올리었으며, 총 59개의 반응과 178개의 댓글을 보이고 있다. C 대학교 대나무숲에서는 역시 두 편의 글을 한 번에 올렸고 16개의 반응과 71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 대학들은 모두 서울·경기권의 4년제 대학이며, 대학교 대나무숲의 특성상 글의 작성자 역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일 확률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게시글들과 각각에 달린 댓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게시글들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담화 주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사용된 언어를 특히 논증(argumentation), 평가어(appraisal), 어휘 선택(lexical choices)에 집중하여 질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된 주제와 자주 사용되는 언어적 특질을 잡아낼 수 있었으며,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것(Sunderland 2000)에도 집중하며 소외되었거나 부재하는 주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귀납적 방식을 통해 ‘가능한’ 담화들을 식별해 낼 수 있었으며, 이들을 일정 주제로 이름 붙여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담화의 경계는 절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Mackenzie 2018). 담화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동적이고 해석적일뿐더러(Reisigl and Wodak 2009), 서로 병합하고 통합되고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van Leeuwen 2009; Jäger and Maier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해 낸 담화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해 주어진 담화가 아니라, 연구자가 텍스트에 밀접한 주의를 기울이며 해석적으로 구성해 낸 담화라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지배적(dominant)’ 담화와 ‘종속적(subordinate)’ 담화라고 언급한 담화들 역시 해당 담화들이 어느 맥락에서건 변함없이 영속적으로 지배적이거나 종속적이 아니라는 점 역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현재 분석되고 있는 텍스트에서만 지배적이거나 종속적으로 해석되며, 다른 텍스트에서는 그 관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4. 페이스북 대나무숲 맞춤법 담화 분석

4.1. 지배적 담화: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맞춤법’과 관련된 페이스북의 대나무숲 텍스트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맞춤법(혹은 어문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으로 여기는 담화이다. 이러한 담화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표준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91.1%가 찬성했다는 국립국어원(2011)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⁶⁾ 이 담화의 세부 담화로는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순수한 우리말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지키는 것이 옳은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대적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는 게시글 A2, B1, C1, C2에서 드러나며, 대부분의 댓글도 이 지배적 담화를 따르고 있다.

5) 각각의 글은 앞으로 A1, A2, B1, C1, C2로 지칭하도록 한다.

6) 물론 표준어의 문제와 맞춤법 표기의 문제는 서로 별개이다. 하지만 표준어로 대표되는 어문 규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들이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어법에 따라 적는 맞춤법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음을 뜻할 수 있다.

- (1) 여러분 생각보다 맞춤법 실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지도 몰라요. 스스로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쳐봅시다.⁷⁾ (A2)
- (2) 하나하나 다 말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맞춤법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 너무 거슬리고 다른 부분은 정말 다 괜찮은 친구인데 자꾸 망설여집니다... (B2)
- (3) 맞춤법 제발 지켜주세요.. 제가 맞춤법을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있지만 맞춤법에 대한 조언을 할때 그걸 받아들여주세요 (C1)
- (4)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첨부합니다 [...] (C2)
- (5) 왜 영어스펠링 틀리면 비웃으면서 한글맞춤법 틀리는 건 그러려니 해요...? (A의 댓글)

(1)~(4)는 각각 게시글 A2, B1, C1, C2의 일부이며, 이들이 모두 맞춤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에서는 맞춤법이 틀린 단어를 쓴다는 생각이 들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맞춤법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에서는 직접적으로 맞춤법을 제발 지켜 달라고 하고 있으며, (4)에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역시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 (5)에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를 이용하여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argument from comparison),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인 영어의 스펠링은 신경 쓰면서 한국어의 맞춤법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지배 담화에는 크게 맞춤법이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규칙이기 때문, 맞춤법이 순수한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 맞춤법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하위 담화가 존재한다.

- (6) 맞춤법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사회 구성원끼리 이렇게 쓰기로 정해 놓은 것이므로 지키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겠죠 (A의 댓글)
- (7) 예를 하나 들자면 많이들 혼용하는 단어중에 하나가 대개,대개인데 사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근데 이렇게 각각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을 혼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개 문맥의 흐름상 알아듣기는 합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단어의 뜻을 유추해 소통은 가능하지만 단번에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말 이에요 (A의 댓글)

(6)과 (7)에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이유로 맞춤법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임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담화는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논증은 ‘맞춤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합의한 의사소통의 규칙이다’의 논거(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맞춤법을 어길 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의 도출 규칙을 통해 ‘따라서 맞춤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이 올바른지(sound) 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단적인 예로 (7)에서는 ‘대개’와 ‘대개’를 맞춤법을 지키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지만, 이미 한국어에는 이 외에도 동형이의어가 많이 존재하며 큰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8) 맞춤법,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일반화되면, 자연히 '품사', '형태소' 지식도 소홀히

7) 데이터는 원 글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으며 가독성을 위해 줄바꿈만 무시하였다. 다만 작성자의 이름, 학교 이름, 교과목이나 교과목 교수 이름 등이 나오는 경우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였다.

하게 됩니다. 소리나는 대로 쓰고, 붙여 쓰고 마음껏 하게 되면, 반드시 범국민적인 품사, 형태소 지식의 취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런 것 하나 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점점 중요한 것까지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언어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C2)

(9)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 궁극적으로는 이유로는, 후손들에게 잘 정비된 우리말을 물려 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C2)

(10)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글 자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A의 댓글)

(8)~(10)에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맞춤법이 “언어의 오염”을 막고, “후손들에게 잘 정비된 우리말을 물려 주기 위함”이며, “한글 자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담화는 ‘순수한 우리말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로 이름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담화에서는 맞춤법을 어기는 것이 한국어/한글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오염된 한국어를 물려주게 되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의 텍스트이다. (8)에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곧 문법 지식의 소홀로 이어지고, 중요한 것을 무시하게 되며, 언어의 오염과 의사소통의 불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 논증 오류로, 하나의 그럴 법한 전제(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향)가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 결론(소통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법 지식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형태소나 품사와 같은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⁸⁾

위의 두 담화가 주로 논증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세 번째 하위 담화인 ‘지키는 것이 옳은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도덕적이거나 감정적인 평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1) 요즈음 연락하고 있는 썸녀가 있는데요 맞춤법을 너.. 무 틀립니다. (...) 너무 거슬리고 다른 부분은 정말 다 팬찮은 친구인데 자꾸 망설여집니다... (B1)

(12) 안사요아 맞춤법 브레이커 극혐이야... (B의 댓글)

(13) ㅋㅋㅋ평계되다ㅋㅋㅋ 진짜 수준떨어지네요 (A의 댓글)

(14) 1. 초 중 고 안나온 티좀 내지마요 제발 (A의 댓글)

(15) 도대체 왜?? 너무너무 무식해 보여요. 그리고 맞춤법 지적해주면 그냥 고치면 되지 왜 썸 곳이 틀린 것을 그렇게 고수하는지... (C의 댓글)

(11)~(15)는 모두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드러내고 있다. Martin and White(2005)의 평가어 체계(appraisal system)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관여(engagement), 태도(attitude), 점진(graduation)으로 나누고, 이 중 태도를 감정(affect), 판단(judgement), 가치 부여(appreciation)로 세분화했다. (11)~(15)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감정적 반응, 행동에 대한 판단, 사물에 대한 평가(Martin and White 2005: 30)”와 연결된 ‘태도’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감정(affect)’와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판단(judgement)’일 것이다. 이때 (11)~(15)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이 나타난다. (11)에서는 썸녀⁹⁾가 다 좋지만 맞춤

8)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태소나 품사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9)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여성.

법을 너무 틀려서 “거슬리고 망설여”진다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12)에서는 맞춤법을 틀리는 사람(“맞춤법 브레이커”)이 “극혐¹⁰⁾”이라며 역시 부정적인 감정을 서술한다. (13)~(15)에서는 맞춤법을 틀리는 사람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이 드러나는데, 수준이 떨어지고(13),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으며(14) 무식해 보인다(15)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히 (13)~(15)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판단이 모두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적) 수준이 낮고 무식하다고 평가받으며 특히 정규 교육을 못 받은 것으로 비하된다. 특히 (14)는 A에 달린 댓글인데, 맞춤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A2 텍스트는 가장 말미에 “기초적인 맞춤법은 지키는 OO인이 됩시다!”라며 자신의 대학을 언급하고 있다. A의 글이 실린 대나무숲은 서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진 명문대로 해당 글은 맞춤법과 이러한 명문대로서의 자부심을 결합하여 ‘명문대를 다닐 정도의 사람이면 기초적인 맞춤법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14)에서처럼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주장으로 도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맞춤법은 단순한 어문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며,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배운 우리’와 ‘못 배운 그들’을 나누는 경계로 작용한다.

위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이라는 지배적 담화는 페이스북의 다양한 행동 유도성을 통해 촉진되며 구성된다. 먼저 페이스북에서는 각 게시글이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간단하게 반응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맞춤법을 지키자는 글(A2)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글(A1)이 모두 있는 A의 경우 맞춤법을 지키자는 내용의 댓글들에는 좋아요가 285개, 64개, 317개 등으로 높다. 반면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댓글에는 좋아요가 4개 정도로 적은 편이며 다시 댓글이 20개가 넘게 달려 활발한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댓글과 반응이라는 페이스북의 장치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요하게 사용된 기능 중 하나는 태그(tag) 기능이다. 페이스북에서는 다른 사용자를 태그해서 해당 게시글을 보거나 자신의 댓글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사람들은 댓글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펼치는데, 이때 논쟁 대상자를 태그하여 해당 발언이 누구의 의견에 대한 논쟁인지를 밝히기도 한다. 특히 맞춤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댓글에 대해 해당 댓글의 어느 부분이 맞춤법이 틀렸는지를 이러한 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지적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맞춤법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맞춤법에 대한 글의 맞춤법 그 자체를 지적하는 데에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동 유도성이 활용된 것이다. 이 역시도 맞춤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참여자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맞춤법 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댓글에서 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이 담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친구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때 참여자들은 원 게시글의 작성자나 이 게시글을 읽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가 태그한 친구’와의 사적 대화를 열게 된다.

(16)

참여자1: @11)참여자2 충 아닙니다 T.TT

참여자2: ㅋㅋㅋ앞으로더조심하겠습니다악! 세종대왕만세

10) 극도로 혐오할 만한 것.

11)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가 보이지는 않지만 표시를 위해 본 원고에서는 태그된 부분 앞에 @ 기호를 넣어 표시하였다.

(16)은 A에 달린 댓글이다. A1에서는 맞춤법을 지적하는 사람을 ‘맞춤법’과 별레를 나타내는 ‘총’을 합쳐 ‘맞춤법총’으로 표현했는데, (16)에서는 이에 대해 친구를 태그하여 자신은 총(별레)가 아님을 말하고 있고, 태그된 친구는 앞으로 친구가 자신을 지적할 일이 없도록 맞춤법을 신경 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는 이들 사이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다. 태그라는 페이스북의 행동 유도성을 통해 이들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페이스북의 대나무숲 게시글에서 사적 대화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6)의 대화 역시도 근본적으로 맞춤법은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 종속적 담화: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로서의 맞춤법

4.1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텍스트에서는 지배적 담화를 다루었다면, 4.2와 4.3에서는 이에 대항하는 종속적 담화들을 다루려 한다. 이들은 지배적 담화와 함께 존재하며, 지배적 담화와 경합하는 대안적인 담화로서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로서의 맞춤법’이며, 이는 게시글의 A1 텍스트와 몇몇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4.1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는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수반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로서의 맞춤법’ 담화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볼 수 있다. 해당 담화는 지배적 담화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나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규칙인 맞춤법’, ‘다 아는 사람이 없는 규칙인 맞춤법’ ‘강요할 수 없는 규칙인 맞춤법’의 세 가지 세부 담화로 이어진다.

- (17) 니들이 세종대왕이라도 돼요? 맞춤법 좀 더 안다고 그거 지적하면서 정신승리 하고있을거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나와요 남친이 맞춤법 틀렸다고 정떨어진다는등 그런글 보면 기가 찹니다 너는 뭐가 잘났길래?ㅋㅋ (...) 세상 모든 맞춤법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18) 맞춤법 검사기에 작성자들이 쓴 글 돌리면 틀린게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
- (19)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계도하고 도와준다는 (자신만의)생각으로 자꾸 맞춤법 가르쳐 주려는 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 (20) 그래도 좀 무시하는투로만 지적하지 않는다면 맞춤법 틀렸다는 생각을 인지하고 고칠 의향이 들긴하는데 고쳐주는 어투가 좀 문제가 가끔 있는거 같아요

(17)~(20)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에 대응하는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로서의 맞춤법’ 담화가 나타난다. 해당 담화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며, 맞춤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맞춤법총”(17)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들어간 어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¹²⁾

해당 담화의 세부 담화인 ‘중요하지 않은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는 (17)에서 암시된다. (17)에서는 맞춤법 “좀 더” 안다고 “그거” 지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어휘 선택은 글쓴이가 맞춤법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규칙이라고 생각함을 암시한다.

12) 이러한 극단적 어휘 사용은 서론에서 제시한 SNS 토론의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단하지 않은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떨어졌다” 등의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세부 담화는 ‘다 아는 사람이 없는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이다. 맞춤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7)에서도 이에 대해 “니들이 세종대왕이라도” 되냐며 지적하고 있으며, (18)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춤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도 검사기에 걸리면 틀린 게 많을 정도로 맞춤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서로의 맞춤법을 교정해 가며 맞춤법을 지킬 것을 옹호하는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역시 올바른 (sound) 논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부 담화는 (19)에서 나타나는 ‘강요할 수 없는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종속적 담화는 맞춤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지배적 담화에 대한 반향으로 생긴 담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맞춤법은 지배적 담화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김세중(2005)이나 조태린(200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어문 규정에 실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성문화하는 것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담화에서는 “상대를 계도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맞춤법을 지적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4.1에서 제시한 것처럼 맞춤법을 상대의 지식 수준을 판단하는 기제로 삼아 우리/그들을 나누어 상대를 비하하는 담화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이는 (20)에서도 상술되는데, (20)에서는 맞춤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는” 투와 “고쳐주는 어투”가 더 문제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맞춤법 그 자체보다는 맞춤법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담화에서는 지배적 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완전한 언어가 있다는 전제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1) 개인적으로는 맞춤법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자기는 정작 말할때 야민정음이나 급식체로 말하는 사람이 더 극혐 (C의 댓글)

(21)에서는 맞춤법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야민정음이나 급식체와 같은 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맞춤법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언어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이상적인 언어가 있다는 전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화 역시도 페이스북의 행동 유도성을 통해 생성되고 강화된다. 4.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그 기능을 사용해 맞춤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참여자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맞춤법을 지적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는 참여자들이 논쟁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담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친구를 태그해서 서로 사적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예를 들면 A의 댓글에서는 친구를 태그해서 “@참여자3 내 맞춤법 존중해종~~~”과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평소 자신의 맞춤법을 지적하는 친구에게 이러한 일이 무례한 일일 수 있다는 A1의 글을 보여주며 자신의 맞춤법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적 발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도 공적 담화와 사적 담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NS 언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인터넷상에서 담화를 펼치는 사용자들이, 현재 담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담화를 상호 참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뜻만 통하면 됐지, 씹선비새*야! 라는 짤이 생각난당



그림 1. (22)에서 언급된 이미지

(22)에서 언급한 ‘짤’은 인터넷 공간에서 유명세를 얻은 자투리 이미지 파일을 일컫는 속어이다. 이때 (22)의 작성자가 언급한 것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만화의 대사를 바꾼 패러디로, 맞춤법을 지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낸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4.1의 지배적 담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담화에 대항하는 4.2의 종속적 담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과장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22)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의 한 구절을 언급만 하고 있다. 즉, SNS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사용은 글을 읽는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을 강화하며,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가 일정 정도의 내집단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4.3. 종속적 담화: 일반적인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4.2의 종속적 담화가 4.1의 지배적 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존재하는 담화라면,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는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담화이다.

- (23) 글과 언어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맞춤법을 지켜서 뭐합니까... 게다가 단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언어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고 맞춤법은 '규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맞춤법 역시 언어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A의 댓글)
- (24) 맞춤법을 어기는 일이 그 정도로 큰 위기는 아닌데요.... (C의 댓글)
- (25) 사회적 약속인건 인정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언어인 것을.. 어차피 다 부질없다 ㅎㅎㅎ (C의 댓글)¹³⁾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담화에서는 지배적 담화인 ‘규칙으로서의 맞춤법’ 담화와는 다르게 맞춤법을 어긴다고 해서 큰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역설한다. (24)에서는 지배적 담화를 드러내는 C의 주장에 대해 맞춤법을 어기는 것이 그 정도로 큰 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적 담화의 세부 담화 중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에서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편 (23)과 (25)에서는 언어가 변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적 담화의 세부 담화 중 ‘순수한 우리말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에 대응되는 반론이다. 언어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므로 지금의 언어를 굳이 순수하게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23)에서는 ‘언어와 글’을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4.1의 담화에서 사람들이 표기의 문제인 맞춤법과 언어의 문제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올바른 지적이다. 이는 특히 흥미로운데, 언어와 표기를 혼동하는 문제는 정희창(2018)에서 “표준어와 맞춤법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거나 둘의 개념을 혼동한 듯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맞춤법 규정상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2의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로서의 맞춤법’이 지배적 담화의 세부 담화인 ‘지키는 것이 좋은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에 대한 반론이었다면, 4.3의 ‘일반적인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담화는 나머지의 두 세부 담화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4.2의 종속적 담화는 보다 감정적이고 평가적이며, 4.3의 종속적 담화는 자연스럽게 보다 논증적인 모습을 보인다.

5. 어문 규범과 맞춤법층 이데올로기

앞선 분석을 통해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 나타난 맞춤법과 관련한 담화에는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여기는 담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응되는 종속적 담화인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로서의 맞춤법’과 ‘일반적인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담화가 존재한다. 또한 이는 반응 표시나 댓글, 태그와 같은 페이스북의 행동 유도성으로 인해 허용되고, 강화되며, 종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담화의 기저에는 일정한 ‘올바른 언어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는 지배적 담화인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맞춤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문 규범으로 상징되는 ‘올바른 언어’가 있으며, 언어 사용자 모두는 이 올바른 형식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준 낮고, 무식하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서울과 경기권의 4년제 대학이며, 특히 이러한 담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난 A 대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명문대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기초적인 맞춤법은 지키는 OO인”이 되자며 명문대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맞춤법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키며, 반대로 외집단인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초·중·고 안 나온 티”를 내지 말라며 비하한다. 이때 맞춤법을 지키는 것과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은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설령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이 ‘무식하거나 수준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맞춤법을 지켜야 한다는 담화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맞춤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비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표상하는 지배적 담화에서 가장 두드

13) 이와 같은 규범으로서의 맞춤법을 주장하는 담화는 A나 B보다는 C의 댓글에서 자주 보인다. 이때 C의 댓글에서는 특정 교수 이름과 교과목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C의 대학교에서 해당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이 수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러지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담화에서도 부정되지 않는다.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로서의 맞춤법’ 담화는 지배적 담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담화이기 때문에 지배적 담화에 종속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담화이다. 게다가 이러한 담화에서도 맞춤법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완벽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할 뿐, 이러한 변이형(틀린 맞춤법)이 동등한 언어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맞춤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차별하는 일에 반발할 뿐, 이러한 맞춤법 자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21)에서처럼 맞춤법보다 줄임말이나 속어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단일한 형태의 이상적 언어가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맞춤법을 일종의 가이드로 이해하는 ‘일반적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담화에서는 이러한 맞춤법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26) 띄어쓰기는 니뻐.내뻐인게 많아서 확실한 이겁니다!!! 보다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게 굳이.대표로 말하자면 요거쯤? 이런느낌ㅋㅋㅋㅋ (C의 댓글)

(26)에서는 띄어쓰기에 대해 언어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어문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굳이 대표를 제시해야 한다면 그 대표형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어문 규범을 따르지 않는 띄어쓰기 형태도 동등한 자격을 갖는 언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26)에서의 주장은 전체 어문 규범 중에서도 띄어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일반적 규범으로서의 맞춤법’의 나머지 담화 역시 언어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때 언어의 변화 역시도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가 단일하게 변화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김세중(2003)이나 조태린(2008) 등에서 제기한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표준어 규정을 성문화하고 하나의 표준어를 이상(ideal)으로 제시하는 것은, 표준어와 비표준어 사이의 정오 관계나 우열 관계를 낳을 수 있으며, 방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실제 담화에서 사실로 나타나며, 단순한 언어에 대한 차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이 맞춤법을 사용하여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데올로기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대표되는 한국어 어문 규범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태린(201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다.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울말”로 정의한 것은 물론, 이러한 표준어에 대한 세세한 규정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과 예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실제 담화에서 활용되며, 하나의 단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기여한다.

(27) 안녕하세요? 아시는 것과 같이 앞의 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 받침이 없으면 ‘-이예요’ 를 줄여 ‘-예요’ 로 씁니다. [...] 표준어 규정 26항에서 복수 표준어로 삼은 ‘-이에요’ 와 ‘-이어요’ 는 ‘이다’ 의 어간 뒤에 ‘-예요’ , ‘-이어요’ 가 붙은 말이다. ‘-이에요’ 와 ‘-이어요’ 는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 , ‘-이어요’ 로 줄어들기도 한다. (A의 댓글)

(27)에서의 참여자는 ‘-예요’와 ‘-이에요’에 대한 논쟁 중 한 표준어규정 26항을 들어 자신의 논

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표준어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맞춤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맞춤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의 언어로 정의한 규정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공개 페이지 중 대학의 대나무숲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맞춤법에 대해 어떠한 담화가 표상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에 나아가서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행동 유도성이 이러한 담화를 어떻게 가능케 하고 강화하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담화가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서는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여기는 담화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세부적으로 맞춤법은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규칙이며, 순수한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며, 지키는 것이 도덕적으로/감정적으로 옳은 일인 규칙이라는 담화로 이어진다. 이중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규칙이라는 담화와 순수한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라는 담화는 맞춤법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하는 논증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규칙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감정적이고 판단적인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배적 담화에 대응하는 종속적 담화로는 맞춤법이 단지 상대를 판단하는 기제에 불과하다는 담화가 있으며, 이는 맞춤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지배적 담화의 세부 담화에 대한 반발이다. 이 담화에서는 맞춤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완벽히 아는 사람이 없고, 강요할 수는 없는 규칙이라는 세부 담화를 보인다. 한편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과 순수한 우리말을 위한 규칙이라는 지배적 담화의 세부 담화에 대응하는 종속적 담화로는 ‘일반적 규범으로서의 맞춤법’ 담화가 있다. 이 담화에서는 맞춤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일종의 대표형이나 안내자에 불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언어가 손상되는 것은 아님을 논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담화들, 특히 지배적 담화가 맞춤법을 사용하여 옳은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를 나누며, 나아가 그렇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하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물론 본고의 결과는 맞춤법에 대한 간접적인 탐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폐기해야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앞서 여러 학자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표준어 규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방식으로 성문화된 한국어 어문 규범이 언어 사용자들의, 특히 대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맞춤법을 근거로 하여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표준어 규정>을 비롯한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논의에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참고 문헌

고길섭. 2003. “문화관광부의 언어정책 개혁방안”, 『언어정책 60년 평가와 언어정책 개혁의 방향 공개정책토론회 자료집』, 33-6.

- 곽면선. 2019. SNS 커뮤니케이션에서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난 세대 간 언어의 격차 분석: 화용론적 관점에서. 『언어연구』 35(2), 161-183.
- 국립국어원. 2010.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국립국어원. 2011.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 김세중. 2005. “국어기본법 시행의 의의”, 『새국어생활』 15-3, 7-23쪽.
- 김정태. 2004. 대학생들의 맞춤법 인식과 실제, 『학생생활연구』 30, 17-41.
- 문성준. 2003. “언어관련 법령 제정의 비판과 대안 - 국어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언어정책 60년 평가와 언어정책 개혁의 방향 공개정책토론회자료집』, 67-107.
- 박동근. 2001. 통신 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어문학연구』 11, 1-16.
- 안미경. 2019.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에서의 언어적비언어적 공손 전략 분석. 『담화와 인지』 26(2), 49-66
- 안병섭. 2010.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한국학연구』 33, 123-141
- 안상순. 2004.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14(1), 67-83.
- 안용순. 2011. 시험에서는 자장면을 쓰고 나와서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외치는 학생들, 이제 고민하지 마!. 『새국어생활』 21(4), 111-114.
- 이관규, 주세형, 정지현. <한글 맞춤법> 쟁점 조항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연구, 『문법 교육』 23, 183-207.
- 이상규. 2004. 방송언어와 방언, 『방송과 우리말』 1, 11-29.
- 이정복. 2000.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193-221.
- 이정복. 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 이정복. 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 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27, 37~79.
- 이정복. 2010. 인터넷 통신 공간의 여성 비하적 지시 표현. 『사회언어학』 18(2), 215-247.
- 이정복. 2013.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어문학』 120, 55-83.
- 임규홍. 1995. 개정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 잘못에 대하여, 『모국어교육』 13, 21-46.
- 임규홍. 2000. 컴퓨터 통신 언어에 대하여. 『배달말』 27(1), 23-59.
- 정희창. 2016. 어문 규범의 대중화와 국어사전. 『어문학』 131, 55-73.
- 정희창. 2018. ‘한글 맞춤법 해설’의 분석과 발전 방향. 『반교어문연구』 48, 13-31.
- 조태린. 2008.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국어기본법 다시 보기. 『한말연구』 24, 241-265.
- 조태린. 2016. 성문화된 규정 중심의 표준어 정책 비판에 대한 오해와 재론. 『국어학』 79, 67-104.
- 최경봉. 2011.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 『새국어생활』 21(4), 5-20.
- Breazu, P., and Machin, D. 2019. Racism toward the Roma through the affordances of Facebook: bonding, laughter and spite. *Discourse & Society*, 30(4), 376-394.
- Fielder, G., and Catalano, T. 2017. Othering others: Right-wing populism in UK media discourse on ‘new’ immigration. In Chovanec, J., and Molek-Kozakowska, K. (eds) *Representing the Other in European Media Discourses*. London: New York: John Benjamins, 207-234
- Fuchs, C., & Sevignani, S. 2013. What is digital labour? What is digital work? What’s their difference? And why do these questions matter for understanding social

- media?. TripleC: Communication, capitalism & critique. *Open access journal for a global sustainable information society* 11(2), 237-293.
- Jäger, S. and Maier, F. 2009.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of Foucauldia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dispositive analysis. In Wodak, R. and Meyer, M.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London: SAGE, 62-89.
- Kahn, R., and Kellnei, D. 2004. New media and internet activism: From the 'Battle of Seattle' to blogging. *New Media & Society* 6. 67-95.
- Kelse, D., and Bennett, L. 2014. Discipline and resistance on social media: Discourse, power and context in the Paul Chambers Twitter Joke Trial. *Discourse, Context & Media* 3, 37-45.
- KhosraviNik, M., & Zia, M. 2014. Persian nationalism, identity and anti-Arab sentiments in Iranian Facebook discourse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social media communic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13(4), 755-780.
- KhosraviNik, M., and Unger J. W. 2015. Critical discourse studies and social media: Power, resistance and critique in changing media ecologies. In Wodak, R. and Meyer, M.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London: SAGE, 205-233.
- Krzyżanowski, M., and Ledin. P. 2017. Uncivility on the web.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16(4), 566-581.
- Mackenzie, J. 2018. 'Good mums don't, apparently, wear make-up': negotiating discourses of gendered parenthood in Mumsnet Talk. *Gender and Language* 12(1), 114-135.
- Martin, J. R., & White, P. R.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 Morozov, L. 2011. *The Net Delusion: Hot / Not to Liberate the World*. London: Allen Lane.
- Papacharissi, Z. 2015. *Affective Publics: Sentiment, Technology,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isigl, M., & Wodak, R. 2016.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DHA). In Wodak, R. and Meyer, M.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London: SAGE 23-61.
- Ritzer, G., & Jurgenson, N. 2010. Production, consumption, prosumption: The nature of capitalism in the age of the digital 'prosumer'.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0(1), 13-36.
- Sunderland, J. 2000. Baby entertainer, bumbling assistant and line manager: Discourses of fatherhood in parentcraft texts. *Discourse & Society* 11(2), 249-274.
- Van Leeuwen, T. 2009. Discourse as the recontextualization of social practice: a guide. In Wodak, R. and Meyer, M.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London: SAGE, 144-161.
- Wodak, R., & Wright, S. 2006. The European Union in cyberspace: multilingual democratic participation in a virtual public sphere?.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5(2), 251-275.

■ 토론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의 ‘맞춤법총 담화」에 대한 토론문

이대성(국립국어원)

국어 어문규정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양면적이다. 의사소통과 정보유통에서 정확한(또는 규범에 맞는)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그것이 자신의 문제로 닥칠 때는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언어 사용을 제약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발표자의 논문을 통해 이러한 언어대중의 인식을 낱것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몇 가지 의견을 적는다.

1. 대나무숲의 게시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

토론자가 보기엔 분석 대상 다섯 편 모두 꼭 대학생 전용 게시판이 아니어도 맞춤법에 관한 한 여느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식 수준과 논리 전개의 글들이어서 굳이 대나무숲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궁금하다. 논문의 결론에서 “성문화된 한국어 어문규범이 언어 사용자들의, 특히 대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발표문의 내용만으로는 어째서 ‘특히’ 대학생들에게 어문 규범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어문규범에 관해서는 대학생들(마저)도 여느 국민들과 다르지 않은 인식 수준에 있다는 점을 끄집어내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이예요’로 쓴 사람과 ‘이예로’로 쓴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쓴 것일까?

국어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개념들이 있다. 우선 ‘한국어’와 ‘한글’이 그러하고, ‘한글’과 ‘순우리말’이 그러하다. ‘한글맞춤법’(표기 규범)과 ‘표준어규정’, ‘바른표기’와 ‘표준어’도 구분해야 할 개념이다. 어문규범이나 언어정책에 관한 비평에서 이런 개념들을 혼동하거나 뒤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발표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게시글들도 그러하다. 가령,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잘 정비된 우리말을 물려주기 위함이라든지, 한글 자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라든지 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그러하다. 그런데 발표문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호응하는 듯한 기술이 눈에 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실제 담화에서 사실로 나타나며, 단순한 언어에 대한 차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맞춤법’은 그 자체가 ‘언어’는 아니다. ‘표기법’이다. ‘이예요’를 ‘이예로’로 표기했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물론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이예요’로 표기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다른 언어를 써서가 아니라 ‘바른(또는 규범에 따른) 표기’를 하지 않아서인 것이다.

3. 이른바 배제와 차별의 원인이 맞춤법이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인가, ‘맞춤법’ 자체 때문인가? 아니면, ‘맞춤법 정책’ 때문인가?

‘이예요(→이예요), 햇님(→해님), 곱배기(→곱빼기)’처럼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표기를 틀리

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바블(→밥을), 멍는다(→먹는다)’처럼 정규교육을 받았다면 거의 틀리지 않을 표기를 틀리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같은지(또는 같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발표문에 따르면, ‘성문화된 어문 규정은 배제와 차별의 기제’가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어문 규정 폐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배제와 차별’이 정말 ‘성문화된’ 규정 때문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밥을 먹는다’도 조사와 어미는 구분해서 적도록 한 한글맞춤법의 성문화된 규정에 의한 것이다. 또한, 성문화된 맞춤법이 없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이왕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나 아는 관습화된(또는 교과서나 공영방송에 적용하는) 표기를 다르게 표기하더라도 취업이나 승진, 대인 관계 등에서 과연 불이익을 안 받을까 싶다. 성문화 여부, 맞춤법 자체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춤법을 교육하고 사회 전반에 적용해 온 언어 정책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4. 맞춤법을 모르거나 틀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가, ‘무시’하는 것인가?

어떤 대상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행태이다.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을 ‘같은 무리에 들지 못하게 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식하거나 무책임하다고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같은 행태로 한데 묶어서 보기보다는 정밀하게 나누어 본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